韓國研究財團 登載學術誌

Journal of Japanese Studies

日 本 研 究

第72號

2017. 6

韓國外國語大學校

日 本 研 究 所

日 本 硏 究

•第72號•

〈目 次〉

【日本學】

쇼와유신과 니치렌슈 ····· 노병호··· 7
–1930년대 일본의 정념・궐기・좌절의 사상사적 배경–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 ····· 사사노 미사에··· 37
–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영화『꿈』(1990)에 그려진 삶과 죽음 ····· 조은애··· 65

【日本文學】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의 일본전통론과 한국의 미 ····· 강소영··· 89
韓日古典の中に見える「笑い」と「怒り」の計量文献学的な比較考察(二) ···· 琴榮辰···111
–作家及び作品間の相対比率をめぐって–
공해(公害)사건 문학의 시스템 및 가치 고찰 ····· 김경인···133
–일본의 공해사건과 문학을 중심으로–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복합오염(複合汚染)』의 형식적 변이 ·· 김성은···159
『계간 삼천리』연구 ····· 김용안···177
–「우키시마마루호 폭침」기사를 중심으로–
일본 고전 산문 작품에 나타난 신라의 형상 ····· 김효숙···201
–문학으로 본 역사–
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 ····· 류정선···221
–우라시마(浦島)전설을 중심으로–
미야자와 겐지 시와 이와테의 자연 ····· 심종숙···245
–'빛' 표현을 중심으로–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에 대한 표현양상 ····· 이미경…265
–9월부터 11월까지 기록을 중심으로–
입센의 한・일 수용과 그 의미 ····· 최재철…283
–‘개인’의 발견, 자주성과 관련하여–

【日本語學】

한일사전의 색채형용사 의미 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 ····· 고은숙…313
일본인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 ···· 차소영・이은미…335
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と名詞文 ····· 崔瑞暎…355
일본어투 용어순화의 어려움 ····· 황광길…377

【日本學】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7－35쪽 10.15733/jast.2017..72.7

쇼와유신과 니치렌슈*
－ 1930년대 일본의 정념・궐기・좌절의 사상사적 배경 －

노 병 호**

< 目 次 >

Ⅰ.들어가며
Ⅱ. 1930년대 일본의 쇼와유신과 니치렌슈
Ⅲ. 쇼와유신과 니치렌슈: 결합의 제 상
1. 이노우에 닛쇼: 천황에의 절대적 귀의
2. 이시하라 간지와 니치렌슈
3. 기타 잇키의 니치렌슈: 독사・영고・사명감
4. 니시다 미쓰기의 니치렌슈: 왕불합일의 니치렌슈
5. 이소베 아사이치의 니치렌슈: 죽음을 마다않는 사명감
Ⅳ. 쇼와유신의 동력이자 한계였던 니치렌슈
1. 쇼와유신의 동력으로서
2. 쇼와유신을 좌절시킨 니치렌슈
3. 국체(천황) 관념의 극대화・왜소화의 동일한 배경으로서
Ⅴ. 결론을 대신하며

Key Words : 日蓮宗(nichirensyu), 昭和維新(syouwaisin), 1930(1930s), 超国家主義(choukokkasyugi), 磯辺浅一(Isobe Asaichi)

Ⅰ. 들어가며

니치렌슈(日蓮宗)는 가마쿠라시대 승려 니치렌(日蓮)에 의해 성립된 법화종 계열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법화종 계열의 종교가 가장 중시하는 불교 경전은『법화경(法華経, 妙法蓮華経)』이다. 법화경의 사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196)
** 강원대학교 일본학과 시간강사. 근현대 일본 정치사상사 전공.

에서의 인간적 활동(보살행도, 菩薩行道)을 촉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부처님의 구원을 믿고 대응하면 어떤 문제든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경전의 제목 자체 즉『법화경(Sadd harma-pundarīka-sūtra, 妙法蓮華経)』이다. 사다르마(妙法)는 '진리'에 대한 정의, 수트라(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에 관계된 것, 중간의 푼다리카(蓮華)는 '보살'을 의미한다. 요컨대 우주의 통일적 진리는 영원히 살아 있는 인격적・생명적 진리로서 현실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1)]

한편『법화경』의 행자는 니치렌이다. 그는『입정안국론(立正安国論)』을 1260년 8월 31일 가마쿠라막부 5대 싯켄(執権) 호조 도키요리(北条時頼)에 보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정법(正法)인『법화경』을 따르지 않고 사법(邪法)인 정토종(浄土宗) 등을 믿는다면, 내란이 일어나거나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되므로『법화경』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태(安泰 즉 安国)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니치렌의 진언은 가마쿠라 막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니치렌은 탄압을 당하거나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로 인해 니치렌은 현실과 대결하게 되었다. 현실과 대결하게 된 니치렌은 수동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역사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현실개혁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것이다.[2)]

이후 이러한 에너지는 수많은 니치렌 추종자들에 의해 답습된다. 대표적으로 니치렌 사후 650여년이 지난 1930년대의 일본에서 격렬하게 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이 동일한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니다.[3)] 변혁을 지향하는 격렬한 성격의 인간이『법화경』과 접하면, (1)기성의 니치렌슈 신자 일파와 합류하여 단지 신자로 머무르든가, (2)독립하여 새로운 니치렌슈 일파를 형성하든가, (3)단독자로서 니치렌에 합일화해 가든가, (4)천황제 국가라는 배경 하에서 약간의 내적인 거리는 있지만 충효일치・군신일가・천황주권의 '국체'와 신앙에 완전히 합일하든가, (5)천황제 국가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든가, (6)천황제 자체 혹은 일본

1) 田村芳朗(1969)『法華経』中央公論 pp.119-120.
2) 前掲書 pp.118-119.
3) 宮本盛太郎(1975)『北一輝研究』有斐閣 p.137을 재구성.

의 국체에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분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점을 1930년대로, 방법을 정치적・군사적・테러 행위로, 주체를 당시 가장 과격했던 여러 행위자들에 맞추는 경우,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로 "과격한 수단을 통해 정치적 변혁을 지향했던 일련의 정치적・군사적 혹은 테러 행위"를 자행했던 이른바 쇼와유신(昭和維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쇼와유신의 주역들의 정치사상은 천황중심적 국가주의, 급진주의, 군사적 행동주의, 천황기관설 등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주역들 대부분이 정치사상의 상위를 떠나 니치렌슈의 신자로서 상기 니치렌슈의 성격 (4)(5)(6)을 개별적 혹은 혼재된 형태로 보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쇼와유신에 끼친 니치렌슈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1930년대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근대일본과 니치렌슈의 관계 특히 쇼와유신에의 영향을 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 쇼와유신의 각 주역들에 대한 니치렌슈의 영향을 논한 연구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것처럼 많은 수를 헤아리지만, 종합적인 연구로는 오타니 에이치(太谷栄一)에 의해 2001년에 출간된『近代日本の日蓮主義運動』法藏館과, 다무라 요시로(田村芳朗) 등에 의해 1972년에 출간된『日本近代と日蓮主義』春秋社 등 소수에 불과하다. 전자는 주로 상기의 (1)(2)(3) 즉 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필자의 문제의식과 가장 가까운 저서로서 분석의 내용을 크게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분석의 시점이 1930년대의 쇼와유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1930년대의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쇼와유신의 여러 주역들의 사상을 그들의 공통분모였던 니치렌슈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Ⅱ. 1930년대 일본의 쇼와유신과 니치렌슈

1930년대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발생한 국내적인 모순의 극대화, 제국주

의적인 대외팽창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들,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다수의 암살・테러와 쿠데타 등 대형 사건의 빈발이었다. 이들 사건의 배후로는 우익의 사상가 및 행동가, 육해군의 장교, 육군의 황도파 청년장교들을 들 수 있다. 이들과 교차하는 또다른 배후로는 Ⅲ・Ⅳ장에서 소개하게 될 일련의 니치렌슈 운동을 전개한 인물들과 니치렌슈 신자들이었다. 아래의 표는 1930년대 대사건의 주역들 대부분이 니치렌슈 신자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니치렌슈의 영향을 받은 이들 주역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암살・쿠데타라는 수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표 1> 1930년대 일본의 제 사건・주요 인물들과 니치렌슈

	명칭	관련 조직/인물	피해자	니치렌슈	비고
30. 11.14	浜口雄幸 저격사건	愛国社 佐郷屋留雄	浜口雄幸 31년 8월 사망		
31	만주사변 발생	石原莞爾 板垣征四郎	32.3.1 만주국건국	石原莞爾, 板垣征四郎 모두 신자	
31	3월사건	육군 중견장교	宇垣一成를 수반으로 한 군사정권수립 획책		
	10월사건	육군참모본부 橋本欣五郎 민간우익 大川周明 쿠데타미수사건		井上日召 신자	
32. 2.9 3.5	血盟団 사건	井上日召	西園寺公望 牧野伸顕 井上準之助 (사망) 団琢磨(사망)	井上日召 신자	“一人一殺”
32. 5.15	5.15사건	橘孝三郎 愛郷塾 해군청년장교 육군사관후보생	犬養毅 암살사건		“門答無用 撃て!”
北一輝	北一輝	육군청년장교	2.26사건에 관여	北一輝 신자	
西田税	西田税	육군청년장교	2.26사건에 관여	西田税	

				신자	
36. 2.26	2.26사건	2・26사건의 결행자 野中四良, 河野寿, 香田清貞, 安藤輝三, 栗原安秀, 竹嶌継夫, 対馬勝雄, 中橋基明, 丹生誠忠, 坂井直, 田中勝, 中島莞爾, 安田優, 高橋太郎, 林八郎, 村中孝次, 磯部浅一, 渋川善助, 水上源一, 北一輝, 西田税 기타: 1480여 명의 하사관과 병사	高橋是清, 斎藤実, 渡辺錠太郎, 松尾伝蔵 및 경찰관 5명 살해 岡田啓介, 牧野伸顕는 중상 경찰관 수 명도 부상	거의 모두 신자. 하지만 특히 磯部浅一, 北一輝, 西田税 가 눈에 띔.	"尊皇討奸" . 자결자: 野中四郎, 河野寿, . 7.12 사형: 磯部・村中를 제외한 15명 . 37.8.19 사형: 北一輝, 西田税, 磯部, 村中 4명

먼저 1930년 11월 14일 당시 수상인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가 현양사계 우익단체 애국사(愛国社) 멤버인 사고야 도메오(佐郷屋留雄)에 의해 저격된다. 하마구치는 다음해 8월 사망한다.

1931년 9월 18일에는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및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등에 의해 만주사변(満州事変)이 발생한다. 만주사변은 1932년 3월 1일 일본의 괴뢰정권 만주국(満州国) 건국으로 이어진다. 이시하라는 만주국 건국의 주역이다.

동년 일본 국내에서는 3월 사건과 10월 사건이 발생한다. 3월 사건은 육군 중견장교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육군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군사정권 수립을 획책한 사건이고, 10월 사건은 육군 참모본부 하시모토 긴고로(橋本欣五郎)와 민간 우익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가 주도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다. 10월 사건에는 후술하는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가 가담했다. 이노우에는 요인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0월 사건의 검거를 피한 이노우에는 새로운 암살 대상자로 원로인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顕), 전 오쿠라(大蔵) 대신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미쓰이(三井) 그룹 단 다쿠마(団琢磨)를 선정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노우에는 혈맹단(血盟団)을 조직하고, "1인 1살(一人一殺)"을 지령하여, 1932년 2월 9일과 3월 5일 각각 이노우에 준노스케와 단

다쿠마를 사살한다. 이른바 혈맹단사건이다.

동년 5월 15일 농본주의 우익인 다치바나 고사부로(橘孝三郎, 이노우에와 깊이 관련된 인물)의 영향 하에 있던 아이쿄주쿠(愛郷塾)의 주쿠생, 해군 청년장교, 육군사관후보생이 수상관저에 침입하여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총리대신을 습격했다. 이들은 "문답 불필요, 쏴!(問答無用, 撃て!)"를 외치고 이누카이 수상을 암살했다. 이를 5・15사건이라고 한다.

한편 1936년 2월 26일 육군의 청년장교가 1,480여명 정도의 하사관과 병사들을 이끌고 수상관저와 경시청 등을 습격한 쿠데타사건, 이른바 2・26사건이 발생한다. 이들은 오쿠라 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내대신 사이토 마코토(斎藤実), 육군교육총감 와타나베 죠타로(渡辺錠太郎) 등을 살해하고, 총리대신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전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황도파(皇道派) 청년장교로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은 기타 잇키(北一輝), 기타 잇키를 보좌하며 청년장교들과 기타 사이에 연결책을 담당했던 니시다 미쓰기(西田税)다. 기타와 니시다 같은 우익 사상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들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천황에 기생하는 간신을 베어라(君側の奸を斬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쿠데타를 감행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직 학문적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의 장본인이었던 이시하라 간지는 자신을 신뢰했던 이들 청년장교들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압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사건의 결과 청년장교 2명이 자살하고, 관계자 19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 19명에는 기타 잇키와 니시다 미쓰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우익 사상가, 육해군 장교, 황도파 청년장교들은 자신들이 테러・암살・쿠데타라는 과격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1930년대 일본이 안고 있던 많은 모순(국내・국제의 정치・경제・사상 등)으로 군 상층부와 유력 정치인 및 경제인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요컨대 2・26사건 당시의 슬로건 "천황 주위에 있는 간신들(君側の奸)"은 이들이 싸워야할 적들을 잘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이들 수많은 테러・암살 및 쿠데타에는 다수의 니치렌슈 신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아니 쇼와유신의 주역들 대부분이

니치렌슈 신자라고 말하는 편이 적합할 것 같다. 이들의 국가주의적・국수주의적 사상과 운동의 방향 및 방법으로 인해 쇼와유신을 국학적인 내셔널리즘으로 단순화하기 쉽지만, 또 그러한 성격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겠지만, 공통의 전제를 이루는 것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니치렌슈인 것이다.

혈맹단의 이노우에 닛쇼는 열렬한 니치렌슈 신자이다. 5・15사건의 주동자인 다치바나 고사부로의 경우 니치렌슈의 영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노우에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아이쿄주쿠(愛鄕塾)를 통해 그들의 신념을 행동에 옮겼다. 이노우에에 의한 혈맹단사건과, 다치바나 주도의 5・15사건은 이른바 '곤도 세이쿄(権藤成卿, 농본주의 우익)의 빈 집'이라 불렸던 곤도 저택의 일각에서 모의되었으며, 흉기로 사용한 피스톨도 여기에 보관되었다.[4] 즉 이노우에의 사상은 농본주의적인 초국가주의자 다치바나 고사부로와 곤도 세이쿄에게도 공유되었던 것이다.

한편 2・26사건의 이데올로그인 기타 잇키와 니시다 미쓰기 또한 열렬한 니치렌슈 신자들이었다.

5・15사건의 또다른 주역인 미카미 다쿠(三上卓), 쓰카노 미치오(塚野道雄), 야마기시 히로시(山岸宏), 2・26사건의 청년장교 이소베 아사이치(磯部浅一), 무라나카 다카지(村中孝次), 고다 기요사다(香田清貞), 안도 데루조(安藤輝三) 등도 니치렌슈 신자였다.[5] 이러한 관점에서 1930년대 일련의 '쇼와유신'(혈맹단사건, 5・15사건, 2・26사건 등) 연구에서 니치렌슈를 불문에 붙이는 것은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2・26사건을 진압한 이시하라 간지와 니치렌슈의 관계도 유명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쇼와유신의 주역들에게 니치렌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였는지 주요 인물들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小林英夫(2006)『「昭和」をつくった男』ビジネス社 p.113.
5) 丸谷才一・山崎正和(1999)『二十世紀を読む』中央公論의「近代日本と日蓮主義」.

Ⅲ. 쇼와유신과 니치렌슈: 결합의 제 상

1. 이노우에 닛쇼와 니치렌슈: 천황에의 절대적 귀의

앞의 표 및 설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32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연속 테러를 자행한 단체는 혈맹단(血盟団)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혈맹단사건'이라 부른다. 그 주역이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다. 이노우에는 "일인일살(一人一殺)"을 내걸고 테러를 감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노우에는 전후인 1954년에는 호국단(護国団)을 결성하여 초대 단장이 되었다.

1923년 봄 이노우에는 향리인 군마현(群馬県) 삼덕암(三徳庵)에 들어가 니치렌슈에 귀의했다. 삼덕암에서 수행 중 이노우에가 깨달은 것은 "선악(善悪)의 절대적 기준은 우주일원(宇宙一元)의 진리에 귀착하는데, 이에 순응하는 것이 善이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悪"[6]이라는 점이었다.

이후 이노우에는 다나카 지가쿠(田中智学)[7]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다나카와 이노우에의 니치렌슈를 매개로한 사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

6) 小林英夫 上掲書 p.66.

7) 근대 일본에서 니치렌슈를 재가불교 조직인 국주회(国柱会)라는 단체를 통해 확립한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다나카 지가쿠(田中智学)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다나카 지가쿠에 대해서는 太谷栄一(2001)『近代日本の日蓮主義運動』, 法藏館에 자세하다.) 다나카는 『삼대비법초(三大秘法抄)』에 실려 있는 계단과 관련한 부분 "칙선 및 교서(勅宣並に御教書)"에 대해, 천황이 계단 건립의 대소(大詔)를 널리 발표하고 제국의회에서 계단 건립을 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하의 내용은 주로 島田裕巳(2015)『八紘一宇』幻冬舎 pp.52-59에 의한다) 동시에 다나카는 니치렌의 『선시초(撰時抄)』에 있는 "전대미문의 대투쟁 일염부제에 일어난다(前代未聞の大闘諍 一閻浮提に起こるべし)"는 부분을 단서로 대 전쟁의 발생을 예언하고, 『관심본존초(観心本尊抄)』를 근거로 '현황'과 '우왕'을 구분하여 현왕을 천황으로 비정하여, 현황이 우왕을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다. 다나카 지가쿠의 사상은 '국체론'으로 연결되었으며, 다나카 지가쿠와 국주회는 니치렌슈발 국체론자의 중심인물이며 중심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다나카에게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등 12명이 사형에 처해진 이른바 '대역사건(大逆事件)'은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찬스였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층 국체옹호를 강조하게 된다. 1911년 8월의 강연회에서 '국체학(国体学)'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22년의 『일본국체의연구(日本国体の研究)』 간행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서 다나카는 일본 군국주의를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개념인 '팔굉일우(八紘一宇)'를 별도의 항목에서 논하고 있다.

다나카의 사상적 특징이 "천황제와 니치렌슈의 일체화를 피해, 천황제 하에서 니치렌슈를 보급하고, 니치렌슈에 의해 일본, 나아가 세계의 통일"[8]을 추구한 점에 있었다면, 이노우에는, 천황에 대한 '절대적 귀의(絶対的帰依)'를 촉구한다.

요컨대 이노우에는 "천황이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노우에는 다나카를 비판한다. 다나카의 논리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극적인 해석이 아닌 '행동'을 통한 실현을 촉구했던 것이다.[9] 즉 니치렌슈와 천황제가 완전히 일체화하여 새로이 태어난 산물이 '천황에 대한 절대적 귀의'이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곧 쇼와유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노우에의 입장이 1930년대 일본의 국내외적인 여러 모순에 의해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혈맹단사건과 5・15사건에 비해 2・26사건의 주동자들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이유, 즉 5・15사건의 주동자들이 가벼운 처벌로 끝났던 이유가 바로 이 '절대적 귀의'일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즉 이노우에는 천황을 절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황도파(皇道派)'로 불리며, '존황토간(尊皇討奸)'을 주장하고, 사형 직전 '천황폐하만세'를 외쳤던 청년장교들의 일부가 사실은 '천황기관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명백해 보인다.

2. 이시하라 간지와 니치렌슈

2.1 니치렌슈에의 귀의・신앙고백의 내용과 방법

만주사변과 만주국 그리고『世界最終戦争論』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가 니치렌슈에 입문한 것은, 국주회의 다나카 지가쿠가 1920년 4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국주회관에서 춘계강습회를 열고「관심금존초(観心今尊抄)」의 대의를 강의하고, 동시에「아즈치법난사론(安土法難史論)」을 논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4월 후반에 열린 강습회에서 다나카의 강연을 듣고 감격한 것이 계기라고 한다. 따라서 4월 후반 혹은 5월 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10]

---

8) 小林英夫 上掲書 p.67.
9) 前掲書 pp.68-69.
10) 島田裕巳 上掲書 pp.100-101.

1920년 중국으로 건너간 이시하라는 한구(漢口)에서 부인 데이(鍗)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나카에 대한 열정과 경모를 고백하고 있다.[11] 이 편지에서 이시하라는 다나카의 제자인 야마카와 지오우(山川智応)가 쓴 『니치렌주의와 현대 장래(日蓮主義と現代将来)』에 대해서 "특히 유쾌"하다고 말하고 있고, 『니치렌총서(日蓮叢書)』에 실린 다나카의 서문에 대해 "숨이 막힐 것 같이 감격"했으며, "꿈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읽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이시하라는 "법화경적인 부부가 국가의 단위가 되어야만 우리가 열망하는 법화경적 국가는 성립합니다. 이를 위해 법화경적인 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현재 일본의 제1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법화경에 의해 연결된 부부간의 애정을 기원하고 있다.

이시하라와 니치렌슈와의 관계는 이시하라의 유럽 체제, 만주국 건국, 『세계최종 전쟁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하라가 니치렌슈 운동 및 국주회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나카 지가쿠의 3남 사토미 기시오(里見岸雄)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다나카와 달리 사토미는 와세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저작을 보유한 엘리트였다. 그런 사토미가 1922년 5월 일본을 출발하여 6월 말 런던에 도착하여 1년여를 런던 교외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 마침 이시하라도 1923년 1월 독일로 향한다. 사토미 및 이시하라가 유럽으로 출발할 때 국주회 회원들의 배웅이 있었다. 사토미가 출발할 때 이시하라가 만세를 외치는 장면도 있다.

이시하라는 독일에서 사토미와 보다 친밀해졌다. 사토미의 저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돕기도 했으며,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12]

한편 이시하라는 만주에 일본인・중국인 등의 모범적인 연대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민족협화(民族協和)라는 미명으로 왕도락토(王道楽土)를 꿈꾸며 만주국을 건국하였다. 그 공으로 이시하라는 무공자에게 수여되는 금치훈장(金鵄勲章)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주회는 1933년 4월 이시하라의 무단적 행위를 기념하

11) 이하의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田村芳朗외 14명 上掲書 中濃教篤 논문「石原莞爾」 제2절에 의한다.

12) 島田裕巳 上掲書 pp.102-106.

기 위해, 니치렌이 몽고 침입 당시 국가를 위해 기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몽고 퇴치 만다라(가짜)를 당시 중령이었던 이시하라에게 보내기도 했다. 즉 이시하라의 만주정책과 국주회 다나카 지가쿠의 만주정책은 동일 선상에 위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만주국건국회의와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経)[13]

이시하라는 육군 중장으로 퇴역한 후 1939년에 발족한 동아연맹협회(東亜連盟協会) 운동에 전념하는데, 이는 일본・만주・중국을 연결하여 소련・미국・영국 등과 대결하려는 것이었다. 즉 대동아의 맹주는 일본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은 「세계최종전쟁론」으로 연결된다.

1942년 출판된 『世界最終戦論』에서 이시하라는 유럽의 전쟁사 연구와 니치렌슈의 교의 해석을 통해, "니치렌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전쟁이 반드시 발생하고, 일본의 국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통일이 실현된다"[14] 고 하여 최종전쟁과 니치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니치렌의 예언은

13) 1932년 2월 16일 니치렌의 탄생일 봉천(현 심양)에서 만주건국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関東軍南無妙法蓮華経司令部〉. 뒤쪽 오른편 南無妙法蓮華経이 쓰인 현수막이 이채롭다. 출처는 http://esashib.com/tuzimoto12.htm (2017년 4월 6일 검색)

14) 石原莞爾(1972) 『最終戦争論』経済往来社 p.48.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였다. 그런데 최종전쟁에서의 천황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 최종전쟁 즉 왕도・패도의 결승전은 결국, 천황을 신앙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승전이며, 구체적으로는 천황이 세계의 천황이 되시거나, 서양의 대통령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까를 결정하는 인류사 상의 대사건이다.15)

이러한 언급은 국주회의 다나카 지가쿠적인 천황과 니치렌슈의 관계, 그리고 다나카적인 세계상의 현실화를 위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미래상이라고 생각된다.

1941년 6월에 발행된『東亜連盟』에 게재된「전쟁사 대관의 유래기(戦争史大観の由来記)」에서 이시하라는, 니치렌 성인을 통해 참된 안심(安心)을 얻었고, 중국에 부임하기 전년인 1919년 국주회의 신행원(信行員)이 되었으며, 특히 니치렌의 "전대미문의 대투쟁 세계에 일어난다"는 주장은 자신의 군사연구에 지속적인 목표를 제공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이시하라의 세계최종전쟁론은 니치렌에 의해 표명된 세계통일을 위한 대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시하라의 인식은 다나카 지가쿠의 왕불명합(王仏冥合)론과 연동된 것이었다. 즉 천황제국가 일본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법화경에 의한 세계통일, 본화상행(本化上行, 니치렌슈 최고의 보살)이 승려와 현왕으로 2분되는 지점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적 니치렌주의의 전형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하라의 니치렌슈에의 귀의는 만년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었다. 1947년 초 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노병은 오로지 대성인의 교시를 직접 받아 오늘날까지 몸과 마음을 군국(軍国)에 바쳐왔습니다. 노병의 임무는 대체로 패전 당시에 끝났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체로 참으로 감사한 일생이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성인의 무한한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20년 정도의 난병(難病)도 노병을 조금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임무가 끝나서 지금은 지병으로 생명을 조용히 마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성인의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16)

---

15) 石原莞爾 前掲書 pp.71-72.
16) 石原莞爾 上掲書 pp.233-234.

즉 이시하라의 삶의 여정,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 공작, 『세계최종전쟁론』, 만년의 회상 모두 이시하라의 니치렌슈 신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국이라는 이시하라의 최성기의 활동은 상기의 만주국건국회의의 南無妙法蓮華経 사진이 시사하는 것처럼 1930년대의 이시하라의 신앙을 전형적으로 상징하며, 니치렌슈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2 니치렌슈 내부의 충돌

한편 이시하라 간지와 마찬가지로 니치렌슈의 신자들이었던 청년장교들과 이시하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1936년 2・26사건 당시 이시하라 간지는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다. 그런 그가 동경 경비사령부 참모를 겸하여 반란군 진압의 선두에 서게 된다. 즉 이시하라는 '쇼와유신'의 일련의 사건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변화'・'개혁'이라는 사상적인 유사성과 니치렌슈에 대한 공명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자신 2・26사건의 주역인 청년장교들의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는 청년장교의 반대 측에 섰던 것이다. 즉 통제파(統制派)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17] 이러한 이시하라에 대해 쇼와천황은, "대체 이시하라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겠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이 당시의 태도는 정당했다"(『昭和天皇独白

17) 寺内大吉(1988)『化城の昭和史』下 毎日新聞社 pp.77-78은 청년장교들과 이시하라가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経)으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동시에 동서의 p.90는 이시하라의 쇼와유신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국일당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여 천황친정을 돕는 일에 전념한다. 그러한 정치실천을 이시하라는 성단신수(聖断信受)라 명명했다. 천황의 결단을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친정의 기본이념이다. 성단이 내려지면 일억의 신민이 자신을 버리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하는 심경(心境)이 일본의 국체의 정화다. 천황친정은 황국 미증유의 국난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영력(霊力)이다.

그런데 寺内大吉가 pp.90-91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시하라가 주장하는 바대로 천황친정을 기축으로 하여 계엄령하에서 황족내각을 성립시키려는 구상을 추진해간다면, "君側の奸を 제거하려고 궐기한 반란장교들의 행동은 반란장교들이 기타 잇키의 「改造法案大綱」을 성전으로 하고 있는 만큼 허용될 수 없는 반역행위가 되어 버린다. 기타의 쇼와유신과 이시하라의 쇼와유신은 법화경의 에너지에의 공명만큼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録』)고 술회하고 있다. 이 당시 군 중추부의 장교들은 거의가 반란군에 저지되어 반란군이 점거한 시설에 등청(登庁)할 수 없었지만, 통제파에도 황도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칭 '만주파(満州派)'에 속한 이시하라라는 인물은 반란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다. 그 때문에 등청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청년장교 중의 한명인 안도 데루조(安藤輝三) 대위는 부하에게 총을 준비시켜 이시하라의 등청을 육군성의 입구에서 저지하려 했다. 이때 이시하라는 역으로 "뭐가 유신이야. 폐하의 군대를 사유화하지마! 나를 죽이고 싶다면 직접 너희들의 손으로 죽여!"라고 일갈하면서 참모본부에 들어갔다. 반란군은 이시하라의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이시하라를 제지할 수 없었다.[18] 청사 내부에서도 구리하라 야스히데(栗原安秀) 중위가 피스톨을 들이대며, "이시하라 대령과 우리들의 견해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와유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위협적으로 문책했음에도,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군비와 국력을 충실히 갖춘다면 그걸로 유신이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이딴 짓 당장 그만두게! 그만두지 않으면 토벌할 거야!"라고 일갈했다. 이시하라의 기세에 눌린 구리하라는 살해를 중지했고, 이시하라는 살해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니치렌슈에 대한 공명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의 니치렌슈의 에너지는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일관성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양쪽 모두에 동일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잇키의 니치렌슈: 독사(読瀉)・영고(霊告)・사명감

기타 잇키(北一輝)는 1921년 8월『支那革命外史』의「序」에서 이 책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문조(文調)가 구식이며, 태도가 간쟁(諫諍)적이라는 점을 이상히 여길지 모르겠다. (중략) 원구의 침략을 경고하는 니치렌의 입정안국론(立正安国論)도 니치렌 자신의 문조가 아니라, 당시의 권력자에 대한 간쟁적 태도였다. 나는 이 책을 현재의 권력계급에게 배포하여, 지나를 떠날 때, 이 책이『大正安国論』

18) 早瀬利之(2003)『石原莞爾 満州合衆国』光人社 p.151.

으로서, 정의를 대성하여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썼다. 이를 받아든 그들 거의 모두가 책 속의 작위명사(作為名詞) 지나의 "망국계급"이 아니었을까. 나는 니치렌이 아니고, 또한 니치렌의 노예가 아니다.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위대한 호죠 도키무네(北条時宗)가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19]

위의 언급은 간쟁적 태도와 지나에 대한 사명감의 원천을 니치렌슈로부터 끌어온 점을 예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타 잇키와 니치렌슈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또다른 장면은 기타 자신이 니치렌슈의 신자임을 신앙고백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경전 즉 법화경의 독사(読瀉, 암송)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고(霊告)다.

데라우치 다이키치(寺内大吉)는 독사의 종교적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20] "독사는 독경하는 자를 도취유현(陶醉幽玄)의 경지로 끌어들인다. 많은 환상을 본다. 법화경과 같은 많은 분량을 갖는 경전에서 이러한 몽유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기타 잇키도 법화경을 독사하면서 영감과 영고를 [항상] 체험한 것 같다." 여기서 데라우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독사 즉 독경은 다른 어떤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종교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독사 중에 영감과 영고를 체험한다는 부분에 주목을 요한다. 영고를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대체로 부처님이나 신 혹은 영에 의한 신탁・명령・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기타에 의한 「神仏言集」이다. 이 저술에 대해 기타의 동생으로 중의원 의원을 역임한 기타 레이키치(北聆吉)는 "영감적 예언서"라 했고,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는 "영고일기"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기타의 영고 행위는 단지 기타의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1930년대 일본을 결정적으로 강타한 사건인 2・26사건의 주역인 청년장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즉 종교행위가 2・26사건의 내용과 방향에 직접 연결되었던 것이다.

기타 잇키는 1936년 2・26사건의 직전 다음과 같은 영고문을 남겼다.

---

19) 北一輝(1959)『北一輝著作集』第二巻 みすず書房 p.5.
20) 이하 寺内大吉(1988)『化城の昭和史』上 毎日新聞社 pp.43-45에 의함.

<1936년> 2월 21일, 아침, 독경(経)
야마오카 데쓰타로(山岡鉄太郎, 막말・메이지기의 막신) 이렇게 주문한다.
천황의 위광(稜威) 존귀하다
병마대권, 간범(干犯) 여부
대답 대의명분(大義名分) 스스로 명백하다는 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것은 말절(末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영고문은 청년장교들의 병력동원이 천황의 대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대의명분에도 합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영고문이 청년장교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데라우치 다이키치는 "기타 잇키의 「신불언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당시의 행동우익, 특히 청년장교들이었다. 2・26 궐기 전후, 기타 잇키의 영고는 몇몇 경로를 거쳐 청년장교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이 「신불언집」을 입수한 검찰법무관이 군법회의에서 기타를 <그림자 수괴>로 보고 단죄할 수 있었던 논거가 여기에 있다."[21]고 말하고 있다.

즉 기타의 니치렌슈는 <독사→영고→청년장교에의 전파 및 용기부여→2・26궐기>로 이어졌고, 이로인해 종교와 군사 혹은 정치의 동시적 결합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한편 기타 잇키의 '사명감'에 끼친 니치렌슈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기타 잇키와 니시다 미쓰기는 저서에서, <(1)무지한 인간의 욕설과 매도, 칼과 지팡이를 맞는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한다. (2)우리는 신명(身命)을 아끼지 말고, 단지 무상도(無上道)만을 아쉬워한다. (3)해와 달의 광명이 어두움을 없애는 것처럼, 사람은 세상에 가서,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야 한다. (4)수천만의 중생이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려 할 때, 때로는 도사(導師)가 있으며, 강한 지혜가 있다. 명료하게 마음을 정하여, 험한 중난(衆難)을 구한다. 중생을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여, 그 성에 들어가면 모두가 편안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22]

이러한 경문의 일부를 기타와 니시다가 중시한 이유는 명백하다. 박해를 참고 말법(末法)의 세상에서 중생을 참된 법(真法)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쇼화유신에

21) 上掲書 pp.44-45.
22) 宮本盛太郎 上掲書 p.129.

의 '사명감'인 것이다.

4. 니시다 미쓰기의 니치렌슈: 왕불합일의 니치렌슈

기타 잇키와 함께 2·26사건을 일으킨 청년장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니시다 미쓰기(西田税)[23]는 육군사관학교시절부터 수재로 촉망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흉부질환인 늑막염으로 입원 중 기타 잇키의 저서를 탐독하여 혁신사상에 입문한다.

퇴원 후 기병장교로 임관한 후 헌병대에서 문제 장교로 낙인찍힌다. 1925년 니시다는 병으로 인해 육군에서 물러났다. 히로시마에서 퇴관한 니시다는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의 대학료(大学寮)에 일시적으로 발을 담궜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改造法案」의 기타 잇키에 경사하게 되었다. 그의 사상적 선택지는 기타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니시다가 열렬한 법화경 신자가 되 것도 이 무렵이다. 좀 더 빨랐다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24] 즉 1920년 사관후보생 시절 니치렌의 입정안국론(立正安国論)을 이미 애독했다는 것이다.

한편 기타 잇키는 이 젊은 육군 장교 니시다의 경모에 응답하기 위해 「改造法案」의 원문을 제공했다. 니시다는 등사판으로 소부수의 「改造法案」을 인쇄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석을 붙어 청년장교들에게 이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기타 잇키가 모든 일을 니시다에게 맡기고 좀처럼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니시다에 대한 기타의 신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타 잇키의 '영감영고(霊感夢告)'도 니시다의 입을 통해 애독자에게 전해졌다. 니시다의 역할로 인해 기타 잇키의 상은 점점 거대화해간다. 즉 니시다와 기타는 서로 분리불가능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니시다가 쓴 것으로 보이는 소책자 「順逆不二之法門」는 "국가의 혁명은 군대의 혁명을 최대로 하며 최종으로 한다. 혁명은 암살에서 시작하여 암살로 끝난다"고 단언한 후, "근대의 병사가 단지 계급의 위에 있는 자들에만 무릎을 꿇는 노예와 같은 마음은, 계급의 아래에 있는 자기에 대해서 증대존대(增大尊大)

23) 前掲書 pp.58-59.
24) 『米子市文化財資料集 山陰歴史館所蔵 西田税資料』 p.15.

된다. 근대 무사는 신속히 봉건사상에서 탈각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니시다의 인식은 체제파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서, 체제파로부터 '의사 적화사상(疑似赤化思想)'[25]이라 불릴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니시다의 종교와 사상의 결합, 즉 악인과 악법을 물리치고, 망설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설득 수단인 '절복(折伏)'에 대한 바램은 그의 「自伝」에 일부가 표명되어 있다.

> 나의 다년에 걸친 사안의 결과인 <철학적 신앙>은 그 구현을 천황에게서 볼 수 있었다. (중략) 나는 나의 전투적 정신……최고아(最高我)를 일본국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 외부의 모든 것과 통하는 것이다.

요컨대 니시다의 「자전」중의 '철학적 신앙'은 왕불합일(王仏合一)이라는 니시다적인 니치렌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외부의 일체의 인류와 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다나카 지가쿠(田中智学)의 '침략'과도 유사하다.[26] 즉 그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니시다의 '철학적 신앙'은 다나카의 국가주의와 미묘하게 닮아 있다.

5. 이소베 아사이치의 니치렌슈: 죽음을 마다않는 사명감

2·26 당시 청년장교들 중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이소베 아사이치(磯部浅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소베는 기타 잇키 및 니시다 미쓰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공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소베의 동료인 사사키 지로(佐々木二郎)[27]는 이소베가 기타 및 니시다와 접하기 이전 이미 니치렌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 사사키에 의해 언급된 이소베의 니치렌슈에의 코미트, 즉 이소베가 어떻게 니치렌슈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사사키는 이소베가 언제부터 니치렌슈에 경사했는지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

25) 寺内大吉 前掲書 p.71.
26) 上掲書 p.161.
27) 이하 佐々木二郎(1980)『一革新将校の半生と磯辺浅一』芙蓉書房 pp.301-307.

고 한다. 다만 유년학교 1년생 시절 즉 일본 나이로 13세에 좌선하며 니치렌슈적인 설교를 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가족에 남긴 글 중 '정법(正法)'과 '도검(刀劍)'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 '일본의 기둥', '안목(眼目)'[28], '큰 배'가 되는 것을 지향했다는 점, "우인(愚人)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 니치렌을 일본 제1의 행자라고 거론한 점을 들고 있다. 더불어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제 부처의 안목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経) 이 다섯 글자, 말법의 초기에 염부제(閻浮提, 현세)에 널리 퍼트려야 할 상서로운 조짐, 니치렌이 선구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니치렌에 의한 「슈쥬오후루마이쇼(種々御振舞書,)」, 혹은 "법화경 일부 색심이법(色心二法) 동시에 존재해야 고귀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니치렌에 의한 「쓰치로고쇼(土籠御書)」와 같은 문서를 이소베가 가장 좋아했다는 사사키의 회고는 이소베와 니치렌슈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고 있다.

한편 1933년 이소베로부터 기타 잇키와 니시다 미쓰기를 한번 만나보자는 제안을 받은 사사키는, 법화경의 행자를 자처하는 기타 잇키 자신 및 웅혼(雄渾)하고 단정적인 『支那革命外史』『日本改造法案大綱』이 이소베의 성격과 니치렌의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심지어 그 연결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2・26사건 당시 육군일등주계(陸軍一等主計, 경리・피복 담당)였던 이소베는 옥중에서 「行動記」「獄中日記」「獄中手記」를 남겼다. 이들 논고에 실린 이소베의 니치렌슈를 들여다보자.

> 매일 대악인(大悪人)이 될 수업(修業)으로 경(経)을 바치고 있다. 계엄사령부, 육군성, 참모본부를 처단하지 못해 분하다(「獄中日記」8월 16일)

> 나는 극락에 가지 않을 것이다. 기필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서 마키노(牧野), 사이온지(西園寺), 미나미(南),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이시모토(石本) 등. 내 뒤를 따라 지옥에 올 악인(悪人)들을 지옥에서 해치울 것이다. 유쾌하다, 유쾌하다(「獄中日記」8월 30일)

---

28) 여기서 眼目이란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 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통찰할 수 부처의 눈을 의미한다. 성인은 이 안목을 사용하여, 사회,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침을 표명하는 사람이다.(http://www.nichiren.or.jp/ 2017년 4월 27일 검색).

> 내 기도는 성불(成仏)하지 않는 기도다. 악귀(悪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수하며 천하무적인 악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나의 소신은 조금도 굽힐 수 없다. 타협도 양보도 없다.(「獄中日記」8월 1일)

이렇게 쇼와유신의 대상을 지옥에서라도 기다리겠다는 이소베의 분노가 암시하는 것은, 설사 지옥에 떨어질 지라도 기필코 쇼와유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니치렌(日蓮)의 의기(意気)의 이소베적인 버전이다.

Ⅳ. 쇼와유신의 동력이자 한계였던 니치렌슈

1. 쇼와유신의 동력으로서

니치렌슈의 다면성에 대해서 다무라 요시로(田村芳朗)는 이렇게 말한다.

> 니치렌주의 운동을 정리해 보면 (중략) 그 중에는 국가주의적인 것과 국가초월적인 것, 우파적인 것과 좌파적인 것이 있으며, 우주실상적(宇宙実相的), 민중중심적인 것도 있는 등, 극히 다채롭다. 특히 좌우 양극의 니치렌주의가 있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기묘하기도 하며, 니치렌교 자체에 근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대 일본이 걸어온 길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29]

이러한 다무라의 분석은 역사와 종교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속(俗)의 세계에서, 정치의 세계에서 니치렌슈만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종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다채로움은 역설적으로 니치렌슈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하여 니치렌슈에서 이슬람교적인 실루엣을 발견한 인물이 있다.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가 그 장본인이다. 우치무라는 「代表的日本人」에서 일

29) 田村芳朗「近代日本の歩みと日蓮主義」田村芳朗외 14명 上掲書『日本近代と日蓮主義』p.7.

본의 국민적 성격과 관련된 5명의 주요 인물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우에스기 요잔(上杉鷹山), 니노미야 손도쿠(二宮尊徳), 나카에 도쥬(中江藤樹), 마지막으로 니치렌(日蓮)을 들고 있다. 우치무라는 니치렌을 "획기적인 인간"이라고 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経과 하나의 法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용감했다.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일본에서 최초로 받았다
(2) 니치렌의 독창성과 독립성으로 불교를 일본의 종교로 만들었다[30]

우치무라는 니치렌을 강렬함과 열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대한 성실, 진실된 연민과 유화의 풍부함이라는 점에서, 마호메트가 코란을 신뢰한 이상으로 니치렌은 경전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보고 있다.[31]

현대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그 신자들에게 (물론 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행동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우치무라가 이슬람교와 니치렌을 연결시킨 점은, 비록 우치무라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경전에 대한 신뢰 이상으로 이슬람교의 강한 <행동성>과 1930년대의 일본의 니치렌슈의 <행동성>을 유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노우에 닛쇼의 천황에의 절대적 귀의 및 니시다 미쓰기의 정치와 종교가 융합된 니치렌슈, 이시하라 간지의 이상국에 대한 비전 및 삶의 자세는 유일신을 신봉하는 이슬람교 신자들의 종교관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잇키의 독사・영고・사명감의 원천으로서의 니치렌슈 또한 이슬람교의 강한 에너지 및 신탁을 연상시킨다. 죽음도 불사하며 쇼와유신을 완성하려는 이소베 아사이치의 신념 또한 이슬람 과격파와 유사한 니치렌슈에의 코미트없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해석은 이슬람교 전체를 단순화하는 해석상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이슬람교 일부의 성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심지어 2・26사건의 청년장교들과 이시하라 간지의 공명과 이반조차도 이슬람교 내부의 파벌투쟁과 닮아있다.

---

30) 高木豊「キリスト者の日蓮観」田村芳朗외 14명 上掲書 p.183.
31) 高木豊 前掲論文 p.184.

2. 쇼와유신을 좌절시킨 니치렌슈

전후 일본에서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는 2・26사건의 주역 중 한명인 이소베 아사이치를 '고약한 낙천주의(癒しがたい楽天主義)'자로 그림으로써 쇼와유신과 니치렌슈가 갖고 있는 어떤 함정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미시마의 아래의 인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시마에게 사형을 기다리는 이소베의 감옥에서의 '의기(意気)'는 '팩트'를 부정하고 '상상력에 의한 저항'을 시도하는 '최후의 자유의 증거'일 뿐이었다. 이는 비단 감옥에 갇힌 이소베의 사상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쇼와유신의 성격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사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 인간의 약점과 강점을 가리는 것은 곤란하다. 약점이란 팩트를 외면하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강점이란 팩트를 용인한 체념에 불과하고, 팩트를 숙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간에 남겨진 것은 상상력에 의한 저항일 뿐이며, 그것이 곧 '최후의 낙천주의'의 영웅적 근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그 때 단순한 희망도 하나의 행위가 되며, 결국 실재가 된다. 왜냐하면 회한(悔恨)을 감정(鑑定)할 여지가 없는 희망이란, 인간 정신의 최후의 자유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소베의 유고(遺稿)는 절망을 경과하지 않는 혁명의 말로에 어울리며, 마지막까지 희망에 넘쳐 있으며, 수미일관하고 있다.[32]

미시마는 이소베를 포함한 '의군(義軍)'의 근대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군의 근대적 자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마는, 미시마의 입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군의 근대성은 의군이 동시에 신봉했던 '국체(国体)'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의군의 내적인 딜레마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 2・26의 '의군'은 역사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첨예한 근대적 자각을 가진

32) 三島由起夫(1969)「『道義的革命』の論理―磯辺一等主計の遺稿について―」『文化防衛論』新潮社 pp.83-84.

> 군대였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성공 이후에 다가올 일본경제의 근대화・공업화와, 그들이 신봉했던 국체관념과의 정면에서의 상극대립(相剋対立)을, 그들이 후일 진정으로 고민할 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33]

이러한 '의군'에 대한 미시마의 평가에 대해 미시마 자신 "신앙의 문제와는 다르다"[34]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상상력에 의한 저항'이 '국체'와 교착된 상황, 즉 쇼와유신과 니치렌슈와 국체의 교착이 초래한 딜레마를 잘 지적하고 있다.

한편 쇼와유신의 주역들이 간과했던 또 다른 직접적인 문제로 그들의 인식과 의지의 원천이며, 행동의 에너지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한 안식처일 터인, 때로는 미래의 이상향을 설계하기 위한 도구였던 니치렌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도코로 시게모토(戸頃重基)는 특히 2・26사건의 주역들이 갖는 '혁명성'이 '주술'에 패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쇼와유신을 꿈꾼 2・26사건의 패인으로 대중세력의 부재, 계획이 어설프고 거칠다는 점, 마사키(真崎), 아라키(荒木) 등 속물적인 군 상층부에 대한 청년장교의 과신 (중략) 무엇보다도 사건의 수괴인 기타 잇키가 혁명지도자로서의 적격성을 결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기타는 혁명에 불가결한 과학적 현상분석과 장래에 대한 전망을, 혁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익한 주술주의(呪術主義)로 혼란을 야기했다. (중략) 그는 시대를 착각하여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타의 무녀(巫女)의 영고(霊告)와 같은 미신과 독선에 이끌린 청년장교들의 사상은 과학에 무지했다. 이러한 무지 상태에서의 결기폭동(決起暴動)(이었던 것이다, 필자)[35]

도코로 시게모토의 이러한 지적은 직접적으로 혁명전략에 주술성이라는 미신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초래되는 비과학적인 전망을 비판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일본에서의 변혁운동이 갖는 한계, 특히 전전의 변혁운동이 갖는 한계로

---

33) 前掲書 p.86.
34) 前掲書 p.84.
35) 戸頃重基「テロと日蓮主義の関係―北一輝・大川周明・井上日召」田村芳朗외 14명 上掲書 p108.

서 천황제와 니치렌슈의 위치와 위상의 문제라는, 본질적으로 일본적인 콘텍스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3. 국체(천황) 관념의 극대화・왜소화의 동일한 배경으로서

신앙과 현실 혹은 신앙과 정치의 결합이 행자(行者)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앙과 행자의 행동의 '결과로서의' 현실 및 정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2・26사건 이후 이소베 아사이치의 천황에 대한 감정이 그토록 격렬히 요동쳤던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소베의 「獄中日記」는 1936년 8월 11일 이후부터 천황의 "배신", 천황에의 "절규"[36]로 채워져간다.

> 천황폐하가 15명의 둘도 없는 충의자를 살해한 것인가, 그리고 폐하의 주위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국간(国奸) 등을 모아놓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맡기신 것인가. 폐하. 우리 동지들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폐하를 존경한 사람은 일본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충의자들을 왜 괴롭히시는 겁니까 (중략) 폐하의 적자(赤子)를 살해하시려는 겁니까. 살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터입니다. 폐하의 귀에 도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중략) 왜 이런 실정(失政)을 하시는 겁니까.
>
> 저는 지금 하늘을 태울 만큼 노여움에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폐하를 꾸짖을 만큼 정신이 고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폐하를 꾸짖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황폐하 왜 이런 실정을 하십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황조황종(皇祖皇宗)에 사죄하십시오.

---

36) 山崎国紀(1989)『磯辺浅一と二・二六事件』河出書房新社 pp.162-163 須山幸雄(1979)『西田税 二・二六の軌跡』芙蓉書房, p.26, 322에서는 각각 투옥 중 혹은 사형 직전에도 니치렌슈를 통해 천황을 상대화하는 니시다와 기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서의 p.26에는 니시다나 기타 등에 앞서 1936년에 처형된 청년장교들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寺内大吉(1988)『化城の昭和史』下 p.51에는 궐기에 패배하여 청년장교와 병사들이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経)을 3창하며 부대로 복귀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천황 혹은 국체와 니치렌슈의 혼란스런 관계 혹은 니치렌슈에 의한 천황의 상대화를 잘 예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소베 아사이치의 피맺힌 '절규'는 근대 일본에서 정치적 변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 및 청년장교들의 전략상의 문제점을 잘 암시하고 있다. 즉 청년장교들이 '신뢰했던'(?) 천황의 '배신'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으며, 천황이야 말로 변혁되어야 할 체제 측의 중핵이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기타 잇키의 「改造法案」에서도 천황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그러나 '긍정과 기대를 담고서' 설정되어 있었다.[37] 하지만 기타의 희망과는 반대로 천황은 여전히 2·26 주역들과는 반대 쪽에 서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소베의 천황에의 절규는, 국체의 중핵으로서의 '천황을 위해서'를 가능케한 니치렌슈의 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했던 2·26사건이라는 궐기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쇼와유신이 실패로 끝난 후 천황을 대상으로 한 '고약한 낙천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도 했던 것이다.

Ⅴ. 결론을 대신하며

1930년대의 일본 특히 이른바 쇼와유신에 법화경과 니치렌슈가 끼친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본문에서는 그 힌트의 일부를 언급했지만, 한마디로 모범답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리 손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긴 역사 속에서 무사와 군인 등이 종교 특히 불교와 어떻게 관계했었는지를 검토해본다면 약간의 실마리는 풀릴 것 같다.

---

37) 기타 잇키는 쇼와유신의 방법으로 헌법을 정지하여 천황대권의 발동할 것을 주장하거나(「国家改造案原理大綱」), 천황을 국민의 총대표이며 국가의 근주(根柱)「日本改造法案大綱」)라고 역설하는 동시에 국체론자를 비판하며 일본을 근대적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타의 입장은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 같다.
단적으로『国家改造法案原理大綱』(『北一輝著作集』第二巻 p.223)에서는 "유신혁명 이래 일본은 천황을 정치적 중심으로 한 근대적 민주국이다. (중략) 이러한 역사와 현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미(頑迷)한 국체론자와 구미숭배자의 쟁투는 실로 심각한 불상사를 천황과 국민 사이에 폭발시키는 것이다. 국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국체를 자랑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이 결코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며,『国家改造法案原理大綱』(『日本改造法案大綱』『北一輝著作集』第二巻 p.294)에서는 "국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국체를 자랑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이 결코 아니다."는 부분만 "양자의 구원받지 못한 미망(迷妄)을 경계한다."로 대체되어 있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선종(禅宗)과 무사의 유착. 실증적인 분석에 들어가면 한이 없겠지만, 무사들에게 '禅'이란 세속적인 일체의 사상(事象)을 버리고 전투에만 집중토록 하는 것, 그 수단으로서 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좋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즉 세속적인 사상에 의한 욕망의 범람을 의미하는 '지식(知識)'은 전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을 터이다.

한편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의『선의 연구(善の研究)』와 태평양전쟁 당시의 병사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죽음에 직면한 특공대 특히 가미가제(神風)에 내몰린 병사들은,『선의 연구』와 "절대모순적인 자기동일성(絶対矛盾的自己同一性)"이라는 관념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찾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절대모순적인 자기동일성"이 일본과 세계, 집단과 개인, 생과 사의 관념 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으며, 고도로 '지적'・'철학적'・'심지어 종교적'이었고, 동시에 죽음을 통해 '無'라는 '장소(場所)'의 영원성과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쇼와유신의 주역과 니치렌슈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생각건대 쇼와유신이란 '검'과도 '죽음이라는 숙명적인 결말'과도 다르다. 쇼와유신의 주역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동요하지만, 행자에 의해 반드시 '유신'해야할 대상이자 무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와 국가를 변혁한다는 것은 '지식 없이' 또는 '지식을 초월해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지식'과의 친교와 거리두기의 반복 즉 불안한 접합 및 울림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지식'을 둘러싼 이러한 사상적인 지점에서 니치렌슈와 쇼와유신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参考文献>

末木文美士(2004)『近代日本と仏教』トランスビュー pp.1-382
太谷栄一(2001)『近代日本の日蓮主義運動』法藏館 pp.1-412
佐々木二郎(1980)『一革新将校の半生と磯辺浅一』芙蓉書房 pp.301-307
山崎国紀(1989)『磯辺浅一と二・二六事件』河出書房新社 pp.162-163
梯久美子(2009)『昭和の遺書―55人の魂の記録』文芸春秋 pp.1-242
北一輝(1959, 59, 72)『北一輝著作集』1, 2, 3 みすず書房 p.5
松本健一(2008)『北一輝の革命』現代書館, 2008 pp.1-173

宮本盛太郎(1975)『北一輝研究』有斐閣 p.137
石原莞爾(1972)『最終戦争論』経済往来社 p.48
藤村安芸子(2007)『石原莞爾―愛と最終戦争』講談社 pp.5-230
宮下隆一(2007)『イーハトップと満州国』PHP研究所 pp.16-254
小林英夫(2006)『「昭和」をつくった男』ビジネス社 p.66
田村芳朗(1969)『法華経－真理・生命・実践』中央公論 pp.119-120
早瀬利之(2003)『石原莞爾 満州合衆国』光人社 p.151
太平洋戦争研究会編, 平塚柾緒著(2003)『図説 2・26事件』河出書房新社 pp.4-167
堀真清(2007)『西田税と日本ファシズム運動』岩波書店 pp.3-796
山幸雄(1979)『西田税 二・二六の軌跡』芙蓉書房 p.26, 322
寺内大吉(1988)『化城の昭和史』上・下 毎日新聞社 pp.43-45
田村芳朗외 14명(1972)『日本近代と日蓮主義』春秋社 pp.70-72
大蔵栄一(1971)『二・二六事件への挽歌』読売新聞社 pp.21-394
松沢哲成・鈴木正節(1974)『二・二六と青年将校』三一書房 pp.9-255
島田裕巳(2015)『八紘一宇』幻冬舎 pp.52-59
三島由起夫(1969)「『道義的革命』の論理―磯辺一等主計の遺稿について―」『文化防衛論』新潮社 pp.83-84

김채수(2008.1)「근세 일본에서의 국체사상의 성립과 유교의 역할」『日本文化研究』제25집 pp.343-376
이혜경(2008.11)「양명학과 근대일본의 권위주의-이노우에 데츠지로와 다카세 다케지로를 중심으로」『철학사상』30 pp.3-35
이희복(2003.7)「신유일치의 국체사상」『日本思想』제5호 pp.91-131
원영상(2008.8)「国体論과 일본근대불교학」『仏教学報』제49집 pp.383-403
_____(2007.8)「日蓮主義의 불법호국론과 国体論―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学)의 논리를 중심으로」『仏教学報』제47집 pp.255-282
_____(2009.12)「일본 근대 군국주의 정책과 불교계의 수용」『韓国禅学』제24호 pp.455-491
와타나베 히로시(2008.6)「'교'(教)와 음모 국체(国体)의 한 기원」『한일공동연구총서』11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pp.342-378
홍현길(2006.10)「일본 우익사상의 기저에 관한 연구-우익사상의 형성에 대한 국체사상과 유교사상의 고찰」『日本文化研究』제20집 pp.491-533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昭和維新と日蓮宗

－ 1930年代の日本における情念・蹶起・挫折の思想史的な背景 －

魯炳浩

この論文は、1930年代の日本で大きな問題となった昭和維新の内容や方法を、これを主張する各々の主役たちの共通項である日蓮宗を媒介で検討するものである。第二章では具体的な事件や人物を紹介する。第三章では主要人物が昭和維新と日蓮宗をどう媒介させたのかについて検討する。第四章ではに日蓮宗を出発点あるいは動力として始まった昭和維新が日蓮宗そのものによって挫折されたことを指摘した。

要するに、昭和維新の主役と日蓮宗の関係はどうであろうか。思うには、昭和維新とは、「剣」とも「死への直接的な帰結」とも異なる。維新する対象あるいは舞台である社会や国家は、揺れ動くものであろうが、必ず何とか手を出さないといけないものである。この社会や国家の変革は、「知識なし」でまたは「知識を乗り越えて」は可能なものでは決してない。「知識」をめぐるこのような思想的な地点で、日蓮宗と昭和維新は、ある面で、必然的につなが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Abstract>

Syowaisin and Nichirensyu
- On passion, action, and frutration in the 1930s' Japan -

Row, Byoung-Ho

In this paper, I want to review the Showaisin's contents and methods in relation with Nichirensyu(日蓮宗) in Japan of the1930s. Preceding researches take a unilinear position that Syowaisin had been influenced by Nichirensyu. But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every doers of the 1930s have separate colors about Showaisin and Nichirensyu, or not. That is to say, I hope to keep off the monotonous view(such as Nichirensyu=patriotism).

My conclusion is as in the following. Showaisin had not been able to come into being without knowledge and across knowledge. Therefore Nichirensyu had been necessary to the 1930s.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37－64쪽 10.15733/jast.2017..72.37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
－ 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

사사노 미사에**

< 目 次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세대론
2. 전후 일본의 세대 구분
Ⅲ. 고도성장시대 세대 담론
1. 단카이 세대: 1947-1949년생
2. 시라케 세대: 1950-1964년생
3. 버블 세대: 1965-1969년생
Ⅳ. 저성장시대 세대 담론
1. 단카이 주니어 세대: 1971-1974년생
2. 잃어버린 세대: 1975-1982년생
3. 유토리・사토리 세대: 1987-2003년생
Ⅴ. 맺음말

Key Words : 日本の若者(Youth in Japan), 世代論(Discourse of Generations), ライフコース変化(Life Course Transitions), 日本型福祉(Welfare System in Japan), 近代家族(Modern Family)

Ⅰ. 서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듯이 1990년 이후 일본에는 폐색감이 감돌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전후 이래 고도성장이 73년 오일쇼크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 고도성장도 끝을 맞이하여 전후부터 일본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체제나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1] 이것이 90년대 이후의 일본이다. 이후 ‘잃어버린 세대(로스트 제너레이션)’[2]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SNUAC-2016-004). 논문 작성에 있어서 조언을 주신 김은혜 선배님, 논문 수정을 도와준 친구 권가현씨, 그리고 학우 이상직씨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 소속 및 이메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mikaha@snu.ac.kr

이 등장하여 일본의 청년 담론은 소비의 주체・주인공에서 약자로 전환했고 새로운 사회적 배제 및 격차문제가 부각되었다. 한때 '1억 총중류'[3]라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믿어 왔던 일본에서 격차의 가시화는 큰 충격을 낳았다. 이후 청년 담론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노동 유연화에 따른 불안정과 그것으로 인한 결혼, 출산을 둘러싼 재생산의 곤란으로 확장되어 갔다. 2000년 이후에는 국민 모두가 '중류'라고 믿고 있었던 일본에서 '격차의 문제'가 부각하여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에 관한 논의(加藤久和, 2011: 19-60; 佐藤, 2000: 106-133; 白波瀬, 2005: 219-231, 2006: 181-191; 橘木, 2006: 68-126)가 활발하게 개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타격을 받은 층으로 알려진 청년을 둘러싼 담론이 확산되었다. 비정규 고용 증가, 니트, 프리터, 히키코모리 증가라는 '취업'을 둘러싼 문제(Genda, 2003: 103-132; 濱口, 2010: 27-54; 本田, 2005: 1-24; 2008; 宮本, 2002: 43-48), 미혼화, 만혼화, 출생률 저하라는 '가족형성'을 둘러싼 문제(Raymo and Iwasawa, 2005: 801-820; 岩澤・三田:

---

1) 경제 성장의 속도가 완만해졌다고는 해도, 73년의 오일쇼크 후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지는 와중에도 일본은 성장을 지속해나갔다. 1980년대까지는 엔화하락에 의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는 금융완화와 내수확대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거품경제 붕괴까지 연평균 4.2%(1974년에서 1990년 평균)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었다. 따라서 서구 국가들이 경제성장이 멈춘 1973년부터 근대의 종언에 부딪쳤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붕괴 후인 91년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91년부터 갑자기 일본 사회가 급변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이 막다른 지경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5년경부터다.

2) 2006년 8월 아사히신문에서 처음으로 이 명칭이 등장했고, 이후 버블 경기 붕괴 후인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사회진출을 해야 했던 취업 난민세대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 퍼져 나갔다.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이라는 채용방식을 택한 일본에서는 학교 졸업 전에 신졸(新卒)이라는 신분의 청년을 기업이 미리 인재로 확보하기 때문에 학교 졸업시기의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 빙하기'라고 불리는 불경기에 취업활동을 해야 했던 이 세대에서 비정규직 고용자가 증가했다(90년 초반 버블 경기 붕괴 이후 취업활동을 한 세대로서 학력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75년생 전후세대가 해당된다).

3) 일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5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서 중류의식이 점점 퍼져 나갔다. 내각부의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기의 생활수준을 '중류'라고 대답한 비율은 1960년대 중반에 이미 80%를 넘었다(http://survey.gov-online.go.jp/index-ko.html). 60년대의 '소득 배증 계획'을 거쳐 일본의 국민 총생산(GDP)이 세계 제2위가 된 1968년 이후에는 90%로 안정화되어 국민 전체에 중류의식이 정착해 갔다. 모든 국민이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계층의 소멸 현상 및 환상은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면서 모두가 충족함을 실감하여 살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 일본사회의 특징이다.

16-28, 2005; 加藤彰彦, 2011: 3-32; 松田茂樹, 2013: 61-92) 등 90년대 이후의 청년 담론은 '사회적 약자'로서 논의되어 갔다. 그것은 "절망적", "불행", "변모", "빈곤" 등 청년을 수식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전후(戰後) 일본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해 온 생애과정으로부터 일탈하는 청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선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과연 90년대 이전, 즉 경기침체 전의 일본 청년들에게는 현재 이야기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기성세대가 자명시하는 전후 일본 사회의 생애과정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또 그것은 실제로 90년대 이후 붕괴된 것일까?

주지하듯 우리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 그리고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청년의 문제라고 할 때는 경제 상황과 함께 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물론 '세대'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시대적인 배경과 변화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계급'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사회 변동의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한다는 점은 맘하임(2013: 39)이 지적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 사회 구조나 가치 규범, 그것에 대응해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변해간다. 속도와 순서는 다르지만 한 사회의 어떤 세대가 놓인 공통의 상황과 공유된 체험, 삶의 변화와 그 배경을 탐구하는 작업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그 안에 자리 잡은 우리의 위치를 돌이켜 보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기존 청년담론은 '청년의 변화'와 '청년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은 채 변화를 오로지 문제로만 다루어 왔다. 거기에는 특정 세대의 어떤 가치가 준거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비추어 '일탈'하는 청년이 비판적·비관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청년의 삶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연구 및 기존담론에서 암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생애과정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언제 형성되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생애를 규정하는 '세대'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청년담론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하여 세대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사회경제적 지표 및 인구학적 지표를 세대별로 정리하여, 기존의 청년담론과 대조하면서 청년의 생애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세대나 시기를 자세히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전후부터

지금까지 약 65년 동안 청년의 삶과 그 변화를 세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횡단적인 연구이다. 분석 대상은 전후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년생-1949년생)부터 사토리 세대(1987년생-2003년생)의 청년들이다. 분석 자료로는 기존 문헌, 잡지 기사와 각종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세대론

세대담론 연구는 크게 세대주의론과 세대주의 비판론으로 나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많이 듣는 '○○세대'라는 기호는 세대주의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세대를 논의하는 일은 사실 어렵다. 구분된 세대의 전후 세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고,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 내부의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주요 변수로 다루어진 것은 만하임이 "세대 문제"를 출판한 이래 세대가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세대가 사회 변동의 중요한 행위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 실제세대(Generation as Actuality), 세대단위(Generation Unit)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이론화했다(만하임, 2013: 47). 그는 사회 계급, 위치, 세대 등을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자라고 지적했지만, 동일 세대 내에 단 하나의 세대 단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세대단위'가 존재하여 동일한 실제 세대의 범주 내에 각각의 다양한 '세대단위'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 세대 위치 내에 실제 세대가 존재하면 그 실제 세대 내에 다양한 세대단위들이 존재한다고,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만하임, 2013: 122).

한국에서 세대주의론을 비판하는 연구로 전상진(2002: 193-230)의 연구가 있다. 그는 세대를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세대로 구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김선기(2014: 207-248)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연령주의, 청소년주의)

을 강조하는 언론의 선정주의를 비판하면서 세대담론 개념을 구성주의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광영(2009: 35-60)은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차이에 주목할 필요를 주장했으며, 일본에서는 早坂(1967: 50-53)가 같은 주장을 일찍부터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2000년 이후의 다양해진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해 주목하여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청년담론은 2000년 이후 활발해졌다. 古市(2011: 6-69)는 자신도 청년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청년을 분석하여 주목 받는 연구자이지만, "요즘 청년"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다양성은 보지 못하고 있다. 宮本(2002: 15-40), 豊泉(2010: 10-213)의 연구 또한 "요즘 청년"식 연구이다. 한일 청년 삶을 비교한 연구로 한일 청년층의 해외탈출 현상을 비교한 연구(정근하, 2016: 7-58)가 있으나, 이 또한 아주 특수한 집단을 "요즘 청년"이라는 식으로 하나로 묶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이 모호하다.

이렇듯 기존연구들은 세대주의적인 연구도 있고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 세대 간 차이는 물론이지만, 집단 내의 차이 혹은 세대 내 다양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에서, 세대담론을 비판하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세대'가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개인 생애의 변화의 맞물림을 포착하게 해 주는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차이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되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2. 전후 일본의 세대 구분

세대 구분은 입장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세대를 횡단적으로 정리한 松田久一(2013: 20-52)과 坂本・原田(2015: 30-271)의 분류를 참고로 하면서 문화적, 정치적 측면이 아닌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표 1>은 각 세대의 삶의 지표인 인구학적 특징 및 시대 배경, 문화적 측면, 경제상황, 취업 상황, 결혼 상황 등을 정리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 표를 기준으로 일본 세대의 특징 및 삶의 변화를 담론과 함께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1971-1974년에 태어나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상황에서 사회에 진출한 단카이 주니어 세대(4)가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경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은 70년대 이후 후기 근대로 진입했다는 서구의 담론과 비교했을 때 진입 시기가 약 20년이 늦은 셈이다. 생애미혼율에서는 2015년 현재 남자 23.5%, 여자 14.2%를 기록해, 이 수치를 보고 마치 지금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지만, 사실 2015년 현재 50세가 넘은 집단이란 여기서 버블 세대(1965-69년생)(3)로, 일본경기가 최고이었던 시기(연 평균경제성장율 6% 이상)에 사회에 진출해 취업이 수월했던 세대이다. 그럼에도 이미 가족형성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50세가 넘은 현재 남자의 1/4, 여자의 1/7이 미혼이라는 것이다. 한 때 '개혼사회'(皆婚社会)[4] 라고 불렸던 일본사회이지만 그것은 전후 세대 이전의 이야기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전후 첫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생)(1)의 생애미혼율: 남자 12.5%, 여자 5.8%).

---

4) 많은 일본사람이 일본은 예전에는 개혼사회였다고 믿고 있지만, 긴 역사로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주 짧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만혼이며 독신자도 많고 연애라는 개념도 없었다. 따라서 '운명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죽을 때까지 함께'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었고 막내가 독립하기 전에 많은 부모는 죽었었다. '가족(family)'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17세기에 들어서부터이며, 일본에서도 '가족'은 'family'의 번역어로서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낸 말이다. 즉 가족이란 메이지 시대 이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를 단위로 하려고 한 국민국가에 의해 생성 된 것이며 근대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은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 것과 구별하기 위해 국민국가에 의해 생성 된 '가족'을 '근대 가족'이라고 부른다(千田, 2011: 8-10). 이렇듯 우리가 지금 '전통'이나 '문화'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규범들은 사실 이 근대화 시절에 만들어진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다. 小山静子(1991: 233-240)는 '현모양처'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여성의 알맞은 삶 모습도 또한 근대화 시절에 정부가 국민을 잘 교육시키는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전근대에는 여성이 자식 교육을 하는 짓은 역사상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 만들어진 '근대가족' 또한 역사상 이 시기에 등장한 가족의 특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이 근대가족이야 말로 정상가족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표 1> 전후 일본의 세대 구분(1947-2003)

번호	(1)	(2)	(3)	(4)	(5)	(6)
세대구분	단카이 세대 (제1차 베이비붐세대)	시라케 세대	버블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 (제2차 베이비붐세대)	잃어버린 세대	유토리 사토리 세대
키워드	동질성, 경쟁, 근대가족	삼무주의(三無主義), 오타쿠 제1세대	소비, 허세	방하기 세대 초기	자아 발견, 자아 실현	깨달음, 달관
시대(년생)	1947-1949	1950-1964	1965-1969	1971-1974	1975-1982	1987-2003
세대 인구 규모(만명)	7,810-8,177	8,320-9,718	9,8275-10,254	10,610-11,057	11,194-11,873	12,224-12,769
출생아수(만명)/년	268-270	160-234	140-190	200-210	152-190	112-135
합계출산율(TFR)	4.3-4.5	2.0-3.7	1.6-2.2	2.1-2.2	1.7-1.9	1.3-1.4
세대규모(만명)	806 (확대 단카이: 1947-1951년 1,253)	2,655	888	816	1,346	2,059
초혼연령(세)	1975년	1985년	1995-2000년	2000년	2005-2010년	2015년 현재
	남자 27.7	남자 29.6	남자 30.7-30.8	남자 30.8	남자 31.1-31.2	남자 31.1
	여자 25.0	여자 25.6	여자 27.7-28.6	여자 28.6	여자 29.4-29.7	여자 29.4
30-34세 미혼율(%)	1980년	1980-1995년	1995-2000년	2000-2005년	2005-2010년	2015년 현재
	남자 28.2	남자 28.2-37.5	남자 37.5-42.9	남자 42.9-47.1	남자 47.1-47.3	남자 47.3
	여자 10.4	여자 10.4-19.7	여자 19.7-26.6	여자 26.6-32.0	여자 32.0-34.5	여자 34.6
35-39세 미혼율(%)	1985년	1985-2000년	2000-2005년	2005-2010년	2015년 현재	_
	남자 14.2	남자 14.2-26.2	남자 26.2-31.2	남자 31.2-35.6	남자 35.0	_
	여자 6.6	여자 6.6-13.9	여자 13.9-18.7	여자 18.7-23.1	여자 23.9	_
생애미혼율(%)	2000년	2000-2010년	2015년 현재	2020-2025년*	2030-2035년*	_
	남자 12.5	남자 12.6-20.1	남자 23.5	남자 26.6-27.4	남자 27.6-29.0	_
	여자 5.8	여자 5.8-10.6	여자 14.2	여자 17.8-18.9	여자 18.8-19.2	_
주 초산연령대(세)	1975년	1985년	1990-2000년	1995-2000년	2000-2012년	_
	25.7	26.7	27.0-27.5	27.5-28.0	28.0-30.3	_
경제성장률(시화전출시점 20세전후)(%)	1965-1970년	1970-1985년	1985-1990년	1990-1995년	1995-2005년	2007-2015년
	6.2-8.2	8.2-6.3	6.3-6.2	6.2-2.7	2.7-1.9	1.8-0.8
GDP(억엔)	1965-1970년	1970-1985년	1985-1990년	1990-1995년	1995-2005년	2007-2016년
	111,294-188,323	188,323-350,602	332,674-447,370	447,370-455,458	455,458-508,921	523,686-531,151
소비 패턴	195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보급, 마이홈 마련하기	1960년대 후반부터 칼라 TV, 에어컨, 자동차의 보급	소비+물질+서비스	합리적	소비의 다양화, 혐(嫌)소비, 탈소비	디지털화, 유행에 무관심
대학진학률(%)	1965-1970년	1970-1985년	1985-1990년	1990-1995년	1995-2005년	2007-2013년
	17.0-23.6	23.6-37.6	37.6-36.3	36.3-45.2	45.2-51.5	53.7-55.1
	남자 22.4-29.2	남자 29.2-40.6	남자 40.6-35.2	남자 35.2-42.9	남자 42.9-53.1	남자 54.9-55.1
	여자 11.3-17.7	여자 17.7-34.5	여자 34.5-37.4	여자 37.4-47.6	여자 47.6-49.8	여자 52.5-55.2

자료: 총무성 통계국 '국세조사',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 '인구동태통계', '매월근로통계조사',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내각부 '국민경제계산(GDP)통계'를 참고로 본인이 계산 및 작성.

주 1: ＊는 국립 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세대수의 장래 추계(전국 추계)(2013년 1월 추계)'.
주 2: 경제성장률은 내각부 공표 전년대비 실질 GDP의 각 연차를 중심으로 한 7년 이동평균이며, 경제성장률이란 실질 GDP의 작년도 대비 증감률이며 경제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 GDP는 해당년도의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것임. 연도별 수치에 기초하며 93SNA 연쇄방식 추계로서 평균은 각 연도의 단순 평균이다. 1980년도 이전은 '2000년판 국민경제 계산연보(63SNA베이스)', 1981-94년도는 '연보(2009년도 확보)'에 따른다. 그 이후는 2016년 4-6월기 2차 속보(2016년9월8일 공표). 1956-73년도 평균 9.1%, 1974-1990년도 평균 4.2%, 1991-2015년도 평균 0.9%이었다.
주 3: 대학진학률은 2년제・4년제 대학의 합계.

Ⅲ. 고도성장시대 세대 담론

1. 단카이 세대(제1차 베이비붐 세대): 1947-1949년생

먼저 전후 세대의 핵심을 이루는 단카이 세대(松田久一, 2013: 160)에 대해 살펴보자. 이 세대는 1947-49년의 3년 사이에 연간 약 270만 명 규모로 태어났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로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전후에 태어난 첫 세대인 이들 30-34세의 미혼율은 남성 28.2%, 여성 10.4%(1985년), 35-39세 미혼율은 남성 19.1%, 여성 7.5%(1990년), 생애 미혼율도 남성 12.5%, 여성 5.8%(2000년)로 전후 첫 세대인 이 세대부터 이미 비혼화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 세대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7.7세, 여성 25.0세(1975년)이며 사회에 진출하는 19세 전후의 경제 성장률은 6.2-8.2%(1965-1970년)로, 그들은 고도성장기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에 첫 발을 들일 수 있었다. 이 세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체 12.8%, 2년제 대학 4.1%로, 2년제 4년제 대학을 합쳐도 전체 17.0%에 지나치지 않았고 대졸자는 엘리트로서의 길을 약속받은 세대라 할 수 있다(1965년).

일본 가족사회학에서는 근대화에 따라 "생계부양자로서의 직장인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자식은 2명"인 핵가족이 '근대가족'이라고 불렸고, 고도성장의 풍요로움을 배경으로 이러한 인식이 대중화되어 갔다고 한다. 샐러리맨 남성

과 그의 수입으로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가 자식에게 높은 교육을 시킨다는 '회사-가정-학교'의 삼위일체 구조가 바탕이 된 "발전의 링"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살았다(本田, 2014: 14-24). 각 가정에서는 '마이 홈'을 가지는 한편, 자식은 자신보다 좋은 학력을 통해 좋은 회사에 취업할 것이라는 계층 상승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남편의 화이트 칼라화와 아내의 전업주부화와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3종 세트가 고도 경제성장기의 가족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落合(2004: 94-110)가 "가족의 전후체제(家族の戦後体制)"라고 부른 일본의 근대가족은 1955년부터 75년에 걸쳐 대중화되어 갔다. 山田 (2005: 244-247) 또한 고도 경제 성장기를 "전후 가족 모델의 안정기"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이 시기에 '전후 가족 모델'이 표준 모델로 정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90 년대 중반까지 '실태'에서도 '의식'에서도 대부분의 여성은 전업 주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 첫 세대인 이 세대의 35-39세 미혼율이 남성 19.1%, 여성 7.5%이라는 점, 그리고 남자의 10% 이상, 여자의 5% 이상이 평생미혼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담론들은 이상이나 관념에 가까운, 실태를 반영한 담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근대가족 대중화론은 서양 모델에 따라 근대가족을 핵가족으로 본다. 그렇다면 전근대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었고 전후에 핵가족 형태가 보급되어 생애과정이 표준화(standardized)되어 갔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총무성 통계국 국세조사의 결과를 연도별로 찾아보면, 조사가 시작된 1920년에 핵가족 가구의 수가 이미 전가구의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반세기 후인 1975년에는 63.9%로 약 10%만 증가했고, 이때를 절정으로 이후 감소하여 1990년에는 61.9%, 2010년 현재에는 57.5%까지 하락했다.[5] 전쟁과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불과 10%가 증가했다는 숫자로부터 "핵가족화"가 대중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落合(2004: 94-110)의 지적처럼 55년부터 75년 사이에 근대가족이 대중화되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5) 핵가족의 구성을 보면 부부가족이 1955년 6.8%에서 2010년 사이에 20.1%로 증가, 부부와 자녀로 된 가족은 같은 시기 43.1%에서 28.4%로 감소했고, 1970년에 46.1%로 가장 높았다.

2. 시라케 세대:1950-1964년생

1950-64년에 태어난 포스트 단카이 세대를 '시라케(무관심, 만사에 흥미와 의욕을 잃은 상태) 세대'라고 부른다. 그들은 젊었을 때 학생운동을 경험한 단카이 세대와 비교되었는데,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3무(無)주의'(무기력, 무감동, 무관심)나 '5무주의'(+무책임, 무례함)라고도 불렸다. 196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이 끝난 후에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이다. 이들 세대부터 미혼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했으며 생애미혼율은 남성이 20%, 여성도 10%를 넘게 되었다(2010년). 35-39세 미혼율도 남성 14.2%에서 26.2%로, 여성 6.6%에서 13.9%로(1985년-2000년) 각각 크게 상승했다.

그래도 이 세대가 결혼할 때 즈음인 1980년대까지 만해도 일본에서는 '독신'이라는 신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80년대에는 독신을 흔히 '독신귀족'이라고 부르고 독신인 것이 자유나 부유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졌었다. 그것은 고도 경제성장기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정규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미혼자・비혼자가 급증함에 따라[6] '독신'이 90년대에는 '파라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7]로 불리면서 문제시 되어 갔다.

이 세대의 가족형성시기인 7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국가복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과 기업으로 인한 복지체계를 추진해 갔다. "일본형 복지"라고 불린 이 체계의 기원은 79년 자민당이 발표한 "일본형 복지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自由民主党, 1979: 1-210). 그 내용을 大沢(1993: 205)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내셔널 미니멈'의 개념은 유해무용(有害無用)이며, 국가로부터의 '구제'는 핸디캡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② 위험(risk)은 기본적으로 개인(가족, 친척 포함)이 부담한다. ③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은 '타락의 구조'를 만든다. ④ 기업과 경쟁적인 시장에 맡긴 것이 효율적인 복지 분야가 크다(예

6) 지은숙(2016: 1-272)은 일본사회에서의 비혼 증가에 대하여 '비혼됨'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시대적 흐름을 키워드로 삼아 전후 일본을 가족의 시대(1945-1970년대), 싱글의 시대(1980-1990년대), 돌봄의 시대(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7) 사회학자 山田昌弘가 명명한 말이며, 기생충과 같이 집주인(부모)한테서 양분(기초적 생활을 지원해주는 물질적 조건)을 공급받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독신 청년들을 가리킨다(山田, 1999:11).

를 들어 공급 주택). 여기서 상정되어 있는 "일본형 복지"는 개인 생활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가정과 기업을 전제로 하며 국가는 보완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형 복지는 남성의 경우 일본형 노사관계[8]의 틀에, 여성의 경우 가족의 틀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기존연구에서 일본형 복지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한편에서 70년대부터 이미 비혼율이 크게 증가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체계의 붕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90년까지는 비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형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버블 세대: 1965-1969년생

일본경제의 절정기에 청춘시대를 보낸 1965-69년생을 버블 세대라 부르는데,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소비 욕구가 높다고 평가된다. 그들이 사회에 나갈 때인 20세 전후의 경제 성장률은 6.3-6.2%(1985-1990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버블 세대는 이 버블 경기(1986-1991년) 시기에 취직한 세대로서, 전후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에서 버블 세대까지는 가장 경기가 좋은 시절에 청년기를 보낸 청년들이다. 이 세대 남성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미혼율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상승하여 2015년 현재 그들의

8) 미국의 경영학자인 애비글렌(James Abegglen, 1984: 1-227)은 전후 일본 기업의 발전 원천이 '종신 고용', '연공서열', '기업 내 조합'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일본형 경영"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이 추가되어 4가지가 "일본형 고용"의 특징이라고 불린다. 本田(2014: 24-37)는 전후의 일본은 '가족', '교육', '일'이라는 3가지의 영역이 잘 연계되어 있던 사회였다고 평가한다. '가족'의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 교육에 돈을 쓰고, '교육'의 영역에서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일본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의 영역에서는 생계 부양자(breadwinner)인 아버지가 가족에 '돈'을 가져 온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은 다시 아이의 '교육'에 투자한다. 종신고용으로 실업의 위험도 없고 연공서열로 연령에 따라 월급이 많아져 자녀 양육비와 부모의 돌봄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기업 조합에 의해 정규직의 복리 후생이 제공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복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기업'과 '가족'을 통해 '복지'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왔었기 때문에 생산과 재생산 노동이 순환되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제도다.

생애미혼율은 남성 24.2%, 여성 14.9%를 기록하여 일본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일본경제가 절정기에 있고 취업도 비교적 쉽고 정규직 비율이 높았던 이 세대에서도 비혼화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현재 청년의 미혼율이 높은 상황을 보고 결혼과 경제상황이 단순한 정(+)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71년의 닉슨 쇼크, 1973년과 1979년의 오일 쇼크로 인해 서구의 고도 경제성장기는 끝나갔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버블 경기가 도래했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 귀속의식이 확대되어, '1억 총중류(一億総中流)'라는 말이 확산되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85년)[9]영향으로 고학력 여성 가운데 본격적으로 커리어 우먼을 목표로 한 여성도 다소 늘어났지만 그래도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5%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대부분은 고졸, 2년제 대학 졸업, 전문학교 졸업자였으며,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 분업 의식을 가지고 전업주부를 지향하였다.[10]

Ⅳ. 저성장시대 세대 담론

1. 단카이 주니어 세대(제2차 베이비붐 세대): 1971-1974년생

단카이 세대의 자녀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를 살펴보자. 그들은 일본에서

9) 정식 명칭은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며, '균등법'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또한 일하는 여성의 모성을 존중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1985년에 제정되었다. 모집・채용시 남녀의 균등 취급, 배치・승진・교육훈련, 복리후생, 정년・퇴직・해고 등에 대해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남성 노동자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자료: 후생성 '남녀 고용기회 균등 법 및 지침'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3471.html).

10) 이 세대의 여성 4년제 대학진학율은 12.2-13.6%(1983-7년)이다. 만일 4학년 대학졸업자의 전원이 커리어 우먼을 목표로 한다고 한들 그것은 여성전체의 10%정도밖에 없는 압도적인 소수파다.

단카이 세대 다음으로 동세대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 세대의 대학졸업자는 취업난에 직면했지만 고졸자는 버블 경기의 혜택을 받은 채 취직하였고 이후 세대와 달리 고졸이어도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던 사람도 많았다. 말하자면 이 세대의 여성은 대기업 금융기관에 고졸로 입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중 대졸자들은 버블 경기 붕괴의 여파로 취업난에 부딪쳤고 대졸자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 이 세대는 세대 내에서 취업이 갈라진 세대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경계 세대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형 복지' 모델 틀에 들어갈 수 없는 청년이 증가했다. 이 세대의 생애미혼율은 이 세대가 50세를 맞이하는 2020년에는 남성 26.6%, 여성 17.8%로 예상되어 있다.[11)]

이렇게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200만 명 규모인 이 세대에서, 무려 남성의 1/3이 평생 미혼으로 산다는 것은 일본 전체 출생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출산이 결혼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본[12)]에서는 비혼율의 상승이 곧 출생율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2. 잃어버린 세대: 1975-1982년생

1975-1982년생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고 부른다. 이 세대 미혼율은 이전 세대보다도 더욱 크게 상승했다. 이 세대 35-39세 미혼율은 남성 35.0%, 여성 23.9%(2015년)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생애미혼율은 남성 30-35%, 여성 23-27%(2030-2035년)로 예상된다.[13)] 즉 2016년 현재 34세에서 41세의 남성 3명 중 1명, 여성 4명중 1명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0세 전후의 경제 성장률은 불과 약 1%로 전후 수준까지 하락했다(1995-2000년). 한편 대학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29.7%에서 44.2%까지 상승했다(2년제, 4년제 합계).

---

11) 자료: 국립 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세대수의 장래 추계'(전국 추계)(2013년1월 추계). 생애미혼율은 50세 시점으로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며 45-49세의 미혼율과 50-54세의 미혼율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2) 일본에서는 '혼외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2015년 2.3%). 혼외출생률이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조사'에서 2015년도 출생 총수에 차지하는 적출이 아닌 아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13) 자료: 국립 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세대수의 장래 추계'(2013년1월 추계).

이들 부모 세대에서 ‘샐러리맨+전업주부+자녀 두 명’의 근대가족이 정착됐고, 이들은 어린 시절을 이러한 가정에서 생활해 왔다. 풍족한 경제성장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90년대 초반 버블 경기가 붕괴되었다. ‘취직 빙하기’에 취업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세대는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승자’와 희망한 기업으로 취직을 할 수 없었던 ‘패자’로 분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학을 졸업해도 블랙 기업[14]을 다니는 사람이나 니트, 프리터 등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아졌고, 고학력 워킹 푸어[15] 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확대하여, 1990년 25-34세의 비정규노동자는 11.7%이었지만 이들이 취업할 2000년에는 17.6%, 2010년에는 25.9%까지 상승했다.

동세대 내에서 임금격차가 커진 것도 이 세대의 특징이다.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고 자라 온 이 세대에 있어서, 치열한 입시 전쟁을 이겨냈음에도 취직난을 경험했기에 사회나 윗세대부터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 결과 ‘자아 찾기’나 ‘보람 느끼기’, ‘하고 싶은 것’, ‘자기계발’ 등을 추구하는 청년이 늘어났다.[16]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Lyotard, 1984: 60-61)가 말한 “큰 이야기(Grand Narratives, Master Narrative)의 종언”[17]에 이 시기 일본이

14) 입사를 추천받지 않는 노동 착취형 기업.

15) 水月(2007: 1-217)의 『고학력 워킹 푸어 ‘프리타 생산 공장’로서의 대학원』에서 만들어진 단어. 塩沢(2013: 81)는 “학력 난민”이라고 부른다.

16) 원래 노동은 생계수단에 지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보람이라는 의미가 결부되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포스트 공업화 시대를 사는 노동자들은 이전의 제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처럼 물건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임금이어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쉽다고 한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육체노동일지라도 청년 중에는 보람을 위하여 어떻게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이른바 저임금노동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버팀이 되는 것을 阿部(2006: 19)는 ‘자아실현 일 중독증 환자(自己実現系ワーカホリック)’라고 부르고, 本田(2008: 82-101)는 ‘보람(やりがい)의 착취’라고 불렀다.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 청년에게 일의 보람이란 1990년대 이후의 구조적 불황으로 인한 수입 격감이라는 세대적인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집단적인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청년들의 힘든 저임금노동을 정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람’이라면 그것을 금전 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파라사이트 싱글을 허용해 주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

17) 리오타르에 의하면 원래 사람들은 과학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큰 이야기’로서 철학을 필요로 해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철학’이란 진위나 선악을 물을 때의 ‘기초’를 확고

부딪쳤다고 볼 수 있다. 바우만(Bauman, 2000: 11)의 '유동적 근대'(Liquid Modernity)는 이러한 현대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 개념이다.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 '근대'에서 견고한 시스템이 용해되고 액상화되어 '후기 근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후기 근대에 들어가서 '큰 이야기'가 무너지고 이제 모두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결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야 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게 되었다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획일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이 세대 청년들이 "자아실현"(自己実現), "자기 찾기"(自分探し)를 실현하려고 해매는 모습을 그리는 담론(浅野, 2006: 1-36; 香川, 2010: 171-197; 牧野, 2012: 235-261)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준다.

3. 유토리・사토리 세대: 1987-2003년생

유토리・사토리 세대는 일반적으로는 초중학교에서 2002년도 입학생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2003년도 입학생 이후에 시행된 학습지도요령에 의하여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1987년 4월-2004년 3월 출생)로 여겨진다.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는 같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유토리 교육은 그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져 유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것을 당사자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18]

이 세대는 유토리 교육으로 인해 경쟁하지 않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하게 하기 위한 지식 영역을 가리킨다. 리오타르는 이러한 '큰 이야기'에 준거했었던 시대를 '근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신감이 만연한 시대를 '후기 근대'라고 부른다. 즉 후기 근대란 이 기초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철학'이 유효성을 잃어버린, 바꿔 말하면 '큰 이야기'가 종언한 시대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 '후기 근대'라는 말이 침투해 감에 따라 '큰 이야기의 종언'이라는 말은 그 이전 시대로부터의 단절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서 널리 퍼져 나갔다.

18) 이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인터넷 게시판의 논의에서 기원한다. 지금 청년들은 차를 타지 않고 명품 옷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스포츠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고 연애에는 담백하다고 지적한 어떤 글이 있었다. 누군가 이에 대해서 '사토리(깨달음, 달관) 세대'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확산되어 나갔다고 한다(阪本他, 2015: 185).

그 이상으로 초저출산 세대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적고 윗세대보다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 수가 감소하면 대학도 도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대학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1990년 전국 507개교였던 4년제 대학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783개로 증가, 2016년 현재 777개에 이른다(1990년부터 1.53배 증가).[19] 추천입시, AO입시[20] 비율이 높아진 것도 있어 세대인구는 감소했지만 대학 수는 증가했고 대학진학률도 50% 넘게 상승했다.[21]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진학율은 2015년에 54.6%가, 여기에 전문학교 진학률을 합치면 71.2%가 된다(2015년도 학교기본조사).

그렇다면 대졸자의 급증으로 인해 고용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총무성 노동력조사로 노동자 전체에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25-34세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이 세대가 해당되는 2015년에는 27.3%까지 상승했었다.[22] 1990년까지 만해도 10%정도에 머물렀던 25-34세 청년 비정규직

---

19) 대학 재학자수를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많았던 단카이 세대의 대학재적 시기인 1970년에는 약141만 명,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시기인 1990년에는 약210만이었다. 그 후 매년 수가 늘어나 2016년 현재는 287만 명이 재학 중이다(학교기본조사, 연차 통계). 한편,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을 정점(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진학 시기)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120만 명까지 감소했다(0.58배 감소). 출생률 감소가 진행되어 18세 인구가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대학의 수와 대학진학자수가 증가해 왔다.

20) AO입시란 입학사무실(Admission Office)의 약자로서 대학 지원자들이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학생상인 입학정책(Admission Policy)에 맞는지를 평가해 선발하는 입시 제도를 말한다. 선발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한 지망 동기가 요구되는데, 크게 면접 중시형 및 논문 중시형으로 구분된다. 성적(평점 평균치)의 기준이 없고 고등학교의 추천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https://manabi.benesse.ne.jp/parent/nyushi/04/).

21) 2011년도의 대학전체 입학자의 입시별 비율을 보면 일반 입시가 55.7%, 추천 입시가 35.1%, AO입시가 8.7%로 추천과 AO입시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2008년부터 추천, AO입시에 의한 입학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2011년도에는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다(왕문사 교육 정보센터, 2011년도 공개 자료).

22) 청년의 고용 불안정화를 이야기할 때 15-24세 비정규직 비율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은데 여기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990년 이후 대학생 증가로 인해 당연히 이 연령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총무성 노동력조사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학생을 제외한 숫자를 공개한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남녀별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연령 구간도 5세 단위가 아닌 10세 단위로만 공개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보면 15-24세 청년 비정규직 고용율은 1990년에는 20.5%이었지만, 2015년에는 48.3%로 약 절반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학생을 제외하면 2000년 23.0%, 2015년에도 29.8%로 감소한다.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의 한계로 여기서는 대학 졸업 후인 연령대 청년들 25-34세 비정규직 취업률 데이터를 제시한다.

고용율은 불과 25년 사이에 약 3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청년 문제 이전에 성별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성별로 자세히 보면 같은 시기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42.1%를 차지하는 데 반해 남성은 16.9%에 머무르고 있다.[23] 1990년을 살펴보면 25-34세 청년비정규직은 11.71%이지만, 성별로 보면 남성은 불과 3.2%, 여성은 28.2%를 차지한다. 이를 보면 청년의 취업 상황이 1990년 이후 악화되어 간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경우 90년 이전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불안정은 아무런 화제가 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청년 여성의 취업 상황 악화가 급속히 확장하여 청년 남성 취업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즉 청년 취업 상황 악화가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일본형 복지모델'이 아직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여성의 일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보조 또는 가계의 보조적인 일이라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에 '소득세, 주민세 등에 있어서의 배우자공제',[24] '각 기업에 의한 배우자 수당(가족 수당)', '연금의 피부양 아내 우대 대책'[25] 등 고용제도나 세금제도가 '표준가족'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제도로서의 가족'은 남녀의 성별역할분업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별역할분업을 고정화시켜 간다. 따라서 여성 비정규직 고용이 90년 이전에도 많았는데도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청년 '남성' 사이에 비정규직이 많아짐에 따라 처음으로 문제로 부각되었

23) 2002년 이후는 총무성 노동력조사의 상세 집계에서, 2001년 이전은 노동력조사의 특별조사에 기초하고 계산했다.

24) 배우자공제란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수입이 없는, 또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납세자의 소득 금액으로부터 일정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다. 즉 피부양자인 아내의 연간 수입이 103만 엔 이하라면 남편의 급여 소득 공제액 65만 엔과 기초 공제액 38만 엔을 빼면 과세 소득이 제로가 된다. 이 제도 때문에 파트로 일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주부는 연수를 103만 엔 이내에 제한하려고 한다. 흔히 '103만의 벽'라고 불린다. 그리고 연수입이 103만 엔을 넘어도 141만 엔까지는 배우자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고 단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어 141만 엔을 넘어야 처음으로 공제가 없어진다('141만의 벽').

25) 일견 여성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제도이지만 연금의 적립이 면제되는 제3호 피보험자(전업주부・파트 타이머의 주부가 99%)의 연금은 기초 연금만이며, 남편에 비해 1/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한다.

고, 이는 '청년취업의 약화' 담론으로 변해가면서, 기성세대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즉 남녀 합계 청년 비정규직 비율로 '청년취업문제'를 이야기함에 따라 숨어있는 남녀 간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25-34세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약 17%인 것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높지만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이처럼 제도화된 구조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고용이 많아짐에 따라 요즘 일본 20대 여성 사이에서 보수적인 전통 회귀형 태도와 전업주부 지향이 높아지고 있다. 내각부의 여론 조사(2016)에 의하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여성 찬성 의견이 20대에서 2002년 33.2%에서 2012년에는 43.7%로 증가했고, 30대에서도 같은 해 32.9%, 41.6%로 증가했다.[26] 이것은 여성 취업율은 높아졌지만 취업의 질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 대부분이 여전히 가계보조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계층의 분화를 반영한 계층 상승희망이라 볼 수 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전업주부는 사실 높은 사회계층에 속하고 진보적으로 보였던 일하는 주부는 사실 가계보조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낮은 사회경제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히자 젊은 여성 사이에 보수회귀라고 볼 수 있는 "전업주부지향"을 야기했다(上野, 1994: 141). 또 윗세대 여성 중 결혼을 안 하고 일만하는 여성들이 '마케이누(싸움에서 진 개: 패배자)'[27] 라고 부정적으로 불리고, "혼활(결혼 활동을 준말)"이라는 말[28]이 유행하면서 취업은 실패해도 결혼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담론들과 함께 청년들의 보수회귀 지향을 강화시켜 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여성의

---

26) 내각부 "남녀공동참획사회에 관한 여론조사" 각년판.

27) 2003년 酒井順子(1966년생)가 출판한 에세이『싸움에 진 개의 짖음』에서 '30대, 미혼, 자녀 없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서(酒井, 2003: 7) 일본사회에서 '패배자' 논쟁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85년의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배경으로, 커리어를 목표로 하는 여성이 다소 증가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대졸자인 일부 엘리트 여성의 이야기다. 엘리트로서의 커리어를 가지는 여성조차 결혼・육아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배자'로 간주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결혼・육아에서야 말로 여자의 행복이 있다는 가치관이 당시 아직 뿌리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8) 사회학자 山田昌弘가 2007년 잡지 AERA(2007월 11월 5일월 발행)에서 "보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취활'이라고 불리듯이 보다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결혼활동'을 '혼활'이라고 부르겠다고 제안한 이후 "혼활시대"라는 책(2008: 1-200)을 출판하여 일본사회에 널리 퍼져 나간 말이다.

성역할태도에 찬성하는 비율과 비정규직 고용자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전통회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생산성본부 '2012년도 봄　신입사원의식조사'에 의하면 "지금의 회사에서 평생 일하려고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상 최고치(60.1%)를 기록했는데, 과거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신입사원이었던 2000년도에 20.5%로서 최저를 기록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또 201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연공서열로 승진"을 바라는 비율이 42.3%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 세대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보수적인 태도가 증가하였고, 세대 내부에서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양극화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청년들 사이에서 전업주부지향이 강해지고 보수화 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절반 이상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을 지켜야 한다"라는 기존의 성별 역할 분업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 경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청년 담론에서는 일부 기성세대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청년에만 주목하고 그들 변화를 문제로 다루어 강조해 왔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까지 사토리 세대라고 하면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낙관적 탈존주의"(김홍중, 2015: 201)의 삶을 디자인 하는 세대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이는 마치 이 세대 모두가 경쟁에서 벗어나 편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은 이전 세대와 변함없는 보수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들도 결혼을 하고 집을 갖고 싶어 하며 회사에서 출세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29]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사실 언론에서 주목받지 않는, 또 연구자들의 청년 담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라 할 수 있다. 이 세대 일부 청년들의 선택은 이른바 '하류(下流)'나 '사축(社畜)'[30]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묵하는

29) "대특집U35세대 비(非)배틀계와 사축"을 특집한 AERA(2015년8월31월 발행)에서는 "젊은 사축은 현자인가 하류인가: 마일드 불량소년화 하는 화이트 칼라"라는 타이틀로 청년의 양극화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30) 사축이란 주로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사육되어서 자신의 의사와 양심을 포기한 노예(가축)화한 샐러리맨을 야유한 말이다. 광의로는 경영자가 아닌 고용 당하는 쪽을 가리킨다. '회사+가축'에서 온 조어로서 '회사 인간'이나 '기업 전사' 등보다도 외부로부터

다수이자 사토리 세대 중 다수는 안정과 출세를 추구한다. 불경기 하에서 안정적인 회사에 근무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압도적 다수파인 것이다. 물론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생애과정을 선택하는 청년도 증가했는데, 고도 경제 성장기를 살아온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는 이 일부 청년들의 삶의 태도가 특이하게 비춰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너리티 사이에서 퍼진 생애과정에만 담론이 집중했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로 이 세대의 모든 청년들이 경쟁에서 이탈하고, 욕심도 없고, 소비에도 흥미가 없다는 등 유토리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31] 결국 경기가 좋았던 고도 성장기에 비교적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살아온 세대가 본인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일부 청년들의 삶 태도나 선택이 탈표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소수파 집단만을 주목하고 논쟁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토리세대의 대다수는 사토리세대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일본의 전후부터 지금까지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세대담론과 청년 삶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구조변화와 그것에

무시되는 어감이 있다.

31) 이에 대해서 鈴木(2012: 109-111)는 '현상'으로서의 청년인지 '실태'로서의 청년인지라는 강조점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는 청년고유의 선구적 사례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징후를 읽어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일부의 청년'의 경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후자는 총체로서의 청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정책 등으로 수당을 고쳐야 할 문제를 발견해 간다. 전자는 '분석적인 청년'개념, 후자는 '기술적인 청년'개념이다. 이 '현상'과 '실태' 사이에서 심각한 견해차이나 대립이 일어난다. 특히 청년층의 생활 스타일이나 가치관의 다양화가 보이게 된 현재로서는 얼마간의 선구적 사례를 쌓아 모아 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국지적 현상'에 지나치지 않고 과학적인 실증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주장밖에 되지 않다는 비판이 이미 많이 제기됐다. 그러한 일부 청년의 경향이 과장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뒤틀리게 이해해 버리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사이의 선구적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휴대전화 이전에 '삐삐'의 메시지의 교환(90년대의 이용자는 도시부의 일부 청년)이 지금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연결되는 것처럼, 선구적 사례가 이후의 청년 전체에 파급해 가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鈴木, 2012: 112).

대응해 나가는 청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세대'를 키워드로 전후 일본 청년의 삶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후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일본 청년들의 삶은 세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90년까지만 해도 고도 성장기를 배경으로 청년들 대부분이 비교적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대중화된 '근대가족'은 과장된 담론이었다. 이미 90년 이전부터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1990년 35-39세 미혼율 남자 22.7%, 여자 10.1%). 그러나 90년 이후의 청년 생애과정이 90년 이전보다도 다양화되었으며 지금 청년은 어느 세대보다도 '세대론'이 통하지 않게 될 만큼, 삶의 태도나 방식이 탈표준화되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청년의 경제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에만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핵심적인 문제는 '일본형 복지'가 여전히 '가족복지'와 '기업복지'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 청년과 안정적인 고용으로 보호 받는 청년들 간에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가족형성에서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경제의 최고 호황기였던 60년대에 태어난 버블 세대에서도 이미 가족형성을 못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었고, 이 세대의 생애미혼율이 남자 약 25%, 여자 약 15%나 된다는 점에서 경제나 고용상황만으로 비혼화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청년취업 문제는 사실 청년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별 문제이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도 높아졌고 여성 취업률도 높아졌지만 여성취업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생계부양자모델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까지도 여성의 고용은 불안정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00년 이후 남성 사이에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문제로 인식되어, '젠더비대칭문제'가 '청년취업문제' 담론으로 변해갔다.

가족과 기업이 국가 대신에 복지를 제공하는 '일본형 복지모델'은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가족을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한 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도 성장기에는 기업이 복지를 국가 대신에 제공했었고 여성의 경우 그러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모델은 개인화의 진행 및 고용이 유동화된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족에게 복지기능을 떠넘기고 있어 가족형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형 복지모델에서 기준으로 삼는 '표준가족'은 이미 표준이 아니게 된 지 오래 되었다.[32]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청년의 삶에 대한 태도는 이전세대보다 다양화되어 왔다.

90년대 이후 벌어지는 청년들의 삶 태도와 가치관에 대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좀 더 자세하게 그들 생활세계를 그려 주는 과제는 다음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는 지구화의 영향과 흐름 속에서 일본 사회와 청년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비교연구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필자는 '청년의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시대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변화로 봐야한다고 본다. 앞으로 일본 미래를 짊어 질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는 근대가족을 동경하고 이 생애모델에 들어가도록 청년들을 계몽・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될 만큼 진행된 개인화 시대에서 청년들이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후기 근대에 진입한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도 맞이할 경제저성장, 근대가족의 종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과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 사례가 교훈을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은 가족을 복지모델로 삼는 '제도화된 가족주의'가 지적되어 왔는데(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1-38), 일본의 경우처럼 이 복지모델은 앞으로 개인화의 진행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이 사회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시작할 것이며, 이는 바로 청년층을 타격해 갈 것이다. 앞으로 '후기 근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는 일본이 먼저 경험해 가야 하는 과제와 도전이기도 한다.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 있다.

---

32) 실제로 '표준가족' 모델이었던 '샐러리맨+전업주부+자녀 두 명'이라는 4인 가구는 80년까지 2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지만, 90년 이후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증하였으며, 2000년 이후 일본의 가구구성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서로 비율이 높아, 2015년에는 각각 34.5%, 27.9%, 17.6%, 13.3%를 차지한다. 70년대부터 추진된 일본형 복지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4인 '표준가족'은 2000년 이후 이미 소수파 가족형태이다(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 각년도).

＜参考文献＞

浅野智彦(아사노 토모히코)(2006)「第一章　若者論の失われた十年」浅野智彦編『検証・若者の変貌: 失われた 10 年の後に』. 勁草書房. pp.1-36.

阿部真大(아베 마사히로)(2006)『搾取される若者たち: バイク便ライダーは見た!』. 集英社. pp.1-157.

岩澤美帆・三田房美(이와사와 미호・미타 후사키)(2005)“職縁結婚の盛衰と未婚化の進展.”日本労働研究雑誌, 535: 16-28.

上野千鶴子(우에노 치즈코)(1994)『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 (Vol. 75)』. 岩波書店. pp.1-358.

大沢真理(오오사와 마리)(1993)『企業中心社会を超えて』.時事通信社. pp.1-247.

落合恵美子(오치아이 에미코)(2004)『21 世紀家族へ: 家族の戦後体制の見かた・超えかた』. 有斐閣. pp.1-283.

香川めい(카가와 메이)(2010)“「自己分析」を分析する：就職情報誌に見るその変容過程」.”苅谷剛彦・本田由紀.『大卒就職の社会学』. 東京大学出版会. pp.171-197

加藤久和(카토우 히사카즈)(2011)『世代間格差-人口減少社会を問いなおす』. ちくま新書. pp.1-269.

加藤彰彦(카토우 아키히코)(2011)“未婚化を推し進めてきた 2 つの力.”人口問題研究 (J. of Population Problems), 67(2): pp.3-39.

小山静子(오야마 시즈코)(1991)『良妻賢母 という思想』. 勁草書房. pp.1-245.

酒井順子(사카이 준코)(2003)『負け犬の遠吠え』. 講談社. pp.1-282.

阪本節郎・原田曜平(사카모토 세츠오・하라다 요헤이)(2015)『たった1冊で誰とでもうまく付き合える世代論の教科書』. 東洋経済新報社. pp.1-272.

佐藤俊樹(사토 토시키)(2000)『不平等社会日本』. 中央公論新社. pp.1-208.

塩沢由典(시오자와 요시노리)(2013)『今よりマシな日本社会をどう作れるか』. 編集グループSURE 2013.7. pp.1-160.

自由民主党(자유민주당)(1979)『日本型福祉社会』. 自由民主党広報委員会出版局. pp.1-210

白波瀬佐和子(시라하세 사와코)(2005)『少子高齢社会のみえない格差』. 東京大学出版会. pp.1-213.

_____(2006)『変化する社会の不平等: 少子高齢化にひそむ格差』. 東京大学出版会. pp.11-244.

鈴木謙介(스즈키 켄스케)(2012)「第3章 若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小谷敏・土井隆義・芳賀学・浅野智彦編『若者の現在 文化』. 日本図書センター. pp.107-137.

千田有紀(센다 유키)(2011)『日本型近代家族: 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 勁草書房. pp.1-198.

橘木俊詔(타치바나키 토시아키)(2006)『格差社会: 何が問題なのか』. 岩波書店. pp.1-212.

豊泉周治(토요이즈미 슈지)(2010)『若者のための社会学: 希望の足場をかける』. はるか書房. pp.1-219.

濱口桂一郎(하마구치 케이치로)(2010)『日本の若者と雇用− OECD 若年者雇用レビュー』.

明石書店. pp.1-152.
早坂泰次郎(하야사카 타이지로)(1967)『世 代 論』. 日本YMCA同盟出版部. pp.1-246.
古市憲寿(후루이치 노리토시)(2011)『絶望の国の幸福な若者たち』. 講談社. pp.1-304.
本田由紀(혼다 유키)(2005)『若者と仕事』. 東 京 大 学 出 版 会. pp.1-224.
_____(2008)『軋む社会: 教育・仕事・若者の現在』. 双風社. pp.82-101.
_____(2014)『社会を結びなおす: 教育・仕事・家族の連携へ』. 岩波書店. pp.1-56.
牧野智和(마키노 토모카즈)(2012)『自己啓発の時代: ′自己′の文化社会学的探究』. 勁草書房. pp.1-288.
松田茂樹(마츠다 토시키)(2013)『少子化論: なぜまだ結婚, 出産しやすい国にならないのか』. 勁草書房. pp.1-256.
松田久一(마츠다 히사카즈)(2013)『ジェネレーショノミクス~経済は世代交代で動く~』. 東洋経済新報社. pp.1-230.
水月昭道(미즈노 아키미치)(2007)『高学歴ワーキングプア:′フリーター生産工場′としての大学院』. 光文社. pp.1-217.
宮本みち子(미야모토 미치코)(2002)『若者が≪社会的弱者≫に転落する』. 洋泉社. pp.1-184.
山田昌弘(야카다 마사히로)(1999)『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筑摩書房. pp.1-166.
_____(2005)『迷走する家族』. 有斐閣. pp.244-280.
山田昌弘・白河桃子(야마다 마사히로・시라카와 모모코)(2008)『「婚活」時代』. ディスカヴァー・トゥエンティワン. pp.1-200.

Abegglen, J(1984) *The strategy of Japanese busine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pp.1-227.
Bauman, Z(2013) *Liquid modernity*. John Wiley & Sons. pp.1-240.
Genda, Yuji(2003) "Who really lost jobs in Japan's Youth employment in an aging Japanese society." Labor Markets and Firm Benefit Polic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03-134.
Lyotard, J. F(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Vol. 10)*. U of Minnesota Press. pp.1-144.
Mannheim, K(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Paul Kecskemeti(ed.),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Ltd. 276-320. (=2013. 이남석 옮김. 카를 만하임.『세대 문제』. 책세상. pp.1-166.)
Raymo, J. M. and Iwasawa, M(2005) "Marriage market mismatches in Japan: An alternative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ducation and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5): pp.801-822.

김선기(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문화

와 사회』17, pp.207-248.
김홍중(2015) “사버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한국사회학』49(1), pp.179-212.
신광영(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경제와사회』81, pp.35-60.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Vol.27(3), pp.1-38.
정근하(2016) “한일 청년층의 해외탈출 현상 비교연구.”『문화와 사회』22, pp.7-58.
정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한국인구학』25(2), pp.193-230.
지은숙(2016) “비혼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논문. pp.1-272.

AERA. 2007年11月05日号.「特集 働く女性の結婚 / 守屋前次官の待ち受けは妻の顔」. 朝日新聞社.
http://publications.asahi.com/ecs/detail/?item_id=8529
AERA. 2015年8月31日号.「大特集 U35世代論 非バトル系と若社畜」. 朝日新聞社.
http://publications.asahi.com/ecs/detail/?item_id=17304
公益財団法人 日本生産性本部「第２５回 ２０１４年度 新入社員 春の意識調査」
http://activity.jpc-net.jp/detail/mdd/activity001476/attached.pdf
公益財団法人 日本生産性本部「第４８回 2016年度 新入社員 春の意識調査」
http://activity.jpc-net.jp/detail/lrw/activity001478/attached.pdf
厚生労働省 国民生活基礎調査「グラフでみる世帯の状況」
www.mhlw.go.jp/toukei/list/dl/20-21-h25.pdf
厚生労働省「男女雇用機会均等法および指針」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3471.html
厚生労働省 統計情報部 人口動態統計
http://www.mhlw.go.jp/toukei/list/81-1.html
厚生労働省 統計情報部 毎月勤労統計調査
http://www.mhlw.go.jp/toukei/list/30-1.html
厚生労働省 平成22年度「出生に関する統計」の概況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tokusyu/syussyo06/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推計『日本の世帯数の将来推計(全国推計)』(2013年1月推計)
http://www.ipss.go.jp/pp-ajsetai/j/HPRJ2013/t-page.asp
総務省統計局 国勢調査
http://www.stat.go.jp/data/kokusei/2015/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http://www.stat.go.jp/data/roudou/index.htm
総務省統計研修所 親と同居の若年未婚者(壮年未婚者も含む)
http://www.stat.go.jp/training/2kenkyu/sanko1.htm
内閣府　国民経済計算(GDP)統計
http://www.esri.cao.go.jp/jp/sna/menu.html
内閣府 大臣官房政府広報室 国民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urvey.gov-online.go.jp/index-ko.html
内閣府 大臣官房政府広報室 男女共同参画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urvey.gov-online.go.jp/h28/h28-danjo/index.html
文部科学省　学校基本調査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1/kihon/1267995.htm
Benesse マナビジョン
https://manabi.benesse.ne.jp/parent/nyushi/04/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戦後から今日までの日本社会における青年談論とライフコース変化の世代別分析

－ ライフコースの制度化、標準化、そして多様化 －

笹野美佐恵

バブル経済の崩壊した1990年代半ば以降活発化した日本の青年談論では、「若者の問題」と「若者の変化(適応)」を区別することなく、ある「基準」を基にそこから「逸脱」する若者について批判的・悲観的眼差しが向けられてきた。本研究では、既存の青年談論において暗黙的に共有されている「基準」、つまり日本社会において自明視されてきたライフコースと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問いから出発し、戦後から今日までの日本人のライフコース変化について、雇用および家族形成の変容を中心に、世代別比較分析を行った。研究方法は、社会経済的・人口学的指標を世代別に分類し、それを既存談論と比較対照させながら考察することで、談論と実態およびその変化について、実証的に把握することを試みた。本研究で明らかになったのは以下の点である。まず、既存の青年談論では、日本型近代家族の枠組みから外れる一部の若者に焦点を当て問題として取り上げてきたことにより、その対極にある圧倒的多数の標準的な若者を看過してきたという点である。さらに、性別役割分業、子供二人、核家族であること等を条件とする「日本型近代家族」は、皆が一様に辿る事のできる標準的な生き方として、90年代まで安定を誇っていたという談論も過剰な一般化であったが、少なくとも90年代までの日本において共通の物語として共有されてきた標準的な人生物語であったと言えよう。最後に、若者の就業状況の悪化については、男女別に大きな差があるにも拘らず、「ジェンダーの問題」としてではなく「若者の問題」として議論されてきた点について指摘できよう。それは、性別役割分業意識が現在でも、制度的にも規範的にも強固に維持されている日本社会において、90年代以降、若年女性の間で拡大した労働条件の悪化を「女性の問題」としてではなく、「若者の問題」として論ずることにより、「ジェンダー非対称性」という問題の本質を隠蔽してきたといえよう。要するに、標準的な人生物語としてヘゲモニーを握ってきた日本型近代家族像は、戦後日本社会において、政策的・規範的に合意を得られ共有されてきた標準的ライフコースパターンの総体であったと理解すべきであろう。

<Abstract>

Generational-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fe Course and Discourse of Japan's Youth in Postwar Society

– Institu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Polarization of Life Course –

Misae, Sasano

Japanese youth as a topic of discourse intensified extensively after Japan's bubble economy burst in the 1990s. This discourse, however, often lacked clear distinctions between the young generation's "problems" and that of its "adaptation." Previous research emphasizes either "youth deviation" or on a "standard life course model" particular to Japan. In this study, I focus on the latter. In particular, I conduct a generational-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fe course of Japan's youth, spanning from 1945 and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anges in employment environment and family structure. I found that in many cases the research was premised on generalized pretexts or framed the youth as primarily detached from the model modern family. Though the standard (or assumedly self-evident) life course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production of modern Japan's family structure considerable focus has been excessively placed on how youth detract from the ideal family frame as opposed to the roles they play in creating it. The so-called "Japanese-style modern family," which ideally amounts to certain delineations pertaining to gender-based divisions of labor and a two-parent-two-child structure has become the standard life course model-both in discourse and in institutional support mechanisms-and reveals a gender asymmetry in that the focus of studies has been on the young generations deteriorating working conditions as opposed pinpointing the specific additional pressures placed on women within these problematic times. In sum, Japan's modern family discourse should be used to understand its policy-orientating and normalizing effects on life course patterns in postwar Japanese society.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65－85쪽 10.15733/jast.2017..72.65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영화 『꿈』(1990)에 그려진 삶과 죽음

조 은 애*

< 目 次 >

Ⅰ. 서론
Ⅱ. 자연과의 단절
- 자연의 정령과 인간 -
Ⅲ. 자연과의 불화로 인한 '죽음'
- 전쟁・자살・방사능 -
Ⅳ. 자연회기의 삶 추구
Ⅴ. 결론

Key Words : 黒澤明(Kurosawa Akira), 夢(Dream), 自然(Nature), 生(Life), 死(Death).

Ⅰ. 서론

1990년 상영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영화 『꿈』은 "이런 꿈을 꾸었다(こんな夢をみた)"로 시작되는 8편의 꿈에 대한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영화이다. 이 영화는 80세가 넘은 감독의 만년 작품인데다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모습을 그린 에피소드 뒤에 붙은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상적인 장례(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유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하였다. 그만큼 영화 『꿈』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인생관이 잘 그려진 영화로 평가된다.

영화 『꿈』의 에피소드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방사능의 파괴력 및 인류의 비극적 미래를 그린 작품들이 있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았다. 특히, 이 영화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 「붉은 후지산

*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비교설화연구.

(赤富士)」에 그려진 원자력 발전소폭발의 폭발 장면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더욱 주목 받게 되었다. 후지산의 폭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이로 인해 붉게 물든 후지산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탈주하는 장면, 붉고 푸른 연기로 표현되는 방사능 속에서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붉은 후지산」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예언한 예지몽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1] 일곱 번째 에피소드 「귀곡(鬼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해 거대하게 자라난 식물과 괴물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위 두 에피소드 만을 놓고 보면, 이 영화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및 방사능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전체 여덟 개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필자는 다른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영화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영화『꿈』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단편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꿈을 '주제'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다.[2] 이 점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츠즈키 마사아키(都築政昭)의『구로사와 아키라의 유언, <꿈>(黒澤明の遺言『夢』)』은『꿈』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연구 자료이다.[3] 츠즈키는 구로사와가 오래 전부터 '환경오염'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였지

1)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에서 '원자력 발전소'(혹은 원폭)와 '방사능'이라는 소재는 1945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과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다.『꿈』이외에도,『생존의 기록(生き物の記録)』(1955)과『8월의 광시곡(八月の狂詩曲)』(1991) 역시 방사능 피폭과 원폭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세 편의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사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평가받고 있으나,『8월의 광시곡』은 원폭 이후의 일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 김형석(1999)은 영화의 에피소드를 짧게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통해 불안과 희망을 그림으로써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소중함을 설파한 이 작품은 구로사와가 추구해온 휴머니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독립된 소재로 다루고 있다. 김형석(1999)『일본영화 길라잡이』,문지사.p.58.

3) 都築政昭(2005)『黒澤明の遺言『夢』』近代文芸社, pp.1-246.이 외에 다카하시세이치로 高橋誠一郎(2014)는 구로사와의 영화에 있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을 분석, 고바야시 히데오의 도스트예프스키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영화『백치』와 같이 직접적으로 영화한 작품도 있으나,『夢』의 구성이나 꿈에 대한 해석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꿈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黒沢明と小林秀雄一「罪と罰」をめぐる静かなる決闘一』成文社, pp.1-302.

만 정치적인 문제로 투자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꿈이라는 '완충재(緩衝材)'를 사용하여 해결하였음을 말하였다.[4] 또한 영화『꿈』을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지구와 인간에 대한 격한 사랑을 말하고자 한 구로사와 감독의 유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일부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촬영기법이나 영화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에 중심을 두거나,「복숭아 밭(桃畑)」은 먼저 죽은 누이를「까마귀(鴉)」는 화가 고흐에 대한 진혼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전체 에피소드를 아우르는 주제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필자는 츠즈키가 말한 '자연과 인간'이라는 개념이 영화『꿈』의 저변에 깔린 주제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삶과 죽음' 이라는 주제어를 통해『꿈』에 수록 된 에피소드를 포괄하는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 영화『꿈』의 구성과 주제를 정리하였다.

<표 1>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꿈』의 구성과 주제

번호	소제목	주제
1	여우비(日照り雨)	자연과의 단절 -자연의 정령과 인간-
2	복숭아 밭(桃畑)	
3	눈보라(雪あらし)	
4	터널(トンネル)	자연과의 불화로 인한 '죽음' -전쟁・자살・방사능-
5	까마귀(鴉)	
6	붉은 후지산(赤富士)	
7	귀곡(鬼哭)	
8	수차가 있는 마을(水車のある村)	자연 회기의 삶 추구

구로사와는 영화『꿈』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제 1편에서 제3편은 자연을 상징하는 '여우・복숭아의 정령・눈의 정령'들이 등장,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즉, 유일하게 자연을 공감하는 인물로 구로사와가 등장한다. 이어 제4편-제7편에서는 인간의 죽음이 그려지는데 전쟁과 자살, 그리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각각의 죽음의 원인이 자연과의 불화와 단절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제8편에 등장하는

4) 앞의 책, 都築政昭(2005), p.21.

노인의 대사로 축약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통해 인간은 제 수명을 다하는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Ⅱ. 자연과의 단절
- 자연의 정령과 인간 -

영화『꿈』의 첫 번째 에피소드「여우비(日照り雨)」에는 우연히 여우의 혼례행렬을 목격한 뒤에 어린 구로사와가 겪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이다. 비가 내리면서 햇빛이 비추는 날씨에는 여우의 혼례행렬이 지나간다면서 어머니는 그 모습을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고 구로사와에게 말한다. 그러나 어린 구로사와는 어머니의 말을 어기고 숲으로 가 실제로 여우의 혼례행렬을 목격하게 되고, 이를 숨 죽여 지켜본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는 아이에게 여우가 칼을 주고 갔다고, 여우에게 목숨을 걸고 사죄하고 오라며 문을 닫아버린다. 츠즈키는 어머니가 어린 구로사와에게 칼을 쥐어 주며 용서를 빌고 오라며 보내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앞으로 인생을 걸어 나갈 '나'에게 어머니는 과중할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감독은 이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한 자연에 대해 가해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 죄를 목숨을 걸고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의 공생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상징적으로 그리는 데 성공하였다.[5)]

츠즈키는 인간이 '여우'로 상징되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본 에피소드의 주제라고 말한다. 즉, 여우의 혼례행렬을 보았다는 것은 자연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이는 목숨 걸고 사죄할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어머니는 교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 관용어에서 "여우 시집가는 날(狐の嫁入り)"의 내용을 보면, 이

5) これから人生を歩み出す「私」に、母親は過重なばかりの責任のとらせ方を強いるが、そこには人間は生きていく限り、自然への加害者であり続けるが、その罪に対して命がけで謝る思いで長い人生を生きていけ、そうでなければ自然との共生はあり得ない、それを見事に象徴的に描いたのである。앞의 책, 都築政昭(2005), p.103.

에피소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여우 시집가는 날”의 사전적인 의미는 소위 한국에서 “호랑이 장가 가는 날”과 유사한 의미로, ‘해가 비추는 상태에서 비가 오는 두 가지 날씨가 공존하는 날’이 일반적이며, ‘비가 개고 무지개가 뜬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본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가 여우를 찾기 위해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여우의 혼례 행렬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실 여우의 혼례 행렬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금기는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농경사회에 있어서 벼농사에 가장 중요한 햇빛과 비가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일을 상징하며, 여우의 혼례(가 있는 날씨)를 보게 되면 이는 풍년이 들 징조라고 여겼다. 현재 일본 니가타 현 (新潟県) 츠가와(津川)에서는 여우의 혼례 행렬을 재현하여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는 지역 행사가 행해지고 있다.

> 옛날의 혼례는 밤에 행해져 주위가 어두울 때 등불을 들고 행렬을 했습니다. 이 등불의 행렬과 여우불(도깨비 불)을 동일시하여 여우의 행렬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우의 혼례행렬은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합니다. 부모에게서 아이로 아이에게서 손주로 이어져 여우 불을 많이 보게 되는 해(여우의 혼례행렬을 보게 되는 해)에는 풍작으로 운이 좋다고 전해집니다.[6]

또한 민속학에서는 각 지역에 전해지는 여우의 혼례 행렬을 보는 방법을 조사한 내용도 확인 된다. 일본의 박물학자 미나카타쿠마구스(南方熊楠)는 손가락으로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여우의 혼례행렬을 보거나 혹은 돌이나 기와에 침을 뱉으면 그 위에 여우의 혼례행렬이 비춘다고 보고하였다.[7] 즉, 여우의 혼례행렬을 본다는 것은 금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보기 어려운 진기한 현상을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6) 昔、嫁入りは夜にかけて行われ、あたりは暗く、堤灯を下げて行列しました。この堤灯の明りと狐火が平行して見え狐の嫁入り行列が生まれたとも言われています。「狐の嫁入り行列」は幻想の世界です。しかし、親から子へ、子から孫へと言い伝えられ、狐火の多く見える年(狐の嫁入り行列の見えた年)は豊作で縁起が良いとされていました。新潟県東蒲原郡阿賀町홈페이지.
http://www.town.aga.niigata.jp/kankou/yomeiri/nagare/index.html(검색일:2017.4.20)

7) 南方熊楠(1930年2月)「狐と雨」『民俗学』2巻2号:『南方熊楠全集』4巻(平凡社、1972) pp.115-118.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금기가 아니었던 여우의 혼례행렬을 본다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왜 금기로 해석되었는가. 이는 일본의 고대로부터 전승되는 요괴의 행렬과 마주치면 죽는다는 백귀야행의 전승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해지는 도깨비불(일본에서는 여우불(狐火))을 보면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전승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로사와는 제작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렸을 때 무언가 나쁜 짓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자상한 어머니에게 혼이 난 오랜 기억과 여우비가 내릴 때에는 여우가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남아 이런 꿈을 꾼 것 같다.[8]

여기서 '나쁜 짓', '해서는 안 돼는 일'이란 '비가 오는 날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어머니가 여우에게 사죄하고 오라고 보내는 것은 이를 무시하고 외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여우의 혼례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전승(허구)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이를 믿지 않는 존재, 즉 자연을 공감할 수 없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에 반해 본 영화에 등장하는 구로사와는 자연을 상징하는 일련의 존재(여우, 복숭아와 눈의 정령)를 만나거나 사건을 경험하고 자연과 공감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즉 어머니는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허구를 실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듣지 않은 아들을 혼내기 위해한 구실로 여우의 혼례행렬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어머니 본인이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우의 혼례행렬을 보아버린

---

8) 子供頃、何か悪いいたづらーしてはいけないと云われたことをして、優しい母に怒られた遠い記憶と日照り雨の時には狐嫁入りがあると云う話を信じて、なんだか怖いが同時に怖いもの見たさでそれを見たいと思っていた気持ちが残っていてこんな夢になったのだろう。(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제작노트52/120). 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黒澤デジタルアーカイブ)는 류코쿠대학(龍谷大學)에서 구로사와아키라의 영화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로 시나리오, 현장사진, 제작노트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 인용하는 영화 '꿈'의 제작 노트는 전체 120장 분량의 내용이 전해지며 인용 페이지는 해당사이트의 페이지표기를 그대로 표시하였다. http://www.ss.i.ryukoku.ac.jp/pearl/pages/pearl/index.html(검색일:2017년4월30일).

아이에게는 츠즈키가 말하듯이 실로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풍요와 행운의 상징인 여우의 혼례행렬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보면 안 되는' 실체가 되었으며, '(어린아이의)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존재하는 시대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 안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몇 발자국 마다 돌아보는 여우의 경계심은 아이에 대한 경계심이기 보다는 여우의 혼례행렬을 보면 안 되는 금기로 적대시하게 된 인간에 대한 경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인간과 단절된 자연을 유일하게 여전히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구로사와의 어린 시절은 다음 이야기인 「복숭아 밭」에서도 나타난다.

구로사와의 누나들은 3월의 복숭아꽃 축제(桃の節句)인'히나마츠리'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구로사와의 눈에만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한다. '저 아이는 누구냐'고 묻는 구로사와에게 누나는 열이 나서'이상한 말(変なこと)'을 한다고 걱정을 한다. 여자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가 어린 구로사와가 다다른 곳은 현재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그 기둥만 남아 있는 복숭아 밭이었다.'복숭아의 정령들'은 복숭아나무를 베어 버린 인간들에게 분노하며 구로사와에게'앞으로는 너희 집에 가지 않겠다고'말한다. 다만 복숭아나무가 잘려서 더 이상 꽃이 핀 복숭아 밭을 못 보는 것이 아쉬워 울었다는 구로사와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만개한 복숭아 밭을 보여준다.

인간들은 '복숭아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한편에서 복숭아꽃의 화신인 '히나 인형'을 장식하고 복숭아꽃 축제를 즐기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앞서 어머니의 경우에서 '여우의 혼례행렬'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변질되고 '관용어'로 남아 사용되는 모습과 중복된다.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말'과 '의례'로만 남아 있는 자연과의 공존을 재현한 것이다. 구로사와가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의 분노마저 홀로 마주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다음 에피소드인 「눈보라(雪あらし)」에서 더욱 강조된다.

눈보라치는 산 속을 헤매는 등산대원들 속에 청년 구로사와가 등장하고 결국 모두 지쳐 쓰러진 가운데 구로사와는 '눈의 정령(雪女)'을 보게 된다. '눈의 정령'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모습으로 등장하나 강렬해지는 눈보라와 함께 점차 무서운 악귀와 같은 얼굴로 변하고 구로사와의 목을 조이다가

사라진다. 츠즈키는 이 에피소드에 대해 '눈보라'의 촬영 기법과 눈의 정령의 분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로부터 눈의 정령(雪女)의 얼굴이 삼 단계로 변신한다. 구로사와는 눈의 정령을 통해 자연의 자상함과 함께 대단한 맹위를 그리고자 하였다. 자연의 자상함, 아름다움, 괴기스러움을 표현하는 한편, 한번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게 되면 사납고 잔혹한 살인귀로 변한다. 이러한 실체를 눈의 정령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9)]

눈보라치는 산에서의 등산은 인간의 도전과 자연과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일 것이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 도전정신과 한계에 대한 극복, 그리고 정복을 통한 인간승리를 찬양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연을 상징하는 여우, 복숭아, 눈의 정령들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것의 본질은 잊은 채 그 관용적인 의미와 의례적인 모습만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자연을 '정복'한다는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게 자연은 분노하면서도 결국에는 꽃밭으로 초대하고(여우비), 만개한 복숭아 꽃밭을 보여주었으며(복숭아의 정령),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구해주는 관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인간은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구로사와만이 자연의 감정의 변화와 용서를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세 편의 에피소드가 인간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연의 포용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제4편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

9) これから雪女の面相の三変化である。雪女＝自然であり、黒澤は雪女を通し自然の優しさと同時に非常な猛威をも描こうとした。自然の持つ優しさ、美しさ、怪しさを表現する一方、いったんその恐ろしい牙を剝くと、獰猛で、残酷で、殺人鬼に變身する、その正体を雪女はさらけ出す。위의 책,都築政昭(2005), p.131-132.

Ⅲ. 자연과의 불화로 인한 '죽음'
- 전쟁・자살・방사능 -

>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옛날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 요즘 인간들은 자신들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고 있다.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인데 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중략)그 때문에 자연을 잃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지, 그러나 이를 만들어내는 나무와 꽃은 오염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더러워진 공기와 물은 인간의 마음마저 오염시키지.[10]

이상은 제8편의「수차가 있는 마을(水車のある村)」에 등장하는 노인의 대사이다.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마을에서 죽음이란 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자연을 잃게 된 인간은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고 마음마저 오염되었으며 전쟁이나 자살 그리고 방사능에 의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도 죽음도 아닌 고통을 받게 된다. 즉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축복할 수 없는 죽음인 것이다.

네 번째 에피소드「터널(トンネル)」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귀향하는 군인(중대장)의 모습을 조명한다. 빛바랜 군복을 입고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은 패잔병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검은 개가 사납게 짖어대는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은 이 주인공이 현실세계와 죽음의 세계 간의 경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터널을 벗어날 즈음, 전쟁에서 죽은 부하가 중대장에게 창백한 혼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중대장은 부하에게 너는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터널 안으로 돌려보내는데, 뒤이어 중대원들 전원

---

10) 私達は出来るだけ昔の様に、自然な暮らし方をしたいと思っているんだよ。近頃の人間は、自分達も自然の一部だという事を忘れている。自然あっての人間なのに、その自然を乱暴にいじくり廻し、俺たちはもっといいものが出来ると思っている。(中略)そのために自然が失われ、自分達も亡んで行くことを気づかない。まず人間に一番大切なのは、いい空気やきれいな水、しかし、それを作り出す木や花は汚れ放題、失われ放題。そして汚れた空気や水は、人間の心まで汚してしまう。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완성대본(50/66).

이 대오를 지어서 중대장 앞에 나타난다. 이들 역시 창백한 혼령의 모습을 하고 있어, 중대원들 모두가 전멸한 가운데 중대장만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중대장이 '젊은 구로사와'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는 전개되지만, 사실 구로사와는 전쟁 당시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징병검사관이 육군학교 체육교관이었던 구로사와 아버지의 제자였으며, 그 덕분에 구로사와가 병역을 면제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11] 구로사와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전쟁 중의 나는 군국주의에 대해 무저항적인 태도를 취했다. 유감이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할 용기가 없었고, 적당히 영합 혹은 도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 잘난 체하면서 전쟁 중의 일을 비판할 자격은 내게 없다.[12]

구로사와가 전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국정신대의 찬양으로 해석될 만한 국책 영화인『가장 아름답게(一番美しく)』(1944)를 제작한 것이나,『8월의 광시곡』에서 원폭을 안일하게 그렸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13] 이러한 구로사와의 인식은 영화 속에서 '전쟁' 그 자체가 아닌,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로 치환되곤 한다. 즉, '원폭'보다는 방사능의 문제로(『생존의 기록(生き物の記録)』), '전쟁'보다는 이를 경험하고 살아나가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영화의 주제 또한 '삶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 때 전쟁 중의 죽음이 이상적인 죽음이 아닌 '개죽음(犬死)'으로 묘사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신의 부하들의 혼령을 달래면서도 그 부당한 죽음에 대해 절규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인 중대장은 "너희들의 억울한 마음은 잘 알고 있다. 전사라고는 하지만 개죽음이다."[14]라고 말한다. 전쟁의 목적이야 어찌되었든 나라를 위해 싸우고

---

11) 黒澤明,김경남 역(2014)『구로사와 아키라 자서전 비슷한 것』,모비딕, pp.136-137.
12) 앞의 책.p.249.
13) 권혁태(2008.6.25)「쿠로사와 아키라와 원폭의 기억」, 권혁태의 일본 읽기 〈15〉 원폭영화 이야기,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6280(검색일:2017년4월30일)
14) お前たちの無念な気持ちはよくわかる。戦死とはいえ、犬死だ。

죽었다는 것을 명예로운 죽음으로 미화하고자 했던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중대장의 발언은 '반전의 메시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5] 그러나 구로사와는 인간이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채 구천을 헤매는 부하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관대함으로 인간을 감싸주었던 '자연'과 같은 입장으로 그들을 위로한다. 이상적이지 못한 죽음은 전쟁만이 아닌 '자살'도 이에 해당된다.

제5편 「까마귀」에서는 화가의 모습을 한 구로사와가 빈센트 반 고흐의 특별전으로 보이는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던 중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밀밭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 한 모습으로 정신없이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고흐를 만나게 된다. 평소에 동경하던 고흐를 만나는 것은 젊은 시절 화가 지망생이었으나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구로사와의 아쉬움을 그린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목할 것은 만남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 고흐가 자살을 앞두고 그린 <까마귀가 있는 밀밭>(1890)라는 점이다.[16] 다음은 영화 중 구로사와가 고흐와 그림과 자연에 대해 주고받는 대사이다.

> 고흐: 그림이 될 만한 것이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어떠한 자연도 아름답다. 나는 그 안에서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연은 꿈처럼 그림이 되어 내게 다가온다. 아니 나는 자연을 먹으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15) 전사는 '개죽음 이다'라는 대사에는 구로사와의 강한 전쟁비판의 마음이 실려 있다. 전후 일본에서는 전사자의 영령이라 불리며 명예로운 전사라는 미명의 그늘에 묻어 버렸다. 구로사와는 대담하게도 개죽음이라고 불렀다.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전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진실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진혼이 될 수 없다. 이를 통해 전쟁반대의 결심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犬死だ。戦死は「犬死だ」というセリフに、黒澤の強い戦争批判の思いがこめられている。戦後の日本では戦死者は英霊と呼ばれ、名誉の戦死という美名の影に葬られた。黒澤は、大胆にも「犬死だ」と呼んだ。大義のない戦争で無念な思いで亡くなった戦死者に酬いるには、敢えて真実を告げる以外に鎮魂はありえない。そのことによって不戦の誓いも、伝えようとしたのである。위의 책, 都築政昭(2005)P.154.

16) 〈까마귀가 있는 밀밭〉은 반 고흐가 자살하기 직전인 1890년 7월에 그려졌고,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다. 표면에서 요동치는 빠른 필치로 거칠게 그려진 어둡고 낮은 하늘과 불길한 까마귀 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전경의 세 갈래의 갈림길은 자살 직전 그의 절망감을 강하게 상징하는 듯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까마귀가 있는 밀밭. 월간미술. 지엔씨미디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728&mobile&cid=46720&categoryId=46846(검색일:2017년4월30일)

그림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붙잡아 두는 것은 어렵다.
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흐: 일한다.....아무 생각 없이 기관차처럼 일한다.[17]

실제로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연과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술가는 초기에는 자연의 저항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자연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대립으로 기가 꺾이기는커녕 자연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자연과 정직한 데생 화가는 하나다. 자연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연을 움켜쥐어야 하며, 그것도 두 손으로 힘껏 붙잡아야 한다. (1881년10월12-15일) p.29

삶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버리고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맹렬히 작업하고 있다. 나의 경우 더 심한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림 그리는 능력이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1889년9월7-8일) p.272[18]

구로사와가 고흐의 편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19] 영화에서 고흐의 대사는 고흐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과 그림, 그리고 삶에 고뇌하는 고흐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고흐는 자연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연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로 본 영화에서의 구로사와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다만 되풀이되는

17) ゴッホ：絵になる様なものが絵になるのではない。よく見ると、どんな自然でも美しい。自然が美しい時、僕は自分を意識しなくなる。すると絵は夢の様に絵になって僕のところへやって来る。いや　僕は自然を食べて待っている。すると絵は出来上って現れて来る。しかし、それを掴まえておくのが難しい。
私：そのために貴方はどうするんです?
ゴッホ：働く!しゃにむにに働く、機関車の様に働く。
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완성대본(.33-34/66).

18) 반고흐, 신성림역『반 고흐, 영혼의 편지』(위즈덤하우스,2016), p.29, p.272.

19) 일본에서 고흐의 편지가 최초로 번역된 것은 1911년 잡지『시라카바白樺』에 고지마기쿠오 児島喜久雄가 독일어판의 일부를 소개하였으며, 이후 1970년에『반 고흐 서간전집 ファン・ゴッホ書簡全集(全6巻)』이 출판되었다.

발작에서 오는 불안감에 쫓기면서 살아야 했던 고흐는 결국 그 불안감과 초조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로사와 아키라 역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데[20], 주목할 점은 그 시기가 구로사와 아키라의 첫 칼라 영화 작품인『도데스카덴(どですかでん)』(1970)를 공개한 이후라는 점이다. 화가이기도 했던 감독은 영화에서 그만의 독특한 색채감각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개봉한 영화에 대한 평가는 처참했다. 이 영화 이후로 한동안 일본에서는 구로사와에게 투자는 물론 의뢰마저 모두 끊겼다고 한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도데스카덴』은 지금까지 흑백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색채를 표현하는 감독의 고뇌와 자연의 색채를 그림으로 그려내고자 한 화가 고흐의 고뇌가 겹쳐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츠즈키는 이상의 두 편을 전쟁으로 죽게 된 사람들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흐에 대한 구로사와의 진혼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과의 공생을 전제로 하였을 때 츠즈키의 해석은 이 두편의 에피소드가 영화의 전체적인 큰 주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영화『꿈』이 독립된 꿈을 소재로 연계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5편「까마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에피소드는 고흐의 명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수촬영기법이 주로 주목 받아 왔다.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구로사와의 고흐에 대한 존경과 진혼에 초점이 맞추어져 영화의 구성에 있어서 흐름을 깨뜨리는 에피소드가 되어버린다. 물론 고흐에 대한 경외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로사와는 자신과 같이 자연을 공감할 수 있었던 고흐의 죽음 대한 안타까움을 그리고자 했으며 그의 '자살' 역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죽음의 한 예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전쟁과 죽음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적인 인식은 다음 에피소드인「붉은 후지산(赤富士)」과「귀곡(鬼哭)」에서 절정을 이룬다.

---

20) 1971년12월22일 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친다.



「붉은후지산」



「귀곡」

「붉은 후지산」은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해 방사능이 뒤덮인 후지산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해 해안절벽을 향해 달려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다시금 주목 받게 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21] 어린아이를 껴안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바닷가 절벽에서 '그래요. 어른은 충분히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서 얼마 살지도 못했다고요'[22]라고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은 개봉 당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목적을 넘어 동일본대지진이후의 일본 사회에 뼈아프게 전해진 명대사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데 반해 「붉은 후지산」과 다음 에피소드인 「귀곡」은 그 내용이 연속적이다. 원폭에 의한 유전자 변이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서 괴로워하고, 민들레는 사람보다 크게 자라나 흐드러져 있다.

> 들리는가? 밤이 되면 이름있는 귀신(鬼)들이 우는 것이야. 뿔이난 데가 암덩어리처럼 아픈거지.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니 울 수 밖에 없지.[23]

---

21) 『黒澤明 死して15年 直筆ノートにあった"メッセージ"』2013年9月20日,テレビ朝日「報道ステーション」 http://www.tv-asahi.co.jp/dap/bangumi/hst/feature/detail.php?news_id=35321&y_m=13-09(검색일:2017년4월30일)

22) そりゃ、大人は充分生きたんだから死んだっていいよ、でも子供達は生まれてからいくらも生きちゃいないんだよ.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완성대본.40/66.

23) 聞こえるかい?夜になると、名うての鬼共が哭くんだよ。生えた角が癌の腫物のように痛むんだ。早く死にたいと思う程痛むんだ。でも死にたくったって死ねないから哭くよ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하는 지옥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피로 물든 물웅덩이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나 괴로워 하는 모습은 실제로 12세기에 지옥을 그린『지옥소시地獄草紙』의 피의 연못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 지옥의 설정은 제8편에서 등장하는 꽃을 바치는 장면이 지옥의 아귀들을 구제해 주는 '세가키에(施餓鬼會)' 로 해석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옥소시地獄草紙』24)



「귀곡」

인간의 망각과 어리석은 도전에도 관대함으로 감싸주던 '자연'의 붕괴는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보여준다. 영화는 전쟁과 방사능에 의한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며 전쟁에서 죽은 이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떠돌게 되고, 방사능에 피폭된 인간은 삶도 죽음도 아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일관된 주제로 이어간다.

> 전기도 가스도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지면 인간은 게을러져 이것들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옛날에 인간은 전기도 가스도 없이 잘 살았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원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인간도 자연과 함께 살아야하는 것이다. 교만해져서 자연을 정복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잘못이다.25)

り仕方がない。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완성대본(46/66).

24) 東京国立博物館所蔵『地獄草紙』.

25) 電気もガスも便利ばものだとしかし、それを使いなれると人間は贅沢になって、それなしには生きていけないように思いこむ。昔、人間は電気もガスもなしにちゃんと生き

이상은 제8편의 「수차가 있는 마을(水車のある村)」에 등장하는 노인의 대사의 바탕이 된 구로사와의 메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원점'은 자연과 함께 살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로사와는 이상적인 자연스러운 삶과 죽음의 예를 「물레방아가 있는 마을」에서 보여준다.

Ⅳ. 자연회기의 삶 추구

아름다운 강과 수차가 있는 마을을 방문한 구로사와는 수차를 수리하고 있는 102세의 노인을 만난다. 근대의 과학기술과는 동떨어진 불편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의문을 가진 구로사와에게 노인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축제와 같은 소리에 축제가 있느냐고 묻자 장례식이라고 말한다. 노인은 축제와 같은 장례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본래 장례식은 경사스러운 일이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죽는 것은 기쁜 일이지.(중략)무엇보다도 아이나 젊은 사람이 죽는 것은 좋지 않아. 경사스럽다고 할 수 없으니까. 다행히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고 있어서인지 대체로 나이순서대로 죽지.[26]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어린이와 젊은이의 죽음은 안타깝다고 말하는 노인의 대사에서 앞서 보았던 전쟁과 방사능에 의해 죽은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구로사와와의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자신도 장례식에 참석하러 간다고 일어나고 장례식은 실제로 즐거운

てきた。要はこの人間の生き方の原点を忘れぬことだ。人間も自然と共に生きることだ。傲慢になって自然を征服したように思い込むのはとんでもない間違いだよ。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노트(97/102).

26) 本来、葬式は目出度いもんだよ。よく生きて、よく働いて、ご苦労さんと云われて死ぬのは目出度い。(中略)もっとも、子供や若い者が死ぬのはいかん。目出度いとは云いにくいからな。しかし、さいわい、この村のものは、自然なくらしをしているせいか、大体、年の順に死んで行く。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완성대(51/66).

축제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선두에 아이들이 꽃을 뿌리고 뒤에는 나팔과 북, 이에 장단을 맞추어 춤추는 사람들의 행렬이 뒤를 따른다. 장례행렬이 지나간 강가에는 다시 정적이 흐르고 구로사와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 마을로 들어올 때 보았던 죽은 여행객의 묘석에 꽃을 바치고 떠난다. 여기서 죽은 여행객의 묘석이라 함은 구로사와가 마을로 들어서면서 동네아이들이 다리 앞에 있는 돌 위에 꽃을 놓아두고 지나가는 장면에 등장하는 돌을 말한다. 노인의 설명에 의하면 먼 옛날 병에 걸려 쓰러져 죽은 여행객을 위해 묘석을 마련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꽃으로 공양하였으며 현재는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면 반드시 꽃을 놓고 지나간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고가 없는 사망자인 '무연불(無緣佛)'의 경우 그 혼령이 지역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양을 해주기는 하지만 마을의 경계 외곽에 두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영화에서는 구로사와가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 건넌 다리 앞, 즉 마을의 안 쪽에 무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을로 들어서는 장면


돌 위에 꽃을 두는 아이들

일본의 오봉기간(백중)에 이루어지는 '세가키에(施餓鬼会)'는 생전의 악행으로 인해 아귀가 되었거나 죽은 후에 공양을 해 줄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위해 지내는 법회의식을 말한다. 본 영화에서 죽은 여행자는 전쟁에서 죽어 구천을 헤매는 혼령, 방사능으로 인해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귀곡에 등장하는 머리에 뿔이 나고 배가 고파 괴로워하는 이들은 아귀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가 있는 마을'은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죽은 여행자를 위한 공양의 장면은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마을'이 앞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에서 헤매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마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전체 8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영화『꿈』은 꿈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에피소드의 특징적인 부분만이 주목 받아왔으며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폭발사건과 더불어 방사능의 공포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본 영화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단편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연과의 단절과 이로 인한 죽음,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으로의 회기라는 큰 주제 아래 구성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제 1편에서 제3편은 자연을 상징하는 '여우・복숭아의 정령・눈의 정령'들이 등장하고 이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유일하게 자연을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구로사와 자신을 등장시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제4편에서 제7편까지의 에피소드에서는 자연과의 불화로 인한 죽음을 전쟁과 자살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세상으로 그려낸다. 구로사와는 인간이 자연과 공생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점차 불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혹은 미래에 맞이하게 될) 이들을 다시금 자연의 품으로 인도하는 진혼의 의미도 함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어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봐, 사는 것이 힘들다 어쩐다 해도 그건 인간의 배부른 소리지. 실제로 살아 있는 것은 좋은 거야. 정말 즐거운 일이지.[27]

이는 자연과 공감하면서도 삶의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흐에게 전하고 싶은 구로사와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

27) あんた、生きるのは苦しいとかなんとか云うけれど、それは人間のきどりでね、正直、生きてるのはいいもんだよ。とても面白い!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꿈,완성대본(52/66).

<参考文献>

김형석(1999)『일본영화 길라잡이』, 문지사. p.58.
黒澤明, 김경남 역(2014)『구로사와 아키라 자서전 비슷한 것』, 모비딕, pp.136-137.
반고흐, 신성림 역(2016)『반 고흐, 영혼의 편지』(위즈덤하우스, 2016), p.29, p.272.

高橋誠一郎(2014)『黒沢明と小林秀雄一「罪と罰」をめぐる静かなる決闘一』成文社. pp.1-302.
都築政昭(2005)『黒澤明の遺言『夢』』近代文芸社. pp.1-246.
南方熊楠(1930年2月)「狐と雨」『民俗学』2巻2号:『南方熊楠全集』4巻(平凡社、1972) pp.115-118.

권혁태(2008.6.25)「쿠로사와 아키라와 원폭의 기억」, 권혁태의 일본 읽기 <15> 원폭영화 이야기,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6280(검색일:2017년4월30일)
龍谷大學: 구로사와아키라디지털아카이브
http://www.ss.i.ryukoku.ac.jp/pearl/pages/pearl/index.html(검색일:2017년4월30일).
東京国立博物館所蔵『地獄草紙』.
http://www.tnm.jp/modules/r_collection/index.php?controller=dtl&colid=A10942(검색일:2017년4월30일)
新潟県東蒲原郡阿賀町홈페이지.
http://www.town.aga.niigata.jp/kankou/yomeiri/nagare/index.html(검색일:2017.4.20.)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黒澤明『夢』における「生と死」に関する考察

趙恩馥

全8編のエピソードからなる黒澤明監督の映画『夢』は、監督晩年の作品であること、そして、監督自身と思わせる主人公のが登場していることから「黒澤明の遺言」として知られている作品である。特に富士山噴火による原子力発電所の爆発を描いた第6話の「赤富士」は、2011年、東日本大震災による福島原発事故によって再び注目され、監督の予知夢といわれるようになった。独特の映像や新しい撮影技術の導入など各エピソードごとに話題を呼んだ作品であるが、映画全体を通した主題についての解明の試みはすくなかった。

本研究は、映画『夢』に描かれた「人のの生と死」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主に自然と人間の関係と断絶による「死」の表象と自然回帰の「生」を主題として各エピソードの意味を分析した。第1編から第3編までは、「狐・桃の精・雪女」に象徴される自然を忘却した人間の様子を、唯一自然と共感できる存在として登場する黒澤自身の経験に絡ませて描いている。つづく第4編から第7編までは、自然との不和から寿命を全うできなかった不意の「死」として、戦争と自殺、そして放射能による人間の崩壊を指摘している。しかし、監督は自然とともに崩壊した人類の「生と死」への希望として、第8編では自然回帰の「生」を提案している。さらに、不幸の死をとげた人々までも、再び自然の中に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救済・鎮魂を試みている作品であると考えた。

<Abstract>

Life and Death Viewpont of Kurosawa Akira “Dream”

Cho, Eun-Ae

It′s composed of Akira Kurosawa′s “dream” by an episode of 8. “Dream” was called director′s will. Because they′re director′s autobiography and a work for the old director. In particular, ‘Akahuzi’ was watched again for ‘Eastern Japan great earthquake in 2011’ and a nuclear accident.

There is only a thesis about each episode for a movie “dream” up to now. And a subject about the whole movie isn′t learned about.

This thesis is consideration about a view of life and death of “dream”. The meaning of each episode was analyzed in the theme of nature and ‘life’ of a symbol of ‘death’ and natural regression by human relation and break mainly.

An episode from 1 to 3 drew the state of the man who forgot the nature symbolized by ‘kitune. peach and snow fairy’. Nature and the existence with which you can sympathize were KUROSAWA only, and experience of KUROSAWA was drawn. An episode from 4 to 7 drew self-murder and a human collapse by radioactivity and war as ‘death’ from a feud with nature. But a director proposes life and death of natural by the 8th episode. I thought the work trying relief and prayer by the thing even the people who have achieved unfortunate death take in the nature again.

【日本文學】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89－110쪽 10.15733/jast.2017..72.89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의 일본전통론과 한국의 미

강 소 영*

< 目 次 >

Ⅰ. 머리말
Ⅱ. 다로와 전후 일본전통론
Ⅲ. 한국여행의 배경
1. 1964년이라는 시기
2. 아버지 오카모토 잇페이와 <조선 만화행(朝鮮漫画行)>
Ⅳ. 비대칭과 유동의 미
Ⅴ. 맺음말

Key Words : 岡本太郎(Taro Okamoto), 民族芸術(folk art), 日本伝統(Japanese tradition), 岡本一平(Ippei Okamoto), 韓国美(Korean beauty)

Ⅰ. 머리말

아방가르드 화가이자 현대 미술의 선각자인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 1911-1996)[1]는 흔히 20세기를 대표하는 일본의 예술가로서 일찍이 일본에 정착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전공.

1)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 1911-1996) 도쿄 아오야마(青山) 기타마치(北町) 출생. 만화가 아버지(一平)와 가인(歌人)이자 소설가인 어머니(かの子)의 장남.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출신으로 '예술은 폭발이다.'라는 명언으로 일본 내에 널리 알려진 화가이자 예술가이다. 1929년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반 년 만에 중퇴하고, 다음 해 1월 파리에 정착하여 생활한다. 피카소의 작품을 접하고 전위예술을 지향하는데, 콘스탄틴 브랑쿠시(1876-1957),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 호안 미로(1893-1983) 등 여러 전위예술가들과 함께 교류했으며 1938년에는 국제초현실주의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1940년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급거 귀국, 2년 뒤 군대에 징집되었다.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판화・사진・평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상파울로・베네치아 비엔날레 등 국제전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는 그의 대표작 '태양의 탑'을 제작했다. 저서는 『청춘 피카소』, 『예술과 청춘』, 『미의 주력』, 『마음에 독을 품고』 등 다수이며, 『오키나와 문화론-잊힌 일본』으로 마이니치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되어있던 예술의 개념을 뒤집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다.



왼쪽 사진은 1950년 다로가 그린 '숲의 규칙(森の掟)'이다. 숲의 생명들이 가운데 빨간 색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물에 먹혀 숲 전체 질서는 파괴되어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거대한 괴물의 몸체에는 커다란 지퍼가 붙어있어 굳게 닫힌 채이다. 그 지퍼만 열 수 있다면 괴물의 형태는 무너지고 정체는 일순에 폭로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허상에 길들여진 숲의 생명들은 겁을 낼 뿐 누구 하나 지퍼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현대문명은 '숲의 규칙'을 깨고 반성하지 않으며 대지의 현실을 무시하고, 물질문명만을 좇아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3・11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 유출이라는 대재앙은 '규칙'을 깬 인류에 대한 숲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오카모토 다로는 '숲의 규칙'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통해 근대 국가주의적인 일본・일본인이라는 편협함을 벗어나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고하고 예술을 창작했던 작가였다고 평가된다.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희구는 조몬 토기론, 오키나와 문화론, 한국 민중예술 예찬 등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1959년 11월 오키나와여행에서 한반도에 가면 '더욱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5년 후인 1964년 11월과 1977년 6월 두 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는데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과 문장, 메모 등이 남아있다.[2] 그의 조몬 토기론, 오키나와 문화론, 한국미와의 만남 그 후의 멕시코 문화론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관심행보는 국가 단위로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습관에 대한 혹은 '일본'이라는 틀을 과도하게 의식한 까닭에 문화까지 의심 없이 그 틀 안에 한정해서 해석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의 한국여행은

잡지나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에도 195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출연하였다. 1948년 하나다 기요테루(花田清輝) 등과 함께 다로의 유채화 '밤(夜)'에서 이름을 따 전위예술에 대해 논하는 '밤의 모임(夜の会)'을 결성했는데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 아베 고보(安部公房) 등이 참가했다. 이 즈음에 히라노 도시코(平野敏子)와 만났는데 도시코는 후에 비서 겸 양녀가 되어 다로가 사망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2) 본고에서 다로의 한국 관련 글 인용은 초출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석간, 1977.9.19.) 이지만 平井敏晴(2004) 『岡本太郎が愛した韓国』(アドニス書房)에 재수록된 내용을 참고한다. 일본어 번역은 인용자에 의한다.

바로 일본이라는 근대국가가 창조하려 한 일본전통에 대한 틀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다로의 일본전통을 '발견'하고 '창조'하기 위한 여정으로서 한국 여행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가 접한 한국 문화의 비대칭과 유동성의 미와 그의 예술론과의 관련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3)]

Ⅱ. 다로와 전후 일본전통론

미군정(1945-1952)이 끝나고 부각된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분위기 아래, 전후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친 시기에는 일본전통론의 붐으로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이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현대의 전통1 전통이란 무엇인가(現代の伝統1伝統とはなにか)』(学芸書林, 1968)는 시리즈물로 기획했지만 1권으로 끝난 간행물로서 전후 전통론의 총괄이라고 할 수 있다. 편자인 사회심리학자 미나미 히로시(南博) 등 6명의 집필진이 연극, 음악, 미술 각 분야에 걸친 '전통의 계승과 창조'의 문제를 뜨겁게 논하고 있다. 「프리 코멘트 전통에 대한 발언」이라는 코너에 실린 스기우라(杉浦明平)의 전통부정론을 살펴보자.

> 적어도 우리나라에 전통은 공기처럼 많이 편재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때문에 그냥 공기처럼 방치해두면 되는 것이고 기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전통이란 말이 나올 때는 그 기준으로 우리들의 창조를 얽어매려 하기 마련이다.[4)]

당시에 전통이라는 말은 어딘가 밀어붙여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전통 논쟁의 주요 목적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치달았던 일본의 과거에서 전통을 분리하여 전후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힘을 보태면서 전통을 보편적인 것으로 추상화시킴으로써 국제적이면

3) 본고는 지난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와 한국-일상의 예술에서 유쾌한 우주를 만나다-」(『일본연구』2016.12)에 이은 오카모토 다로와 한국예술 관련 두 번째 논고이다.

4) 辻惟雄(1999.10) 「戦後の伝統論と岡本太郎」『ユリイカ』青土社, pp.154-155, 재인용.

서도 일본적인 문화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통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통의 권위를 천황제와 봉건제로 얼룩지기 이전의 오래된 고대 일본, 즉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300년 사이로 추측되는 수렵 채취 사회인 조몬 시대에서 찾으려고 애썼다.

전전에 10년 이상 파리에서 생활하고 귀국한 다로에게도 전통은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다로는 스기우라와 달리 그러한 전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했다. 물론 기존의 전통론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지점에 새로운 전통의 가능성이 태어난다고 하는 역설적 전통론의 창립을 지향했다. 그 제 1탄이 유명한 '조몬토기론'이다.

다로는 1951년 11월 7일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조몬 토기(縄文火焔土器)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다음 해 미술잡지『미즈루(みずる)』에「4차원과의 대화-조몬토기론(四次元との対話―縄文土器論)」을 발표한다. 이 반향으로 일본미술사를 조몬시대로부터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 후 오키나와제도(琉球諸島)와 동북지방의 옛 문화나 전통을 재발견하여 널리 소개하기도 했다.

1952년『미즈루(みずる)』에 게재된 '조몬 토기의 거친, 불협화음적인 형태, 문양을 별 생각 없이 접하면 누구나가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했던 조몬 토기론의 첫부분은 다음과 같다.

> 솟아올라 선 듯한 융기가 있다. 날카롭고, 통통한 몸에 흐르는 융선 무늬를 더듬으며 시선을 옮겨가면, 그것이 쭈욱 날아올라 소용돌이치고, 돌연 하강하고 좌우로 이리저리 두세 번 구부러지고, 나아가 수직으로 낙하한다.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각도로 위를 향하고, 활모양을 그리면서 기어오른다. 균형이 안 맞게 높이 면을 도려내어 다시 태연히 원래의 코스로 되돌아간다.(そびえ立つような隆起がある。鋭く、肉太に走る隆線紋をたどりながら視線を移してゆくと、それがぎりっと舞上がり渦巻く、突然下降し、左右にぬくぬく二度三度くねり、更に垂直に落下する。途端に、まるで思いもかけぬ角度で上向き、異様な弧を描きながら這い登る。不均衡に高々と面をえぐり切りこんで、また平然ともとのコースに戻る。)[5]

첫머리의 이 문장은 미술평론가 등과는 달리 다로가 창작자이기에 가능한

5) 辻惟雄(1999.10) 앞 책, p.156.

직관에 기초한 문장이다. 이어서 다로는 자신의 전통관을 피력한다.

'와비' '사비' '시부미' 등의 봉건적인 노예적 체념의 기분을 기저로 하는 '맛'의 세계를 유효한 전통인 듯이 주장하고……우리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기×과거이다.(「わび」、「さび」、「渋み」等の封建的な奴隷的諦めの気分を基底とする「味」の世界を有効な伝統の如く主張し……我々が伝統と考えるものは己の外にあるものではない。それは必ず自己×過去である。)

전통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과거가 아니며 오히려 현재적인 것이다. 그리고 불변부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변모하여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伝統というものは決して単純な過去ではなく、却って現在的なものである。そして不変不動なものではなく、むしろ常に変貌し、瞬時も同一ではない。)

오랫동안 유럽에 체재하며 그 비정하고 강인한 전통에 익숙해진 나는 귀국 이래 접하는 문화, 전통 등의 레테르가 붙여진 모든 것이 심하게 비약(卑弱)하고, 음습한 데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근세 일본의 왜소한 정서주의의 평탄함은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대륙에서 직수입되어 그대로 전통 속에 편입되어 우리나라의 최대 고전으로 생각되고 있는 웅혼 장대한 나라시대의 불교미술 등을 봐도 소박한 단계에 있었던 당시 일본과는 어울리지 않는, 난숙한 대륙 데카당스 문화의 교만한 기색에 뒷맛이 나쁨을 느끼고, 게다가 거슬러 올라가서는 토우 등의 너무나도 낙천적인 미감에 섬나라적 안일, 현대일본에 그대로 통하는 형식주의를 볼 수 있어 절망했던 것이다.(久しい間ヨーロッパに滞在して、その非情で強引な伝統になれて来た私は帰朝以来ふれる、文化、伝統などというレッテルの貼られた全てがひどく卑弱であり、陰湿であるのに憮然とせ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近世日本の矮小な情緒主義の平板さは敢えて言うまでもないが、大陸から直輸入され、そのまま伝統の中に編入されて我国の最大の古典と考えられている雄渾壮大な奈良時代の仏教美術などを眺めても、素朴な段階にあった当時の日本とはそぐわない、爛熟した大陸デカダンス文化の傲慢の気配に後味の悪さを感じ、さらに遡っては埴輪などのあまりにも楽天的な美感に、島国的安逸、現代日本にそのまま通じる形式主義を見て取り、絶望したものである。)

이러한 그는 다도가 전승하는 와비, 사비의 일본 전통 미학을 '봉건적 노예적

포기의 기분에 의한 맛'의 세계라고 하며 철저히 물리치고 나라의 불교미술까지 당시의 일본과는 어울리지 않는 난숙한 대륙 데카당스 문화의 교만한 모습으로 비판한다. 이 대담한 나라미술 비판은 그 후 태도가 돌변한다.

> 나라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웅대하고 장엄합니다.……당시 문화를 상상해 봐도 현대 일본적인 비소(卑小)한 기색은 전혀 없다. 유럽 돌문화의 고전에 대해서도 무게와 강함으로 길항하고 있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이었습니다.(奈良で私は救われた。雄大で荘厳です。……当時の文化を想像してみても、現代日本的な卑小な気配は全くない。ヨーロッパの石の文化の古典にたいしても、重さと強さで拮抗しているのは、予想をこえたおどろきでした)。[6]

이것은 4년 후의 저서『일본의 전통』(1956)에 실린 나라 절찬의 내용이다. 나라미술에 대한 비판이 '웅대하고 장엄'하여 구원받았다는 절찬으로 바뀌고 있다. '자기×과거'가 전통이며 그것은 늘 변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다로의 전통관은 '와비' '사비' '시부미' 등의 종래 개념을 '봉건적인 노예적 체념의 기분'이라 비판한다. 서구라는 타자 속에서 그리고 일본의 먼 과거라는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전후 일본의 예술생산 방식으로서 세계 시민적이고 보편적인 원시성의 세계를 추구했다.

1950년대 일본 전통 논쟁에서 유행했던 선사시대 조몬 미학의 연구는 그 강렬한 원시성과 역동성으로 섬세하고 나약한 일본 예술의 대안이자, 패전 이후 침체된 일본 문화를 쇄신할 활력으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다. 이들은 먼 과거의 조몬 전통을 소환함으로써 일본 문화의 정당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전후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학문적 탐구와 신화적 상상의 영역 사이에 놓인 조몬에 대한 이해는 발화자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로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적 엄밀함과 학술적인 객관성보다는 예술가로서의 직관과 주관성에 기대어 미학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다.

다로의 여정은 일본의 전통 찾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에 대한 탐구의 과정으로

---

6) 辻惟雄(1999.10), 앞의 책, p.157, 재인용.

볼 수 있다. 일본이라는 경계를 넘어 확장시킨 것이다. 확장된 공간적 기원 속에서 일본이라는 근대국가주의의 틀은 무력화된다. 그 후 사고의 확장은 한국으로 향한다.

> 한국여행을 하고 나는 이 반도의 사람들과 문화에 홀려버렸는데 그 감동의 질을 파고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공간과 대결하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에 매료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이동하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공간과의 뒤얽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느긋한 울림이 전해져온다.
>
> 일본문화라고 하면 교토, 나라-실은 그것은 메이지 이후 편향된 좁은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고정시켜 생각해버리는 것이 현대 일본을 얼마나 작게 왜곡했는지 모른다. 일본은 복합체 다층구조이다. 도호쿠에는 서남 일본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자연과 문화가 있고, 또한 펼쳐진 남서의 여러 섬은 더욱 풍부한 다양성이다. 조선반도와의 관련도 분명히 우리들 전통 속에 있다. 더욱 널리 과거의 일본,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7]

오랜 기간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한국 문화에 관한 정보부족은 그 때까지 일본의 정치, 경제가 얼마나 문화나 인간을 소외시켜왔는지 나타내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는 막연히 중국 영향 하에 있는 하나의 변경문화, 경계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반도에 대한 '기대와 직감'을 가지고 다로는 한국으로 출발한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처음 본 한국 민족예술의 매력은 다로를 강렬하게 매료시키게 된다.

> 그리스든 고딕이든, 마야든 아프리카든 전 세계의 인류 문화유산 모두……그 중 무엇을 취할지는 자유다. 우리가 보고 듣고 존재를 알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감동을 얻고 자극을 받고 새로운 자신을 형성한 자기 현실의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8]

일본 전통의 외연을 한국에서 확장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1964년에 실현된다.

---

7) 平井敏晴(2004)『岡本太郎が愛した韓国』アドニス書房, p.41.
8) 岡本太郎(1959)「伝統論の新しい展開:無限の過去と局限された現在」『日本の伝統』みすず書房, pp.151-152.

Ⅲ. 한국여행의 배경

1. 1964년이라는 시기

1959년 11월, 오키나와에서 한반도에 '더욱 종합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을 예감(更に総合的にとらえなおせる問題があることを予感)'하며 한국행을 희망했던 다로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4년 11월 한국여행을 한다.[9]

다로는 그 이전의 일본인들이 보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미에 관해 천착해온 과정[10]은 근대국가라는 인식체계를 넘어서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직관을 작용하게 했다.

한일국교정상화 전인 1964년 당시 한반도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었고 일본어는 사용금지를 권유받을 정도로 반일적인 정서가 강했다. 그의 한국행은 표면상으로는 한국일보 장기영[11] 사장의 개인적인 호의로 초대

---

9) 이 때 오카모토 도시코(岡本敏子)의 기록에 의하면 다로의 관심이 특히 많았던 것은 제주도였던 것 같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로는 NHK『제주도 아름다운 전통의 고향(済州島美しき伝統のふるさと)』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다. 도시코의 노트에 있는 키워드를 보면 제주도 탄생신화에 얽힌 '삼성혈(三サン姓ソン穴ヒョル)'이 쓰여 있다. 그러나 왠지 다로는 제주도에 관한 감상을 오키나와처럼 상세하게 글로 남기지 않았고 사진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수수께끼이다.

10) 다로는 1930년 1월부터 11년 간 파리에서 혼자 생활한다. 이 파리시절은 아티스트로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리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르본느대학에서 철학, 인류학 강의에 출석하여 학술적인 소양을 쌓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다로의 진보적인 사고방식은 당시 시대를 리드하는 아티스트나 사상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배양되어 간 것이다. 1933년 23세에 압스트라크시온. 크레아시온(추상. 창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멤버인 알프, 칸딘스키, 몬드리안, 미로와도 교류를 했다. 그러나 추상예술에 만족하지 못하고 25세에 네오 컨크레티즘(신구상주의)을 제창하고 26세에는 압스트라크시온. 크레아시온 협회를 탈퇴. 그 후 슈르리얼리스트와도 친교를 쌓지만 예술관에서 공감할 수 없는 그들의 운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소르본느 대학의 마르셀 모스 아래에서 민족학 연구에 몰두한다. 이 민족학과에서는 그 때까지의 인류학, 민족학을 뒤집어 20세기 인문과학 전반에서 대표작이 된『구조인류학』의 저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 교우를 맺고 이 즈음부터 조르쥬 바타이유의 운동과 연구회에도 참가했다. 이 파리생활은 1940년 독일군 파리 침공 며칠 전에 끝난다. 귀국 후는 징병되어 군대에 들어가 1946년에 복귀하기 까지 창작활동은 중단된다. 귀국 후 전위예술가로서 창작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모습과 전통의 재발견에 힘쓰게 되는 것이다.

11) 장기영(1916-1977)은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 호는 백상(百想). 종교는 불교. 해방 직후 당시 '조선은행'을 지금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정립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고,

받은 여행이었다. 장기영은 한국정부의 부총리이자 경제기획원 장관의 신분으로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던 한일국교정상화의 핵심멤버이기도 했다. 다로가 한국에 온 1964년은 부총리로 막 취임했을 때였다.

당시 전쟁 신드롬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던 미국은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이 끝났지만 냉전의 주도권을 쥘 다른 전쟁으로 베트남 전쟁을 획책 중이었다. 그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 안정이 급선무였기에 미국 측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은 전후 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었다. 다로의 한국여행 즈음의 일본열도는 막 폐막한 동경 올림픽의 여열이 아직 식지 않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장기영은 전 은행원으로 조선은행의 동경지점 개설을 위해 도일한 적도 있었고, 34세에 한국은행 부총재, 38세에 한국일보를 창설하여 국내 최다 발행부수의 유력 미디어로 만드는 등 입지전적인 인물로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그는 독특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일본통으로. 이것을 수뇌부에서 높이 사 한국전쟁 후 한일 회담 대표를 맡았다.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한일 간 정치적 결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며 동경 올림픽 전후에 더욱 활발해져 동경에서 다로와 알게 된 것도 이 시기와 겹친다.

도시코의 회상에 의하면 두 사람은 공통의 한국인 친구가 있어 다로에게 꼭 한국을 보러 오라는 이야기가 파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 친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전후 처음으로 프랑스에 건너간 인물인 김중업[12]이다. 그는 1952년

1950년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혼란했던 전시금융(戰時金融)을 수습하는데 공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사 사장을 지냈으며 1953년 코리아타임스를 인수했다. 태양신문을 인수하여 1954년 한국일보를 창립하였다. 이후 1962년 박정희의 밀사로 미국으로 다녀온 뒤 박정희 정권에서 발탁되어 부총리,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 대리, 국회의원, IOC 위원이었으며, 한국일보의 사주였다.

12) 김중업(1922-1988) 건축가. 평양 출신으로 1941년 일본 요코하마 고공(橫浜高工) 건축과를 졸업했고, 1945년 조선주택영단 기수(技手)로 재직했으며, 194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1952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예술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도불(渡佛)하여 1956년까지 르코르뷔제 연구소에서 건축학・도시계획 등을 연구했다. 귀국과 함께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설립,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편 개인전을 가졌고 홍익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1956년 이래 국전 심사위원, 1961년 문화재 보존위원, 1961-1963년 문화자유회의전 준비위원, 1965년 현대작가초대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1962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1963년 도미하여 뉴욕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의

에 베니스에서 개최된 국제 예술 회의의 한국 대표로 참가해 그 길로 파리 르코르뷔제[13] 건축사무소에서 연구에 힘쓰고 있었다. 이 시기는 다로가 전후 처음으로 프랑스에 갔을 때와 일치한다. 다로는 친구인 바타이유나 피카소를 만나거나 전람회를 열거나 하며 지내고 있었기에 사교계를 통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는 어쨌든 다로의 한국방문이 결정된 시기와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장기영이 도일했던 시기가 겹치는 점이 흥미롭다. 다로의 한국방문으로부터 약 반 년 후인 1965년 6월에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한일 양국의 역사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라는 시점과 맞물려 다로가 한국미와 만나게 된 것은 한국이라는 타자를 통해 일본이 새로운 전통을 싹틔우게 되는 매우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아버지 오카모토 잇페이와 〈조선만화행(朝鮮漫画行)〉

다로의 아버지 오카모토 잇페이[14](1886-1948)는 만화가로 1912년부터 도쿄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다수의 만화를 발표하며 '펀치'[15]라고 불렸던 신문의 풍자적인 삽화를 '만화'라는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만화에

한국관 설계를 담당했다. 대표 작품으로 부산대학교 본관, 건국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본관, 프랑스 대사관, 뉴욕 세계박물관회 한국관 등이 있다. 김중업이 설계한 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이 리모델링되어 김중업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13) 르코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 스위스 출생의 프랑스 건축가. 건축을 '살기 위한 기계(machine for living)'로 정의하며 기능주의적인 모더니즘 건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14)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1886-1948)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 출생. 22년 오사카, 25년 동경으로 이사. 36년 오테마치(大手町) 상공중학교 졸업 후 서양화 공부, 39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43년 졸업 후 44년 제5회 문전 입선. 제국극장 천정화를 비롯한 무대 배경 장치 일에 종사한 후 45년 아사히 신문사 입사. 그 후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며 '메이지'기의 소위 펀치화를 대신해 '다이쇼'기가 되어 일반신문 잡지가 이야기 형식의 만화를 연재하면서 대표적 만화가로서 '쇼와'기까지 활약했다. 1922년과 1929년, 약 7년간 유럽을 순회 여행했다. 저서『世界漫遊』,『岡本一平全集』등 三輪英夫他2人(1989)『近代日本美術事典』講談社, p.71.

15) 영국의 만화 잡지『펀치』(1841년 창간)를 본 따 찰스 워그먼(1832-1891)이 요코하마 거주지에서 발행했던『재팬 펀치』(1861년 창간) 속의 '펀치'라는 단어가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보급되었다. 茨木正治(2007)『メデイアのなかのマンガ新聞一コママンガの世界』臨川書店, p.43.

가벼운 문장을 첨가한 '만화만문(漫画漫文)' 스타일을 확립시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정치만화, 풍속만화, 어린이 만화, 닮은꼴 얼굴 만화, 시사만화, 나아가 수필·기행문·소설 등에 걸친 폭 넓은 활약을 해서 만화계의 지도자적 입장에 서게 된다. 즉 잇페이는 만화의 여러 장르와 표현력을 크게 높여 만화의 사회적, 예술적인 지위 향상에 기여한 선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잇페이는 1922년 부녀계(婦女界)라는 회사에서 파견한 세계일주(3.18-7.18), 1927년 한국 여행, 1929년 런던 군축회의의 아사히 신문 특파원 취재의 명목으로 간 미국과 유럽 여행(1929. 12.2-1932.3.10.) 등 3회에 걸쳐 오랜 기간 외국을 경험했다. 이 세 번째 여행에 다로가 동행하여 잇페이가 귀국한 후에도 다로는 유럽에 남아 10년간 체재하게 된다.

잇페이의 7년에 걸친 유럽행에 관한 기록은 자세히 남아 있지만 한국여행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약 한 달 동안 25회에 걸쳐 도쿄아사히신문에 <조선만화행(朝鮮漫画行)>(1927.8.2.-31)이라는 짧은 글이 포함된 기행만화를 연재했는데, 이 만화의 내용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행 만화는 『잇페이전집(一平全集)』(先進社, 1929-1930)에도 실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연재된 작품이다. 이 <조선만화행>을 통해 잇페이가 만난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여행을 한 1927년이라는 시기는 어떤 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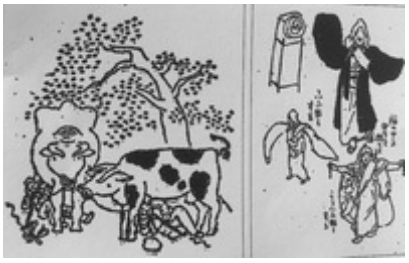
주목할 만 한 사실로 1927년 도쿄아사히 신문사의 '해외여행전람회'를 들 수 있다. 이 전람회는 일본 투어리스트 사무실 주최로 도쿄아사히 신문사가 후원하고 철도부, 조선철도, 남만주철도, 캐나다 태평양철도, 일본우선(郵船) 등이 참여했다. 개최 목적은 포스터나 모형, 사진 등을 전시하여 관광 여행 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 해 3월 조간에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식산은행 등이 후원한 '조선특집' 전면광고가 게재되었다. 이어 7월에는 동경에서 조선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즉 1927년은 일본 관민 모두 한국 여행 붐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잇페이는 다음과 같은 글로 독자를 한국으로 안내하고 있다.

> 나는 조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조선에 호랑이와 기생이 있다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는 아마추어입니다. 이 아마추어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내 이름을 조선어로 하면 강일

평입니다. **이번 여행 덕분에 나는 완전한 강일평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조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카모토 잇페이가 왜 강일평이 되었는가? 이러한 체험의 길을 자세하게 여행기로 말하고자 합니다.[16]

<조선만화행>은 잇페이가 쓴 1000-1500자 정도의 글과 2-3컷의 만화로 기사가 구성되어있는데 그는 실제로 저자 이름을 '본(本)'자를 제외하고 '강일평(岡一平)'으로 발표했다.



'시장의 매물', '조선인의 체격', '이상한 악기', '조선나그네' 등 한국체험에서 느낀 것을 '조선인화 된' 잇페이 특유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그렸다. 예를 들면 소 팔러 가는 사람이 소 아래에서 쉬는 것을 보고 식민지 조선의 미개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편리한 이동호텔'로 묘사하기도 했다.(8월 5일자, 위 그림 참조) 한국의 생활문화를 식민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느긋하고 해학이 있는 것으로 봤던 것이다. 또한, 승무를 본 잇페이는 매우 감동을 받아 '놀라운 것은 춤의 템포가 매우 근대적인 감각과 유사한 것이다.……승무를 출 때 들리는 음악은 재즈처럼 세련되었다'고 상찬하고 있다. (8월 9일자, 위 그림 참조) 14회 연재에는 장승인 천하대장군이 등장하기도 한다.

잇페이는 1927년 한국 여행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독자적인 관찰력을 통해 편견 없이 보려 했다. 고대 한국 문화만 평가하려 했던 당시 화가들과 대조적이다. 그의 작품 속에 이문화 체험에 당황하는 일본인으로 본인을 등장시켜 자학적인 유머로 자신과 일본인을 희화화하고도 있다. 그는 고등여학교를 방문해 한국인 여학생에게 일본여성의 인상에 대해 질문하고(8월 12일자), 한국

16) 岡本一平『朝鮮漫画行(二)』『東京朝日新聞』1927.8.3. 조간 p.7.

의 가옥에 가서는 생활양식이나 식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8월 16일자), 박영효에게 일본정치에 대해 인터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 나는 세계여행을 갔을 때 알아낸 것이 있다. 그것은 정신 발전에 여유로운 민족은 웃음의 예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머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 지역민의 정신 장력(張力)의 척도이다.……조선에서 웃음의 예술을 다수 발견해서 조선을 위해 조용히 축복하고 있다.[17]

한국이라는 '타자'에 대하여 서양화된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했음을 잇페이의 <조선만화행> 속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시선과 관심은 당시 16세이던 다로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이라는 타자에 대한 관심은 '조선에서 웃음의 예술을 다수 발견'했으며 '조선화된 강일평'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본 전통의 새로움을 찾고 있던 다로에게 1964년에 마침내 한국 여행을 하게 하고 잇페이와 같은 직관과 관찰력으로 장승과 승무 등을 보고 느끼며 한국 민중예술에 눈을 뜨게 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Ⅳ. 비대칭과 유동의 미

첫 한국 여행 1964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방문지는 서울, 판문점, 제주도, 경주이다. 김포 공항에는 장부총리 대신 그 부인과 한국일보사의 비서들을 포함해 4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18] 시내 호텔[19] 로 가는 차창에서 바라본

17) 岡本一平『朝鮮漫画行(十六)』『東京朝日新聞』1927.8.19. 조간 p.7.
18) 오카모토 다로에 관한 국내연구가 미흡하기에 다로의 첫 한국여행에 대한 전기적인 사실도 기록의 차원에서 다루기로 함을 미리 밝혀둔다.
19) 서울에서 숙소는 반도호텔이었다. 반도호텔은 전전에 일본실소비료(日本室素肥料)등을 경영하는 노구치(野口遵)가 세운 것으로 철근 콘크리트 8층 건물의 미국풍 호텔이었다. 주변에는 그것보다 높은 건물이 없고 거기에서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다. 이 호텔은 전후 한국의 국영공사가 운영하고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은 롯데에 매수되었다. 지금 현재의 롯데호텔 본관이 반도호텔 터에 해당한다.

한국의 첫인상은 다음과 같았다.

> 맑게 갠 만추의 11월. 공항 주변에는 벼 베기 철 황금색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하얀 의상을 두르고 느긋하게 벼를 베는 농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에는 바위산들이 파도를 치면서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길가에는 많은 아이들이 활기차게 웃는 얼굴로 뛰어놀고 있다. 근대화한 도시에서 가만히 있는 일본 아이들에 비해 밝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있었다. 또한, 거리 여성들은 선명한 원색 옷으로 차려입고 활달하게 걷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유롭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다' 는 사실에 한국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는 '기쁘게 배신당하고 말았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한국은 사회적 혼란과 빈곤에 허덕이는 어두운 나라가 아니라 밝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다가왔다.

서울에서 첫날은 장기영 부총리 주최의 북악산 청운각 만찬과 승무 감상,[20] 둘째 날은 덕수궁 한국가면전시회, 하회별신굿놀이 감상-유영국 개인전-창덕궁 비원-계동 배렴 ㅁ자형 기와집 고택 방문 등으로 이어진다.

> 우리들 '근대'의 일상적인 겉모습. 그 허무감. 눈앞에 대치되어 내가 늘 부딪히고 있는 근대주의를 뛰어넘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게다가 서울시를 둘러싼 바위산 위까지 빽빽이 기어오른 가난한 민가가 밀집한 영천이나 홍제동 부근. 그 정경은 몹시 회화적인데 기슭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 산 표면에 붙어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지어 흘러넘치는 서민들의 탄력 있는 살아있는 표정을 보고 있자니 나는 이해되는 것이다. 빈곤, 그리고 고통의 싸움은 반드시 어두움이 아니다. 그런 생활의 신비를 한국은 맹렬하게 들이댄다. (p.29)

첫날 청운각 만찬 전에 북악산에 올라 홍제동과 영천동 부근의 빈민가를 내려다보고 '근대'의 일상에서 느끼는 허무감과 마주하며 근대주의를 넘는 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서술한다. 빈곤과 어두움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

---

20) 아버지 잇페이의 〈조선만화행8〉(1927. 8.9)에 '매우 근대적인 감각과 유사'하다고 승무를 표현하고 있기에 다로도 승무에 대한 관심을 전부터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다로는 그 후 한국 민중의 생활 속 살아있는 표정과 탈의 웃음과 해학, 기와집의 기와와 비대칭적 곡선 등을 만나면서 여유와 생동감을 만들어낸 한국예술의 본질 속으로 더욱 들어가게 된다.

> 색도 형태도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제나 상쾌하게 흐르고 있다. 그것은 중국 문화의 꽉 움직이지 않는 완결된 표정의 고전성과도 다르고 일본의 전통예술에 보이는 기교적인 떫은 형식미와도 다르다. **구애됨이 없는 뚫고 나아가는 가벼움이 있다.** (p.35)

한국 민족예술의 매력에 강렬하게 이끌렸을 때 다로는 이러한 흐르는 여유로운 표정을 발견한다. 고정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동성은 다로가 한국예술의 미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 부용해의 안내로 도보 10분 거리의 덕수궁을 방문한다. 부용해는 한국의 전통문화 발굴과 인간문화재 보호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장기영의 깊은 신임을 받고 다로의 안내역이 되었다고 한다. 그 날은 마침 석조전의 특별전인 '한국가면 특별전시회'의 오픈 첫날이었다. 전시된 탈은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실제 탈춤극도 특별 상연되었다. 그것은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놀이[21]이다.

'주술로서의 예술'을 표명하는 다로에게 샤머니즘은 특히 중요관심사였다. 마을의 광장에 펼쳐지는 탈춤극은 '열려진 주술'이기도 했다. 다로의 대표작인 오사카만국박람회의 상징물 '태양의 탑'은 '열려진 주술로서의 예술'을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본래의 공간성과 생활 속 샤머니즘의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회별신굿놀이는 공간과 시간이 교차하며

---

21)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12세기 중엽부터 상민(常民)들에 의해서 연희(演戱)되어온 탈놀이이다. 정월 초이튿날에서 보름 사이에 주민들이 병을 앓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며 서낭신(神)을 위안하는 부락제를 마친 후 벌이는 가면극이다. 이 부락제는 반드시 마을 주민들이 지내게 되어 있는데, 서낭신이 대제를 원하는 경우, 10년마다 주민들이 대제를 지내지 않으면 서낭신이 벌을 내려 병자가 생길까봐 드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이 탈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굿의 일환으로 연희되었다. 별신굿이란 '별나다', '특별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곧 별난 굿 또는 특별한 큰 굿을 의미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주요 공연물이다.

생활 속에 구현된 주술로서의 예술이었다.

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기와 전시에도 흥미를 느끼고, 창덕궁 인정전의 기와지붕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인정전은 궁전의 중심건물임에도 일정하지 않은 지붕기와가 태연히 늘어서있다.

거리나 시골을 걸으며 여러 재미있는 발견도 한다. 예를 들면 구불구불 구부러진 좁은 골목에서 다로는 한국 풍토의 본질에 접할 생각으로 눈을 빛낸다. 벽돌 벽에 기와를 덮은 지붕이 붙여져 있다. 거기는 조금 언덕으로 되어있어 지붕의 선이 잘 보이는데 '뭐라 할 수 없는 풍요롭고 인간적인 선의 굴절'을 느낀다. 잘 보면 심하게 맞지 않는 기와다. 하나하나가 휘거나 크기도 제각각. 그것을 조합해서 길게 이어지는 지붕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이상한 곡선이 되고 있다. 다로는 '일본이라면 더 정연하게 자로 잰 듯한 선으로 만들었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께름칙한 꼼꼼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유롭고 태연하다. 게다가 기와에 모양이 있는데 그것까지가 아주 제멋대로인 얼굴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소박한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의지도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 이런 분위기는 민족마다 차이가 있다. 뭐든지 꼼꼼하게 맞추려고 하는 성격과 그것을 싫어하는 민족. 지극히 자연스럽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농촌에 가면 둥근 근사한 모양의 초가지붕 농가가 아름답다. 그것도 자와 컴퍼스로 그린 듯한 선이 아니라 봉긋하게 자연스런 둥근 형태. 그리고 취락 전체도 맞춘 듯한 둥근 모양의 지붕이 아니다. 모두 각각 독특하게 휘거나 부풀거나 해서 그 불균형이 도리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p.36)

비대칭성, 불균형이 자연스런 선의 흐름으로 이어져 유동의 미를 발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다. 한국예술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한국예술의 심부에서 방출되는 문화적 본질에의 공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되는 나무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살려서 집을 짓는 것. 나무 각각에 사용법의 규칙이 있는 것. 남향에 써야

하거나 거꾸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그 주술적인 약속에 따라 집의 방향 등 모든 것이 정해진다. 획일적이지 않고 운명적. 그러한 심성을 정말로 알고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이 민족, 생활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예술 전체에 넘치는 자유로운 감각은 그러한 생활의 자세 전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취미로 꾸며진 맛이 아니다. 집 안에 가구를 놓고 액자를 걸고 문방구를 놓는 것에서도 모든 것에 유동감이 있다. 딱딱한 좌우동형을 싫어한다. 구애받지 않는 모습이 역시 이곳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다.

찻잔이나 항아리 등의 일용잡기에도 같은 미학이 흐르고 있다. 태연히 불규칙적이다. 힘차고 소박하다. 결코 지나치게 구애됨이 없다. 그 부분이 대단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자재의 성격, 그 운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p.37)

한국방문시의 기록인 「한국발견」(『美の世界旅行』 第五章, 1982)[22]에 실린 4편의 에세이 중 1절 '생명의 유동감'에 있는 위 내용에서 한국예술에는 '구애됨 없는 꿰뚫고 나가는 가벼움이 있다.'고 하며 가벼움을 비대칭성의 조형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면 초가지붕, 찻잔과 항아리, 가구 등 이러한 우연성과 유동감 그리고 비대칭성은 일본의 감각을 훨씬 넘고 있으며 그것들을 숭배하는 심성을 이해하지 않는 한 이 민족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말을 탄 그림의 박진감은 이조의 민화나 자수 등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민족무용의 공간성도 북방아시아의 스텝지대 부근에서의 춤을 생각하게 한다. 설령 농경행사가 되어있는 것이라도 그 움직임 속에는 북아시아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오로지 농업을 하고 대지에 딱 붙어온 문화의 평평하고 웅크린 기색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국여행을 하고 나는 이 반도의 사람과 문화에 홀려버렸지만 그 감동의 질을 더듬어보면 무엇보다도 **공간과 대결하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만한 것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동하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공간과의 얽힘. 내가 이 기색, 날카로움을 동경하는 것은 내 육체 속에도 북방유라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까. 우리들 일본인은 주변과 복잡하게 서로 섞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남쪽의 뜨거운 문화를 보면 두근두근한다. 동시에 북방문화의 두께, 격렬함에 또한 노스탤지어를 느낀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오는 울림이 전해진다. (p.41)

22) 1절은 생명의 유동감(生命の流動感), 2절 민중문화의 두께(民衆文化のあつみ), 3절 한국재방, 4절 바람의 기둥-장승기행.

다로의 관심 속에서 오키나와를 통해 일본 문화가 동아시아를 넘어 남쪽 태평양 제도로 확장되었고 한국을 계기로 섬나라 일본을 넘어 북방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되었다. 1920-30년대에 등장한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민속학과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민예운동이 관변 아카데미에서 배제된 주변부 문화와 민중의 일상을 재평가했다는 점에서는 반제도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동북지방이나 오키나와 같은 일본의 변방과 식민지 문화를 일본의 과거로 화석화시켰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식민주의적 한계를 갖는다. 대동아공영권의 문화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주장도 바로 그것이다.

다로의 경우에도 일본의 전통과 '외지'를 연결하려는 식민주의적 시각으로 보기 쉽지만 그의 경우에는 관변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난 창작자로서의 직관이 작용하고 있다. 민족이나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적인 예술론의 관점에서 '역사 이전부터 깊은 관련이 있는 조선반도에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일본인이 잃어버린 문화, 그 피의 울림을 재확인'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몬 문화도 민속학자 이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학자는 지식적으로만 바라봤을 뿐 감각적, 인간적인 접근은 하지 않았다. 창작자로서 조몬 토기에 대해 원시적 생명력을 느껴 미의 재평가를 했던 것처럼 다로는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도 직관적인 분석을 행했다. 그런 일본인은 그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의 한국 민중문화의 생명력과 유동감에 착안한 한국문화론은 일본의 '창조된 전통'으로서 다로 예술론의 감각적 토대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전후 1950-60년대 일본은 서양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구 중심의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일본의 전통을 창조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중 하나로 제국주의와 국수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일본의 전통으로서 강한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먼 과거의 조몬 토기가 소환되었다.

다로는 창작자의 직관으로 조몬 토기의 원시적 생명력을 환기시켜 일본의

전통으로 재해석했는데, 그의 예술에 대한 직관은 한국예술의 비대칭성과 유동의 미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진다. 일본전통의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의 직관은 '일본의 다른 어떤 곳보다 한국이 더 내 고향에 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술회하기에 이른다. 다로는 일본이라는 근대국가의 틀을 넘어 한국예술 속 자유로운 생명력의 '발견'을 통해 세계적인 시야에서 전통을 재창조하고 나아가 한국미를 자신의 예술적 감각의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통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현시점을 활짝 자유롭게 열어야 참된 의미의 전통이지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통과 전통주의는 정반대의 것입니다.……한국의 자유롭게 자신을 열어서 표현해가는 전통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23]

<参考文献>

岡本太郎(2006)『壁を破る言葉』イースト・プレス, p.85
_____(1999.10)「万国博のためにテーマ展示の基本構想」『ユリイカ』青土社, p.41
_____(1981.7)「李朝文化発見」「朝鮮民衆文化の魅力」『伝統と現代』伝統と現代社, p.32
_____(1971)『美の呪力』新潮文庫, p.158-159, p.166
_____(1959)「伝統論の新しい展開:無限の過去と局限された現在」『日本の伝統』みすず書房, pp.151-152
赤坂憲雄』(2007)『岡本太郎の見た日本』岩波書店, pp.292-296, pp.300-302, p.307, p.318
辻惟雄(1999.10)「戦後の伝統論と岡本太郎」『ユリイカ』青土社, pp.154-158
平井敏晴(2004)『岡本太郎が愛した韓国』アドニス書房, pp.27-66, pp.85-92
平野暁臣(2011)『岡本太郎の仕事論』日経プレミアシリーズ, p.5
_____(2009)『岡本太郎「太陽の塔」と最後の闘い』PHP SHINSHO, pp.12-13
『KAWADE 夢ムック文藝別冊　総特集　岡本太郎』河出書房新社. 2003, p.102, pp.120-121
『別冊太陽 岡本太郎新世紀』平凡社, 2011, pp.152-154
石川弘義他9人編(1994)『大衆文化事典』弘文堂, pp.94-95, pp.99-100
三輪英夫他2人(1989)『近代日本美術事典』講談社, pp.71-72
조현정(2015)「일본전통논쟁과 타자, 조몬적인 것」『일본비평』(1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 99-108
_____(2014)「전후 일본 예술의 종합 담론-건축가 단게 겐조와 미술가 오카모토 타로,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협업을 중심으로」『미술사학보』(43) 미술사학연구

23) 岡本太郎「朝鮮民衆文化の魅力」『伝統と現代』伝統と現代社,1981.7月号, p.40.

회, p.46
야마모토 사에, 이세영(2014)「『東京朝日新聞』에 연재한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의 <朝鮮漫画行>(1927)-신문 만화에 그려진 일본 통치하의 한국」『미술사 논단』(38) 한국미술연구소, pp.185-186, p.190, pp.192-193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岡本太郎の日本伝統論と韓国の美

姜素英

1950-60年代の戦後日本は、西洋という他者との関係の中で、西欧中心の近代を超克できる日本の新しい伝統を作る方法を模索した。そのなかの一つとして帝国主義と国守主義に汚染されていない日本の伝統として強い原始的生命力をもつ遠く過去の縄文土器が召還された。

岡本太郎は創作者の直観で縄文土器の原始的生命力を喚起して日本の伝統として再解釈した。彼の芸術的直観は1964年に韓国紀行を通じて韓国の芸術の非対称性と流動の美への「発見」につながるようになる。日本の伝統を拡張させようとする彼の直観は「日本のどこよりも韓国の方が自分のふるさとへ行ったような感じ」と述懐するに至る。太郎は日本という近代国家の枠を越えて、韓国芸術の中の自由自在な生命力の「発見」をきっかけとして世界的な視野から伝統を再創造し、さらに韓国美を自分の芸術的感覚の原動力としたと言えよう。

<Abstract>

Taro Okamoto's Japanese tradition and Korean beauty

Kang, So-Young

After the war in the 1950s and 60s Japan sought ways to create a new tradition of Japan that can overcome modernity centered in Western Europ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West. As one of them, the distant past Jomon pottery with a strong primitive life force was summoned as a Japanese tradition that is not polluted by imperialism and nationalism.

Taro Okamoto reconstructed the original tradition of Japan by evoking the primitive life force of Jomon pottery by the intuition of the creator. His artistic intuition will lead to 'discovery' of Korean art asymmetry and flow beauty through Korea travel in 1964. His intuition to expand the tradition of Japan comes to recite "Korea seems to have gone to his home more than anywhere in Japan". Taro beyond the framework of a modern state called Japan, re-creating tradi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with the "discovery" of freedom of vitality in Korean art as a trigger, and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Korea beauty was used as the driving force of his artistic sense.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111－131쪽 10.15733/jast.2017..72.111

韓日古典の中に見える「笑い」と「怒り」の計量文献学的な比較考察(二)*
－ 作家及び作品間の相対比率をめぐって －

琴 榮 辰**

< 目 次 >

Ⅰ. 相対比率と計量文献学
Ⅱ. 複数作者説の検証
Ⅲ. 日本古典作家・作品同士の比較
Ⅳ. 韓国古典作家・作品同士の比較
Ⅴ. おわりに

Key Words : 사이카쿠 오리도메(Saikaku oridome), 슌쇼쿠 우메고요미(Syunsyoku umegoyomi), 겐지모노가타리(genji-monogatari), 웃음(laughter), 분노(anger)

Ⅰ. 相対比率と計量文献学

筆者はこれまで東アジア笑話の比較研究を行う過程で、隣国とは異なる日本笑話の量的特徴に注目してきた。韓国の笑話と比べ、日本の笑話には言葉遊びの笑いがより豊富であるとか、[1]中国や韓国と比べ、攻撃的な笑いが少ないというのもそうした特徴の一つである。[2]そこでさらに、両国古典作家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B5A01012816) A bibliometrical comparative study on the laugh and anger of Japanese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5B5A01012816)
** 韓国外国語大学校 日本語大学 非常勤講師。日本近世文学専攻。
1) 금영진(2016.06)「일본소화(笑話)속의 동물조합」『외국학연구』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2015.11, pp.31-56.及び금영진「에도 하나시본(江戸噺本) 속의 지즈쿠시(字尽くし) -언어유희 방식의 한일비교-」『외국학연구』36, 중앙대학교외국학연구소, pp.147-180. を参照されたい。
2) 琴榮辰(2010.09)「笑話の頓知・愚人譚化と隠れる攻撃性 - 韓日笑話比較試論 -」『日本學

及び作品における笑いの量的分布傾向やその特徴を究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か考えてみた。そしてその有効な方法として思いついたのが笑いと怒りという、相反する感情を表す二つの相関語の間に存する一定の相対比率を利用した計量文献学的な研究方法である。

ではまず、計量文献学的の効用について述べる。計量文献学とは、テクストの文章に見られる単語の数や品詞率、助動詞の種類、助詞・助動詞の連結の分析などを通し、その作品の作家、あるいは作品の文体の特徴などを明らかにする研究方法である。テクストの文章を各要素に分解し、統計的に分析することで、その作家の文体やクセを計り知ることができる。

この方法を日本古典研究に取り入れた主な先行研究としては、村上征勝・今西祐一郎および、土山玄の論文がまず挙げられる。[3]とくに、土山玄は品詞構成比率・語の頻度・語の長さの計量分析を通して、従来から複数作者説の囁かれていた匂宮三帖及び宇治十帖(『源氏物語』第三部)のどちらにおいても複数作者説を支持する積極的な根拠は認められず、『源氏物語』の諸巻の多くは単独の作者によって執筆された蓋然性が高いと指摘している。[4]

また、北原慈子及び小林雄一郎・小木曽智信の論究では、中古の日本語コーパス分析を通し、助詞や助動詞の使用傾向は個人よりジャンルの文体の影響が大き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5]この他にも、西鶴の死後、門下の北条団水により編集、出版された西鶴遺稿集の著者は団水ではないかという疑惑に対し、上阪彩香は、遺稿集の著者は西鶴本人である可能性が高いこと

研究』31, 檀国大学校 日本研究所, pp.233-253.及び琴榮辰(2013.02)「江戸噺本の烏滸の笑い -笑いの方法および質の変化をめぐって-」『日語日文学研究』84(2),韓国日語日文学会, pp.93-111.を参照されたい。

3) 村上征勝・今西祐一郎(1999)「源氏物語の助動詞の計量分析」『情報処理学会論文誌』40(3)、pp.774-782および、土山玄「源氏物語第三部の成立に関する計量的な考察」『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シンポジウム』2014.12、pp.213-220.

4) 日本学術振興会科研報告書「『源氏物語』の成立論および多作者説についての計量的研究」研究課題/領域番号13J03850.

5) 北原慈子(2015)「古典文学研究における計量文献学的手法をめぐって－『更級日記』『浜松中納言物語』『夜半の寝覚』『紫式部日記』を題材として－」『Studies in language science』5、立命館大学大学院言語教育情報研究科、pp.75-103及び小林雄一郎・小木曽智信「中古和文における個人文体とジャンル文体:多変量解析による歴史的資料の文体研究」『国立国語研究所論集』6、2013、pp.29-43.

を文章の数量的観点から論じている。[6)]

近年、こうした計量文献学的研究がだんだん増えてきており、[7)]作者未詳あるいは複数作者説が囁かれる作品の著者特定並びにそのテクストが僞書であ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作業において計量文献学的方法は有効と言える。そして、こうした従来の計量文献学的研究方法に、相対比率の概念を取り入れようとするのが本稿の新たな試みである。引き続き、相対比率の効用について述べる。

筆者が相対比率に注目したのはユーチューブ(Youtube)やインターネットのコメントの書き込み掲示板などによく見かける、親指を上に向いた「気に入り表示」や、下に向いた「気に入らない」表示から得たものである。相関性を持つ相反する両表示の量の間には、動画ごとに異なる一定の相対比率が存する。

たとえば、2016年9月25日、ユーチューブに載っている、映画『サウンドオブミュージック』の「ドレミの歌(ダビング無し)」(2012年12月14日掲載)は約64万回の照会件数を見せているが、「気に入り」表示853件、「気に入らない」表示74件を示しており、その相対比率は約11.52：1であった。これは、11.5人が肯定的な評価をするたびに、1人の割合で否定的な評価をしたことを意味する。

さらに、その五か月後の2017年2月17日に再度確認したところ、約74万件の照会があり、「気に入り」991件、「気に入らない」86件であった。その相対比率は不思議にも以前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11.52：1であった。あるものに対する肯定的な反応と否定的な反応との間には一定の相対比率が存することや、それがそう簡単には変わらないことがこれによって分かる。

そこで、両国の古典に見られる、相関性を持つ二つの語彙を分析した場合、どのような相対比率が出てくるのか分析してみた。現在、日本古典のデータベースとしては、岩波書店が提供し、国文学研究資料館が公開している「日本古典文学大系(旧)」データベース(岩波書店、556作品。以下、日本古典と略す)が利用できる。[8)]また、韓国古典の場合、日本のような古典文学大

---

6) 上阪彩香(2014)「西鶴遺稿集に関する統計分析―北条団水の浮世草子との文体比較」『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シンポジウム』pp.113-118.
7) 村上征勝・金明哲・土山玄・上阪彩香(2016)『計量文献学の射程』勉誠出版.pp.1-256.
8) 国文学研究資料館トップ＞電子資料館＞日本古典文学大系本文データベースhttp://base1

系はまだ出来ておらず、幸い、韓国古典翻訳院が提供する古典総合DBの『韓国文集叢刊』データベースが構築されつつある(以下、韓国古典と略す)。[9]

そこでまず、両国古典では「忠」と「孝」のどちらが多いのか、またその割合は果たしてどのくらいなのかを調べてみた。その結果、韓国古典からは「忠」54595件、「孝」58719件が検索された。「孝」を1にした場合、その相対比率は0.92:1になる。「孝」が「忠」より若干多めではあるが、ほぼ同じと見てよかろう。

一方、日本古典からは「忠」3790件、「孝」1745件が検索された。その相対比率は2.17:1になるが、なぜ日本古典では「忠」を含む語彙が「孝」より2倍以上も多いのかは両国古典の興味深い相違点とも言える。日本の古典に登場する人物の名前に「忠」がよく使われていたこともその一因として考えられなくもないが、理由はそれだけではあるまい。他にも何らかの理由があるはずである。そしてその理由を追究することによって両国古典における「忠」と「孝」の量的分布傾向の相違やその理由に関する新知見が得られるはずである。

そこでさらに、両国古典における「善」と「悪」を計量してみた。すると、韓国古典からは「善」74032件、「悪」34443件がヒットしたのに対し、日本古典からは「善」3661件、「悪」5338件がヒットした。それぞれの相対比率は「悪」を1にした場合、韓国古典の方が2.14:1、日本古典が0.68:1であった。韓国古典に出てくる人名や職名などに「善」が含まれることの多いことが韓国古典における相対比率に影響した可能性ももちろん考えられる。だだし、韓国と比べ、日本の古典になぜこれほど「悪」が多いのかは検討すべき興味深い相違点なのである。

そこで筆者は、こうした観点に基づき、さらに両国古典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計量してみた。しかし、「忠と孝」「善と悪」とは違って、「笑と怒」の分析の場合、検索語彙の選定や統一においていくつかの問題があった。[10]語彙の選定基準によって検索の結果がいくらでも変わってくるの

.nijl.ac.jp/~nkbthdb/ (2016.10.30)(このデータベースは許可された大学機関からのインターネットアドレスからでないと接続できない。)

9) 1910年以前までの韓国の主要人物の文集1,259種の原文テクストが構築されており、(2017年2月現在)今もなおその作業は進められている。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2016.10.30)

10) たとえば、2017年2月現在、韓国古典を分析すると、「笑」51231件、「怒」18707件が検索さ

もそのひとつである。笑いと怒りを表す全ての語彙を詳らかに分析するか、それともある程度は検索語彙の数を絞る必要がここに出て来るわけである。そもそも、ジャンルや時代、そして文字表記の異なる両国の古典作品を同じ基準で計量すること自体が無謀だったかも知れない。

そこで一応、両国古典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全体的な相対比率を比較することは取りやめた。[11]ただし、韓日比較は今すぐ出来なくても、せめて国ごとに異なる検索語彙の暫定的な選定による、作家同士、あるいは作品同士の相対比率の比較は出来なくもない。なぜならば、国別の比較は、それぞれ同じ条件や基準によって割り出された数値であるため、作品、あるいは作家同士の間の一定の相対比率がそのまま維持されるはずだからである。たとえでいうのなら、ある量りで量った二つの箱のイチゴの量が正確に200グラムや100グラムではないにしても、同じ量りで量った以上、両者の間には2対1という一定の相対比率の差はそのまま維持されるのと同じである。韓日比較は出来なくとも、同じ基準で分析した韓国の作家や作品同士、あるいは日本の作家や作品同士の比較は十分可能なはずである。

よって本稿では、この新しい研究方法を二つの領域で試み、これからの両国古典の比較研究に応用できるかどうか、その可能性を探ってみることにした。その一つは複数作者説の検証であって、もうひとつは関連性を持つ同じ

れる。ところが、「憤」11706件、「嗔」2274件など、「怒」の他にも怒りを表す語彙はいくらでもあるため、検索語彙の数の不一致が発生する。日本古典の方はさらに複雑である。「笑」2531件、「怒」554件、「憤」225件、「嗔」63件の他にも、「いかり」77件、「おこり」23件、「腹を立」151件、「腹が立」62件、「立腹」34件、「腹立」382件のように、韓国古典ではわずか5件(「立腹」3件「腹立」2件)しか出て来ない用例をはじめ、異なる表記の用例がいくらでも出てくるからである。また「笑」に関しても、韓国古典には「笑」一つしかないのに、日本古典からは「咲ひ」101件、「咲み」19件、「咲む」4件、「わらひ」380件、「わらい」13件など、「笑」では検索されなかった語彙が続々出てくる。

11) 先行研究では「笑」「怒」「憤」の三つの語彙に絞って得られた両国古典における暫定的な相対比率の数値および、まだ不完全ではあるが、日本古典における全ての対象語彙をほぼ分析した相対比率の数値を割り出している。前者の場合、日本古典が3.24:1、韓国古典が1.66:1であり、後者の場合は日本古典が2.32:1である。これについては琴榮辰「韓日古典の中に見える笑いと怒りの計量文献学的な比較考察(一)―ジャンル別相対比率と笑いの攻撃性―」『翰林日本学』29、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2016.12、pp.25-45を参照されたい。

国の二人以上の作家、あるいは作品同士の比較である。本稿では古典の計量文献学的研究という、国内では稀な研究方法に、さらに相対比率の概念を加えた新たな研究方法を試みたいと考えている。千年以上蓄積されてきた両国の古典データベースというビックデータを相対比率と計量文献学という二本柱の研究方法を通して分析し、その量的傾向から韓国と日本それぞれ、国ごとの古典作品や作家の間に見られる笑いと怒りの量的分布傾向を鳥瞰しようとするのが本稿の新たな取り組みなのである。

Ⅱ. 複数作者説の検証

土山玄は『源氏物語』の作者は複数ではなく、『源氏物語』は単独の著作であることを計量文献学的な方法を通して究明した。このことは前にもすでに触れたが、筆者も氏の主張には全く同感である。なぜならば、『源氏物語』の作品全体における笑いの量の分布様相を分析してみても『源氏物語』は単独の著作である蓋然性が高いからである。

たとえば、『源氏物語』からは「笑」の用例245件が検索される。その分布状況を分析して見ると、245件の笑いの用例が岩波古典大系の第14巻から第18巻までの5冊にほぼ均等に分布しているのが分かる(14巻-40件/15巻-47件/16巻-56件/17巻-59件/18巻-43件)。[12)]

「匂宮三帖」及び「宇治十帖」は第17巻半ばから第18巻の最後までの区間に位置するため、もし作品の後半を別の作者が著したとすると、とにかく笑いの分布における何らかの不均衡が後半部で生じてもおかしくはない。ところが第18巻の笑い43件は、1冊目(第14巻)の40件と4冊目(第17巻)の59件の範囲内に位置しており、1冊当たりの『源氏物語』全体の平均値である49件とも大差ない。

---

12) 第14巻(「桐壺」-「花散里」)-40件/173361字(4334字ごとに1回)/第15巻(「須磨」-「蛍」)-47件/189130字(4024字ごとに1回)/第16巻(「常夏」-「若菜下」)-56件/186719字(3334字ごとに1回)/第17巻(「柏木」-「総角」)-59件/210451字(3566字ごとに1回)/第18巻(「早蕨」-「夢浮き橋」)-43件/196817字(4577字ごとに1回)

そしてこの点は従来の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割合を計算してみてもなお明らかである。もちろん、第18巻における文字数当りの笑いの回数を示す4577:1は全5冊の中でもっとも高い数値ではあるが、それは最初の第14巻に見える4334:1ともそれほどかけ離れた数値ではない。[13]

『源氏物語』の作者の、笑いへの関心はよく知られているが、[14]紫式部は一定のペースを保ちながら作品の終盤に至るまで笑いを均等に割り振っており、これはマラソンに例えるなら、ペースメーカほどの人による意識的な努力がなければそう簡単に真似できるものではない。笑いに対する紫式部の関心や姿勢は作品全体に一貫して貫いており、後半に入っても全然衰えていないのである。

紫式部が同書を単独で著したであろうことを示す根拠は他にもある。『源氏物語』における文字数当りの笑いが3582:1の比率であることはすでに述べた。そして彼女の『紫式部日記』の場合、34851字の中で笑いが10回出てくる。その比率は3485:1であって、『源氏物語』の平均値3582:1とも大差ない。すなわち、これは『紫式部日記』を書いた人が『源氏物語』の前半と後半をも同時に書いた可能性を裏付ける証明にもなり得るわけである。そして、ここまでは従来の計量文献学的方法に基づいて笑いの量やその比率を分析する方法である。

そして、本稿では従来の方法では見落としかねない作品における笑いの量的特徴を把握すべく、笑いと怒りの量の相対比率の分析を新たに加え、西鶴遺稿集の作者は団水ではないとする上阪彩香の主張を検証してみた。

---

13) すなわち、作品の後半である18巻では4577字ごとに1回の割合で笑いが出たが、これは4334字ごとに1回の割合で笑いが出た14巻と比べ、これという変化が生じたとは言いにくいのである。仮に後半部を別の作者が書いたとするのならば、「匂宮三帖」及び「宇治十帖」が入っている第17巻における文字数当りの数値も後半と同じペースか、少なくとも平均値よりは高くなってもよいはずである。しかし、実際は3566字ごとに1回の割合であって笑いがかえって減っているのが分かる。また、この割合は『源氏物語』全体の平均値である3582字ごとに1回ともあまり変わらないものである。平仮名表記の「わらひ」22件をさらに合わせると、『源氏物語』956478字の中で笑いが出る回数は267回になる。従って作品全体における文字数当りの笑いは3582:1になる。

14) 문인숙(2010.05)「웃음표현을 통해 본『겐지모노가타리』의 인간관계－겐지와 유기리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73(2) 한국일어일문학회, pp.39-57.문인숙(2010.04)「경쟁하는 겐지(源氏)와 두중장(頭中將)일가의 관계-웃음표현을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16),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423-443.

氏は『西鶴置土産』、『西鶴織留』、『西鶴俗つれづれ』、『西鶴名残の友』など、西鶴遺稿集に見られる文章の特徴を数量的な観点から検討し、初期の西鶴の浮世草子と団水の浮世草子との文章を比較した。そして、助詞の使用率が高い西鶴と、相対的にそれが低い団水の文章の特徴を鑑み、遺稿集に団水が手を加えた可能性はまずないと結論付けている。

そこで、この主張を検証すべく、初期の西鶴作品に見られ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と遺稿集のそれとを比較分析してみた。岩波大系データベースには西鶴の六つの作品(①『好色一代男』②『日本永代蔵』③『世間胸算用』❹『好色五人女』❺『好色一代女』❻『西鶴織留』)が載っており、遺稿集としては❻『西鶴織留』が唯一載っているため、一応これを対象とした。

一応、西鶴の六作品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分布様相を調べてみたところ、笑い140件、怒り19件が出て、その相対比率は7.36:1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15]そしてこの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基準に、これらの作品を二つのグループに分けてみた。

<表 1> 西鶴六作品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

① 一代男	② 永代蔵	③ 胸算用	❹ 五人女	❺ 一代女	❻ 織留
32.50	6.50	9.50	3.33	3.20	3.40

まず、笑いが相対的に多いグループである。(①『好色一代男』(32.50:1)②『日本永代蔵』(6.50:1)③『世間胸算用』(9.50:1)。)[16]これらの作品はいずれも怒りと比べ、笑いの量が相対的に多く、それぞれの相対比率も六作品全体の平均値の7.36:1辺りか、それを遙かに上回るのが分かる。

次に、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がその半分程度(3.30:1)の割合を見せるグループである。❹『好色五人女』(3.33:1)❺『好色一代女』(3.20:1)、そして❻『西鶴織留』(3.40:1)がそれである。[17]

---

15)「笑」135件、「わらひ」4件、「咲ひ」1件、「腹立」16件、「腹を立」2件、「はらだち」1件が検索された(「怒」、「嗔」、「立腹」、「腹が立」、「おこり」、「いかり」などの用例は確認されなかった)。

16) ①『好色一代男』の場合、「笑」が65件であるのに、「腹立」が1件、「腹を立」が1件が検索され、笑いが圧倒的に多いのが分かる(32.50:1)。②『日本永代蔵』の場合も「笑」が13件、「腹立」が2件検索された(6.50:1)。③『世間胸算用』は「笑」が17件、「わらひ」2件、「腹立」1件、「はらだち」1件が検索された(9.50:1)。

まず、遺稿集の一つである❻『西鶴織留』に見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3.40:1)は西鶴の初期の作品である❹『好色五人女』(3.33:1)および❺『好色一代女』(3.20:1)に見る相対比率とあまり変わらないのが分かる。すなわち、❹と❺の作品を書いた人が❻をも書いた蓋然性が高いのである。西鶴はこれらの初期の作品を著すときに持っていたであろう笑いと怒りへのバランス感覚を保ちながら『西鶴織留』をも書いたに違いない。

引き続き、この方法の信頼性を確保すべく、文字数の観点から、西鶴六作品における笑いの比率を再度計算してみた。上記の六作品からは140件の笑いの用例が確認できるが、六作品全体の総文字数281271字のうち笑いが140件出たため、文字数当たりの比率は2009:1になる。大体200字詰め原稿用紙10枚当り1回のペースで笑いが出たことになる。ただし、作品ごとの笑いの量の分布にはやはり差があって、西鶴の他の作品と比べ、①の『好色一代男』に笑いが非常に豊富であることが分かる。それは、六作品における文字数当りの笑いの比率をそれぞれ算出してみてもなお明らかである。[18)]

<表 2> 西鶴六作品における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相対比率

① 一代男	② 永代蔵	③ 胸算用	❹ 五人女	❺ 一代女	❻ 織留
1094:1	4385:1	2259:1	3991:1	3274:1	3386:1

前に触れた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場合も①『好色一代男』と③『世間胸算用』の数値が高かったが、文字數当りの比率においても、両作品からは比較的頻繁に笑いが出てくるのが分かる。その一方、他の四作品は3000字から4000字前後の文字当り1回の割合で笑いが出るのが分かる。とくに、❹『好色五人女』❺『好色一代女』❻『西鶴織留』の三作品は文字数当たりの比率においても前の結果とそれほど大きな偏差はないのが分かる。そしてこの事実は、❹と❺の作品を書いた人物が❻の作品をも書いた可能性を示してくれる。どちら

17) ❹『好色五人女』(「笑」9件、「わらひ」1件、「腹立」3件)、❺『好色一代女』(「笑」14件、「わらひ」1件、「咲ひ」1件、「腹立」5件)、そして❻『西鶴織留』(「笑」17件、「腹立」4件、「腹を立」1件)がそれである。

18) ①『好色一代男』71140字/65件②『日本永代蔵』57012字/13件③『世間胸算用』42939字/19件❹『好色五人女』39911字/10件❺『好色一代女』52399字/16件❻『西鶴織留』57570字/17件.

の方法を用いても結果は全く同じなのである。

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信頼性を示す証明として、さらに、日本三大随筆と言われる『枕草子』と『徒然草』の二つの作品を比較分析してみた。まず、『枕草子』の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比率を計算したところ、1644:1が出た。また、吉田兼好の『徒然草』を分析してみたら5063:1という比率が出た。これで『枕草子』の方の笑いが『徒然草』のそれより凡そ3倍以上豊富であることが分かる。

そしてこうした傾向は両者の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分析してもやはり同じである。『枕草子』は6.83:1であって、『徒然草』は1.44:1である。『枕草子』の方が4倍以上相対比率が高いのが分かる。[19] どちらの方法を使っても『枕草子』が質量ともに笑いが豊かであることに異論はなかろう。

ただしこの方法は、笑いと怒りに対する作者の関心度が高い作品を対象にした場合に有効であって、逆に言うと、笑いと怒りの量の少ない作品を分析するときはその効果が十分発揮できない可能性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20]

Ⅲ. 日本古典作家・作品同士の比較

さて、いままでだったらわざわざ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分析しなくても

---

19) 『方丈記』の場合、笑いと怒りに関する検索語彙を十二個(「笑」「咲ひ」「わらひ」「怒」「憤」「嗔」「腹立」「腹を立」「腹が立」「はらだち」「いかり」「おこり」)ほど選定して調べてみたが一切ヒットしなかった。一方、『徒然草』の場合、「笑」13件、「怒」5件、「腹立」3件、「おこり」1件が検索され、笑い13件と怒り9件の相対比率は1.44:1であった。これによって両作品における二人の作家間の笑いと怒りへの関心や姿勢の差がはっきり見えてくるわけである。『徒然草』の場合、65827字のうち、笑いが13件なのでその相対比率は5063:1になる。文字数の相対比率から見ても笑い自体が乏し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20) 実際、『伊勢物語』の作者は在原業平ではなく、『土佐日記』の著者として知られる紀貫之であるという主張を再検証しようと試みたが検討自体が出来なかった。『伊勢物語』と『土佐日記』の両作品に見られる笑いと怒りの量を量ってみたが、あまりにもその用例の数が少なかったため、意味を持つほどの相対比率を算出すること自体が不可能であったのだ。こうした場合は、在原業平、あるいは紀貫之と密接な関わりをもつ別の相関語二つを改めて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研究方法は作者の笑いと怒りへの関心が作品に十分反映された場合に限って有効と言える。

よさそうな気がする。ところが、従来の文字数当たりの比率に基づく計量文献学的な方法が威力を発揮する場合もあれば、出た結果をそのまま鵜呑みにしてはならない場合もある。

たとえば、江戸時代の戯作者である為永春水の『春色梅児誉美』の初編・2編は春水一人で書いたものであって、その後の作品である『春色辰巳園』の前半以降は、為永連と呼ばれる門人との合作と言われている。そして、文字数から見ると、『春色梅児譽美』の場合、88461字の中から笑いが35回出たため、2527字ごとに1回の割合で笑いが出たことになる。一方、『春色辰巳園』の場合、88962字から笑いが41回出たため、2169字ごとに1回の割合になる。これだけを見ると、両作品は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比率にそれほど差がなく、同一人物によって書かれたかに見える。

しかし、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から見ると、両作品は同一人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21]『春色梅児譽美』に見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35.00:1)とは大分かけ離れた、『春色辰巳園』の相対比率(1.64:1)に見られる両者の極端な偏差はその何よりの証明とも言える。文字数当たりの比率をそのまま盲信してはいけない理由がここにある。

そして筆者は怒りが少ない『春色梅児譽美』の方が『春色辰巳園』より笑いが質的により豊かであると見ている。例えで言うのなら、昔の人と今の人とどちらが豊かであるかというと、もちろん今の人がより豊かである。それは客観的な事実であり、文字数当たりの比率もこの観点のものと言える。ところが、実際に昔の人と比べ、現代の人が相対的に貧困感をより大いに感じることが多い。これは主観的ではあるが、実感でもあ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意味はまさにこの立場に立つものである。すなわち、韓国のサラリーマンの約40%は月200万ウォン以下の収入を得ており、これは昔よりは客観的に改善した数値ではあるものの、相対的には決して豊かとは言えないのである。

---

21)『春色梅児譽美』からは「笑」20件、「わらひ」15件など、笑い関連の語彙が35件もヒットするが、「怒り」関連の語彙は「腹を立」の用例1件しか出てこなかった(35件:1件)。一方、『春色辰巳園』からは「笑」22件、「わらひ」19件が検索されたのに対し、「怒り」関連の語彙は「怒」2件、「憤」2件、「腹立」6件、「立腹」1件、「腹を立」13件、「腹が立」1件など、凡そ25件もヒットした(41件:25件)。

たとえでさらに言うのならば、企業の入社面接においてスペックや能力など、その人間の長所ばかり計量すると、どうしても名門大学出身の人が有利になる可能性が高い。しかし、その人の短所をも同時に眺めることによって、より客観的かつ総合的にその志願者を把握できるのと同じなのがこの相対比率の発想なのである。そしてこれこそ、作家や作品における笑いと怒りを計量し、その量的特徴を把握することによって、作家および作品を総合的に見つめなおそうとする本稿の考え方でもある。

従来の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比率分析では見落としかねないところを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が補ってくれる例をさらに挙げよう。和泉式部とともに平安時代の三大女流作家として知られる紫式部と清少納言の二人の作品に見られる笑いの分析結果はそれを如実に物語ってくれる。

たとえば紫式部と同時代の作家である清少納言の『枕草子』の場合、134865字のうち笑いが82件であるため、文字数当りの相対比率は1644:1になる。『源氏物語』の3582:1に比べると、ほぼ2倍ほど笑いが豊富であることが分かる。一見、1644字ごとに1回の割合で笑いが出る『枕草子』の方が3582字ごとに笑いが出る『源氏物語』より笑いが倍以上は豊富であるかに見える。

しかし、こうした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比率をそのまま信じ込んではならない。なぜならば、笑いと怒りの相関関係の観点から笑いの量を見つめなおすと話は全然違ってくるからである。たとえば、『枕草子』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は6.83:1である。[22]笑いが7回出る度に怒りが1回の割合で出たのである。

一方、『源氏物語』からは13.35:1という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が算出される。[23]紫式部の方が清少納言に比べ、2倍ほど怒りに対する笑いの割合の高いのが分かる。そしてこれは、先の文字数当りの数値とは正反対の事実を表す。すなわち、『源氏物語』の13.35:1および『枕草子』の6.83:1なる相対比率の

---

22)「笑」16件、「わらひ」66件、「腹立」11件、「はらだち」1件が検索された。合わせると、笑いが82件で、怒りが12件である。

23)「笑」245件、「わらひ」22件、「怒」5件、「腹立」12件、「はらだち」2件「いかり」1件が検索された。合わせると、笑い267件で、怒りが20件である。ちなみに、琴榮辰前掲書では15.70:1という相対比率の数値が出たが、ここでは「笑」「怒」「憤」以外の語彙をすべて含めているため、誤差が発生している。

数値から、先とは全く正反対の結論を出すことも可能なのである。これに従うと、『枕草子』と比べ『源氏物語』の方がずっと笑いが豊富とも言える。文字数当たりの笑いの頻度数が多いからと言って、必ずしもその作品の笑いまでもが豊富とは限らないのである。

この齟齬をどう解釈すべきか、例を挙げて説明しよう。仮に、16分ごとに1回の割合で笑ったAという人と、36分ごとに1回の割合で笑ったBという人のどちらがよく笑った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誰しもAがよく笑ったと答えるだろう。これは従来の文字数当たりの方式の立場からの考え方である。が、Aは7回笑う度に1回の割合で怒ったのに、Bは14回笑う度に1回怒ったのでBの方の笑いがより豊富と見るのは、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観点をより重視した考え方なのである。なぜならば、最小公倍数の概念でいうと、Aは14回笑う度に2回も怒ったことになるため、どう見てもBよりは怒りがちとも取られるのである。いくら笑いの量が多いとしても、怒りがそれに比例して多い場合、果たしてその作品の笑いは豊富と言えるかどうかの問題なのである。それぞれ、Aは『枕草子』(1644:1/6.83:1)、Bは『源氏物語』(3582:1/13.35)である。

前者の考え方に従うと1644:1という文字数当たりの比率を見せる『枕草子』の方の笑いの量がより多いことになるが、後者の考え方に従うと13.35:1という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見せる『源氏物語』の方の笑いがもっと多いことになる。そして筆者は従来の機械的な文字数当たりの比率をそのまま妄信的に従うのではなく、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も同時に念頭に入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見ている。

もちろん、だからといって、前者の方法を全く否定するわけではない。前者の客観的な数値としての効用はそのまま認めしつつ、二つの作品における文字数当たりの比率や、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が一致しない場合、後者の見方でその作品を見つめなおすことも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本稿の立場なのである。

結局、作品に見られる笑いと怒りの相関性を意識せず、二つの感情を別々のものとして扱い、その多寡だけを機械的に量るか、それとも相関性を持つ

二つの感情を天秤の両方に載せて同時に計量し、そこから作品の持つ主観的な全体象を見つめるかの問題なのであ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は従来の文字数当たりの比率の計算では見出せなかった作品の量的特徴を浮き彫りにしてくれる点でその意義があると言えよう。

ちなみに、この方法によって『枕草子』の作家とほぼ同じ比率で笑いと怒りを作品にちりばめた日本古典の作家が誰なのかが分かった。それは小林一茶である。すなわち、一茶集における文字数当りの笑いの比率は1664:1であって、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は6.25:1であった。[24]そしてこの数値は、『枕草子』のそれ(1644:1/6.83:1)とも大差ない。芭蕉や蕪村とともに、江戸時代を代表する三大俳人である一茶が日本三大随筆の一つである『枕草子』を著した清少納言とほぼ同じ割合で笑いと怒りを作品の中に散りばめたことで、二人の作家が急に接近してくるわけである。

Ⅳ. 韓国古典作家・作品同士の比較

さて、韓国古典の文学作品がデータベース化さえされていれば、日本古典と同様、複数作者説の検証に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分析は有効なはずである。しかし、現状として韓国古典のデータベース化は主に個人文集が中心であって、作者が誰なのか分かっている以上、この方法を用いてわざと分析する必要はまずない。

また、いまのところ、文字数当りの笑いの比率を利用した韓国古典の分析も時期尚早である。なぜならば、韓国古典データベースには作品ごとの文字数の情報がないため、文字数当りの笑いの比率の算出が現時点では不可能であるからである。そしてこの事実は、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がそれに代わっ

---

24) まず『一茶集-父の終焉日記』からは「笑」9件、「いかり」3件が検索され、『一茶集-おらが春』からは「笑」9件、「わらひ」1件が検索された。また、『一茶集-文集』からは「笑」5件、「わらひ」1件、「怒」1件が検索された。一茶集からは合計して笑い25件、怒り4件が出ており、その相対比率は6.25:1にも上る。これによって一茶なる作家の笑いへの高い関心の具合が窺えるのである。『一茶集』における文字数の相対比率は41607字のうち、笑いが25件であって、1664:1になる。相当、笑いの頻度が高いと言えよう。

て韓国古典研究において利用される余地がもっと広がることを意味する。

以下、韓国古典作家ならびに作品同士の比較を通し、その研究方法の活用の可能性を探る。まず、韓国の1000ウォン札及び5000ウォン札にその肖像が載っている退溪(李滉。1501～1570)と栗谷(李珥1536～1584)の文集を分析し、両者の文集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割り出してみた。その結果、『退溪集』の相対比率は1.42:1であって、『栗谷全書』のそれ(0.76:1)より2倍ほど高いことが分かった。[25]そしてこれは、韓国を代表する、ほぼ同時代を生きた二人の儒者の個人文集の間に見られるこうした差が、両者の学問的な思想の差までをも窺わせ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て興味深い。

なぜならば、理氣二元論を主張した退溪は世の中の問題点に怒るよりは、まず自分自身を磨くこと、すなわち、「修己」を重視した人物である。一方、理氣一元論を主張した栗谷は世の中の問題を積極的に改革し、「治人」することをより重視した人物である。そして、栗谷の文集からは怒りが2回出る度に笑いが1回半の割合で出たのに対し、退溪の文集からはその倍ぐらいの3回近く笑いが出たことからそうした両者の世の中を見る視線の差が見え隠れするわけである。そして両者のこうした視線の差が、そのまま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差(1.42:0.76)として現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わけである。

自分なりの健康法を保ちながら70歳まで、当時としては長寿した李滉の文集に見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数値が、49歳で亡くなった李珥のそれより2倍も高いことは偶然かも知れない。ところが筆者は、母である申師任堂(韓国の五万ウォン札貨幣のモデル)の死後、そのショックで一時、仏教に帰依した16歳の少年李珥の胸中にあったであろう悲しみと怒りの量が栗谷本人の文集にそのまま映し出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見るのである。それは、従五位下左兵衛佐にまで昇進した後、30歳前後に突然出家遁世してしまった兼好法師の胸中にあったそれと似通っているものかも知れない。兼好法師の『徒然草』に見る1.44:1という、日本の古典としては珍しく低い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数値と、0.76:1という『栗谷全書』のそれはどこか共通要素を持っているかにも見

25) 『退溪集』からは「笑」353件、「怒」165件、「憤」72件、「嗔」11件が検索され、その相対比率は1.42:1であった。また、『栗谷全書』の場合は「笑」119件、「怒」94件、「憤」61件、「嗔」1件が検索され、その相対比率は0.76:1であった。

えるのである。

笑いと怒りに対する姿勢が作家本人の性格ばかりでなく、その置かれた環境にも影響され、それがそのまま相対比率として反映されたであろうケースは他にもある。それは18年間の配流生活をしたことでも知られる韓国の代表的な改革思想家、茶山こと、丁若鏞(1762-1836)の文集『與猶堂全書』を分析してみてもなお明らかである。すなわち、同書からは「笑」371件、「怒」386件、「憤」207件、「嗔」58件が検索され、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は0.56:1にとどまる。笑いと比べ、怒りの量が相対的に多いのが分かる。

それは李舜臣(1545-1598)の『李忠武公全書』を分析してみてもまた同じである。すなわち、同書からは「笑」が29件検索されたのに対し、「怒」28件、「憤」49件が検索され、その相対比率は0.37:1である。同書には壬辰倭亂・丁酉再亂(文禄・慶長の役)の7年間にわたって書かれた李舜臣の『亂中日記』も含まれているが、そこからもやはり笑いと怒りの差(「笑」6件/「怒」1件「憤」8件「嗔」0件)は窺えるのである。さらに同時期、日本に捕虜として連れて行かれ、抑留生活を余儀なくされた姜沆(1567-1618)の文集である『睡隱集』からもほぼ1対1(「笑」26件/「怒」12件「憤」11件「嗔」2件)に等しい数値が出ることから、配流生活や戦争などが如何に人間の心の中における「怒り」を増やし、「笑い」を蚕食する時代であったかが窺えるのである。

一方、時代を遡って、姜沆の祖先でもある姜希孟(1424-1483)の遺稿集『私淑齋集』を見てみると、「笑」42件/「怒」15件「憤」9件「嗔」1件が検索され、その相対比率は1.68：1であることが分かる。この数値は比較的に高い数値を見せる、退溪の文集のそれ(1.42：1)をも若干上回る、比較的高い数値であることが言える。

また、作家の置かれた環境以外に、個人の嗜好などもこうした差を生む一因である可能性が高い。それは姜希孟の編んだ『村談解頤』なる笑話集の存在からも十分知り得る。笑いを好む作家だけあって、姜希孟本人の文集にもそうした傾向が現れるのである。それはまた、紫式部の日記と著作に見られる高い数値からもなお窺える。

笑いを好む作家の嗜好が作品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を引き上げた

であろうことは、笑いと諧謔の溢れる漢詩を数多く残した金時習の『梅月堂集』を分析してみてもまた分かる。すなわち、同書からは1.89:1という、韓国古典文集としては稀に見る、比較的に高い数値の相対比率が確認されるのである。[26]

韓国古典文集において、作家の笑いへの高い関心や趣向がそのまま作品に反映されたもっともいい例としては、金時習と姜希孟のそれぞれの友人でもあった徐居正(1420-1488)の個人文集が挙げられる。韓国最初の笑話集である『東国滑稽伝(太平閑話滑稽伝)』を編んだ徐居正の文集である『四佳集』を分析してみたところ、「笑」458件、「怒」33件、「憤」15件、「嗔」30件が検索され、その相対比率は凡そ5.87:1であった。韓国古典文集における平均的な相対比率が2対1を超えないことが多いことを踏まえて考えると、これは非常に高い数値と言える。そしてこれによって、作家個々人の置かれた環境や嗜好などの差がそのまま作品ごとの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差にも影響を及ぼしたであろうことが推察できるわけである。[27]

笑いへの高い関心を持っていた徐居正の個人文集の相対比率が群を抜いて高いことや、思春期に母親に死なれるいう不幸に見舞われた栗谷、18年間の配流生活を送った丁若鏞、そして7年間にわたる戦争の時期を怒りと復讐心で悶えながら過ごした李忠武公の置かれた環境などが作家および作品ごとの低い、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の一因であったろうことがここに至って推察できるわけである。以上の分析結果を表で取りまとめ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表 3> 両国古典に見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

日本古典	笑い:怒り	韓国古典文集	笑い:怒り
『春色梅兒譽美』	35.00:1	『四佳集』	5.87:1
『好色一代男』	32.50:1	『梅月堂集』	1.89:1

26) ヒットされた「笑」は112件であるが、実際は反復が多く、その22件を合わせると134件になる。また、「怒」も23件に反復の3件、「憤」19件、「嗔」13件に1件を合わせると、怒りの件数は59件となる。

27) ちなみに、作家個々人の置かれた環境や嗜好などの個人差に加え、作品のジャンルや文体によっても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は変わってくる点にも注意を払うべきである。たとえば、『朝鮮王朝実録』のような歴史記録の古文書を分析してみると、「笑」258件「怒」1033件「憤」1000件「嗔」7件が検索される。怒りが笑いより凡そ8倍近く多いのが分かる。

『源氏物語』	13.35:1	『私淑齋集』	1.68:1
『世間胸算用』	9.05:1	『退溪集』	1.42:1
『枕草子』	6.83:1	『栗谷全書』	0.76:1
『日本永代蔵』	6.50:1	『與猶堂全書』	0.56:1
『一茶集』	6.25:1	『李忠武公全書』	0.37:1
『西鶴織留』	3.40:1		
『好色五人女』	3.33:1		
『好色一代女』	3.20:1		
『徒然草』	1.44:1		

Ⅴ. おわりに

本稿では計量文献学的な方法に基づき、相対比率の概念を取り入れた新たな研究方法を試みた。そしてその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まず、複数作者説の検証にこの方法が補助手段として利用できることが分かった。具体的には、西鶴遺稿集の『西鶴織留』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3.40:1)が西鶴の初期作である『好色五人女』(3.33:1)および『好色一代女』(3.20:1)に見られるそれとあまり変わらないことから、西鶴遺稿集に弟子である団水が手を加えた可能性はまずないことを証明できたのがその成果と言えよう。次に、国別の比較を通して従来の計量文献学では見抜けなかった作家および作品ごとの量的特徴の比較ができた。そしてそれを通して作家の置かれた環境や作家個々人の嗜好が作品における笑いと怒りの相対比率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高いことが分かった。

＜参考文献＞

琴榮辰(2010.09)「笑話の頓知・愚人譚化と隠れる攻撃性-韓日笑話比較試論-」『日本學研究』31, 檀国大学校 日本研究所, pp.233-253.

_____(2013.02)「江戸噺本の烏滸の笑い-笑いの方法および質の変化をめぐって-」『日語日文学研究』84(2), 韓国日語日文学会, pp.93-111.

_____(2016.12)「韓日古典の中に見える笑いと怒りの計量文献学的な比較考察(一)-ジャンル別相対比率と笑いの攻撃性-」『翰林日本学』29、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pp.25-45

금영진(2015.11)「일본소화(笑話)속의 동물조합」『외국학연구』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31-56.
_____(2016.06)「에도 하나시본(江戸噺本) 속의 지즈쿠시(字尽くし) -언어유희 방식의 한일비교-」『외국학연구』36,중앙대학교외국학연구소, pp.147-180.
김종덕(2006.12)「平安文學에 나타난 諧謔과 嘲笑의 論理」『일본연구』(30)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85-105.
류상영(2013.09,)「분노에 대한 한일 비교 분석:문화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현실」『日本學研究』40, 檀国大学校 日本研究所, pp.23-42.
문인숙(2010.05)「웃음표현을 통해 본『겐지모노가타리』의 인간관계－겐지와 유기리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73(2) 한국일어일문학회, , pp.39-57.
上阪彩香(2014)「西鶴遺稿集に関する統計分析―北条団水の浮世草子との文体比較」『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シンポジウム』pp.113-118
北原慈子(2015)「古典文学研究における計量文献学的手法をめぐって－『更級日記』『浜松中納言物語』『夜半の寝覚』『紫式部日記』を題材として－」『Studies in language science』5、立命館大学大学院言語教育情報研究科、pp.75-103
小林雄一郎・小木曽智信(2013)「中古和文における個人文体とジャンル文体:多変量解析による歴史的資料の文体研究」『国立国語研究所論集』6、pp.29-43
染谷智幸(2013.09)「韓国の<怒り>と東アジアの未来志向」『日本學研究』40, 檀国大学校 日本研究所, pp.7-21
土山玄(2014.12)「源氏物語第三部の成立に関する計量的な考察」『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シンポジウム』、pp.213-220
村上征勝・今西祐一郎(1999)「源氏物語の助動詞の計量分析」『情報処理学会論文誌』40(3)、pp.774-782
村上征勝・金明哲・土山玄・上阪彩香(2016)『計量文献学の射程』勉誠出版.pp.1-256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한일고전속에 보이는 웃음과 화에 관한 계량문헌학적 비교고찰(二)
- 작가 및 작품간 상대비율을 중심으로 -

금영진

본고에서는 계량문헌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상대비율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수작가설의 검증에 이 방법이 보조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이카쿠(西鶴) 유고집인『사이카무 오리도메(西鶴織留)』에 있어서의 웃음과 화의 상대비율(3.40)이 사이카쿠의 초기작인『고쇼쿠 고닌온나(好色五人女)』(3.33:1)및『고쇼쿠 이치다이온나(好色一代女)』(3.20:1)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유고집에 제자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는 선행연구 주장을 보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라별 상대비율의 비교를 통하여, 종래의 계량문헌학적 방법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작가 및 작품마다의 양적 특징을 수치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 개인이 처한 환경과 개개인의 기호가 작품에 있어서의 웃음과 화의 상대비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이카쿠와 무라사키시키부(紫式部)의 작품에 웃음이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메나가 슌스이(為永春水)의 작품에 있어서도 화에 비해 웃음의 상대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같은 수필작품이라 해도 세이쇼나곤(清少納言)의 작품과 겐코법사(兼好法師)의 작품사이에는 현격한 상대비율의 질적인 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고전의 경우, 웃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던 서거정(徐居正)의 개인문집의 상대비율이 한국고전문집치고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춘기에 어머니를 잃은 율곡, 18년간의 유배생활을 보낸 정 약용, 그리고 7년간의 임진왜란 기간중 분노와 복수심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의 문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비율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작가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인 기호가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Abstract>

A bibliometrical comparative study on the laughter and anger of Japanese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Ⅱ

- About the relative ratio of authors and their works -

Keum, Young-Jin

In this paper, I attempted new analysis method which is in perspective the relative ratio of laghter per anger with bibliometric studies of classic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First, I convinced that this method is very useful to the controversy of some work's author is not alone. For example, there is a theory that the *Saikaku oridome's* author is not himself but his disciple. I do not agree with this claim. Because, *Saikaku oridome's* relative ratio of laughter per anger is 3.40:1, and Saikaku's other work's that is very similar to it. kosyoku goninonnna is 3.33:1,and kosyoku ichidaionna is 3.20:1.

Second, I found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Japan's classic literature and the reason for difference cause the historical environment where writers are placed or writer's personal preference. We Knew that the relative ratio of laughter per anger of Saikaku and Murasaki shikibu's are very high, but we didn't knoe that tamenaga syunsui's work's that is also high. I found that Sei syonagon's relative ratio is higher than Legalist kenkou's work. And this means that Legalist kenkou's relative ratio is so low. Why? I supposed that the reason come from author's environment and his personal preference.

For example, Seo go-jyong's work's relative ratio is very high. But Yul-gok, Cheong yak-yong, and Yi soon-sin's that is so low. Seo go-jyong's environment was so good. And his personal preference to laughter is one reason. But this three person's that is not so good, and that is the reason of the relative ratio's not so high.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133－157쪽 10.15733/jast.2017..72.133

공해(公害)사건 문학의 시스템 및 가치 고찰
－ 일본의 공해사건과 문학을 중심으로 －

김 경 인*

< 目 次 >

Ⅰ. 서론
Ⅱ. 일본의 공해사건 시스템
Ⅲ.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
1. 공해사건을 다룬 문학작품
2.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
Ⅳ. 복간현황을 통해 보는 공해사건 문학의 가치
Ⅴ. 결론

Key Words : 公害事件(pollution incident), 公害事件文学(literature of pollution incident), 足尾銅山鉱毒事件(Ashio copper mine pollution incident), チッソ水俣病事件(Chisso Minamata disease incident), 東京電力福島原発事件(Fukushima nuclear accident of TEPCO)

Ⅰ. 서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대쓰나미에 뒤이어 발생한 21세기 최악의 원전사고라 할 수 있는 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아시오·미나마타에서 후쿠시마로(足尾·水俣から福島へ)'라는 말이 곧잘 거론되었고, <아시오 동산광독사건(足尾銅山鉱毒事件, 이하 '광독사건'이라 함.)>과 <짓소미나마타병사건(チッソ水俣病事件, 이하 '미나마타병사건'이라 함.)>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연은 물론 그러한 타이틀의 저서 출판 또한 적지 않았다. 19세기 말 도치기현(栃木県)과 이바라키현(茨城県) 등의 일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던, 일본 공해사건의 원점이라 일컬어지는 <광독사건>.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실체가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 일본근현대문학.

드러나기 시작해 2020년대를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들이 병상과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적사회적 차별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구마모토현(熊本県) 바닷가 마을들에서 발생한 유기수은중독의 <미나마타병사건>. 이 두 공해사건의 원인규명과 사후 대책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 그리고 그 결과를 미래 공해에 대한 대책강구에 제대로 적용만 한다면 다시는 그토록 참혹한 공해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앞에 언급한 '아시오·미나마타에서 후쿠시마로'라는 테마의 강연이나 저서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실현되었더라면 21세기 최악의 원전사고이자 '궁극의 공해'[1]사건인 <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東京電力福島原発事故, 이하, '후쿠시마원전사고' 라고 함.)>는 없었을지도 모르고, 적어도 그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는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의 일본의 주요 공해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상의 <광독사건>과 <미나마타병사건>을 다룬 문학작품들을 통해, 일본의 공해사건 시스템과 그 문학의 시스템을 도식화하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는 곧 기존의 공해간과 그 관련 문학의 시스템화를 통해, 그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책과 방향제시를 위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공해사건 문학이 현대에 갖는 가치는 어떠한지, 이상의 두 사건 관련의 작품들의 복간현황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

1) 논자는 원전가동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원전 자체와 방사능오염의 위험성, 그리고 자연재해와 원전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그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온 기업과 정부에 의한 사회적 재해, 즉 공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후쿠시마원전사고〉 역시 '원자력발전'이라는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오염이나 핵폐기물 관련 등 다양한 공해문제와 기업과 정부의 정보은닉 및 책임유기 등의 사회적 공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공해사건으로 본다. 참고로, '행동하는 환경경제학자'로 불리었던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 2014)는 자신의 저서『공해의 역사를 말한다-전후일본공해사론』(김해창 역(2016), 미세움, pp.869-870)에서 원전의 공해를 '궁극의 공해'라고 일컬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원전 관련의 재해를 미나마타병이나 욧카이치천식 등과 더불어 산업공해의 패러다임에 포함시켜 논하고 있다.

Ⅱ. 일본의 공해사건 시스템

근대화와 더불어 시작된 일본의 공해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급속도로 발전한 산업과 그것의 총체적 적폐의 계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얻는 대신 이면에서 상실되고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 및 환경은 발전의 부정적 산물인 적폐가 계승되면 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는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한 마디로 그것들은 자연과 인간의 희생 위에 '반복되는 공해사건'이라는 역사를 구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근대이후의 일본은 한 순간도 전쟁에서 동떨어져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이난전쟁(西南戦争)과 같은 자국 내의 크고 작은 정치권 다툼을 비롯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넘는 긴 시간을 침략전쟁으로 일관해온 일본의 근대정부. 그들은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제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정하고 그 주체인 대자본과 손잡고 이권을 나눠갖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정부와 손을 잡은 기업들이 어떻게든 국가의 요구를 충당하고 자사의 이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부산물로 발생한 것이 공해(公害)이다.

근대화 초기 일본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마을공장(町工場)이나 가내공업 형식의 소규모자본 산업들은 약육강식의 이치에 따라 차츰 거대자본의 기업들에 이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소규모자본에 의한 산업시대일 때부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오던 공해와 그로 인한 분쟁, 예컨대 수질악화나 악취문제 등으로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공장이전문제가 발생하곤 했던 공해문제는 그러한 대기업화 단계에 이르러 그 피해종류와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일본 대기업의 형성이 급격히 이뤄진 것은 1905년 전후의 일로, 그것은 당시 일본정부가 전쟁을 통한 식민지 확장이라는 국책의 발판이 되어줄 광산업과 전력 그리고 철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옹호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표적 기업이 광독사건의 가해기업인 후루카와 이치베(古河市兵衛)의 후루카와광업(현,

후루카와기계금속주식회사)이며, 1908년 구마모토현(熊本県) 미나마타마을에 카바이드공장을 건설한 도쿄대 전기공학과 출신인 노구치 준(野口遵)의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현, 짓소. 2011년 이후 JNC(株)[2]로 분사(分社)되었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짓소'라고 함.)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東京電力)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일본최초의 전력회사 도쿄덴토(東京電灯)는 메이지기와 다이쇼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수와 통합을 거치며 대규모전력회사로 성장하였다.[3]

이 같은 대자본 규모의 산업발달에 따른 공해 등의 폐해는 유독 일본만의 일은 아님이 확실한데도 '공해선진국, 일본'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것은 왜일까? 일본의 공해문제연구가였던 우이 준(宇井純, 1971)은 그 이유를 첫째 '공해를 발판 삼아' 성장한 일본의 기업들, 둘째 공해를 일으킨 가해기업을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피해민을 탄압하는 정부, 셋째 공해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약한 저항, 넷째 뒤처진 과학기술과 부패한 어용학자들의 존재를 들고 있다.[4]

우이 준의 이 같은 분석에 일본 공해사건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데, 이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체제가 형성되고 일본제국주의의 구현을 위한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책실현에 앞장섰던 이상의 기업들은 '공해를 발판삼아'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바로 이때에 공해사건 시스템의 첫 번째 요소인 '국책산업과 정경유착'이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해사건, 특히 <광독사건>과 <미나마타병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폐해를 직시하게 된 공해사건 피해자들과 의식 있는 일본국민들

---

2) 1908년 〈日本窒素肥料株式会社〉로 출범하였고 1950년 〈新日本窒素肥料株式会社〉로, 다시 1965년 〈チッソ株式會社〉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그러다 2011년, チッソ(짓소)는 자회사 JNC를 설립하여 미나마타병보상업무 이외의 모든 생산사업을 JNC로 양도하였다. 대신 チッソ는 JNC로부터 배당을 받아 미나마타병환자에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3) 그러다 일본이 전시체제에 돌입한 1930년대 후반 이래 전력산업이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도쿄전력의 전신인 関東配電으로 통합되고 東京電灯은 해체된다. 그러다 전후 연합군총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1951년 関東配電과 日本発送電의 재편으로 현재의 도쿄전력이 창립되었다.

4) 宇井純(1971),『公害原論 Ⅰ』, 亜紀書房, pp.25-45 참조.

은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분연히 일어섰다. 비록 정부와 사회의 탄압과 차별 및 비난의 대상이 되긴 하였지만, 일본 국내에 활발한 공해반대운동과 보상운동 등의 환경 및 사회운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공해사건 시스템의 두 번째 요소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주요 공해사건의 가해기업들의 형성 시기가 일본이 전시체제 하에 있었던 때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들의 거점지역이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는 가난한 농어촌 지역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해사건 시스템의 세 번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공해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난한 농어촌 지역의 가난하고 무지한 농어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공해사건을 다룬, 이른바 공해사건 문학작품들의 고찰을 통해 그 문학의 시스템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Ⅲ.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

1. 공해사건을 다룬 문학작품

그렇다면 그러한 적폐들의 결정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광독사건>이나 <미나마타병사건>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상의 두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피해민들의 고통과 한을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는 <광독사건> 관련 작품과 <미나마타병사건> 관련 작품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1.1 아시오동산광독사건 관련 작품

<광독사건>은 1880년대 초부터 사건의 두드러진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해 1891년에 다나카 쇼조(田中正造)라는 정치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기업과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촉구를 포함한 광독반대운동은 당시 근대화의 과도기에 있던 일본사회 전반에 사회운동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나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등을 비롯한 많은 문학인들로 하여금 <광독사건> 및 사회운동에 눈뜨게 하였고,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나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을 실제로 운동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5] 그러한 사회 전반, 특히 문학가들에게 미치는 광독사건의 막대한 영향력이 사건과 그 피해사연들을 사실에 입각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이끌어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1.1 다구치 기쿠테이(田口掬汀), 「여름벌레(夏虫)」

시기적으로 가장 가깝게 저술된 작품으로는 다구치 기쿠테이(田口掬汀, 1875-1943)의 「여름벌레(夏虫)」를 들 수 있다. 광독사건을 소설화한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1901년 11월 『신세이(新声)』라는 문예잡지에 게재된 작품으로, 1900년에 발생했던 가와마타사건(川俣事件)[6]에 자극을 받아 쓴 단편소설이다. 작가 다구치 기쿠테이(田口掬汀)는 1900년 당시 문예잡지 『신세이』의 편집과 기자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작품 발표 3개월 후인 1902년 2월 에비세마을(海老瀬村)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광독피해지역을 시찰한 후 「독원발섭기(毒原跋渉記)」라는 르포르타주를, 같은 해 3월 신세이사(新声社)에서 출판한 『망국의 축도(亡国の縮図)』에 게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다구치는 광독사건과 그 피해현장을 직접 시찰한 기자로서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작가라 할 수 있다.

1.1.2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 『노동(労働)』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작품은 광독사건과 광독반대운동의 선구자인 다나카 쇼조(田中正造)와 긴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한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의 『노동(労働)』이라는 자전적 소설이다. 기노시타가 광독사건과 인연을 맺게 된

5) 大鹿卓(1941), 『渡良瀬川』, 新泉社, 「宇井純의 解題」 p.336 참조.

6) 광독예방명령에 따른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광독피해가 극심해지자 2월 13일, 3천여 명의 농어민이 광독피해에 대해 정부에 청원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가와마타(川俣)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경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강제해산되고, 그 과정에서 68명의 농어민이 흉도소집죄로 체포되는 가와마타사건(川俣事件)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광독사건을 둘러싼 청년운동이 좌절됨.

계기는, 1900년 2월 <每日新聞>(현재의 每日新聞과는 무관함)사의 사장인 시마다 사부로(島田三朗)로부터 광독문제 현지조사의 위촉을 받아 와타라세강(度良瀨川)과 아시오동산을 시찰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1909년 집필발표한 작품이 바로 『노동』이다. 이 작품은 기노시타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작중의 주인공이 1900년 2월 아시오를 시찰하던 당시를 회상하고, 저수지화를 위한 강제파괴 직전의 야나카마을을 방문한 1907년 현재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신문기자라는 신분이었던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1.1.3 이토 노에(伊藤野枝), 「전기(転機)」

작가 이토 노에(伊藤野枝)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는 주인공 '나(私)'는 1918년 1월, 연인 야마오카(山岡)와 함께 이미 수몰되어버린 야나카마을의 마지막 잔류민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 자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진 광독사건과 그곳 피해민들에 대해 재인식하고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사실상 작가 자신은 광독사건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수몰직전의 야나카마을에 대한 동정과 관심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작가 이토는 작가로서의 양심에 의지해 전남편과 헤어지고 맺어진 연인과 함께 해당마을을 방문하는데, 그것을 작가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전기(轉機)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쓰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1.4 오시카 다쿠(大鹿卓), 『와타라세강(度良瀨川)』과 『야나카마을 사건(谷中村事件)』[7]

광독사건과 야나카마을 사건 등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래인 1941년과 1957년에 집필된 이상의 두 작품은 작가 오시카 다쿠의 광독사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자료수집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집필 자체가 불가능했

7) 이 두 작품과 이하 城山三朗의 『辛酸』과 小林久三의 『暗黒告知』의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졸고 「足尾銅山鉱毒事件을 敍事한 文學硏究」(2015, 『日本語文學會 제64집』), pp.265-267에 소개하고 있다.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작가는 다나카 쇼조의 일기나 서간, 야나카마을 촌민이었던 시마다 소조(島田宗三)의 다나카 쇼조와 광독사건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노동』의 작가 기노시타 나오에의 저서들에 이르는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품을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41년『와타라세강』을 발표하고 1957년『야나카마을 사건』을 집필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에도 꾸준히 광독사건 관련의 단편적인 글들을 여러 잡지에 발표해온 것[8]으로 보아 광독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5 시로야마 사부로(城山三朗),『신산(辛酸)』

작가 시로야마 사부로(城山三朗, 1927-2007)는 '경제소설'을 일본의 대중문학의 한 장르로 확립시킨 선구자적 작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광독사건과 다나카 쇼조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 대해 '공해문제의 텍스트'가 아니라 '인생의 서(書)'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다나카 쇼조와 야나카마을 잔류민들의 인간적인 면면과 심리적 갈등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허구적 에피소드 등을 엮어 '신중한 관찰자와 이해자'의 입장에서 그려내고 있다.

1.1.6 고바야시 규조(小林久三),『암흑고지(暗黒告知)』

고바야시 규조(小林久三, 1935-2006)는 광독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이바라키현(茨城県) 고가시(古河市) 출신의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이자 극작가이며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이다.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고바야시는 미나마타병을 비롯한 공해사건에서 반복되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해의 원점이라 일컬어지는 광독사건과 야나카마을사건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전개되는 광독사건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픽션으로 구성된 살인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작가는 정경유착의 전형적 모델을 설정해두고 있다. 예컨대

8) 大鹿卓(1957)『谷中村事件』新泉社 p.352 참조.

지방의 관리와 경찰들을 총동원한 정부, 특히 훗날 수상까지 된 하라 다카시(原敬)가 한때 자신이 부사장으로 몸담았던 아시오동산이라는 일개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광독피해지역과 잔류민을 감시하고 내부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밀정까지 파견한다는 설정 자체가 그렇다.

1.1.7 다테마쓰 와헤이(立松和平), 『독-풍문·다나카 쇼조(毒-風聞·田中正造)』와 『하얀 강-풍문·다나카 쇼조(白い河-風聞·田中正造)』

1997년에 발표된 『독-풍문』은 주로 1900년 가와마타사건(川俣事件)을 전후로 한 광독사건의 현황과 다나카 쇼조의 활동내용을 비롯한 광독피해민들의 당시 상황을 와타라세강과 야나카마을 늪에 사는 물속 생물(메기, 잉어 등), 그리고 다나카 쇼조의 몸에 기생하던 벼룩 등 각각 다른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 야나카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몇몇 설화를 바탕으로 마을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県)당국의 야나카마을 저수지화를 위한 토지매수정책으로 잔류민들의 주거를 강제파괴하는 이른바 '야나카마을 사건' 전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테마쓰의 사후인 2010년에 출판된 『하얀 강-풍문』은 1896년 대홍수 발생 이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광독사건 및 광독반대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와 관련한 기록들을 토대로 한 소설이다. 전자인 『독-풍문』은 픽션적 요소가 좀 더 강하고, 후자 『하얀 강-풍문』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적 요소가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이 두 작품의 작가 다테마쓰 와헤이(立松和平, 1947-2010)는 도치기 현 우쓰노미야(宇都宮) 출신의 소설가로 아시오동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외증조부가 아시오동산의 갱부로 '아시오의 광산개발의 선두에 서서' '끊임없이 독을 흘려보낸 측의 인물'이었으며, 다테마쓰 자신 역시 어릴 때부터 여전히 아시오에 거주하던 친척들을 방문해 그곳에서 뛰어놀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1971년에는 도쿄생활을 접고 고향인 우쓰노미야로 돌아와 홋카이도로 이주갔던 광독피해민 자손들의 귀향운동 등을 계기로 <야나카마을 강제파괴를 생각하는 모임(谷中村の強制破壊を考える会)>을 결성(1972)하기도 하였고, <NPO법인 아시오에 녹색을 키우는 모임(足尾に緑を育てる会, 1996)>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아시오의 자연환경 부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처럼 아시오(足尾)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다테마쓰가 그러한 물리적 활동과 더불어 아시오동산과 광독사건에 대한 문학작품을 여러 편 집필하였던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광독사건 관련 작품의 양상분석

	작가	작품	사건과의 연관성	자료수집/ 집필방법[9]
1	田口掬汀	夏虫	직업적 시찰, 사회적 인식	사전조사/픽션
2	木下尚江	労働	직업적 취재, 운동에의 참여	참여/논픽션의 픽션화
3	伊藤野枝	転機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	사전조사/논픽션의 픽션화
4	大鹿卓	渡良瀬川	사회적 인식	자료 및 기록 참고/논픽션의 픽션화
5		谷中村事件		
6	城山三郎	辛酸	사회적 인식	자료 및 기록 참고/논픽션의 픽션화
7	小林久三	暗黒告知	출생지와 연관, 사회적 인식	자료 및 기록 참고/픽션+논픽션
8	立松和平	毒－風聞・田中正造	가족사 및 사회활동과의 연관성, 환경문제에 대한 작가로서의 인식과 책임감	자료 및 기록 참고/픽션+논픽션
9		白い河－風聞・田中正造		자료 및 기록 참고/논픽션의 픽션화

1.2 짓소미나마타병 관련 작품

1908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카바이드공장이 설립된 이후 45년여가 흐른 1950년대 초부터 원인 모를 기병이 바닷가 어촌마을들을 중심으로 창궐하였다. 수많은 피해자과 그 가족들은 병마에 의한 고통과 정부와 기업의 만행,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긴 시간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병의 공식적 발견으로부터 12년 만인 1968년에야 미나마타병이 짓소가 방출한 유기수은에 의한 공해병임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한 기업과 지역간의 기나긴 역사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진실공방, 그리고 피해민들의 한 많은 사연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미나마타병사건 관련의 문학작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9) 〈관련 작품들의 양상분석〉의 표에서 보는 '픽션+논픽션'은 소설적 부분과 논픽션(기록, 다큐)적 부분이 혼합된 집필방법을 취한 경우이고, '논픽션의 픽션화'는 실재사건사고를 소재로 하여 그것을 소설화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픽션'은 실재사건을 소재로 하나 전체 스토리는 창작한 경우이다. 이하 동일.

1.2.1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 「학의 돈키호테(鶴のドン・キホーテ)

「사혼상재(士魂商材)」라는 작품에서 일본이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경제개발이라는 소위 국책을 앞세워 어떤 정치적 경제적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고발한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은 1958년 1월 「학의 돈키호테(鶴のドン・キホーテ)」라는 단편소설을 『신초(新潮)』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구마모토현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미나마타에 기병(奇病)이 창궐하기 시작한 1956년 이듬해인 1957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로는 처음으로 짓소미나마타병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의 주요등장인물인 세 명의 남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그러진 인연을 갖게 된 전우이면서 가해기업인 짓소(작중의 M공장)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는 기병의 원인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횡행하던 비교적 이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10] 이 작품은 짓소가 방류한 폐수가 기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가해기업도 지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설정이 주목할 만하다.

1.2.2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 『바다의 송곳니(海の牙)』

이 작품은 미나마타병을 테마로 한 사회파 추리소설로, 아직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규정되지 않았던 1959년 12월 「시라누이해연안(不知火海沿岸)」이라는 작품으로 『별책 분게이슌슈(別冊文藝春秋)』에 처음 발표한 것을 대폭 가필하여 이듬해인 1960년 4월 『바다의 송곳니(海の牙)』(河出書房新社)라는 타이틀의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작가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 1919-2004)는 사회파소설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파소설'이란 사회문제를 작품의 주요소재로 다루는 소설을 일컫는 말인데, 그만큼 작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그를 작품화한다. 그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즈카미의 경우에는 이 소설을 발표한 후 미나마타병을 고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까지 참여한 작가로 알려지고 있다.

작품은 당시 미궁에 빠진 듯 비쳤던 미나마타병의 원인규명을 둘러싸고 다양

10) 구마모토대학 연구반이 메틸수은이 기병의 원인임을 후생성에 보고한 것은 1959년의 일이다.

한 원인설이 난무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미나가타병(水潟病, 미나마타병의 작중병명) 환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끔찍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한 형사와 경찰의(警察醫)가 그 살인사건을 파헤쳐가며 동시에 미나가타병의 원인에 대해서까지 예측해 가는 추리소설이다. 이 작품은 1960년 나오키상(直木賞)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제14회 탐정작가클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2.3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 『고해정토(苦海浄土)』 3부작

먼저 1부인 『고해정토-나의 미나마타병(わが水俣病)』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환자가 정식으로 보고된 이래 짓소미나마타공장 부근의 여러 마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병의 환자들이 급증하였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 원인은 짓소가 바다로 방류한 유기수은 함유의 폐수임이 분명해보였지만, 정부와 짓소는 유기수은설을 극구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피해환자들의 호소와 원인규명 운동, 그리고 여러 뜻 있는 연구진들의 노력 끝에 1968년 9월 유기수은을 함유한 짓소의 폐수에 의한 공해병임이 공식 인정된다. 이 소설은 그러한 미나마타병의 역사는 물론이고 피해환자들의 고통과 한을 그려내고 있다.

1970년 9월 집필을 시작한지 30여년 만인 2004년에 완성된 2부 『신들의 마을(神々の村)』은 1968년 이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피해환자들의 한(限) 맺힌 삶의 편린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피해환자들이 불구의 몸을 서로 의지해 가며 미나마타병 순례를 떠나는 모습, 병과의 사투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와 정부의 무책임과 파렴치, 그리고 사회의 차별과도 싸워야 했던 피해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했던 작가가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3부인 『하늘 물고기(天の魚)』는 1970년 이후부터 1973년 3월 20일 미나마타병 1차 소송이 승소로 끝나기까지의 투쟁의 모습, 특히 오사카와 도쿄에서 펼쳐지는 짓소 본사와의 길고 긴 싸움을 현장에 늘 함께 했던 작가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환자를 비롯해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시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구마모토, 도쿄, 오사카 등) 고발하는 모임(告発する会)>과 <시민회의(市民会議)>등이 미나마타병사건의 책임과

피해자보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엮어내는 미나마타병 투쟁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이 3부는 예외적으로 2부보다 이른 1974년 10월에 출판되었다.

1968년 9월 정부가 미나마타병이 짓소에 의한 공해병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이듬해인 1969년『고해정토-나의 미나마타병』이 처음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당시,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다수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기록소설 혹은 고발성 르포르타주로 분류하였는데, 작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문학에 정통한 연구자들은 이 소설을 순수문학이며 사소설이라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은 끝내 일본 문학계와 독자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11]

그리고 2부와 3부 역시 저마다 '3부작 중 핵심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라거나 '미나마타병 운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 자신은 2부에 대해 "부적절한, 그 심오함에 가닿지 못한 표현이 곳곳에 있었다. 고쳐 쓰고 싶지만 나에게는 버거운 일이다. 어찌 됐든 참 멀고 먼 여정을 터벅터벅 걸어왔다."라고 후기를 대신한「손바닥이 등 뒤에서 살짝 다가와(掌が後ろからそっときて)」에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3부에서는 "그들이 죽는 순간의 눈부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기 위해 생자(生者)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싶다고 나는 생각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 되살아날 수 없기에."[12]라고 쓰고 있다. 이런 작가의 글들을 통해 이상의 작품들이, 늘 피해민들 곁에서 동거동락하고 그들의 영혼과 함께 웃고 울며, 심지어는 죽은 이들의 영혼과도 동거하던 작가의 '참여적 사소설'임을 알 수 있다.

1.2.4 요시이 에리코(吉井恵璃子),「하늘로 오르는, 곧은 길(天にのぼる、まっすぐな道)」

미나마타병 사건에 대한 소설로는 비교적 최근의 작품으로 2011년에 월간문예지인『詩と真実』11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미나마타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살아남은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겪게 되는 2차적 피해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요시이는 미나마타의 해안에서 15킬로 정도 동떨어진 산간지방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며 에세이나 소설을 쓰는 작가로,

11) 石牟礼道子(1969),『苦海浄土-わが水俣病』, 講談社,「解説・石牟礼道子の世界」(渡辺京二), pp.364-386 참조.
12) 石牟礼道子(1974),『苦海浄土-天の魚』, 講談社, p.45 인용.

이 작품의 아키코와 마찬가지로 무심하려고만 하면 미나마타병 사건과는 무관할 수 있는 입장의 미나마타시민이다. 하지만 요시이는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50년도 훨씬 이전에 발생한 고향의 미나마타병사건을 떠올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인간'에게 분노하며 이 소설을 쓴다. 공장의 폐수가 사람과 자연을 죽이고 차별과 편견을 낳은 사건,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환자들이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미나마타병사건>. 그리고 똑같은, 어쩌면 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후쿠시마원전사고>의 미래를 <미나마타병사건>의 미래인 현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2> 미나마타병사건 관련 작품의 양상분석

	작가	작품	사건과의 연관성	자료수집/집필방법
1	武田泰淳	鶴のドン・キホーテ	직업적 시찰, 사회적 인식	사전시찰 및 조사/픽션
2	水上勉	海の牙	취재 및 운동에의 참여 사회적 인식	취재 및 참여/픽션+논픽션
3	石牟礼道子 『苦海浄土』3부작	1部-わが水俣病	고향 사회적 인식과 참여	관찰과 참여, 자료참조/논픽션의 픽션화
4		2部-神々の村		
5		3部-天の魚		
6	吉井恵璃子	天にのぼる、まっすぐな道	고향, 사회적 인식	간단한 조사/픽션

2.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

지금까지 일본의 주요 공해사건이라 할 수 있는 <광독사건>과 <미나마타병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해사건 문학작품 총 15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들의 양상 이를테면 작가가 어떤 계기로 공해사건을 작품화하였는지를 예측해볼 수 있는 '사건과의 연관성', 작품의 집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소설화하고 있는지를 '자료수집/집필방법'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작품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내용의 양상분석'을 추가하였다. 이들의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작가와 사건과의 연관성 양상분석

구분	사회적 인식	고향, 가족 등의 연고	직업적 관계	합계[13]
광독사건	夏虫, 渡良瀬川, 谷中村事件, 辛酸, 暗黒告知, 転機(개인적관심)	暗黒告知, 毒-風聞·田中正造, 白い河-風聞·田中正造	夏虫, 労働	9편
미나마타병사건	鶴のドン・キホーテ, 海の牙, 苦海浄土-わが水俣病, 神々の村, 天の魚, 天にのぼる、まっすぐな道	苦海浄土-わが水俣病, 神々の村, 天の魚, 天にのぼる、まっすぐな道		6편
합계	12편(57%)	7편(33%)	2편(10%)	21＼15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해사건 문학작품들 중 57%에 해당하는 작품이 작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열린 인식에서 발로하여 집필되었다는 사실이다.또 고향 혹은 가족 등의 연고에 의해서 사건에 대한 작품을 집필한 경우가 7편으로 33%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 '작가의 사회적 인식'이야말로 공해사건 관련의 작품을 집필하게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사료된다.

<표 4> 자료수집 및 집필방법의 양상분류

구분	기사 및 관련자료 활용	취재 및 참여	창작	합계
광독사건	渡良瀬川, 谷中村事件, 辛酸, 暗黒告知, 毒-風聞·田中正造, 白い河-風聞·田中正造	労働, 転機	夏虫, 暗黒告知, 毒-風聞·田中正造	9편
미나마타병사건	苦海浄土-わが水俣病, 神々の村, 天の魚	海の牙, 苦海浄土-わが水俣病, 神々の村, 天の魚	鶴のドン·キホーテ, 海の牙, 天にのぼる、まっすぐな道	6편
합계	9편(43%)	6편(28.5%)	6편(28.5%)	21＼15
집필방법 분류	픽션+논픽션(3편/20%) 혹은 논픽션의 픽션화(9편/60%)		픽션(3편/20%)[14]	15

13)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분류한 합계는 중복된 작품도 포함시키고, 사건별 작품의 경우 중복은 제외한다. 〈표 4〉와 〈표 5〉의 경우에도 동일.

14) 밑줄의 3작품은 앞의 '픽션+논픽션' 작품과 중복되며, '창작'의 6작품들 중 밑줄 친 작품을

이상의 표를 보면 '기사 및 관련자료 활용'에 비해 '창작'과 '취재 및 참여'에 의한 소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및 관련자료를 활용한 소설로는 광독사건의 경우가 6편으로 비교적 많고, 이들 소설은 대부분 사건에 대한 큰 틀은 실제사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대부분 픽션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공해사건 문학은 대체적으로 '사실'을 소설화한 작품(논픽션의 픽션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은 기사 및 관련자료 활용과 취재 및 참여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집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주요내용에 따른 양상분류

구분	사건의 정황 및 진실규명	공해반대 및 보상운동	피해민의 고통과 한	합계
광독사건	労働, 転機, 渡良瀬川, 白い河-風聞·田中正造	渡良瀬川, 谷中村事件, 辛酸, 暗黒告知	夏虫, 労働, 谷中村事件, 辛酸, 毒-風聞·田中正造	9편
미나마타병사건	鶴のドン·キホーテ, 海の牙, 苦海浄土-わが水俣病	苦海浄土-わが水俣病, 神々の村, 天の魚	苦海浄土-わが水俣病, 神々の村, 天の魚, 天にのぼる、まっすぐな道	6편
합계	7편(30.4%)	7편(30.4%)	9편(39.2%)	23\15

공해사건 문학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각 공해사건의 정황 및 진실규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소설과,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는 피해민들의 공해반대 및 보상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소설이 각각 7편으로 약 30.4%에 달했고, 마지막으로 각 공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민들의 고통과 한(恨)을 중점적으로 다룬 소설이 9편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음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해사건 문학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열린 인식으로 집필된 문학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기사 및 관련자료의 활용과 취재 혹은 참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소설화 하거나 픽션과 논픽션을 적절히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집필된

제외한 나머지 3편이 '픽션'에 해당한다.

문학작품이 일반적이다. 셋째, 대부분의 작품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피해민들의 고통과 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점을 이른바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복간현황을 통해 보는 공해사건 문학의 가치

이상의 공해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현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들 작품의 증쇄의 횟수나 복간의 유무를 그것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으리라 보고, 이 장에서는 <광독사건>과 <미나마타병사건>을 다룬 작품들 중 복간이 확인되는 작품들의 복간현황을 각각 조사하였다.[15] 먼저 광독사건을 다룬 문학작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품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아시오동산광독사건>을 다룬 주요 문학작품의 복간현황

구분	출판 및 복간 년도·출판사·비고						
大鹿卓『度良瀬川』	1941	1948	1952	1970	1972	2013.3	2013.8
	中央公論社	講談社	春歩堂	講談社	新泉社 *1976년 3쇄 확인	河出書房新社	新泉社 *1972년판의 신판
大鹿卓『谷中村事件』	1957		1972		1980		2009
	大日本雄弁会講談社		新泉社 *1980년 6쇄 확인		講談社		新泉社*1972년판의 신판
城山三郎『辛酸』	1962		1970	1971	1976		1979
	中央公論社 *1991년 8쇄 확인		中央公論社 *1980년 7쇄 확인	潮出版社	中公文庫		角川書店 *1988년 15쇄 확인

15) 조사방법은 아마존재팬(www.amazon.co.jp)과 일본古本屋(www.kosho.or.jp) 및 야후재팬(www.yahoo.co.jp)을 두루 검색하고, 논자가 소지하고 있는 저서들을 참고로 하였다. 다만 전집은 출판기획 자체가 작품보다는 작가중심으로 이뤄지므로 여기에선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오시카 다쿠의 두 작품은 초판을 발행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증쇄 또한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로야마(城山)의 『신산(辛酸)』의 경우 또한 이상의 복간과 증쇄는 물론 현재까지 작가의 전집에도 여러 차례 수록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가의 명성과 작품의 우수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들 작품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 즉 <광독사건>의 전말에 대한 사회와 독자들의 관심과 필요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이상의 세 작품은 <광독사건>이 발생한 지 가깝게는 5, 60년이 흐른 뒤, 멀게는 80여년이 흐른 뒤에 집필된 소설이라는 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집필 당시에도 여전히 <광독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나카 쇼조가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광업정지'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세월과 더불어 잊혀버린 <광독사건>을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이상의 작가와 작품들이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판발행과 반복되는 복간의 시기를 보면 '공해사건의 원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광독사건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일본의 공해문제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해사건들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공해사건의 원점인 광독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독자들의 니즈에 부응하여 출판사들은 앞 다투어 이상의 작품들을 복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3년도에 복간된 오시카(大鹿)의 『와타라세강(度良瀬川)』의 경우는 어느 모로 보나 2011년 3월의 <후쿠시마원전사고>의 반향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1972년 신센샤(新泉社)에서 복간한 『와타라세강』에 해제를 쓴 우이 준은 이 책의 복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이 책은 한때 고단샤에서 재간되었지만 머잖아 매진되고 입수가 곤란해진 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이번에 아시오광독사건의 기본문헌의 간행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온 신센샤의 사쿠라이 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입수의 길이 재개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해반대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판권의 양도에 흔쾌히 동의해준 고단샤의 호의에도 감사한다. 특히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책을 기술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써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노력한 성과가 생활 속에 실제로

> 응용될 때, 자신의 생활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워야하는 것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16)

우이 준의 이와 같은 서술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의 공해사건을 바로 인식하고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공해의 원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광독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공해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인규명의 경위와 가해기업 및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그에 대한 피해민들의 현실적인 피해규모와 사회적 차별 등의 정신적인 피해와 한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피해민과 그에 동조한 사회의 반대운동은 어떠한 양상으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에 근거한 기록,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진실까지를 아우르는 문헌이 절실하다. 둘째, 지난 공해사건을 돌이켜보고 반성함으로써 과학문명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는 그 이기(利器)에 함몰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3년 3월 가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에서 복간한 『와타라세강-다나카 쇼조와 직소사건(度良瀬川-田中正造と直訴事件)』의 해설을 쓴 고마쓰 히로시(小松裕)는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후쿠시마 이후를 살아야할 우리이기에 생명과 생활과 생업, 그리고 그것을 키우고 있는 자치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선인들의 고투를 알기 위해서도 『와타라세강』을 지침서로써 반드시 배우고 익히라.'17)라며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상의 작품들은 과거 공해사건의 전말과 공해반대운동에 앞장선 뜻 있는 이들과 피해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 한 세기를 훌쩍 넘어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에 직면한 현대와 미래를 향한 뼈아픈 경고의 전달자가 되는 셈이다.

다음은 미나마타병사건을 다룬 작품의 복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

16) 大鹿卓(1941)의 복간판 『度良瀬川』(1972), 新泉社, p.341 인용.
17) 大鹿卓(1941)의 복간판 『度良瀬川-田中正造と直訴事件』(2013.3), 河出書房新社, p.471 인용.

<표 7> 미나마타병사건을 다룬 주요 문학작품의 복간현황

구분	출판 및 복간 년도·출판사·비고					
水上勉『海の牙』	1960	1964	1968	1972	1995	1997
	河出書房新社	角川文庫	集英社	朝日新聞社	双葉文庫	読売新聞社
石牟礼道子『苦海浄土-わが水俣病』	1969	1970	1972	2004	2011	
	講談社 *1972년 12쇄 확인	全日本ブッククラブ	講談社文庫 *1997년 44쇄 확인	講談社文庫 *1972년판의 신장판	河出書房新社 *3부작을 한 권으로 엮음.	
石牟礼道子『神々の村』	1970.9-1989 연재	2006	2011	2014		
	계간지『辺境』	藤原書店	河出書房新社 *3부작을 한 권으로 엮음	藤原書店 *2006년판의 신판		
石牟礼道子『天の魚』	1974	1980	2011			
	筑摩書房	講談社文庫	河出書房新社 *3부작을 한 권으로 엮음			

이들 작품 외에 단편인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학의 돈키호테」는 1957년 2회에 걸쳐 잡지『신초(新潮)』에 발표한 작품으로, 책으로 출판된 것은 1958년 <분게이슌슈신샤(文芸春秋新社)>에서 펴낸『사혼상재(士魂商才)』라는 작가의 작품집에 수록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2000년 8월에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작품집 자체를 복간하였다.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나오키상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고『바다의 송곳니(海の牙)』또한 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한 작품인 만큼 단기간에 다수의 출판사에서 앞 다투어 출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1972년 아사히신문사에서 출판한 것은 <미즈카미 쓰토무 사회파걸작선> 시리즈 중 2권에 해당한 것으로, 작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문학작품화 작업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초판연대를 보더라도 미나마타병사건의 공식발생연도로부터 4년이 안 된, 그에 대한 문학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4년 간격으로 출판사를 달리해가며 3번이나 다시 출판되고 있다. 1972년 저자후기에서 미즈카미는 작품발표 후 홋카이도까지 발품을 팔며 미나마타병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다녔다고 밝히고 있다. 작가의 활동과 작품의 복간현황으로 보아, 미즈카미(水上)와 『바다의 송곳니』야말로 가해기업과 정부의 진실 축소와 은닉 정책에 맞서 미나마타병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장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의 『고해정토-나의 미나마타병』의 경우, 초판은 물론이고 연이은 문고판이나 신장판이 수십 쇄의 증쇄본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반향이 컸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영미권으로 번역 수출될 정도로 작품의 우수성과 영향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그런가 하면 우여곡절을 거쳐 출판된 『고해정토』의 2부와 3부 역시 두어 차례 단행본의 복간을 거쳐 2011년 이케자와 나쓰키(池沢夏樹) 편집의 <세계문학전집>(河出書房)에 『고해정토』(복합본)가 일본인 작가의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수록되었다. 이케자와는 '현대의 세계문학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그 자체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작품'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18], 이는 곧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갖는 중대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해정토』는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사건이 갖는 현대적 내지 세계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작품의 문학적 우수성에 대한 절대적 평가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광독사건과 미나마타병사건을 다룬 문학작품의 복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작품이 집필된 지 몇 십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 작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작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적극적인 재조명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18) 榎本真理子(2014), 「世界文学としての『苦海浄土』-石牟礼とウルフ-」, 『恵泉女学園大学紀要 第26号』, p.242 재인용.

Ⅴ. 결론

문학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공해사건 문학 역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상상력과 의지 혹은 마음을 작품에 투영시킴으로써, 독자가 작품을 매개로 하여 그 사건에 대한 관심과 감동을 갖게 되고 개인적 차원에서나마 변화를 도모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문학은 제 역할을 십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의 근대 이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일본 공해사건의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과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되는 <아시오동산광독사건(足尾銅山鉱毒事件)>과 <짓소미나마타병사건(チッソ水俣病事件)>을 주요 소재로 한 공해사건 문학작품들을 고찰하여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을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면서 과연 공해사건 문학이 독자로 하여금 공해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피해민들의 고통과 한에 공감함으로써 공해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고에서 고찰한 공해사건 문학을 통해 '공해사건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있어서의 문학의 역할과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설가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관심의 눈을 항상 열어둠으로써, 실재자료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공해사건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방법론 또한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해사건 문학이 다뤄야할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이상의 작품들은 실례로써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린 인식을 가진 작가의, 그에 관한 자료 및 참여를 토대로 하여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민의 고통과 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을 하나의 '공해사건 문학의 시스템'으로 규정해보았다.

공해사건과 문학에 대한 이러한 고찰과 연구가 앞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의 공해사건의 타개책 마련과 시스템적 개혁을 강구하는 과정에 사소하나마 지혜를 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의미를 기존의 공해사건 문학을 통해 찾고, 나아가 공해사건

문학으로서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参考文献>

김경인(2015)「足尾銅山鉱毒事件을 敍事한 文學硏究」『日本語文學會 제64집』pp.265-267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 2014)『공해의 역사를 말한다-전후일본공해사론』김해창 역(2016) 미세움 pp.869-870
石牟礼道子(1969)『苦海浄土-わが水俣病』講談社 pp.364-386
_____(1974)『苦海浄土-天の魚』講談社 p.45
宇井純(1971)『公害原論Ⅰ』亜紀書房 pp.25-45
榎本真理子(2014)「世界文学としての『苦海浄土』-石牟礼とウルフ-」『恵泉女学園大学紀要 第26号』, p.242
大鹿卓(1941)『渡良瀬川』 新泉社 p.336
_____(1957)『谷中村事件』新泉社 p.352
_____(1941)의 복간판『度良瀬川』(1972) 新泉社 p.341
_____(1941)의 복간판『度良瀬川-田中正造と直訴事件』(2013) 河出書房新社, p.471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公害事件文学のシステムと価値の考察
－ 日本の公害事件と文学を中心に －

金鏡仁

本稿は、「福島原発事故」以前の日本の主な公害事件と言える「足尾銅山鉱毒事件」と「チッソ水俣病事件」を中心にする公害事件のシステムを導きだし、それらの公害事件を扱っている文学作品の考察を通しての、公害事件文学のシステムを成り立たせるのに、第一の目標がある。それから、そういう公害事件文学の、現代においての価値は何であろうかを、関連作品の復刊現況を通して考えてみたいと思う。その結果、公害事件システムを成している三つの要素として、まず「国策産業と政経癒着」によって発生し、その被害が極大化されたということが、その一つである。それから、以上の両事件をきっかけに、社会全体に公害反対運動と被害補償運動が広がったということ。最後に、公害事件の大体の被害者が、貧しい農・漁村の住民であるという、三つの共通点が含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また、以上の両事件を扱っている作品を分析した結果、公害事件文学のシステムを成している要素として、以下の三つが挙げられる。第一、作家の社会問題に対する開かれた認識から執筆される。第二、事実的な記録や資料と、取材及び経験をもとに、事実を小説化したり、事実とフィクションを合わせるやり方によって執筆された。第三、被害民たちの苦しみや無念をはじめ、事件に対する真実究明と補償運動などの、歴史的な事実を重要な内容として扱っている。

このようなシステム的な公式をもとに、公害事件に対する理解を深め、打開策の備えを固く致せることを願う。また、これからの公害事件文学の活発な創作により、公害事件に対する真実をより広く知らせ、公害事件の繰り返しを絶てることを願うしだいである。

<Abstract>

A study on system and value of literature of pollution incident
- Focusing on pollution incident of Japan and literature -

Kim, Kyoung-In

The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finds a system of pollution incident such as 'Ashio copper mine pollution incident' and 'Chisso Minamata disease incident'. Also I hope to find a system of literature of pollution incident which were described about pollution incident in Japan. Next on I'll try to figure out a value of literature of pollution incident, according to investigate situation of revived publication of the literary works.

As a result I could figure out three elements that is included in a system of pollution incident. First, pollution incident is happened by 'national policy industry and business-politics collusion'. Second, the pollution incident caused widespread campaigns against pollution and movement of compensatory damages. Lastly, almost of victim of pollution incident are poor farming and fishing population.

And as a result that I examine the literary works what is written about pollution incident, I could figure out that a system of literature pollution incident is composed three elements. First, literary works about pollution incident almost are written by social cognition of writer. Second, literary works almost are written on the basis of facture record or data, and interview or writer's experience. Lastly, literary works about pollution incident usually are written about pain and Han(grudge) of victim, and fact of pollution incident's history.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159－176쪽 10.15733/jast.2017..72.159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 『복합오염(複合汚染)』의 형식적 변이

김 성 은*

< 目 次 >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소설적 요소의 나열
Ⅲ. 전형적 소설 요소
Ⅳ. 소설로의 접목을 위한 융합
Ⅴ. 나가는 말

Key Words : 有吉佐和子(Sawako Ariyoshi), 複合汚染(Complex pollution), 環境汚染(Environment Pollution), 小説論(Theory of the Novel), 沈黙の春(The Silent Spring)

Ⅰ. 들어가는 말

『복합오염(複合汚染)』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작품화한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 1931～1984; 이후 '아리요시'로 약칭함)의 '사회파소설(社会派小説)'[1]중 대표작으로 불린다. 이 작품은 1974년 10월부터 1975년 6월까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朝刊)에 연재되었고, 단행본은 1975년 4월에 상권, 같은 해 7월에 하권이 간행되었다. 착상에서 집필까지 10여년이 걸렸으며,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2]을 읽고 집필하게 되었다는 사실[3]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 수료.

1) 「『恍惚の人』や『複合汚染』などにしましても、よく言われるように社会派小説として取材してできた小説ではなくて」有吉佐和子, 『有吉佐和子』(作家の自伝109),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p.202, 밑줄 인용자.

2) 1962년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1907～1964)이 집필한 살충제・살균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서술한 세계적 베스트셀러다.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은 살충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돼 봄이 왔음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3) 伊吹和子, 『めぐり逢った作家たち,』, 平凡社, 2009, p.162.

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작품 내에서도 레이첼 여사의 주장을 여러 차례 인용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문단에서는 집단으로 공해병[4]에 걸린 사람들을 기록한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의 『고해정토(苦海浄土)』[5]와 비교되기도 한다.

『복합오염』은 미남미녀도 없고 그 흔한 사랑도 없으며 전반적인 스토리도 없는 분명 소설의 상식에서 벗어난[6] 기형 소설이다. 이런 이유로 신문연재 당시 환경리포트에 불과하다며 혹평하는 이도 있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은 내용만큼이나 불분명한 형식으로 인해 이슈가 되기도 한 이 작품은,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문고본이 50쇄를 거듭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본고에서 논할 『복합오염』[7]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뛰어넘고 있다.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과학서적에나 나올법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무수히 등장하는 작품이다. 아리요시 자신도 작품 중에서 소설이라 칭함에 있어 주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합오염』의 파격적인 글쓰기가 진정한 소설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소설의 요소를 적용했는지 찾아보고 그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소설의 기본요소를 기준으로, 비소설과 소설적인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대를 앞선 형식파괴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와 그 효과를 고찰하려 한다.

논의에 앞서 소설은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장르이며 문학 중에서도 시와 연극에 비하여 자유롭고 규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설이란 '이런 것을 이런 스타일로 써야 한다'는 발언은 대단히 어폐가 있고 위험하다. 장르의 개념을 생각할

---

4) 일본의 4대 공해병(公害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4가지 병을 이른다. 일본은 1960년대 초반 '공해병 환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구마모토의 미나마타병, 니이가타의 미나마타병, 요카이치의 대기오염, 도야마의 이타이이타이병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응을 시작했다.

5) 한국에서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만 근처에서 발생한 유기수은중독증이란 병명을 살려 『슬픈 미나마타』라는 제목으로 2007년 번역 출간되었다.

6) 奥野健男, 「解説」 『複合汚染』, 新潮文庫, 1979, p.615.

7) 선행연구로는, 일본에서 사회문제와 여성과의 관계, 환경문학이라는 제재의 연관성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일본학보』(1997)에 오경자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레이첼 카슨과 이시무레 미치코의 작품과의 비교 연구와 함께 특이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때만은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형식과 내용이 상호간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형식이 나오게 된 데에는 필경 그럴만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내용이 실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엉켜있는 관계를 우리는 흔히 형식이 어쩌고 내용이 어쩌고 하면서 각각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은 아니다.[8]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반적 소설이라 명명하기에는 파격적인 형식을 적용한 작가의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설의 요소를,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학습하는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로 규정하고 고찰할 것임을 서두에 밝혀둔다.

Ⅱ. 비소설적인 요소의 나열

소설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기본 요소가 존재한다. 주제, 구성, 문체라는 소설의 세 가지 요소[9]는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다. 그러나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난 특이성을 보인다.

『복합오염』에서 두드러지는 형식상의 특이성, 그 첫 번째는 과학 잡지에 나올 법한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 국제과학자연합의 환경문제위원회가 3년 전에 전 세계 과학자를 불러서 다섯 가지 오염독성물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수은, 카드뮴, 납, DDT, PCB.
>
> (国際科学者連合の環境問題委員会が三年前に全世界の科学者に呼びかけて五つの汚染毒物の調査を足した。水銀 カドミウム· 鉛 DDT· PCB)[10]

---

8) 이상옥,「소설의 이론- 그 장르의 개념 정립을 위한 試論」,『省谷論叢』10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79, p.345.

9) 소설의 3요소; ①주제(theme, subject): 작품의 근본적 의미, 중심사상, ②구성(plot): 작품의 짜임새, 사건의 배치방법, ③문체(style)

10) 有吉佐和子,『複合汚染』(有吉佐和子選集 第二期 ⑫), 新潮社, 1978, p113(이후 텍스트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계속해서 합성세제 첨가물.	(合成洗剤の添加物のつづき。
트리포리인산소다 […]	トリポリリン酸ソーダ (中略)
규산소다(때의 재부착방지)	珪酸ソーダ(汚れの再付着防止)
CMC(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MC(カルボキシメチールセルロースのと)
형광증백제	蛍光増白剤)

(pp.337-338)

두 번째 형식상의 특이성은, 독자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풀어서 쓰는 설명문의 글쓰기이다.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 집중하여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조가 두드러진다. 작품의 제목이기도한 '복합오염[11]'이라는 용어도 '둘 이상의 독성물질의 상가작용 또는 상승작용'이라고 상세히 설명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문용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용어의 하위구조와 예시까지 담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근대화라는 것은 경작기계와 화학비료, 살충제에서 제초제에 이르는 각종 농약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대규모 병용이었다.

기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논밭을 가는 경운기, 비료를 살포하는 기계, 씨 뿌리는 기계, 풀 베는 기계, 모내기하는 기계, 논의 제초기계,

[…]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종류가 이 정도이다.

(農業の近代化というのは、耕作機械と、化学肥料と、殺虫剤から除草剤にいたる各種農薬という、三種の大がかりな併用だった。

機械について言えば、土を耕す機械、肥料を撒布する機械、種をまく機械、草刈り機、田植の機械、水田の除草機、

(中略)

ざっとこのくらいの種類がある。)

(pp.139-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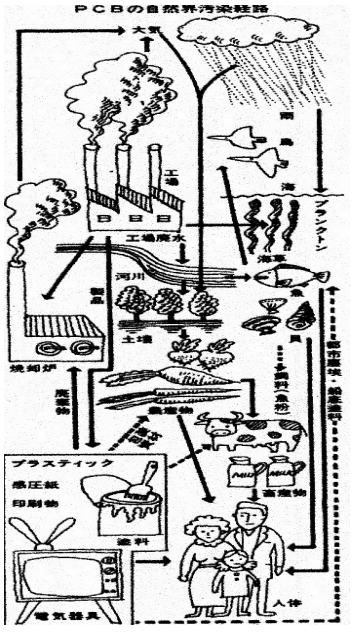
---

11) 複合汚染というのは、二つ以上の毒性物質の相加作用および相乗作用のことである。(有吉佐和子, 前掲書 p91),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에 따르면 '아리요시의 이 작품으로 '복합오염'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有吉佐和子の小説「複合汚染」から一般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고 기술한다.

DDT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학질모기나 벼룩의 구제를 목적으로 단지 열대에서만 대량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것이 전후에는 민간용 농약살충제로 일찍이 보급되어, 군수산업으로 급성장한 대기업은 이 DDT의 생산으로 인해 재빨리 평화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DDTは第二次世界大戦中、マラリア蚊や蚤の駆除という目的で、もっぱら熱帯作戦に多量に用いられた。それが戦後になって民間の農薬殺虫剤として一斉に普及する。軍需産業で急速に成長した大企業は、こうして大変結構な平和産業に切りかえられた。) (p.94)

아리요시의 글쓰기는 객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알리는 설명문의 성격을 드러낸다. '복합오염'라는 작품의 대표 용어에 이어 '먹이사슬'에 대해서도 '녹색식물을 생산자, 자기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동물을 소비자라고 할 때 소비자 중에서 생산자를 먹는 것을 초식동물 또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것을 육식동물 또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것을 3차 소비자라고 한다. 이 동식물의 죽은 몸체는 세균 즉,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고, 그 결과 생긴 무기염류는 최종적으로 다시 식물로 흡수된다'고 상세히 기술한다. 생체농축은 순환구조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오염물질이나 악성성분이 흡수되면 그것이 순환을 거듭할수록 체내에 쌓인다는 심각성을 설파하기 위해 사전적 의미만이 아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서술기법을 채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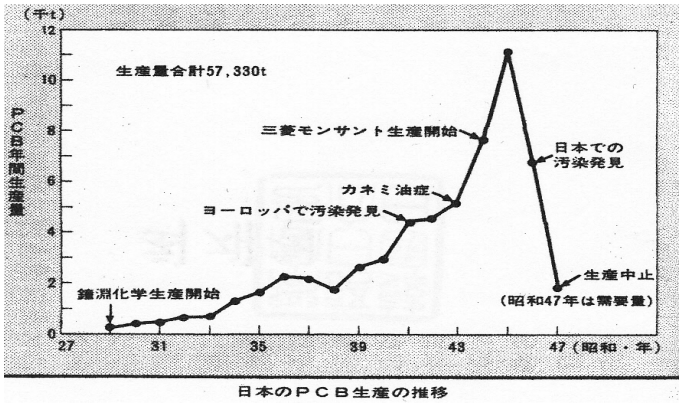


<그림 1> PCB의 자연계 오염경로

왼쪽 삽화는 PCB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장에서 인체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PCB는 타지 않기 때문에 공장의 매연으로 피어올라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 폐기물 중의 PCB도 소각로에서 타지 않고 대기로 흡수된다. 공장의 배수구에서 나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간다.

(左の挿絵はPCBが、どういう経路を通って工場から人体に入るかを示したものである。前にも書いたようにPCBは燃えないので工場の煙突からモクモクと大気へ飛び散る。廃棄物の中のPCBも、焼却炉でもえずに大気へ混入する。工場の排水口から川や海に流れて行く。) (p.357)



<그림 2> 일본 PCB 생산 추이

세 번째 형식상의 특이성은 많은 데이터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되는 끔직한 피해를 보고 들은 아리요시는 '생생한 데이터를 마음껏 집어넣어'[12] 이미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경고한 사실을 다시금 일반에 전달하기 위해 홍보자의 역할을 다한다. 풍부한 데이터의 형식은 그림으로 그려 넣은 도표와 통계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0여개에 이르는 적지 않은 데이터를 다채롭게 수록하여 정보전달성을 강조하였고 그 사용의 빈도는 후반부로 갈수록 현저히 늘어난다. 이는 신문연재소설이라는 특성상 빠른 독자의 반응과 학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12) 有吉佐和子, 「『複合汚染』引用騒ぎにみる有吉さんと公害学者の言い分」, 『週刊ポスト』, 小学館, 1975, 6, p.44.

Ⅲ. 전형적 소설의 요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제, 구성, 문체라는 소설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특히 '인물, 사건, 배경'으로 불리는 구성의 3요소 중 '인물'을 창조하는 일이 작가가 해야 할 가장 비중 있는 작업이다.

『복합오염』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작품흐름상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세 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야기를 진행해가는 작가인 '나'와 이웃에 사는 자연식품 애호가인 노인, 파리에 사는 '나'의 동창생이다. 이웃집 노인은 옛 전통방식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연식품의 맛을 품평하는 역할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해 '나'와 교류하는 주요인물이다. '늙어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적어도 맛있는 밥, 맛있는 반찬만 먹고 싶다'며 신토불이 정신을 지키면서 자연을 거스르는 생활은 절대 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여학교 동창생이며 프랑스에 살다 남편의 주재로 20년 만에 일본에 돌아온 그녀는 유럽의 선진문명을 수용하여 서양의 성숙한 시각으로 일본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물이다.

"뭐가 기분이 나빠?"

"글쎄 사과도 귤도 반짝반짝하지 않아? 가지나 오이도 마치 플라스틱 제품처럼 모양도 색도 똑같잖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야채가 규격화된 걸까?"

[…]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쾌한 것은 야채에 흙이 묻어있지 않다는 거야."

"어?"

"흙이라는 건 야채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잖아. 그런데 다 씻어버리다니. 일본 야채장사들은 예전엔 진흙이 묻은 채로 팔았었다고."

(「何が気持悪いの」

「だってリンゴも蜜柑もピカピカじゃないの。御茄子でも胡瓜でも、まるでプラスティック製品みたいに、形も色も同じでしょ。どうなっちゃってるのかしら。野菜が工業化されてるのかしら」

(中略)

「それと、もう一つ気持悪いのは、野菜に土がついてないことね」

「えッ」

「土って、野菜の鮮度を落さないために必要なものでしょ。それなのに、みんな洗ってあるじゃない。日本の八百屋さんは、前には泥のついたの売ってたわ」)

(pp.173-174)

동창생은 '플라스틱 제품처럼 모양이나 빛깔이 말끔하고 똑같은' 과일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표출한다. 유럽과 일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동창생은 비록 일본인이지만 유럽인의 시각으로 일본의 폐해를 지적한다. 당연하고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일본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일깨워준다. 자연 그대로를 느끼지 못하는, 오염되어 버린 시대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인물상이다.

소설은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 인간이 체험한 사건은 직접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서술자에 의해 중개된다.[13] 이 작품은 작가가 일인칭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일인칭 시점이라는 설정은 '나'인 주인공이 서술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형식을 뜻한다. 그러나 아리요시는 작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보전달의 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인칭시점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자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나'로 대변되는 작가의 위치이다. '나'는 작품에서 빈번하게 "어째서요(どうしてですか)?", "좀 더 쉽게 말씀해주세요(もっと分かりやすく言って頂けませんか)"라는 대사를 사용한다. 작가는 자신이 독자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것을 집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작가는 자신을 자연과학에 무지한 인간, 예를 들어 원소나 화합물의 차이도 모르는 인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것이 초심자인 독자에게도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 소설의 요소이다.

주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 글은 무엇에 대하여 쓴 것인가' 혹은 '그들은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가'라고 할 때의 '무엇'을 주제라고 하기도 하고,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나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하는 참된 의도 또는 중심사상을 주제라고 하기도 한다. 논자가 참고한 국어사전에서도 '주제'에 대한 정의는 각기 교묘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

13)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p.96.

적으로 이희승 편저의 사전[14]에서는 ①주요한 제목, ②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주된 명제, ③작가가 그려내려고 하는 주요한 제재, 곧 작품의 중심이 되는 사상 내용 테마라고 정의한다. 즉, 주제는 소설 속에 채택된 여러 제재 가운데 중심제재를 발전시킨 것으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라는 점은 공통된 서술이다.

이 작품은 아리요시가 참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던 중에 우연히 듣게 된 공해연구가 요시타케(吉武輝子)의 연설에서 시작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연설, 다시 말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형아출산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말을 듣고 그 충격에『복합오염』의 집필을 결심한다. 아리요시는 후기에서 '자신은 글쓰기의 목적으로 고발이나 경고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하기 시작했다'[15]고 밝힌다.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고, 사용금지가 불가하다면 사용량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이런 실질적인 지침에 해당하는 집필 취지를 항상 되새기며 집필의 각오를 다졌다. 이것이 소설에서 중요시 여기는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자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하는 참된 의도 또는 중심사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아리요시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재인 환경문제를 작품화하여 독자에게 현실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이는 작가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투쟁[16]'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설의 3요소 중 주제, 즉 테마를 적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Ⅳ. 소설로의 접목을 위한 융합

아리요시는『복합오염』만큼 재미와 흥미를 지향했던 작품은 없다[17]고 말했다. 이러한 집필의도에 맞게 뚜렷한 주7제의식에 부합하는 소설로의 융합 요소

14) 이희승 편저,『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p.3520.
15) 有吉佐和子,「あとがき」,『複合汚染』, 新潮文庫, 1979, p.610.
16) 山本七平 外,「主張の文学と有吉の死」,『諸君』, 1984. 11, p.3.
17) 有吉佐和子,『有吉佐和子』作家の自伝109,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p.172.

를 여러 곳에 포진시켰다.

이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작가는 10여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가졌고 300권이 넘는 관련 서적을 읽었으며 수십 명에 이르는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리요시는 이 많은 전문가와의 대담을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 주로 질문형식의 대화법을 채용하고 있다. 서사문학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작중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이다. 이 작품에서는 행동이라는 요소 또한 대화의 형식으로 흡수하고 수용한다. 대화는 어려운 전문내용을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가가 강구한 장치이다.

"마늘과 함께 심으면 어때요?"

"음, 어째서죠?"

"장미와 마늘을 같이 심으면 장미꽃의 향기도 좋아지고 벌레도 끼지 않는 대요. 야채밭에도 마늘과 부추를 함께 심으면 벌레가 잘 끼지 않고요. 이런 것을 컴패니언 플랜트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원예가들의 상식이지요."

(「ニンニクと一緒に植えたら、どうかしら」

「ほう、どうしてですか?」

「バラとニンニクをいっしょに植えると、バラの花の匂いがよくなって虫がつかないんです。野菜畑でも、ニンニクやニラと混植すると虫がつかないものが多いんです。コムパニオン·プランツ(共栄植物)といいましてね、ヨーロッパじゃ、昔から園芸家の方では常識なんですよ」) (p.248)

화자는 인터뷰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며 수용자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서구의 지식을 공유하는 발신자의 모습도 보인다. 이는 발전된 질문자, 곧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독자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저, 옛날에는 지구상에 물이 없었나요? 그럼 물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나요?"

"지구에 화산활동이 시작되면서 지표 아래 암석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물이 고열 때문에 따로 분리되면서 솟아 나온 겁니다."

"어머, 저 물이라는 것이 원래 암석이었단 말씀이군요."

"그렇죠, 결정수랄까 산염에 합쳐져 있던 수화수 등이 지구의 내부로부터 탄산가스나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청산가스 등과 함께 상당량의 수증기로서 분출되죠. 그것이 상공에서 식어서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비가 되어 땅 위에 내려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암석이 비로 변해 그 비가 바다를 만들었단 말인가요?"

"당시의 비는 유독물질성분의 비입니다."

(「あのオ、昔は地球に水がなかったんですか。すると何から水が生れたんでしょう」

「地球に火山活動が始って、地表を覆っている地殻の下にある岩石として存在していた水が、高熱のため遊離して噴き出したのです」

「あらまあ、水って、もとは岩だったんですか」

「ええ。結晶水とか、ケイ酸塩に結びついていた水和水などが、地球の内部から炭酸ガスや亜硫酸ガス、アンモニア、青酸ガスなどと一緒に、多量の水蒸気として噴出したのです。それが上空で冷えて水滴になって、つまり雨が地表へ降りそそいだのです」

(中略)

「ともかく岩が、雨になって、それで海になったんですね」

「当時の雨は、有毒物質の雨ですよ」) (pp.29-293)

물의 생성에 대한 지식을 대화 형식을 채용해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수질오염의 기조가 되는 유독물질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며 친숙하게 접근해가고 있다.

또, 이 작품에는 소설의 서사 구조적 원리라 일컫는 기본요소인 플롯[18]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갈등이라는 분쟁의 요소도, 초극 점에 다다르는 절정의 양상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소설이 질서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내면의식을 그리는 소설은 이러한 단계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고, 장편소설에서는 그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여 이러한 단계적 논리에 꼭 들어맞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복합오염』은 위의 두 경우가 아닌 실질적인 지식전달의 용이성을 위해 구성단계의 엄격성을 지키지 않는다. 곧 플롯의 정형화를 파괴하는 플롯해체주의의 흐름을 탄 작품이다. 일반적인 플롯의 형태에서 벗어남으로써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 했으며 동시에 질서의

18) 플롯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발단, 분규, 정점, 대단원의 4단계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나눠진다.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앞의 책, p.69)

개별화를 통해 구조의 특이성을 자아낸다는 점이 소설로의 접목 방법이라 하겠다.

이 젊은 부부가 농약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부인이 임신했을 때부터라고 한다. 원래 그들은 양돈업을 하였는데 기형돼지가 늘어갔다. 남편은 몹시 신경질적이 되었다. 병든 돼지도 늘고 그것을 돌보려고 하니 사람의 혈액에 돼지의 병원균이 섞이는 것 같았다. 그는 급히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다.

한 마리의 암퇘지로부터 1년에 두 번, 평균 스물네 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 기형돼지가 늘어나는 것은 양돈업자간의 공통된 걱정거리였다.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의 불안은 더해갔다. 신체 건강한 아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써의 당연한 염원이다. 그는 기형아가 태어날지도 모를 원인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농약을 안 쓰는 것이 첫째였다. 작년 여름 몸이 무거운 아내와 둘이서 그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뽑았다.

（この若夫婦が無農薬でやろうと決意したのは、奥さんが妊娠したときだった。本業が養豚業なので、御主人の方が神経質だった。豚に奇形が殖えている。病気の豚が殖えたその手当てをしていると、どうしても人間の血液に豚のがまじ病原菌ることがある。彼は早速、病院へ出かけて血液検査を受けた。結果は陽性だった。彼は青くなった。

一匹の牝豚から一年に二回、約二十匹の仔豚が生まれる。奇形の数が殖えているのは、養豚業者の間で囁かれている現実だ。奥さんのおなかが大きくなるにつれて、彼の不安は募った。五体健全な子供を望むのは、親ならば誰でも共通な願いだった。彼は懸命になって、奇形児が生れてくる原因は総て断つことを思いついた。それには、まず農薬をやめるのが第一歩だった。去年の夏、身重の奥さんと二人で、除草剤をまかずに草採りをした。） (p.159)

작품에는 유기농업을 고수하는 젊은 농부, 농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늙은 과수원 주인, 자연퇴비만을 먹이는 축산업자 등 여러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인물의 이야기를 삽화 형식으로 삽입했다.

“독을 사용한 벌로 병에 걸린 거니까 다시는 쓰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농가는 이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살충제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돼. 오랫동안 (살충제를)써온 벌이야. 견디는 수밖에 없어."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과수원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아니, 처음에는 내가 농사의 생리를 잘 몰라서 계속 실패를 봤어요. 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넣어주면 좋다고 다른 농민에게도 장려하며 풀이나 야채부스러기도 바로 흙에 묻어주었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오랫동안 몰랐어요. 소와 닭의 분뇨를 마구 흙에 파묻다보니 병충해가 더 심해진 경험도 했었지요. "
「毒を使うた罰で病気になったんやから、もう金輪際、毒は使わん」
と決意した農家で、翌年の果樹園にひどい被害が出た。
「お父さん、どないしよう、やっぱり殺虫剤は使うことにしませんか」
「ならん。長年毒を使うた罰なんや。自慢せないかん」
その翌年も、翌々年も、果樹園は稔らなかった。(中略)
「いや、最初の頃は私が不馴れでして失敗ばかりしていたんです。土を生き返らすために有機物を入れればいいと奨励して、青い草も、野菜の残りも、すぐ土に入れたんです。これが失敗の原因でしたが、長いこと分かりませんでした。牛糞、鶏糞、どんどん土へ入れて、却って病虫害がひどくなるといふ経験もしました。」 (p.299)

무수한 종류의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사람, 겨우 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 다시금 초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다. 작품 속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독자의 각성뿐만 아니라 그보다 원천인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힘쓴다.

소설이란 엄밀히 말해 작가에 의해 창조된 가공의 이야기이며, 허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픽션이란 말은 작가의 주관과 상상력의 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간다는 뜻이다.[19] 아리요시는 사회와 지구를 아우르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라 어려움이 산재했으나 가공세계라는 소설 장르의 긍정적인 요소를 다각도로 구성하여 풀어냈다. 평론가 오쿠노 또한 '종래의 소설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해도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문학자들의 혼이 넘칠 정도로 담긴 순수한 문학작품이며 후세에까지 남을 만큼 문학적 가치가 있다'[20]고 평했

19)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앞의 책, p.14.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진리와 선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철학보다는 문학이 효과적이며 그 이유는 문학이 철학보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찾는다.[21] 이런 문학의 기본 소임을 아리요시는 이 작품을 통해 되살렸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소설형식의 파괴는 소설로서의 새로운 시도이다. 따라서 실험정신을 가미해 환경오염이라는 절실한 키워드를 각인시키려한 작가만의 획기적 방식이란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변형된 소설작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 '재미'를 중시하는 작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하겠다.

Ⅴ.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복합오염』의 특수한 전개방식을 소설의 기본요소를 통해 살펴보고 새로운 형식의 소설로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와 그 효과를 고찰했다.

이 작품은 비소설적 요소로 인해 일면 환경리포트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소설의 3요소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소설적인 요소로, 과학 전문잡지에 나올 법한 전문용어의 대두, 서술자가 독자에게 모르는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설명문식 글쓰기와 독자의 꾸준한 관심 유지를 위한 인터뷰 등의 대화 채용, 그리고 환경오염의 심각성 전달을 위한 도표와 숫자가 기재된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런 특이성으로 인해 기형소설이라고 명명하며 순문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평자도 있었으나 이는 독자를 작품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는 작가의 의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합오염』은 일반인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환경문학이며 그 중에서도 기록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업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러 나라를 향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설파했다는 점에 계몽소설이라고도

---

20) 奥野健男,「解説」,『複合汚染』, 新潮文庫, 1979, p.616.

21)『시의 옹호(Apology for Poetry)』에서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선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철학보다는 문학이 좀 더 효과적이라 했고 그 까닭을 철학과는 달리 문학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데에게 찾는다. (김욱동,『〈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p.178)

하겠다. 이렇게 소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작품의 기조에 비소설적인 요소의 나열만이 아니라 본고의 분석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주제, 구성, 문체라는 소설의 3요소가 유연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사상, 그리고 해체주의를 적용한 구성, 그리고 서술자의 의도를 충실히 담아낸 문체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독자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소설의 변이를 꾀한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글쓰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이라는 주제를 택한 만큼 장애요소도 많았을 테지만 작가는 가공세계라는 소설 장르의 긍정적인 요소를 다각도로 활용하며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 따라서 작가의 통합에 가까운 변형된 소설작법은 발표 당시의 소설 파괴라는 해석과는 달리 미래지향적 융합의 글쓰기였음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参考文献>

・텍스트 : 有吉佐和子,『複合汚染』(有吉佐和子選集 第二期 ⑫), 新潮社, 1978, p.91, 94, 113, 139, 140, 159, 173, 174, 292, 293, 299, 248, 337, 338, 357

김욱동,『<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p.178
김재호,『레이첼 카슨과 침묵의 봄』, 살림출판사, 2009, pp.1-96
연점숙,「레이첼 카슨의 '소란한'『침묵의 봄』」,『문학과 환경』, 문학과환경학회, 2003, p.101
吳敬子,「有吉佐和子『複合汚染』연구」,『日本学報』vol.38, 한국일본학회, 1997, 5, p.205
이상옥,「소설의 이론- 그 장르의 개념 정립을 위한 試論」,『省谷論叢』10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79, p.345
이희승 편저,『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p.3520
한국현대소설학회 편,『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p.14, 69, 96
후쿠나가 다케히코 저, 간복균· 이창탁 공역,『20세기 소설론』, 한글, 1988, p.161

有吉佐和子,『有吉佐和子』(作家の自伝109),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p.172, 202
_____,『複合汚染 その後』, 潮出版社, 1977, p.35
_____,『複合汚染』, 新潮文庫, 1979, p.610
井上謙, 半田美永, 宮内淳子 編,『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2004, p.64
伊吹和子,『めぐり逢った作家たち,』, 平凡社, 2009, p.162

奥野健男,「解説」『複合汚染』, 新潮文庫, 1979, p.615
関川夏央,『女流– 林芙美子と有吉佐和子』, 集英社、2006, p.212
有吉佐和子,「『複合汚染』引用騒ぎにみる有吉さんと公害学者の言い分」,『週刊 ポスト』, 小学館, 1975.6, p.44
篠田一士,「有吉佐和子・人と文學-- 「香華」から 「和宮様御留」へ 」,『群像』, 講談社, 1984. 11, p.182
西原町,「R.Carson『沈黙の春』と有吉佐和子『複合汚染』にみられる化学物質の生態への影響」,『文学と環境』9, 文学・環境学会, 2006.9, p.48
日高昭二,「状況への架橋として--有吉佐和子と倉橋由美子」,『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學燈社, 1980.12, p.104
山本七平 外,「主張の文学と有吉の死」,『諸君』, 1984. 11, p.3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有吉佐和子『複合汚染』の形式的変異

金聖恩

『複合汚染』は、有吉佐和子の社会問題を4扱った、いわゆる「社会派小説」の中の代表作と言われ、新聞連載当時は、特異な小説作法を使用した奇形小説で、環境レポートに過ぎないという酷評もあった。本稿では、破格的な執筆方法(or書法)が真の小説に生まれ変わるためにどのような小説の要素を適用したのか、その意味を把握することが研究の目的である。研究の基準としてノンフィクションとフィクション的な要素に分け、できるだけ客観化して分析しながら、時代をリードした新しい形式の破壊小説という側面から、作家の意図とその効果を考察した。

この作品は、科学の専門雑誌に出てくるような専門用語が飛び交う、一般的な小説では排除される要素が存在する。そこで、読者にとって難解な情報を最大限客観的に分かりやすく伝える説明文のような書法を採用し、多くの図表と数字が記載されたデータが登場している。変異とも言える特異性によりこの小説は、奇形小説と命名され、小説として受け入れない評者もいたが、これらは読者を作品の中に引き込もうとする作家の意図であることが把握できた。

この研究を通じて、『複合汚染』は、一般の人々の環境意識を鼓吹させた点から、環境文学で記録小説であり、工業化と産業化の副作用に悩まされているすべての国へ環境問題の深刻さを説いたという点では啓発的小説であることを認知することができた。

この作品は、作家が主張する中心思想で解体主義を適用した構成、そして作家の意図を忠実に表現した文体まで網羅しているという点から、主題、構成、文体という「小説の3つの要素」を柔軟に反映していると言えよう。著者は、全世界を脅かす環境問題という巨大な社会問題をテーマとして扱っただけに、散在している障害物を加工世界という小説ジャンルの肯定的な要素で克服し、真の小説を誕生させた。作家の統合に近い変形小説の作法は、作品が発表された当時の小説破壊という解釈とは異なり、未来志向の融合の書法であった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点で、研究の意義があると言える。

<Abstract>

A Study for variation of form focused on "Complex pollution" by Sawako Ariyoshi

Kim, Sung-Eun

"Complex pollution" of Sawako Ariyoshi is called as a masterpiece novel of social conscience novel. But when it was serialized, there were severe criticism that it is an odd writing and just a report on the environment. In this article, I tried to understand what kind of elements were applied for a preposterous writing to be a true novel. As a research criterion, we divide it into non-fiction and fictional elements and examine them as objectively as possible and examined the intention and effect of the writer in terms of form destruction novel.

This work adopts the explanation notes which are not normally used in the general novel, and also the jargons which come out in the scientific journals are rampant and the information which is not known to the reader is conveyed as objectively as possible to the utmost, and the data in which many charts and numerical data are appeared. Because of the peculiarity of these novels, some readers called this work the deformed novel and did not accept them as fiction, but I could feel that the writer wanted readers to be able to grasp the intention of this work.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it is recognized that "complex pollution" promotes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to the public. It is environmental literature and record novel. It is an enlightenment novel in that it has touche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all countries suffering from the sid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This work flexibly reflects the three elements of the novel: the theme, composition, and style in that the artist has a main idea, a composition based on deconstructionism, and a style that perfectly fills the intention of the descriptor.

The peculiar way of writers, which is close to the artist 's integration, was recognized as a future - oriented fusion of writing, unlike the interpretation of novel destruction at the time of the presentation.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177－199쪽 10.15733/jast.2017..72.177

『계간 삼천리』연구*
－「우키시마마루호 폭침」기사를 중심으로 －

김 용 안**

< 目 次 >

Ⅰ. 머리말
Ⅱ. 공공저널리즘과 탐색기사
Ⅲ. 증언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성
Ⅳ. 함구 이면의 상징
Ⅴ. 맺음말

Key Words : シミュレーション(Simulation), 残酷史(Cruel history), 公共ジャナリズム(Public-Journalism), 裏面(Back side), 象徴(A Symbolan Emblem)

Ⅰ. 머리말

『계간 삼천리』((12호・1977)에 게재된「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폭침사건」은 광기의 정치가 야기하는 인류 잔혹사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등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1945년 8월 22일, 3,726명을 태우고 오오미나토(大湊)항구를 출항한 이 배는 출항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항해루트나 침몰 과정이 온통 미스터리인 채 마이즈루(舞鶴)항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끝내는 조선인 524명이 그대로 수장되었다. 더구나 수장된 사체는 5년 동안이나 그대로 바다 속에 방치되었다가 그나마이 배의 고철이용가치가 고려된 덕분에 인양되어 시체처리가 되었다[1]는 것이 사건 전말이다.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제2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한양여자대학교, 일본어 통번역(학)과, 교수, 일본근대문학.
1) 이것도 어디까지나 당국의 발표이기에 100% 신빙성은 담보되지 않은 자료이다.

표면상의 목적은 조선인 송환이었지만 이 기사에서는 송환이라기보다는 쓰레기처럼 바다 속으로 투기해버린 혐의가 강하다.

역사의 이면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을 이 천인공노할 만행은 다행히 공공저널리즘과 탐사저널리즘[2]적인 성격이 태동하고 있었던 덕택에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활자화시킨『계간 삼천리』로 인해 재조명이나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다룬 NHK방송[3]은 일회성으로 그쳤으며 그 리포터의 기록을 그대로 실은『계간 삼천리』는 이미 폐간된 지 30년이 흘렀다. 일본인 PD도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것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풍화되는 것을 걱정하였거니와 지금 본고를 쓰는 시점은 그로부터 또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이지만 이렇듯 언제든지 논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활자화되어『계간 삼천리』에 실린 덕분이다.

본고의 목적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이 보도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매장된 많은 잔혹사를 철저히 밝혀내고[4] 이를 철저하게 규명해나가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일외교 에서도

---

2) 공공・탐사 저널리즘이 운동으로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미국에서의 일이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런 성격의 저널리즘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3) 이 사건은 조선신보가 1965년 9월24일 보도한 것을 필두로 NHK가 1977년 8월13일에 45분짜리 다큐멘터리「폭침(爆沈)」을 방영한데 이어 1977년 8월 24일에 우키시마마루 희생자 추모동상 제막식, 뒤이어 1996년 8월에는 한국 KBS가 다큐멘터리「우키시마마루 사건」을 방영한 바 있다. 재판은 1992년 8월 25일 교토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후, 제1심에서는 부분 승소, 제2심에서는 패소, 제3심에서는 완전 패소했다. 1995년 8월에는「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 50주년 평양국제토론회」, 2015년 8월에는「우키시마마루 70주년 평양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영화는 일본에서「에이지언 블루」, 북한에서는「살아있는 영혼들」,한국에서는 뮤지컬「시마마루 폭침사건」으로 무대에 올랐고 가곡, 연극 만화 다수가 있다. 영혼은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에 마구잡이로 합사됨. 동경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은 결성 당시부터 우텐사(祐天寺) 유골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2004년 12월 11일 일본에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합동 추도회를 우텐사에서, 12일에는 〈우텐사 유골에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한다〉는 테마의 심포지움을 일본교육회관에서 열었다. (출처:http://blog.goo.ne.jp/nicchokyokai-honbu/e/7ce93628122e20e38fc373cc86119fd9)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손쉽게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계간 삼천리』가 유일하다는 점에 존재가치가 절대적이며 활자화의 의의는 실로 크다.

4) 식민지의 치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낱낱이 파헤친 백서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위안부 협상을 비롯한 한일 현안에 대해 든든한 우군이 될 터인데 우리는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이것은 본고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공저널리즘과 탐색기사

『계간 삼천리』의 「우키시마마루 호의 폭침」기사는 <공공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실천방법으로서는 <탐색기사> 성격이 강하다. 이는 늘 청산 대상으로 지적되어온 젤리저널리즘과 방화적 저널리즘과 대비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언론 또는 비위에 맞는 말만한다는 뜻의 젤리 저널리즘이라는 자학적인 비유가 나온 것이 그 때문이었다.[5]

(나) 워싱턴 포스트의 벤 브래들리(Ben Bredlee)는 타블로이드 신문과 텔레비전에 의한 흥미위주의 선동적인 보도행태를 방화적 저널리즘이라 꼬집고 있다. "그들은 무엇이 왜 타고 있는지를 떠나서 연기가 나는 곳이면 아무데고 기름을 붓는다. 그 때문에 불이 커진다면 그것은 방화이지 저널리즘은 아니다"라는 것이 브래들리의 관찰이다.[6]

위 인용은 기존 저널리즘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병폐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 해악의 작태들이다. 이런 저널리즘에서는 공공을 배려하거나 소비자를 참여시키려는 의도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계간 삼천리』는 태생목적이나 존재이유나 정체성 등 모두가 공공저널리즘 그 자체이며 일관되게 독자들에게 사태 바로 보기나 비전을 제시하고 숙의케 하는 시도를 많이 해왔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언론학자로서 공공저널리즘에 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온 프리드랜드(Lewis A.Friedland)교수는 "공공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들이 유용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숙의(熟議)를 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게 하는

그 널려있는 카드를 이용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계간 삼천리』12호에만도 피식민지인인 조선인이 전쟁범죄자로 처형당하는 등 동포의 어처구니없는 희생의 역사는 많다.

5) 조용중(1999) 「휘청거리는 제4부」『저널리즘과 권력』나남 출판. p.16.

6) 상게서 p.41.

> 것이라고 보았다." (중략) 미주리대학의 람베스(Edmund Lambeth)교수는 "공공저널리즘은 체계적으로 듣는 과정이며 공공이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 숙의를 촉진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7]

공공저널리즘의 요체가 시민들에게 숙의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을 알 수 있다. 우키시마마루 호의 침몰 기사는 그 배의 침몰이라는 팩트만 남긴 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시민, 즉 독자들에게 숙고하도록 한 것은 언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한 것이며 공공저널리즘의 자세를 명쾌하게 구현한 것이다.

안병길은

> 공공저널리즘은 당위론적인 언론인 역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며 언론인은 첫째 사람들을 희생자나 관객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시민 및 공공 문제에 관한 참여자로 대접하고 둘째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셋째 공공토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넷째 시민들의 공공생활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8]

며 언론이 시민의 공공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기존 저널리즘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공공저널리즘의 획기적인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다.

공공저널리즘의 근간이 존재이유가 되고 있는『계간 삼천리』는 다른 기사들도 대부분 이런 성격을 견지하고 있지만 특히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기사는 독자를 단순한 관객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슈를 제공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케 하고 수면 위로 부상케 하는 내용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

> 패전 후 33년이 지나고 민중 속에서의「전쟁체험의 풍화」가 새삼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후세대가 국민의 반수이상이고 직접적인 전쟁체험을 갖고 있지 않은

---

7) 재인용. • 안병길(2015)「공공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공공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북스 pp.24-25.
8) 상게서 pp.21-54.

채 역사로서밖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풍화」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과연 민중일까? 오히려 체험을 기록하고 전해가는 수단을 위임받은 매스컴이 아닐까?[9]

언론이 경비견 역할 뿐만 아니라 안내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공저널리즘이 영향을 발휘하는 상황 하에서 위 인용의 기사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과 45분짜리 방송에 불과하지만 저널리즘의 바른 철학을 갖고 있는 필자가 제작한 내용은 그 전개에 따라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뇌관이기 때문이다.

가) 전통 저널리즘에서는 객관성・정확성・공정성・신뢰성 등을 언론이 공중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중요시 한다. 그러나 공공 저널리즘에서는 이와는 다른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저널리즘에서는 민주주의・커뮤니티・시민정신・숙의・공공생활 등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높이 평가한다.[10]

나) 매년 8월이 돌아 올 때마다 우리들은 피폭체험을 정점으로 다양한 특집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전쟁이 동시에 가해자로서의 전쟁이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굳이 상처의 딱지를 떼어서라도 이미 아물어버린 아픔을 들춰내어야 하는 일이 전쟁이 무엇이었던가를 정확히 전달해가는 기본자세인 것이다. (p.116)

위의 증언이 정확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미디어의 길의 단순한 답습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입장에서 벗어나 가해자 입장으로서도 생각해야하고 내부에 품고 있는 아픔을 굳이 찾아서 들춰내야한다는 필자의 언설은 커뮤니티와 시민정신과 숙의케 하는 요소를 두루 담고 있어 이 역시 공공저널리즘의 전형적인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공공저널리즘이 매체가 새롭게 지향하는 목표이자 지침이라 한다면 탐색적인 기사는 그것의 실현방법으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

9) 『季刊　三千里』 12号(1975) 三千里社, p.124(이하 텍스트는 페이지만 기입)
10) 전게서 p.34.

> 탐사보도는 기존의 객관주의 보도태도에서 탈피하고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추적하여 보도하려는 언론운동이라는 점에서 공공저널리즘과 일맥상통한다. 탐사보도는 지도층이나 정치인 등의 비리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을 추적하여 보도한다.(중략) 탐사보도는 언론과 시민간의 관계모색이 아니라 언론의 사회비판과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도양식을 개선하거나 변형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11]

광기의 역사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청산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거대한 음모를 추적하여 까발리지 않으면 흑의 역사도 무화시킬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 뒤에 가려진 본 사건은 탐사보도만이 유일한 선택지이다.

탐사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언론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언론의 취재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울만(John Ullmann)과 허니맨(Steve Honeyma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감추고 싶어 하는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는 행위이다. 탐사저널리즘의 세 요소는 다음과 같다. 탐사는 다른 사람의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기자 자신의 조사 결과여야 한다. 기사의 주제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중요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그 문제를 대중으로부터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야 한다.[12]

탐사보도라는 형태에 대한 기존 담론들을 살펴보면 “탐사보도는 범인(凡人)들을 대신하여 알 권리, 탐구할 권리,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민의 권리의 지킴이로서의 명예가 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체계나 구조적 모순과 싸우는 일에 성공가능성은 희박한데다가 축적된 지식과 집요한 결단력으로 뒷받침되는 편집광적 조사로 인하여 기자들은 고위험인물이라는 난처한 별명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들의 면밀함과 능력을 기자로서의 테크닉과 관습에 적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종의 신화와 같은 일로 일 자체는 기자로서는 한번쯤은 도전해볼만한 일임에 틀림없다.[13]”라고 요약할 수 있다.

---

11) 전게서 pp.34-35.
12) Tony Harcup지음(2012) 황태식 옮김『저널리즘 원리와 실제』명인문화사 p.113.
13) 상게서 pp.113-119.

> 조선인, 패전, 반란, 해군, 부산 폭침, 패전 직후, 어째서 이토록 많은 조선인이 해군 함정에 태워진 것일까, 어째서 마이즈루에서 침몰한 것일까, 강제 연행, 강제 송환 증거 인멸,----몇 개인가의 말이 떠오르고 긴장이 꺼질 줄 모르고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우키시마마루의 수수께끼에 쌓인 취재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p.118)

취재여행의 동기가 탐사보도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0년 동안이나 버려진 데다가 서서히 풍화되고 잊혀져 가는 팩트, 게다가 침략국 일본이 시도했을 증거인멸의 거대한 흑막, 더구나 수수께끼투성이인 미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형국 앞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NHK의 다큐 PD의 고백은 탐사보도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를, 몇 개인가의 떠오르는 말의 실체를 밝히지 않은 자세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읽어낼 수 있다.

게다가 PD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열정도 열정이지만 NHK가 갖고 있던 공영방송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상황이란 도움이 없었다면 그나마 보도화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 이러한 NHK의 변질에는 과거 NHK 간부나 OB사이에도 비판과 우려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NHK내부에 정치개입이나 자주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부 가운데에도 일정한 저널리즘 감각이나 양식이 남아 있어서 권력과 타협하면서도 최후의 보루는 지킨다는 기풍이 여전히 있었다. 「사자의 시대(1980)」나 NHK특집 「교과서는 이렇게 제작된다.---밀실의 편찬(1982)」NHK스페셜 「조사보고・지구핵 오염(1995)」으로 대표되는 의욕작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자유로운 직장환경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 특히 보도 프로그램이나 뉴스 영역에서는 저널리즘의식의 후퇴가 두드러진다.[14]

비교적 공정한 방송으로 통하는 NHK마저도 공공 저널리즘이 작동했던 과거의 향수를 추억할 만큼 정치계의 간섭은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위의 인용은 이를 확연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현대에서 위 인용은 이런 시대조류와 역행하고 있는 NHK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상기의 인용은 이 보도가 70년대였기에

14) 松田浩(2005)「지금 왜 NHK인가」『NHK-도마에 오른 공영방송-』岩波新書 p.10.

가능할 수 있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현대보다는 70년대부터 90년대의 NHK에 오히려 저널리즘 역할이나 언론인적인 사명이 있었기에 본 프로그램이 그나마 존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언설이다.

> 특히 왕년의 미스터 NHK인 이소무라 나오토쿠(磯村尚徳)가 일본미디어는 완전히 미국에 세뇌된 자동세뇌기라는 평이 있을 정도라며 일본의 미디어 상황을 비아냥댔다. (중략) 문제는 이런 NHK에서 최근에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거나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자세에 의문을 품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5)

방송언론이 그 자체의 존재근거를 상실한 채 자동세뇌기의 역할에 그치거나 저널리즘의 자세가 의심받는 현재 일본 공영방송의 초라한 몰골을 증언하는 언설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대목이며『계간 삼천리』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는 상황이기도 하다.

Ⅲ. 증언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성

긍정적인 외적 환경(NHK)과 내부(PD)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우키시마마루호의 사건을 다룬 본 기사는 확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대신 기본적으로 탐사기사로서의 뉴스적 가치가 담보된 값진 증언들을 모아 시뮬레이션으로 완성해내고 있다. 이는 군국주의의 잔재와 제국주의 망상의 잔존으로 확정적인 증거획득에는 실패했던 점과 탐사기자로서 취재 중에 얻은 확신은 담고 싶은 점의 기묘한 절충이었다.

PD는 이 사태를 하나의 사건으로 요약하는 데 필요한 수순으로 몇 개의 단계적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루머, 사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 발생당시의 정치상황과 그것의 무모함 그리고 희생조선인에 대한 애틋한 동정 등이 그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사건은 윤곽이 어렴풋하나마 그 전모가 드러난다. 그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우선 사건 발생 전의 루머이다. 우키시마마루 호는 출항 전부터 자폭할 것이

15) 전게서 p.15.

라는 루머가 난무했다.

> 이상한 소문이 있으니 승선을 하지 않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귀국의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안에서의 저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묘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령부의 강제 출항의 진의가 누설된 것인가.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p.120)

원래 루머라는 것이 근거가 전무한 곳에서 태생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사실과 항상 연루되는 그것의 생태를 감안한다면 끊임없이 소문이 소문을 낳는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의 경우에도 소문에 진실이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회사의 호출로 징용자와의 함께 승선을 명받았기에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라고 질문했더니 마이즈루까지 가 달라고 했다. 일본통운 마이즈루 지점에 징용공을 건넬 계획이었다. 준비를 위해서 집에 들렀더니 경찰관이었던 형이 와서 우키시마마루에 자폭장치가 되어 있는듯하니 승선하지 말라고 했다. 농담이라며 흘려듣고 탔더니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중략) 농업회에 얼굴을 내밀자 모두가 수군수군 댔다. 우키시마마루는 조선인을 태우고 출항한 뒤 니이가타(新潟)앞 바다에서 폭침된다는 것이었다. (p.120)

출항 전 흉흉한 소문이 난무했는데도 승선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루머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고의적인 폭침가능성이 농후한 이 사건이 얼마나 전대미문의 극악무도한 사건이며 잔악한 범죄인지 추측이 가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출항의 이유이다. 출항의 순간은 일본전체가 패전으로 동요하던 때로 출항의 목적이나 과정마저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이미 1923년 동경대지진 발생 직후 조선인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주살하거나 뒤집어씌우기 식 책임전가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치안유지를 꾀한 바 있던 일본의 지배계급은 패전 후의 정치 공백상태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조선인집단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폐기해버리고 싶은 관념이 지배하고 있을 터였다.

> 오미나토 경비부는 폭동을 두려워하여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선인을 강제 송환하려던 실태가 부상되었다. 우키시마마루가 마이즈루를 향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함장의 말로도 기관장의 증언으로도 거짓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이라 한다면 각각의 의지가 폭침이었고 결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결론밖에 도출할 수가 없다. (p.122)

패전 직전에는 일손이 달려서 조선인을 일손으로 대거 징집했지만 패전 후에는 조선인들이 일손이 아니라 거대의 폭력집단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동대지진 시 터득한 크게 잘못된 그들의 학습효과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요시다(吉田)는 정치적인 공포에 대해서

> 공포는 물리적인 결핍이나 폭력만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부풀어간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국가든 레벨에 관계없이 문제의 대소를 떠나 공포는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상시화 한다. 문제는 공포가 편재되고 그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16]

라며 현존하는 공포에는 상상력까지 가세하여 눈덩이처럼 부풀고 보편적으로 존재화하며 상시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우키시마마루 호의 침몰은 바로 일부 정치가의 허무맹랑한 망상이 야기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였던 것이다.

> 오미나토에 조선인이 있으면 폭동을 일으킬 터이니 곧장 송환시키라는 것이 사령부의 명령이었다. (중략) 참모는 군도를 뽑아들고 찌를 기세를 보이면서 새삼 천황의 명령을 전하고 출항을 통고했다. 8월 22일 밤 10시 우키시마마루는 어쩔 수 없이 닻을 올렸다. 매우 이상한 출항이었다. 패전 후 8일째라면 각지에서 이미 귀대가 시작되었다. 지도명령계통은 마비되고 연합군진주 소문이 도처에서 난무하고 일본전체가 완전히 동요하던 시대였다. (p.119)

지도명령계통이 마비된 가운데서도 몇몇 참모들의 광기적 망상만으로 가동되던 권력에 의한 이상한 출항으로 이어졌다는 언설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상황

16) 吉田徹(2014)「恐怖はどこからやってくるのか」『感情の政治学』, 講談社 pp.190-191.

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치적 패닉 상태였다는 것이다.

> 8월 15일은 오미나토 경비부의 패닉상태가 야기되었다. 게다가 북쪽의 여러 섬에서는 1주일 전에 참전한 소련과의 전투가 계속되었다.(중략)패전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경비부 특히 사령부가 어떤 심경으로 내몰렸는가.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암울한 사태에 직면하여 상당한 동요가 엄습해왔으리라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p.121)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불확실한 가운데 몇몇 참모들의 망상으로 부풀어진 공포를 덜기위한 수단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의 생명을 투기했던 것으로 요약되는 우키시마마루의 폭침 사건은 그 잔악함이 난징학살 등에 버금가는 역사적 중죄[17]이다.

그리고 당시의 무모함은 위 상황에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 「우리들은 애시당초에 조선에 갈 생각은 없었다.」──새로운 증언이다. (p.122)

고의적인 자폭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정적 증언이다. 그러면서 PD는 이 증언을 뒷받침할 다른 증언도 함께 제시하며 자폭의 리얼리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그리고 8월15일 현재 오미나토 경비부의 디젤엔진용 연료 비축이 제로였던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당시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덧붙였다.(중략)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좌우지간 사령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배를 움직이기로 했다. 항해장과 상담하여 도중에 엔진이라든가 키를 부숴버리기로 했다.(중략) 물론 조선인에게는 비밀이었다. (p.122)

조선인의 귀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령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출항이었던 데다가 연료비축이 제로였다는 사실의 무모함이 가히 가미카제특공대 수준이다. 사령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조선인은 바다에

---

17) 몇몇 참모들의 편집증적인 공포를 달래기 위한 대량학살은 아우슈비츠의 학살 등을 연상케 한다. 본 사건은 그 규모나 악랄한 수법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버린 대표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해버릴 쓰레기 정도로 치부했던 것이다. 다음 증언은 이 사실을 더욱 실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우키시마마루의 사관가운데에는 직업군인은 한사람도 없었다. 붉은 종이 한 장으로 전쟁에 휘말려 겨우 살아남은 자들뿐이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일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상황으로 도망칠 궁리만 했다. 조선인을 조선에 무사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 하는 판단이 끼어들 여지는 당시의 우키시마마루의 승조원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것이 알려졌다. 따라서 노자와씨는 발을 잃은 현재의 상태가 되고 보면 기관을 부숴버리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p.122)

라는 위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조원들은 조선인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전쟁에 끌려가서 도망만을 꿈꾸던 사람들이었다. 결국에는 사령부의 강제 출항의 진의가 누설된 것인지 출항 전과 출항 후에도 소문이 난무했다는 사실도 이 배가 자폭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야기이다.

> 대해령을 받은 오미나토 경비부는 22일 부산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선인을 태운 우키시마마루를 출항시킨 것이다. 8월24일 마이즈루 만에서 일어난 우키시마마루의 폭침은 자폭인지 기뢰에 의한 폭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양작업 중 단 한번도 침몰의 원인이 구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황이 밝혀짐에 따라 의문은 커질 뿐이었다. (p.124)

사건을 일으킨 주범격인 오미나토 경비부가 부산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항시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인양작업 중에도 침몰의 원인을 구명하지 않았던 것은 만행의 역사까지도 성형해낼 수 있다는 것이며 수백 명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나 조선 측의 노력이 전무 했던 점이 유독 행간으로 강하게 읽히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 마이즈루까지의 우키시마마루의 행적을 파악한 지금 과연 후생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어떤지 솔직하게 기뢰를 건드렸던 설을 납득할 수가 없어졌다. (p.124)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 3개월 취재결과를 정리해서 45분짜리의 다큐멘터리 「폭침」이 방송되었다. 전쟁이 어떻게 인간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는가? 역사의 안개 속에 떠올리게 한 것은 실로 작은 부분이다. 진상은 오히려 앞으로의 취재에 좌우되게 되었다.
>
> (p.124)(스가야 코오지菅谷耕次・NHK교양부 디렉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맺은 결론치고는 단호하다. 그만큼 취재의 과정에서 담당 PD가 이 사건의 시뮬레이션에 확신을 가졌다는 반증이다. 그러면서도 몇몇 함구하는 증언들에서 오는 한계를 상징이나 여백으로 처리하며 이 기사에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Ⅳ. 함구 이면의 상징

PD는 무게 있는 증언을 통해서 우키시마마루호 침몰에 관한 대강의 시뮬레이션은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그로서 한계였던 것은 증언의 요청에 대한 연이은 함구였다. 결국 PD는 이 상황에서 필자가 정작 해야 할 절실한 제언이나 묵직한 결론은 여백으로 남겨 독자를 숙의케 하는 기사로 만들었다. 국가의 존재양식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가해자와 피해자, 적극적인 개입과 비 존재적 무개입이란 대비를 통해서 숨은 결론으로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패전 시에는 권력의 일시적인 공백상태에서도 막무가내의 명령은 존재하고 있었고 30년이 지난 1975년까지도 국가가 자신의 비위사실이나 비밀을 굳건하게 은폐 또는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방위청과 과거 함장들의 증언의 공고함으로 밝혀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한편으로는 수백 명의 자국양민이 영문도 모른 채 바다에 수장된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변변히 문제제기하나 못하는 데 바로 이것이 한국이나 북조선의 존재양식이다. PD는 일본인으로서 일본만을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를 읽는 동안 끊임없이 피해당사국의 무반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PD의 글쓰기의 노련함에서 기인하는 효과로 파악된다. 때론 언급보다 생략이 훨씬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 직접 출항을 지휘한 시미즈 소좌가 어째서 폭침을 몰랐는가? 아무리 물어봐도 정말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중략) 그렇다면 계획을 명령한 것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도 시미즈 소좌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 아무런 대답도 끌어낼 수가 없었다. 물론 오미나토에서 들은 기묘한 소문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 (pp.121-122)

무 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기묘한 소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부정하는 이면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 거대한 음모에 대한 집요한 은폐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철저한 규율이 재갈을 물린듯 대답은 천편일률적이다.

> 해군관계의 전후 처리는 현재 후생성 인양 원호국 업무 2과가 담당이다. 나의 문의에 대해 담당관은 32년 전의 해군발표와 똑같은 취지를 말하면서 유감이지만 자료는 일체 없다는 답변이었다. (p.117)

담당관의 녹음기 같은 응대는 음모를 콘크리트처럼 봉인하고 굳혀버린 은폐를 상징한다. 이것은 세월을 초월한다.

> 그러나 나가타 참모는 완고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친 취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전후 30년이 지난 지금 진상을 말할 수 있는 자는 나가타 참모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전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p.117)

이 사건은 결정적인 비밀이 풀려갈 듯하다 가는 곧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들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대한 무책임으로 흘러든다. 다급하게 봉인해 버린 비밀은 후생성의 앵무새 같은 반복이나 완고하게 다물고 있는 참모의 입이나 외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소이다.

이것을 깨부수는 돌파가 저널리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묘사의 반복은 행간의 이면을 갖고 있다. 바로 피해당사자인 국가의 개입이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화법이다. PD는 이 사건을 박제화된 미스터리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은유하고 암묵 속에 가동되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와 은폐된 일본의 국체의 또 다른 모습을 환유하고 저널리즘으로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뼈저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전모는 그대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잔재가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은 일본의 현 국체와도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식의 독특한 입헌군주제가 갖고 있는 취약함이 바로 그것인데 요시다(吉田)는 마루야마(丸山)의 의견을 예로 들며

> 천황주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동되는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서 검토해보면 천황의 의지를 주위의 중신들이 헤아려 조언해서 구체화해가는 보필이라는 구조가 취해지고 있고 천황개인에게 결정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어느 누구의 책임도 귀착되지 않게 되어 있다. 집단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마루야마는 오히려 그것이 「거대한 무책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다. 책임의 소재가 애매한 채 권위가 거대화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민은 무조건, 무한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드러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이러한 체제의 결과로 전전 쇼와기, 군부의 폭주,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패배 등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마루야마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18]

거대한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형태가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패배로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관념은 그것이 근거 없는 것일 때 무서운 폭거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이 같은 상황을 은유한다.

일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추적이나 규명은커녕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나 민족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민족에게 이런 문제의 추적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는가? 이것을 한국이나 조선의 방송보다 먼저 일본의 방송이 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도, 절실한 문제를 거들떠보지

18) 吉田傑俊(2013)「戦後思想としての丸山真男問題」『丸山真男と戦後思想』大月書店, pp.212-213.

도 않은 채 집단적인 망각에 빠져있는 작태에 대해서도 이 기사는 한마디도 안했지만 오히려 기사전체에서 풍겨나는 분위기는 그에 대한 회의나 힐난이상이다. 이것이 바로 이 기사가 갖고 있는 은유와 생략의 힘이다.

국가 관념 하에 철저하게 개입하고 나서는 가해자 일본의 지나친 함구와 이에 대해 미동의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한국의 함구는 같은 함구이면서도 어감이나 파장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와이크스(Maggie Wykes)는 "뉴스 구성이 사실들을 표현하는 동시에 수용자들을 위해 해석의 틀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19]고 했는데 본건의 기사는 바로 수용자들의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 기사는 "세상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표현한 것(상게서 p.49)"이라는 엔들레라(Nkosi Ndlela)의 주장과 부합하는 동시에 리프먼은 "기삿거리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선별하고 밝히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프리즘'을 통해 조명한 구성의 한 형태(Watson)(상게서 p.51)"라고 지적한 것처럼 본 기사는 공영방송이라는 '문화적 프리즘'을 거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난 것을 보면 일본인들의 희생자도 발생하였으니 공영방송으로서 한번쯤은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선심성 배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담당 PD는 오히려 뉴스를 생산하는 방식[20]으로 가해자인 일본의 태도를 은연중에 비판하면서 피해국가의 부재를 은근히 부각시킨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어이없이 죽어간 조선인들이었으며 그 속에 묘사한 조선인은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무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숨겨진 음모는 모른 채 다만 고향이 그리워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수동적이고 온순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어 애틋함은 배가된다.

가) 조선인에게는 배급이 끊긴다는 소식도 귀국선은 우키시마마루가 처음이자

19) 전게서 p.51.

20) "언론인들은 뉴스를 보도하기보다는 뉴스를 생산한다. (중략) 언론인들은 흔히 그런 틀 안에서 또는 재구성된 오랜 신화나 '집단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기삿거리를 구성한다. 뉴스는 바깥에 있지 않으며, 기자들은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뉴스를 생산한다. 그들은 뉴스를 구성하고, 사실을 구성하며 서술내용을 구성하고 사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문맥을 구성한다. 그들은 '하나의'사실을 재구성한다."필립스(Phillips)(상게서 p.50)

마지막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래도 모두 조용히 노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 우키시마마루 호 안에서는 사령부와 승조원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조차 모른 채 조선인은 조국에 대한 꿈을 그리며 승선허가를 애타게 그리고 있었던 것일까? 시모키타(下北) 반도의 레이죠(霊場)・오소레야마(恐山) 산허리가 수많은 군사도로 깎여지고 가바야마(樺山) 비행장이나 오오마(大間) 철도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고요함이었다고 한다.

다) 일조우호협회 마이즈루 지부장 와다(和田)씨가 할머니 한분을 소개해주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서붕아 할머니는 75세이다. 서씨는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출신이었는데 폭침 이후에는 배가 무서워서 조국에도 귀환하지 못하고 마이즈루시 오오모리 해안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26세였던 당시 일본에 건너와 전국 토목공사장을 돌아다녔다. 오미나토에 간 것은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다. 일본이 패한 순간 조선인은 돌아가라며 배에 태워졌다. 너무나도 급작스런 일이라 짐은 완전히 챙길 수 없었다. 선창은 사람으로 가득하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다. 갑판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무수히 가라앉아 죽어갔다. 죽은 사람들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17년간 피땀 흘려 번 돈은 모두 바닷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서씨는 지팡이 대신에 유모차에 기대어 병원에 다니고 있다. 재일 50년의 피로가 쌓여서 몸의 마디마디가 쑤신다고 했다. 서씨는 귀국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가기에는 불길한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p.123)

조선인들의 개죽음이나 고통을 감상적으로 묘사하며 죽은 조선인을 애도하는 마음과 곳곳에 산재하는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과제를 되묻고 있다.

그러나 1965년 우리는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잘못 꿴 단추 탓으로 목소리 한번 변변하게 내지 못했다. 한국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완료되었다는 논리'앞에서 목소리를 죽

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인이 주도하는 냉전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회담으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폭력은 은폐되었고 야만을 문명화한다는 둥 독립 축하금이라는 둥의 경제협력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평등한 회담이 아니므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완료되었다는 논리는 비정의이며 법에 의한 또 하나의 폭력이다.”[21]라고 주장하는 일본인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역사 청산에서 우리는 늘 약자이며 패배자이다. 헐값에 투매하려는 일본도 그렇거니와 현실적인 배상에 눈이 어두워 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우리 외교의 패턴은 한마디로 만행합작의 궤적이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가해자였던 역사의 흔적까지 말끔히 지워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부채를 유산시키고 싶지 않겠다는 야욕까지 숨기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망상임에도 우리는 항상 그들의 그런 검은 속내에 힘을 실어주는 외교를 거듭해 왔다.

> 경제와 안보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과제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은 한일회담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보상 문제 등 미해결의 과거사 청산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한일관계 짓누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한일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22]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5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 번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백서를 만들고 그 사례들을 낱낱이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피해사관이니 자학사관이니 하면서 날조된 사실로 역사를 성형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발호하는 일본의 병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그들 만행의 비윤리성까지 탕감해준 것은 아니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쓴 일본인의 소회가 남다른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런 흑역사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 太田修(2015)「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Ⅳ』역사공간 pp.229-251.

22) 이원덕 외 9명(2016)「한일 국교정상화는 무엇이었나?」『한일국교정상화 연구』역사박물관 p.17.

> 누렇게 바랜 노트를 단서로 찾아낸 승조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들도 또한 전쟁에서 사용되다 버려진 인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죽은 25명을 비롯해 많은 승조원이 상이군인으로서 전후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선창에 짐짝처럼 가득 채워진 조선인들은 배를 움직일 의지조차 갖지 못한 채 폭침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었다. (p.123)

폭침사고로 죽은 일본인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조선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원인이겠지만 폭침피해의 주된 당사자가 조선인[23]이었음에도 이름만 조선이었지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한 그들, 죽어서도 5년이나 수장되어 일본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그들을 진혼하기 위한 방법적 고안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애틋함이다.

이것이 모두 함구 뒤에 존재하는 이면의 세계이다.

Ⅴ. 맺음말

『계간 삼천리』의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기사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고 정치타협이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작태가 역사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고 그 과정에서 간과해버린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냉정하게 증언하고 있다.

본건이 NHK의 한 PD의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으로 드러난 것도 안타까운 일이거니와 『계간 삼천리』에서 그것을 다루었지만 사건규명의 본격적인 점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일회성의 외로운 기사로 끝난 것은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이 기사가 갖고 있는 의의와 함의는 실로 크다.

첫째가 사건이 풍화되거나 망각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언하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이슈화를 다그치고 있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권력과 결부된 거대한 함구와 힘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다큐멘터리의 무력감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묻는 형식의 중첩묘사도 빛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가 공영방송의 기막힌 줄타기를 통한 일본인 PD가 우리의 무관심과 집단

23) 폭침에 희생된 자들은 사건을 통해 일본에 의해 바다로 투기되었지만 조국에 의해서도 유기되어 버린 이중의 피해자인 셈이다.

적인 망각을 차분하게 밀고하고 있는 형태를 통해『계간 삼천리』의 활자화는 역사 환기의 마당, 혹은 신문고의 역할로 절대적 존재감이 부각된 것이다.

셋째가 국가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묻는 점이다. 국교정상화로 시작된 한일간의 정치적 합의과정에서 일본은 일괄타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자신들의 광기의 역사를 몽땅 매몰이나 은폐, 혹은 성형하려는 입장에서 한번도 물러선 적이 없고 이에 대해 한국은 항상 일본의 역사 끼워 팔기에 속고 또 속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며 공범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란 존재가 수백 명의 양민이 전쟁터에 동원되었다가 용도폐기 되어 위험천만한 쓰레기처럼 바다에 투기당해도 변변히 원인이나 책임조차 추궁하지 않는 국가의 무존재를 고발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흑 역사 끼워 팔기 식 협상에는 넘어가 만행의 역사를 생매장시킨 공범으로의 역할만은 톡톡하게 해내며 그 존재감을 드러낸[24] 국가의 존재를 강하게 생각나게 한다.

넷째 이 기사가 묻혀진 역사를 발굴해내고 가시권에 진열함으로써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과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은 인위적으로는 지울 수 없는 일이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역사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기사는 탐색, 폭로를 계기로 묻혀버린 수많은 역사들을 발굴, 조명하여 억울한 영혼을 진혼하는 것은 물론 그들 만행의 민낯을 명명백백하게 열거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한다면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청산 외교에서 절대적인 우군을 얻는 셈[25]이라는 과제를 주고 있다.

본고를 계기로 그들의 범죄의 역사 곧 우리의 치욕의 역사가 남김없이 파헤쳐져 나중에는 거대한 백서로 결실이 맺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본 기사는 하나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4) 여기서 국가의 몰골은 마치 가출한 자식이 사고를 당해죽었는데 책임 운운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 덜컥 합의해버리는 패륜적인 부모 모습과 다름없다. 쓴 웃음 짓게 하는 이것은 희극적인 비극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5) 위안부 문제만하더라도 그 사건사실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와 함께 본 사건이나 유사사건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만행사례를 함께 제시해나가면 결정적인 우군을 얻는 것이고 실체접근은 물론 세계에 어필하기도 용이할 것이다.

＜参考文献＞

『季刊　三千里』12号「浮島丸の爆沈」(1977) 三千里社 pp.116-124
遠藤薫編著(2015)「ソーシャルメディアは公共性を変えるか」『間メディア社会の<ジャーナリズム>』東京電気大学出版局　pp.20-30
大久保喬樹(2003)「西欧近代社会モデル対伝統日本の心性」『日本文化論の系譜』中公新書 pp.212-213
太田修(2015)「植民地支配と戦争を巡るもう一つの暴力について」『日韓協定50年史の再照明Ⅳ』歴史空間　pp.229-251
谷口将紀(2015)「メディアシステムの国際比較」『政治とマスメディア』東京大学出版会, p.7
松田浩(2005)「いま、なぜ NHKか」『NHK-問われる公共放送-』岩波新書 pp.10-12
吉田傑俊(2013)「戦後思想としての丸山真男問題」『丸山真男と戦後思想』大月書店, p.9
吉田徹(2014)「恐怖はどこからやってくるのか」『感情の政治学』講談社 p.190-191
Tony Harcup(2012) 황태식 옮김『저널리즘 원리와 실제』명인문화사pp.3-137
안병길(2015)「공공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공공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북스 pp.21-54
이원덕 외 9명(2016)「한일 국교정상화는 무엇이었나?」『한일국교정상화 연구』역사박물관 pp.8-25
조용중(1999)『저널리즘과 권력』나남 출판 pp.366-392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季刊 三千里』の研究
－「浮島丸爆沈」の記事を中心に －

金容安

本稿で研究対象にしている雑誌『季刊三千里』の「浮島丸爆沈事件」の記事は、政治的な妥協の下で行なわれた誤った合意が、歴史においていかに深刻な犯罪になるかを示しているいい例であると思う。国交正常化の一環として行なわれている韓日の間の合意のプロセスで、日本側は一括妥結をめどに自分の国の狂気の歴史を一気に埋没、隠蔽、又は成形しようとする立場から一歩も退かない。これにに対して韓国側はいつもその日本に欺かれ続け、結果としては共犯者の役割になりがちな路を辿ったわけである。これまでの韓日関係の成り行きはそれを物語っている。

事件の全貌は次の通りである。

1945年8月22日に3,726人を乗せた浮島丸号の出航の建前は、朝鮮人の釜山への帰還を助け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が、本音は、戦後の日本で暴動を起すかもしれない朝鮮人を海に投げ込むことであった。出航する前にこの船には、自爆装置が仕掛けてあり、はじめから朝鮮人を無事に帰国させようとする目的は当局者にはなかった。船には十分な燃料を積んでおらず、船は舞鶴沖で沈没し、524人の朝鮮人と25人の乗組員が死に至った。

本事件が報道されたのは、NHKの一人のPDの手によるドキュメンタリー制作の過程を記した文書を『季刊　三千里』が載せたものである。

PDの菅谷耕次は、国や民族の無関心のまま放置され死んだ朝鮮の人々の哀しい様子をいろいろな証言のもとに制作している。

甚だしくは沈没のあと5年が経っても引き上げられなかったにも関わらず、その船の古鉄の価値が評価されたとたん、引き上げられたことである。

故意に船を沈没させたことが明確になった以上、この事件はアウシュビッツや南京大虐殺にも匹敵する残虐極まりない犯罪であると言える。

この記事は、韓日国交正常化のプロセスで見逃した浮島丸事件のようなものを探し続け、事実が風化してしまわないようにと主張している。

この記事の記者はそれを直接話法ではなく、隠喩で主張している。テレビ放送は放送された後は再度その番組を探すことが困難になるが、本は誰もがいつでも記録を遡ることができる。それゆえ、本に記録を残すことは非常に重要なことである。

<Abstract>

Quarterly Publication, Samcheonri Study
- Focused on the article of 「Ukishima malu accident」 -

Kim, Yong-An

The article on the “Ukishima malu accident” in “Gyegan Samcheonri” coldly testifie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nation and how serious crimes the evil deeds are happening under the name of the political compromise in the history and how big the wounds overlooked in the process are.

In this context, the meaning of this article is significant.

Firstly, it speaks out its thoughts about the pity of the accident being forgotten and urges the substantial approach to and making a big issue of the accident. It expresses the frustration of the documentary journalist who has to give up in front of the giant power connected with the authority in the process and, at the same time, asks the role of the nation.

Secondly, a Japanese PD of a public broadcasting company calmly accuses us of our negligence and collective oblivion.

Thirdly, it asks the existence of a nation from a fundamental perspective. In the article, a nation is accused of its irresponsibility for not questioning a cause or a responsibility even if hundreds of people were brought to a battlefield only to be ended up in the ocean like trash.

Fourthly, this article excavated the buried history and printed it out to see it any time. The historical fact cannot be deleted artificially but it is like it doesn’t exist it is left out in the indifference. History, moreover, doesn’t die or extinct and there is no expiration. It also emphasizes that the history of evil must by followed by the history of conviction to punish it.

Taking this article as an opportunity, I hope that the history of their crimes, that is our history humiliation could be entirely dug up and bear fruit as a big white paper in the end. In that aspect, I wish that this article will not a termination but a new start.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201－219쪽 10.15733/jast.2017..72.201

일본 고전 산문 작품에 나타난 신라의 형상*
－ 문학으로 본 역사 －

김 효 숙**

< 目 次 >

Ⅰ. 들어가며
Ⅱ. 신라와 일본의 관계
Ⅲ. 일본고전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라의 형상
1.『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
2.『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
3.『겐지 이야기(源氏物語)』
Ⅳ. 나오며

Key Words : 新羅(Silla), 日本(Japan), 日本古典文学作品(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歷史(history), 文学(Literature)

Ⅰ. 들어가며

인문학의 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문학과 역사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또한 이들 텍스트를 접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문학작품은 허구, 사료(史料)는 사실을 담고 있으며, 과거의 시대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료(史料)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과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접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료에 적혀 있는 어구들이 진실만이 아니며, 또한 문학작품에 나열되어 있는 문구들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료가 일정한 의도 하에 작성된 것이기에 그 속에는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022)
**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초빙교수, 일본고전문학 전공.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문학작품 또한 그 텍스트가 쓰인 시대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기에, 작자의 의도와는 별도로 그 시대의 일반적・객관적 가치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사료로 분류되는 텍스트는 「사실」로, 그리고 문학작품으로 분류되는 텍스트는 「허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한 시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역사문헌으로 분류되는 텍스트 즉 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신라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첨예하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의 삼국에서 일본으로 선진문화를 수출했기에 정치적으로도 신라가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신라가 고대일본의 속국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인식의 발원지는 진구(神功)천황이 신라를 정벌했으며 이후 신라가 조공을 바쳐왔다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인데, 이는 사료에 대한 비판 없이 그 안의 어구를 어구 그대로 해석하고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신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고대 일본의 인식이 현실세계와는 무관한 관념상의 것이었다[1]는 등, 사료(史料)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신라를 문화적 후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현재 신라와 일본의 관계 혹은 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기존의 사료에 대해 새로운 해석방법이 제시될 때마다 뒤집히고는 한다.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해석방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스펙트럼으로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같은 시대에 성립한 문학텍스트를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 작자의 의도와는 별도로 문학작품 또한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1) 木村茂光(1997)『「国風文化」の時代』青木書店 p.115.

신라의 위상을 일본고전문학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신라와 일본의 관계

본 절에서는 일본고전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신라의 형상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대(對) 신라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칙찬(勅撰) 사서(史書)로 720년에 완성되었다고 전해지는『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이다. 특히 권9에는 진구(神功) 황후가 신라를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를 항복시켰다는 소위 삼한정벌(三韓征伐)이라고 불리는 기사가 존재한다.

> 황후는 와니노쓰(和珥津)를 출발하였다. 그 때 바람의 신이 바람을 일으키고 해신이 파도를 일으키자,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모두 위로 올라와서는 배가 가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순풍이 불어 노를 젓지 않고도 바로 신라에 도착했다. ……신라왕은 전전율률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다 이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신라가 건국된 이래 바닷물이 나라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천운이 다하여 이 나라가 바다가 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군들이 바다에 가득 차더니, 군기가 빛에 나부끼고, 북소리가 높이 퍼지고, 산과 강이 모두 흔들렸다. 신라왕이 이를 보더니「내가 듣기로 동쪽에 신국(神國)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했다. 또한 성스러운 임금이 있어 천황이라고 했는데, 필시 그 나라의 신병(神兵)일 것이다. 내가 어찌 감히 군대를 일으켜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백기를 들어 스스로 항복하며, 흰 밧줄로 자신의 손을 뒤로 묶고, 지도, 호적을 봉인하여, 황후가 탄 배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며「앞으로는 하늘과 땅과 같이 길이 복종하여, 사부(飼部)가 되겠습니다. 배의 노에 물기가 마를 틈 없이 조공할 배를 띄우고, 봄가을로 말의 털을 씻는 빗과 말채찍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바다가 먼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해마다 남녀의 조(調)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 從和珥津發之。時飛廉起風、陽侯舉浪、海中大魚悉浮扶船。則大風順吹、帆舶隨波、不勞楫楫、便到新羅。……新羅王於是戰戰慄慄厝身無所、則集諸人曰、新

羅之建國以來、未嘗聞海水凌國。若天運盡之、國爲海乎。是言未訖之間、船師滿海、旌旗耀日、鼓吹起聲、山川悉振。新羅王遙望以爲非常之兵將滅己國。讐焉失志。乃今醒之曰、吾聞、東有神國、謂日本。亦有聖王、謂天皇。必其國之神兵也。豈可擧兵以距乎。卽素旆而自服、素組以面縛、封圖籍、降於王船之前。因以叩頭之曰、從今以後、長與乾坤、伏爲飼部。其不乾船柂而春秋獻馬梳及馬鞭。復不煩海遠以每年貢男女之調。[2)]

위 인용문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진구(神功)황후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왕은 전혀 대항조차 못한 채 항복을 선언하고는 앞으로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인용에서는 생략했지만, 위 내용 다음에는 신라의 투항소식을 들은 고구려와 백제도 일본에 투항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설화적인 요소가 강하여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가 인정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라를 속국으로 인지하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술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예를 들면 『일본서기(日本書紀)』의 마지막 천황인 지토(持統)천황 때까지 「신라는 급찬(級飡) 박억덕(朴億德)・김심살(金深薩)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新羅遣級飡朴億德・金深薩等、進調)」[3)]라고 서술하는 등, 계속해서 신라가 일본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텍스트의 기술내용을,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투영한 것으로, 즉 사실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은 신라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공관계를 유지했다는 견해[4)]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반해, 이 진구(神功)황후의 신라정벌 전설은 「7세기후반 백제멸망이후의 신라 적시관」[5)]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근래에는 『일본서기』에 대한 자료비판을 계기로 신라가 표면적으로 「번국(蕃國)」의 예를 취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한 것은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6)] 혹은 상업적인 교류목적이 더 컸다는 견해[7)]

2) 小島憲之・西宮一民・毛利正守 編(1994)『日本書紀①』「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pp.426-428.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3) 小島憲之・西宮一民・毛利正守 編(1994)『日本書紀③』「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p.532.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4) 北山茂夫(1959)「持統天皇論」『日本古代政治史の研究』pp.202-203.
5) 연민수(2013)「延烏郎・細烏女전승을 통해 본 新羅와 倭」『일본학보』제97집 한국일본학회 p.302.

등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또한 신라-일본의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성격을 띤 것이 아니므로 시대를 세밀하게 나누어 다각적인 분석할 필요를 주장하는 지적도 있다.[8)]

하지만 이러한 오늘날의 해석과는 달리, 일본의 위정자들은『일본서기』를 전례로 삼고 지속적인 사상적 영향을 받아 신라를 속국으로 여겨왔으며, 그 결과『일본서기』이후에 만들어진 역사서는 신라를 조공국으로 규정하여 왔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사료에 대한 자료비판과 함께 다각적인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정된 문헌에 대한 해석방법이 다면화되었을 뿐으로, 따라서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라-일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역사학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역사학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료분석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료는 대부분 편집의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목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일방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학작품은 사회상이나 문화 특히 이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에 공유되고 있었던 인식이 비교적 리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 문학작품을 분석한다면 신라-일본의 관계를 가늠하는데 새로운 시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고전문학작품 특히 헤이안(平安)시대에 성립된 산문작품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Ⅲ. 일본고전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라의 형상

일본고전문학작품에는 이국(異國)이 많이 등장한다. 주로 당나라(もろこし), 발해(こま : 현행 활자본에는「高麗」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본에는 히라가나

6) 李成市(1998)「正倉院所蔵新羅調庸布記の研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岩波書店 pp.307-315.
7) 浜田耕策(1983)「新羅の中・下代の内政と対日本外交 : 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学習院史学』21 pp.89-109.
8) 鄭淳一(2013)「延暦・弘仁・天長年間の新羅人来航者」『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4分册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p.89-109.

로 「こま」로 되어 있다)가 많이 나오지만, 백제나 신라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는데, 특히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일본에서 추앙되는 인물인 쇼토쿠 태자(聖徳太子)였기 때문에 문학작품에도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9] 신라는 당나라, 발해, 백제에 비해서는 용례가 매우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겐지 이야기(源氏物語)』등에 등장한다.[10] 이하 이 작품들에서 신라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

먼저 일본고전문학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장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10세기 말엽에 성립된 것으로 작자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주인공격인 도시카게(俊蔭)는 발해에서 온 사신과 한시문을 주고받는 수재로, 당나라로 파견되었다가 세상 끝까지 여행을 하여 영험한 칠현금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 칠현금을 물려받은 자손들이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성격상 이국(異國)과 관련된 사건이나 물건들이 많이 등장한다.[11] 그 중에서 신라는 총4회 나오는데 먼저 간즈케노미야(上野の宮)라는 왕자가 여주인공 아테미야(あて宮)에게 구혼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간즈케노미야는 아테미야에게 집착하여 끈질기게 구혼을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조차 없자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다.

> 이 왕자는 이리저리 궁리하더니 음양사, 무녀, 점쟁이, 건달, 노파, 노인 등을 한데 모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저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본의

9) 김효숙(1998) 「『겐지 이야기』에 나타난 백제의 위상」『일본공간』도서출판선인 pp.102-126.
10) 上田英代 1995년 「本文テキストの語彙検索」 http://www.genji.co.jp/kensaku.htm(검색일:2017.01.10.)에 의하면,『이세 이야기(伊勢物語)』『야마토 이야기(大和物語)』『헤이추 이야기(平中物語)』『마쿠라노소시(枕の草子)』『가게로 일기(蜻蛉日記)』『무라사키시키부 일기(紫式部日記)』『이즈미시키부 일기(和泉式部日記)』『사고로모 이야기(狭衣物語)』『도사 일기(土佐日記)』『사라시나 일기(更級日記)』『사누키노스케 일기(讃岐典侍日記)』『요루노네자메(夜の寝覚め)』에는 「신라」의 용례가 없다.
11) 김효숙(2015) 「『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에 보이는 파사국(波斯國)에 대하여 :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과의 접점」『동아시아고대학』제40집 pp.217-240.

60여 지방, 당나라, 신라, 발해, 천축국까지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이다. 그런데 좌대장이신 미나모토노 마사노리 집안에 따님이 열 분도 넘게 계시기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소.……」

この親王、よろづに思ほし騒ぎて、陰陽師、巫、博打、京童べ、嫗、翁召し集めてのたまふ。(上野の宮) 「ほに、われ、この世に生まれてのち、妻とすべき人を、六十余国、唐土(もろこし)、新羅(しらぎ)、高麗(こま)、天竺(てんぢく)まで尋ね求むれど、さらになし。この左大将源正頼のぬしの女子ども、十余人にかかりてあなり。……」

(「藤原の君」 ①154)[12]

간즈케노미야는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그 동안 이상적인 아내를 얻기 위해 「일본의 60여 지방, 당나라, 신라, 발해, 천축국」까지 찾아보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60여 지방(六十余国)」은 일본전토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기내 7도 66지방, 이키, 쓰시마를 포함한 것[13]이며, 「당나라, 신라, 발해, 천축(唐土、新羅、高麗、天竺)」은 전세계를 뜻한다.[14] 즉 이상적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일본 방방곡곡과 전세계를 찾아다녔으나, 그에 해당하는 여인이 없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세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당나라, 신라, 발해, 천축」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먼저 『우쓰호 이야기』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쓰호 이야기』는 현재 작자미상으로 알려진 작품이지만, 가장 유력한 설로는 미나모토노 시타고(源順)(911-983년)가 있는데[15] 만약 미나모토노 시타고가 작자라고 한다면 10세기에 성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미나모토노 시타고가 작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쓰호 이야기』의 내용이, 서기1000년경에 성립된 『겐지 이야기』에 직접 인용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10세기 중엽 무렵에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천축(天竺)은 인도 또는 인도방면을 부르던 호칭으로 어느 시대에 존재한 어떤 나라인지 확정

12) 中野幸一(1999)編『うつほ物語』「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154. 한국어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13) 中野幸一 같은 책 「機内・七道六十六国、壱岐、対馬を合わせた日本全土の称」p.154.
14) 室城秀之(2002)『うつほ物語』おうふう p.80에서는 「「唐土・……」は、全世界の意」로 설명하고 있다.
15) 市古貞次・秋山虔 編(1978)「うつほ物語」『日本文学全史中古』学灯社 p.182.

할 수 없다. 단 당나라는 907년, 신라는 935년, 발해는 926년까지 존속했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면 『우쓰호 이야기』가 배경으로 하는 세계는 10세기 초엽까지의 아시아대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쓰호 이야기』의 시・공간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당시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세계관은 다음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다.

> 다네마쓰(種松)가 보화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모두 가지고 있을 정도다. 신라, 발해를 비롯하여 저세상의 것까지 모두 모아놓은 보화의 왕인 것이다. 이 다네마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내 손자 되시는 분이 만약에 내 딸한테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지금쯤은 천황이 인정하는 어엿한 왕자로서 수도에 살고 계셨을 것이다. 그저 천민한 내 딸한테서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골에 묻혀 살고 계시다니... 대신에 이곳에서만이라도 내 힘으로 국왕 못지않은 거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금지옥엽으로 보살피고 있었다.
>
> 種松、財は天の下の国になきところなし。新羅、高麗、常世の国まで積み納むる財の王なり。その種松思ふほど、わが君は、わが娘の腹に生まれたまはざりせば親王にもない、帝にも知られたてまつりて、都にてぞ生ひ出でたまはまし。わがつたなき娘の腹に生まれたまへれば、かく知られぬ君にもあるなり。その代はりにも、わが国の内にだに、われ一人して、国王の位に劣らぬ住まひせさせたてまつらむとて、仕うまつること限りなくめでたし。 (「吹上 上」378-379①)

다네마쓰(種松)는 『우쓰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도 굴지의 대부호로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항상 그가 가진 보화가 강조된다. 즉 누구보다도 화려한 재화의 소유가 그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물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신라, 발해를 비롯하여 저 세상의 것까지 모두 모아 놓은 보화(新羅、高麗、常世の国まで積み納むる財)」라고 한 것이다. 이 문장은 다네마쓰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신라, 그리고 신라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발해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실세계에 실재하지 않는 저 세상의 것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먼 곳 그리고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저 세상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표현을 함으로써, 재화의 극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주목할 것은 신라가 보화의 나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러한

신라산 보화의 소유가 다네마쓰의 경제적 권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다네마쓰가 단순한 부호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천황가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사가(嵯峨)천황과 인연을 맺어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요절해 버린다. 그는 혼자서 남겨진 손주 미나모토노 스즈시(源涼)를 키우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 천황의 혈육을 소중히 키워 장차 중앙귀족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국왕 못지않은 거처(国王の位に劣らぬ住まひ)」를 목표로 하여 대저택을 건축하여 영위한다. 그러한 그의 호화로운 저택이 소문이 나 중앙귀족들이 그의 거처를 방문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그의 손자 미나모토노 스즈시는 결국 중앙귀족사회에 데뷔하여 명성을 떨치게 된다. 미나모토노 스즈시가 그러한 화려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외할아버지인 다네마쓰의 호화현란한 재화가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네마쓰가 소유한 재화에 대해 「국왕 못지않은」것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국왕과 같은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우쓰호 이야기』에 그려진 물건이나 재화는 단순히 부(富)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다. 즉 어떤 상징과 하나의 질서체계를 지니고 있는데,[16]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네마쓰의 권위의 근간이 된 재물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신라, 발해를 비롯하여 저 세상의 것까지 모두 모아놓은 보화」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신라에서 유입된 보화에는 일종의 권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다네마쓰가 자신의 저택을 방문한 귀족들이 귀경하려고 하자, 그들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물건들을 선물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한 장면이다.

> 여기는 실을 짜는 곳. 하녀 20명 정도가 모여서 저마다 실을 짜고 있다. 짜서 천으로 만들 실, 꼬아서 매듭으로 만들 실들을 장대마다 걸어놓았다. 당나라풍으로 짠 매듭, 신라풍으로 짠 매듭, 보통 매듭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
> これは糸の所、御達二十人ばかり居て、糸繰り合はせなど、手ごとにす。織物の糸、組の糸など、竿ごとに練りかけたり。唐組、新羅組、ただの組など、色々にしたり。 (「吹上 上」418①)

16) 西山登喜(2010)「うつほ物語 種松王国の位相―〈轆轤師〉へのまなざし―」『物語研究』10 物語研究会 pp.35-51.

다네마쓰의 저택에는 온갖 귀중품들을 보관・관리하거나 혹은 직접 생산하는 장소가 있는 등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위 인용문은 그 중에서 직조작업을 하는 과정을 서술한 장면이다. 하녀들이 모여서 옷감의 재료가 되는 갖은 종류의 실을 짜고, 또 한 쪽에서는 매듭도 제직하고 있는데, 그 매듭이 당나라풍으로 만들어진 것, 신라풍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보통 모양으로 만들어 진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부분은 흔히 「그림풀이(繪解)」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그림풀이(繪解)」란 『우쓰호 이야기』 중에서 문장형식이 매우 이질적인 부분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이 주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쓴 문장이 언제부터인가 『우쓰호 이야기』본문에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인용문을 『우쓰호 이야기』가 성립된 당시의 시대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네마쓰의 저택내에 직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며, 그 곳에서는 신라풍으로 된 매듭을 만들고 있었다는 내용이 후세에 첨부된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풀이」장면이 후세에 첨부된 것이라 할지라도, 후세의 독자들이 다네마쓰의 저택에서 매듭을 신라풍으로 제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을 유도한 것이 바로 『우쓰호 이야기』의 신라와 관련한 표현요소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신라풍으로 짠 매듭(新羅組)은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등이 설명하듯이[17] 적어도 『우쓰호 이야기』가 성립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우쓰호 이야기』에서 신라는 세계의 한 주축을 이루며 국왕에 못지않은 다네마쓰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이는 『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가 성립된 당시, 신라에서 유입된

17) 앞의 책 『うつほ物語』(「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p.418 및 室城秀之 『うつほ 全』p.266에서는 『三代実録』 875년 기록 「横刀之緒上下有別言、…五位已上同用唐組、六位已下並用綺新羅組等」을 인용하며, 「신라풍으로 짠 매듭(新羅組)」용례를 제시하였다.

18) 『우쓰호 이야기』 가 대단원을 맞이하는 부분에는, 이누미야가 연주하는 것을 보고 감동한 사가(嵯峨)천황이 「어린 아이의 아름다운 연주에 참지 못하고 흰머리 무성한 내가 신라 춤을 추누나(姫小松ひきつることに忍びあへず白きかしらの新羅舞せむ)」 (p.608)라는 와카(和歌)가 나오는데, 이 안에 신라춤(新羅舞)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室城秀之는 앞의 책에서 이에 대해 「노인의 춤인가? 헤이안시대 초기까지 아악료에 전해졌다고 한다(老人の舞か。平安時代初期まで、雅楽寮に伝えられたという)」(p.936)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신라춤에 대해서는 자료가 매우 적어 소상한 것을 알 수 없다. 이

보화가 부와 명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 즉 신라가 하나의 선진문화의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2.『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

『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는 10세기 중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작품이다. 내용은 오치쿠보(落窪)라는 여인이 계모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성장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전형적인 옛날이야기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신라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 소장이 말하기를「어머님이 안계시다니 안쓰러워서 더 마음이 가는구려. 나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남녀의 애정을 잘 아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당나라, 신라까지도 찾아보려고 했소.……」
>
> (少将)「その御母おはせぬこそは、いと心苦しくあはれまさらめ。わが本意には、いとはなやかならざらむ女の、物思ひ知りたらむが、かたちをかしげならむこそ、唐土、新羅まで求めむと思ふ。……』 (「巻之一」91)

위 인용문에서 남자 주인공인 소장은 오치쿠보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면, 당나라, 신라까지도 가 볼 생각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다.『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의 세계관 혹은 이국(異國)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두주는「「당나라」는 중국에 대한 호칭.「신라」는 고대조선의 왕국명.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상투적인 표현(「唐土」は中国の呼称。「新羅」は古代朝鮮の王国名。大げさな表現だが、当時の常套表現)」이라고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를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만으로 이해해도 될 것인가. 이 문장은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이상적인 여인을 쟁취하겠다는 갈망을 극대화시킨 표현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적인 여성이 당나라 혹은 신라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장이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여성이 살고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모를 이상적인 나라로서 당나라와 신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에서 신라는 이 한 장면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분석은 어렵지만, 적어도 신라가 이상적인 여성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경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겐지 이야기(源氏物語)』

그럼 다음에는『겐지 이야기(源氏物語)』에 나오는 신라 용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제3부의 여주인공인 우키후네(浮舟)가 입수자살을 한 뒤 그녀를 기리기 위해 법요가 열리는 장면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아무 소리 소문도 없었던 사람의 법요를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치르다니…. 도대체 누구일까?」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히타치노카미(常陸守)가 와서 주인행세를 하자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히타치노카미는「소장의 아이를 낳은 내 딸에게도 잔치를 성대하게 해주기 위해 온 집안을 없는 것이 없을 만큼 근사하게 꾸몄지. 당나라, 신라의 물건들로 꾸미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는지라 결국 초라한 행사가 되고 말았는데…」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법요가 은밀하기는 해도 그 위세가 더 할 나위 없이 성대한 것을 보고는, 만약 우키후네가 살아 있었더라면 자기 자신은 옆에도 못 갈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었다.

「あやしく。音もせざりつる人のはてを、かくあつかはせたまふ、誰ならむ」と、今おどろく人のみ多かるに、常陸守来て、主がりをるなん、あやしと人々見ける。少将の子産ませて、いかめしきことせさせむとまどひ、家の内になきものは少なく、唐土、新羅の飾りをもしつべきに、限りあれば、いとあやしかりけり。この御法事の、忍びたるやうに思したれど、けはひこよなきを見るに、生きたらましかば、わが身を並ぶべくもあらぬ人の御宿世なりけりと思ふ。

(「蜻蛉」⑥ pp.243-244)[19]

위 장면은 우키후네(浮舟)가 자취를 감춘 뒤 당대의 최고 귀공자인 니오우미

19)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 編『源氏物語①』「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p.243-244. 한국어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야(匂宮)와 가오루(薫)가 그녀를 위해 성대하게 법요를 개최하는 장면이다. 여기에 우키후네의 의붓아버지인 히타치노카미(常陸守)가 와서는, 자신이 친딸에게 열어줬던 축하연과 이 법요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히타치노카미는 자신의 친딸에게도 당나라와 신라에서 들어온 물건들로 가득한 화려한 행사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어 그럴 수가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맥상 이 장면에서 당나라, 신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겐지 이야기(源氏物語)』가 성립된 것은 서기 1000년경으로 이 때 신라는 이미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고려가 건국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라의 이미지는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사료에 나오는 것처럼 신라가 적어도 문화적으로 열등한 나라, 혹은 적대시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한 편 신라에서 유입된 물건들이 얼마나 귀족들에게 각광을 받았는지 그 사회적 반향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음 인용은 헤이안시대에 편집된 법령집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에 게재된 태정관부(太政官符)인데, 태정관부는 일본 율령제에 있어서 태정관이 관할 하에 있는 관청이나 국아(国衙)에 발령한 정식 공문서를 뜻한다. 다음은 신라상인들과의 사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831년에 공포된 것이다.

> 신라 상인에 대한 무역규정
>
> 우매한 인민들이 자산을 다 탕진해서 서로 다투어가며 외국의 재물을 고가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지 않으면 폐해가 더 클 것이다. 대재부(大宰府)에서는 엄중히 단속을 하여 쉽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신라상인이 오면 정부의 수요에 적합한 것을 골라서 중앙으로 먼저 보내고, 점검하여 불필요한 것은 일반인민에게 교역시키도록 하여라. 또한 거래가격은 공정하게 하도록 한다. 이것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노라.
>
> 応領新羅人交関物事
>
> 愚闇人民傾覆櫃迾　踊貴競買　物是非可鞫匱　弊則家資殆罄　耽外土之声聞　蔑境内之貴物　是実不加捉搦所致之弊　宜下知大宰府厳施禁制　勿令輒市　商人来着　船上雑

20) 김종덕은 『일본서기』에서 신라에 대해서 「금은 보물의 나라」이며, 대체적으로 「침략의 대상」의 이미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덕(2009) 「日本古代文学における「韓国」のイメージ」『日本古代学』第1号 p.38.

物一色已上　簡定適用之物　附駅進上　不適之色　府官検察　遍令交易　其直貴賤　一依估價　若有違犯者　殊処重科　莫従寛典（巻十八)[21]

이 기사는 신라에서 물품들을 실은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신라의 물건들을 사기 위해 앞 다투어 모여들고 급기야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이를 정부에서 관리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배가 들어오면 먼저 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수도로 보내고 그 나머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교역시키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 기사에 대해서 종래의 해석은 신라와 일본 사이에 사무역이 성행했고,[22] 또한 일본정부에서 신라와의 사무역을 양성화[23]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더욱 주목할 것은 당시의 일본인들이 신라에서 건너오는 물품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전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신라산 물품은 갈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라상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먼저 중앙정부로 보낸다는 것은 교토의 중앙 귀족들 또한 신라에서 온 물건들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은 법령서로서 『일본서기(日本書紀)』등의 칙찬 역사서와는 달리, 당시 사회의 실태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문헌인데, 특히 신라와 관계된 이 조문에서는, 신라로부터 유입된 물품들이 먼저 중앙귀족에게 보고되고 그 나머지가 일반인들에게 거래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앞서 인용한 『겐지 이야기』의 밑줄친 「한계가 있는지라(限りあれば)」라는 표현에 다시 주목해보자. 이 표현은 『겐지 이야기』에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대체적으로 신분상의 제한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다마가미 다쿠야(玉上琢弥)는 이 장면에 대해서도 「신분이 신분인 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身分が身分ゆえ、限度があるので)」라는 주를 달고 있다.[24] 신라에서 건너온 물건들로 온 집안을 장식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지만, 신분의 제한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히타치노쿠니(常陸国)라는 지방의 수령에 불과했던 히타치노카미(常陸守) 신분으로는 신라의 물품을 손에 넣을 수

21) 黒板勝美 編(1974)『類聚三代格』「国史大系」国史大系編修会　pp.569-570. 한국어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22) 李成市(1997)「京師交易から大宰府交易へ」『東アジアの王権と交易』青木書店 p.163.
23) 鄭淳一 앞의 논문 pp.105-105.
24) 玉上琢弥(1969)『源氏物語評釈 第12巻』角川書店 p.274.

없다는 것인데, 이 문장은 앞에서 인용했던『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에서 온 물품들은 누구나가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중앙의 귀족에게 보내어 그들을 만족시키고 난 후 남은 것들만 교역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라 하더라도 히타치노카미와 같은 지방수령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인용한 태정관부는 태정관이 관할 하에 있는 관청 등에 내린 일종의 명령서로서 당시 현실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고하기 위해 공포하는 것이다. 그 사회의 현실과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겐지 이야기』의 신라와 관련된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인 감동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현실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고대 일본인들이 갈망하는 물품이 유입되는 이국, 즉 선진문화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이다.

Ⅳ. 나오며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재된 진구(神功)천황의 행적은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한반도에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사실」로서 전례와 같이 취급되었다.[25] 그러나 문학텍스트 예를 들면 본고에서 고찰한『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오치쿠보 이야기(落窪物語)』『겐지 이야기(源氏物語)』등의 표현을 살펴본 결과, 신라는 선진문화가 달성된 나라로, 그곳에서 유입된 문화요소는 귀족들의 갈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텍스트와 문학텍스트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혹은 고대의 역사를 바라보고 규정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역사텍스트로 분류되는 문헌만을 잣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현대사회에서도 그렇듯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필되는 자료는 필요에 의해서 과장되고 모순되며 왜곡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자국 내의 정통성을

25) 森公有章(1998)「平安貴族の国際認識についての一考察」『古代日本の対外認識と通交』吉川弘文館 p.169.

담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서에 쓰인 문구는 다분히 국내정치를 향한 언설인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를 살고 그 시대의 공기와 분위기를 흡입하며 성립된 문학텍스트에 담겨진 정황들을, 그 시대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학텍스트에 나온 언설들은 단순한 문학적인 감동을 위한 과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텍스트를 역사를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그리고 일본고전문학작품을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재고할 하나의 수단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参考文献>

木村茂光(1997)『「国風文化」の時代』青木書店 p.115
小島憲之・西宮一民・毛利正守 編(1994)『日本書紀①』「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p.426-428
_____(1994)『日本書紀③』「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532
北山茂夫(1959)「持統天皇論」『日本古代政治史の研究』pp.202-203
연민수(2013)「延烏郎・細烏女전승을 통해 본 新羅와 倭」『일본학보』제97집 한국일본학회 p.302
李成市(1998)「正倉院所蔵新羅讃甚貼布記の研究ー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ー」『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岩波書店 pp.307-315
浜田耕策(1983)「新羅の中・下代の内政と対日本外交：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学習院史学』21 pp.89-109
鄭淳一(2013)「延暦・弘仁・天長年間の新羅人来航者」『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4分册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p.89-109
김효숙(1998)「『겐지 이야기』에 나타난 백제의 위상」『일본공간』도서출판선인 pp.102-126
_____(2015)「『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에 보이는 파사국(波斯國)에 대하여：『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과의 접점」『동아시아고대학』제40집 pp.217-240
中野幸一(1999)『うつほ物語①』「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154
室城秀之(2002)『うつほ物語』おうふう p.80 및 p.266
市古貞次・秋山虔 編(1978)「うつほ物語」『日本文学全史中古』学灯社 p.182
西山登喜(2010)「うつほ物語 種松王国の位相ー<轆轤師>へのまなざしー」『物語研究』10 物語研究会 pp.35-51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 編『源氏物語⑥』「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p.243-244
김종덕(2009)「日本古代文学における「韓国」のイメージ」『日本古代学』第1号 p.38
黒板勝美 編(1974)『類聚三代格』「国史大系」国史大系編修会 pp.569-570
李成市(1997)「京師交易から大宰府交易へ」『東アジアの王権と交易』青木書店 p.163
玉上琢弥(1969)『源氏物語評釈 第12巻』角川書店 p.274
森公有章(1998)「平安貴族の国際認識についての一考察」『古代日本の対外認識と通交』吉川弘文館 p.169
上田英代(1995년)「本文テキストの語彙検索」http://www.genji.co.jp/kensaku.htm(검색일:2017.01.10.).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日本古典散文作品における新羅
－ 文学作品からみる歴史 －

金孝淑

日本の最古の歴史書である『日本書紀』には、高句麗、百済、新羅に関する話がしばしば登場する。これらは多くの場合において、日本に朝貢する属国として描かれているが、特に新羅は高句麗や百済よりも遥かに位相の低い国のように語られる。こうした史料の記述によって、歴史学者の多くが、新羅は日本の属国であったと評価するようになった。

一方、日本古典文学作品には新羅に対して非常に友好な内容が多い。例えば、新羅から齎された品々が憧憬の対象として描かれるなど、『日本書紀』などの史料とは対峙する表現が目立つのである。

こうした史料と文学作品の表現の違いをどう捉えれば良いのであろうか。一般に歴史は「事実」であり、文学は「虚構」であると認識されるのだが、果たしてそのように断定しきれるのだろうか。本稿では、日本古典文学作品の「新羅」に関する表現を分析し、歴史と文学の関係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と思う。

<Abstract>

The feature of Silla kingdom in Japanses literature
- History through literature -

Kim, Hyo-Sook

The stories of Goguryeo(高句麗),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are often found in Nihon-shiki(日本書紀), the oldest history book in Japan. These three kingdoms are mainly described as vassal states that sent tributes to Japan. Of the three, Silla was considered inferior to Goguryeo and Baekje in terms of its power an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civilisation. As a result of historical materials like Nihon-shiki, many Japanese historians believe that Silla was effectively a vassal state of Japan.

However, contrary to such historical materials, in classic works of Japanese literature, Silla has been described in a more generous fashion. For example, there are many references to goods sent to Japan from Silla being highly prized.

How can the differences between descriptions found in historical materials and classic works of literature be reconciled This paper challenges the notion that historical records are always the 'truth' and literature is always 'fiction'. It focuses on the examination of the descriptions about Silla written in historical materials and classic works of literature, and highl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221－244쪽 10.15733/jast.2017..72.221

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
－ 우라시마(浦島)전설을 중심으로 －

류 정 선*

< 目 次 >

Ⅰ. 서론
Ⅱ. 거북이와의 이류(異類)혼인담
Ⅲ. 거북이의 보은담
Ⅳ. 신들의 ‘노리모노(乗り物)’ 거북이
Ⅴ. 봉래산을 짊어진 거북이
Ⅵ. 결론

Key Words : 亀(Turtle), 浦島伝説(Urashima Legend), 報恩(return for a favor), 異類婚姻譚(Heterogeneous Marriage), 神仙思想(philosophy of Taoisthermits)

Ⅰ. 서론

일반적으로 거북이의 이미지는 해신(海神)이나 용왕과 밀접한 상서로운 동물, 즉 서수(瑞獸)로 인식되었고, 수명 또한 매우 길기 때문에 예로부터 용, 기린, 봉황과 함께 사령(四靈)으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갑골문자의 탄생을 비롯하여, 고대왕실에 있어서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가 행사의 길흉을 예견하는 것 또한 거북이 등껍질 문양에 의해 해석되곤 했다.

특히 네 곳의 방향을 지키는 사신(四神)가운데 거북이는 ‘현무(玄武)’로 불리는 북방의 신으로 받들어졌고, 그 형상이 딱딱한 갑의(甲衣)를 가진 거북이와 날카로운 이를 가진 뱀이 합쳐진 모양을 하고 있어, 거북이는 ‘무(武)’ 즉 두꺼운 등껍질이 갑옷을 입은 무장으로서 이미지화되는 경우도 많다.[1)]

이처럼 동아시아 공통으로 장수와 상서로운 동물로서의 이미지[2)]를 지닌 거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부교수, 일본고전문학 전공.

1) 項青(1999)「亀が女になる話-浦島伝説の源流」『アジア遊学』2-3, p.111 참조.

2) 우선 고대 중국의 경우, 여와(女媧)가 거북의 네다리를 잘라 하늘을 떠받치게 했다는

북이는 일본의 경우,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큰 대지나 산, 즉 선계(仙界)인 봉래산(蓬萊山)을 등에 짊어진 동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이계(異界)로 가는 이동수단인 '노리모노(乘り物)'의 양상이 엿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일본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라시마 전설을 떠올릴 것이고, 거북이의 이미지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연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거북이가 주된 관점이 아니라, 우라시마 전설을 구성하는 소재 중의 하나로, 그리고 『고전문학동물지(古典文學動物誌)』나 설화 속에 나타난 동물보은담의 양상 가운데 극히 일부분 언급되는 고찰에 지나지 않았다.[3)]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우라시마 전설의 시대별, 장르별 변용되는 거북이의 유형을 중심으로 일본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유형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거북이와의 이류(異類)혼인담

우라시마 전설은 각 시대마다, 각 장르마다 다양한 구성의 이본(異本)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북이가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연상되는 우라시마 전설은 무로마치(室町)시대 단편소설인 『오토기조시(御伽草子)』의 「우라시마타로(浦島太郎)」이야기로 주로 거북이의 방생과 보은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근간을 이룬 고대

여와보천(女媧補天)신화가 있고. 한국의 경우, 고구려의 주몽이 남쪽으로 도망칠 때 다리를 놓아 도와준 것이 거북이었으며, 『삼국유사』「가락국기」의 구지가처럼 신성한 군주의 출현을 요구하고 백성의 뜻을 신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던 것도 거북이었다.

3) 선행연구로는 우라시마 전설의 변용양상을 언급한 水野祐(1975) (「浦嶋子伝説の史的変遷」『古代社会と浦島伝説上』雄山閣出版)의 논과 三舟陸之(2009)(『浦島太郎の日本史』吉川弘文館)의 논, 거북이의 이류혼인담에 대해 언급한 項青(1999)(「亀が女になる話-浦島伝説の源流」『アジア遊学』2-3)논, 그리고 일본 『고전문학동물지』에서 간략하게 거북이에 대해 개괄한 篠 原進(1994)(「古典文学動物誌」『国文学』39-12 學燈社)의 논, 거북이 보은설화에 대해 고찰한 堅田修(1988)(「亀報恩説話の展開」『大谷学報』68-2)의 논이 있다.

우라시마 전설의 원형은 여자로 변한 거북이와 우라시마코(浦嶋子)가 인연을 맺는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의 구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고대 우라시마 전설의 유형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먼저 7세기경 나라(奈良)시대에 성립된 『만요슈(万葉集)』『니혼쇼키(日本書紀)』, 『단고국 후도키(丹後國風土記)』의 「일문(逸文)」등을 들 수 있다.[4] 그리고 헤이안(平安)시대에 들어와 최초의 한문소설이라 할 수 있는 「우라시마코전(浦島子伝)」을 통해 고대 우라시마 전설은 다양하게 이본(異本)을 생성하게 된다.[5] 이와 같은 다양한 우라시마 전설의 계통(系統) 속에서, 고대 우라시마 전설의 거북이 등장 또한 각각의 작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공통적인 특징은 여자로 변한 거북이와 우라시마코가 인연을 맺는다는 이류혼인담의 구성이다.

고대 우라시마 전설에 등장하는 거북이는 「큰 거북이(大亀)」「영험의 거북이(霊亀)」「오색 거북이(五色亀)」로,[6] 그 가운데 「영험의 거북이」「오색 거북이」의 등장은 거북이를 성스러운 존재, 중국의 신선・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행사상(五行思想)에 조응(照応)하는 색을 지닌 「五色(青・黄・赤・白・黒)」의 거북이는 소위 국가의 존망과 길흉에 대해 예견하는 성스러운 '신귀(神亀)'로 『엔기시키(延喜式)』의 상서(祥瑞)부분[7]에서도 거북이의 존재가 신의 화신(化身)임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존망과 길흉을 예견하는 '신귀'의 등장은 『만요슈』권1・50번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이른바 「신비한 거북이(奇しき亀)」의 예언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후지와라(藤原)궁으로의 천도(694-710년)를 "이 나라가 도코요가 될 것이라는 상서

4) 우라시마 전설의 원형문제에 있어, 단순한 구성 형태를 지닌 『니혼쇼키』의 원형설,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만요슈』의 원형설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필 연대적 시각에서 우라시마 전설의 성립을 『단고국후도키』『니혼쇼키』『만요슈』의 순으로 추정하고 있다(水野祐(1975) 「古伝説間の異同とその本質」『古代社会と浦島伝説上』雄山閣出版 p.97).

5) 고대 우라시마 전설은 헤이안시대 이후 한문전(漢文伝)으로 전승된다. 10세기 초에 『続浦島子伝記』, 11세기 말에 『本朝神仙伝』과 『扶桑略記』에 수록된 「浦島子伝」, 그리고 13세기 초에는 『古事談』에 수록된 「浦島子伝」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

6) 우라시마 전설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은 『日本書記』『扶桑略記』『本朝神仙伝』에서는 '大亀', 『続浦島子伝』『古事談』『君書類従浦島子伝』에서는 '霊亀'가 등장하고, 『風土記』逸文에서는 '五色亀'가 등장한다.

7) 「延喜式」神亀黒神之精也。五色鮮明。知存亡明吉凶也『国史大系』.
이 부분에 관해서는 項青(1999)(「亀が女になる話-浦島伝説の源流」『アジア遊学』2-3, p.110)의 지적이 있다.

로운 등 모양을 한 신비한 거북이도 새 시대를 축복한다(我が国は常世にならむ図負へる奇しき亀も新た代よ)"(『만요슈』①, p.54)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 우라시마 전설에 등장하는 거북이의 양상은 어떠한가. 먼저 『만요슈』권 9 「미즈에노 우라시마코를 읊는 노래(詠水江浦嶋子)」에서는 우라시마코가 해신(海神)의 딸과 만나게 되지만, 다른 전승과는 다르게 봉래산이나 거북이는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죽어가는 결말이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니혼쇼키』(유랴쿠(雄略)천황 22년(478년)7월조(條))의 우라시마 전설에서는 큰 거북이(大亀)가 등장한다.

> 7월의 가을 단고국 요사군 쓰쓰 강에 사는 미즈에노 우라시마코가 배를 타고 낚시하다가 큰 거북이을 잡게 되고, 갑자기 그 거북이는 여자로 변신한다. 우라시마코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바다로 향한 두 사람은 봉래산에 도달하여 선인을 접한다. 그 다음 이야기는 별권에 있다.
>
> 秋七月に、丹後国余社郡管川の人水江浦島子、舟に乗りて釣し、遂に大亀を得たり。便ち女に化為る。是に浦島子、感でて婦にし、相遂ひて海に入り、蓬莱山(とこのくに)に到り、仙衆を歴り覩る。語は別巻に在り。　(巻第14　雄略天皇, p.207)[8]

『니혼쇼키』의 우라시마 전설은 구성적인 면에 있어 우라시마코가 잡은 큰 거북이가 갑자기 여자로 변하고, 그 여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바다 저편의 이상향인 '도코요노쿠니(常世の国)', 즉 봉래산에 도착한다는 간략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여자로 변한 거북이의 존재는 우라시마코가 봉래산에 도착하여 "신선의 무리를 접했다(仙衆を歴り覩る)"라는 간략한 기술을 통해, 선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9]

따라서 거북이가 선경의 여자라는 점, 변신하는 힘을 가진 신이 동물로 변해 인간에게 접근하고, 혹은 아름다운 남자 혹은 여자로 변해 인간과 결합하는

8) 『니혼쇼키』의 본문인용은 小島憲之・藏中進(外)(1999)『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日本書記②)』小学館에 의함.

9) 여기에 대해서는 졸고(2014)「『우라시마 전설(浦島伝説)』의 생성과 대중화-나라(奈良)헤이안(平安)시대의 전승과정을 중심으로-」(『日本研究』61-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162)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설정은 일본설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0] 특히 거북이와의 이류혼인담의 설정은 일본의 다른 설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우라시마 전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11]

한편, 『단고국 후도키』의 우라시마 전설에서는 오색 거북이가 등장한다.

> 어느 날 우라시마코가 작은 배를 타고 낚시하러 바다로 나간다. 3일 낮과 밤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오색 거북이를 잡게 된다. 우라시마코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잠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잡은 거북이가 여인으로 변했다. 헌데 그 여인의 용모 또한 어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다.
>
> (三日三夜を経ぬれど一つの魚をだに得ず、乃ち五色の亀を得つ。心に奇異しと思ひ船の中に置き即ち寐つるに、忽に婦人となりぬ。その容美麗しくまた比ぶひとなし) (p.474)[12]

『니혼쇼키』에서는 거북이가 갑자기 여자로 변신해서 우라시마코와 부부가 되지만, 『단고국 후도키』에서는 우라시마코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오색 거북이가 여자로 변신한 설정이다. 여기서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오색 거북이의 존재 또한 천상의 선인(天の上なる仙家之人)으로 등장한다. 특히 오색 거북이 여인이 우라시마코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 달라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동에는 유혹하는 듯한 발상도 농후하다.

이렇게 오색 거북이 여인을 따라 봉래산에 도착하게 된 우라시마코는 그곳에서 오색 거북이 여인의 실체가 가메히메(亀比売)라는 것을 알게 되고, 궁전에서의 환영 연회 후 가메히메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한편, 가메히메와 함께 봉래산에서 3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우라시마코는 어느 날 고향이 그리워 귀향을 결심하자, 가메히메는 우라시마코에게 옥갑

---

10) 三浦佑之(1989)「丹後国風土記の浦島子」『浦嶋太郎—恋愛小説の発生』五柳書院, p.79.

11) 三舟隆之(2009)는 "거북이의 등장은 오히려 대륙적이다"(『浦島太郎の日本史』吉川弘文館 p.20)라고 지적하는 한편, 項青(1999)는 거북이로 변화는 이야기, 또는 거북이가 여성으로 변하는 이야기의 원류를 중국의 육조, 당대(3-9세기)의 괴이소설로 보고 있다(「亀が女になる話-浦島伝説の源流」『アジア遊学』2-3, p.111). 하지만 이러한 이류혼인담의 구조는 고대 신혼(神婚)설화가 지닌 신화적인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12) 『단고국 후도키』의 본문인용은 植垣節也校注・訳(1997)『(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風土記』小学館에 의함.

(玉匣)을 건네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절대로 열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별한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우라시마코는 가메히메와의 약속도 저버린 채 그 상자를 열게 된다. 바로 그 순간, 다시는 봉래산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우라시마코는 가메히메와의 이별을 후회하며 봉래산을 향해 울며 배회한다. 이처럼 『단고국 후도키』의 결말에서는 <老>와 <死>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불노불사의 주제를 내재적으로 표현한 장치라 할 수 있다.[13]

한편 『고지단(古事談)』의 「우라시마코전」에서는 영험이 있는 거북이, 즉 영귀(靈亀)가 등장한다. 여기서도 우라시마코가 잠든 사이 낚시해 잡은 영귀가 여인으로 변신하는 설정으로, 다른 고대 우라시마 전설과 다른 점은 거북이 여인의 미모에 대해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절세미인들과 비유하며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배안에서 잠든 사이 영험의 거북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미녀로 변했다. 옥 같은 얼굴의 요염함은 (진나라)남위의 소맷자락에 홀린 듯 정신을 잃을 듯하고, 하얀 살결의 아름다움은 (초나라)서시의 얼굴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 눈썹은 아미산에 나온 초승달 같고 보조개는 천한 수에 흐르는 별과 같다. 가녀린 몸은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가녀린 몸은 학이 나는 듯……,
>
> 舟の中に眠る間に霊亀変化して忽ち美女と作りき。玉顔の艶なること、南威袂を障ひて魂を失ひ、袂質の閑しきこと、西施面を掩ひて色無し。眉は初月の蛾眉山より出づるが如く、靨は落星の天漢水に流るるに似たり。繊軀は雲と聳き、当に散らむとして暫く留まり、軽き躰は鶴と立ち、将に飛ばんとして未だ翔らず…… (『古事談』「浦島子伝」, p.7)[14]

구성적인 측면에서 『우라시마코전』이 거북이의 변신과 결론에서 우라시마코가 금기를 파기해도 백발노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은 『단고국 후도키』의 패러디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라시마코전』에서는 우라시마코를 지

13) 졸고(2014)「『우라시마 전설(浦島伝説)』의 생성과 대중화-나라(奈良)・헤이안(平安)시대의 전승과정을 중심으로-」『日本研究』61-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169.

14) 『古事談』의 본문인용은 川端善明・荒木浩 校注(2005)『(新日本古典文学大系41)古事談・続古事談』岩波書店에 의한다.

선(地仙)으로, 거북이 여인을 천선(天仙)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단고국 후도키』보다 좀 더 신선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선인에 대한 귀족들의 동경을 수용한 『우라시마코전』의 특징적 요소로, 헤이안 시대의 우라시마 전설은 불로불사의 선경 묘사, 선녀와의 사랑, 이경(異境)의 무시간성 등의 신선사상의 공통적인 요소가 중국 고대 전기소설과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15]

특히 우라시마코가 봉래산에 사는 가메히메와 인연을 맺는다는 이류혼인담은 거북이와 봉래산전설을 융합시킨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북이가 여자로 변하는 모티브는 중세이후 『오토기조시』의 「우라시마타로」 전승을 전환점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고, 우라시마 전설은 거북이와의 이류혼인담에서 거북이의 보은담으로 변용되어 간다.

Ⅱ. 거북이의 보은담

고대 우라시마 전설에서는 우라시마코와 거북이와의 이류혼인담이 그 중심이었다면, 『오토기조시』의 「우라시마타로」에서는 거북이의 방생과 보은이 그 주제의 중심이다.

단고지방의 어부 우라시마타로는 어느 날 커다란 거북이를 잡자, 불쌍한 마음에 바다로 다시 방생하면서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은을 강조한다.

> 거북이는 만년을 산다는데, 살려줄 테니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 「亀は万年の齢を経ぬるもの、思ひ知れ」とて放しける
> (『室町物語草子集』「浦島の太郎」, p.254)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낚시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우라시마타로는 여인이 홀로 탄 배 한척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의 부탁에 따라 함께 배를 타고 황금빛 바다에 도착, 사방사계의 용궁정토로 안내받는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이 어제 우라시마

15) 다키오토 요시유키(瀧音能之)씨는 이 현저한 신선사상의 경향에 대해 '지식인 계급에 있어서 문인 취미의 침투'와 그 당시의 피하고 싶은 현실사회의 불안이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瀧音能之(2008)「浦島子伝承の変容」『駒沢史学』50-8, p.23.

타로가 살려준 거북이라는 것을 밝히고,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왔으니 보잘 것 없는 몸이지만 아내로 맞이해 달라(その恩のおくらばやと思ひ、これまで参りて候ふなり。数ならぬ身にて候へども、あはれ、夫婦になり申さん)”(p.254)[16]고 청해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처럼 『오토기조시』의 「우라시마타로」에서는 고대 우라시마 전설과 같이 거북이가 갑자기 여자로 변신하는 구조는 없다. 다만, 살려준 거북이가 이후 여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인연을 맺는다는 변용된 이류혼인담이 존재하고 있으며, 더불어 거북이의 방생과 그에 따른 보은담이 융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다면, 『오토기조시』의 「우라시마타로」에서 나타난 거북이 보은담의 생성과정에는 어떠한 문학적 요소가 작용했으며, 다른 작품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인가. 시노하라 스스무(篠 原進)는 “거북이 보은담과 고대 우라시마 전설이 결합하여 『우라시마타로』가 성립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17] 『우라시마타로』의 생성에는 거북이 보은설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북이 보은담은 거북이의 목숨을 구하고 바다로 방생한 구원자가 거북이의 보은으로 복이나 재물을 얻거나, 용궁으로 초대받거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형태, 그리고 다소 드물지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가족, 특히 자식이 위난(危難)에서 구해주는 형태[18]로 전개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거북이의 보은설화는 『니혼료이키(日本霊異記)』를 시작으로, 그 이후 많은 설화집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거북이 보은담은 중세시대 보은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곤자쿠모노가타리슈』巻5-19 「천축의 거북이, 인간에게 보은하는 이야기(天竺亀、報人恩語)」에서 은혜를 입은 거북이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생명의 은인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있다.

어느 날 천축(天竺)의 도심자(道心者)는 낚시꾼으로부터 죽음에 처한 거북이

16) 이후 『室町物語草子集』「浦島の太郎」의 본문인용은 大島 建彦・渡浩一(2002) 『新編 日本古典文学全集』에 의한다.
17) 篠 原進(1994) 「古典文学動物誌」 『国文学』39-12 學燈社, p.127.
18) 여기에 대해서는 星田公一(1974)(「今昔物語集の山蔭中納言説話の形成と影響」 『同支社国文学』9-2, pp.68-69)의 언급이 있다.

를 사서 방생한다. 몇 년 후, 방생한 거북이가 꿈에 나타나 곧 홍수가 날거라고 예언하자, 천축의 도심자는 수난(水難)을 피할 배를 준비한다. 이윽고 예언대로 커다란 홍수가 나자 천축의 도심자는 거북이와 함께 물에 떠내려가던 뱀, 여우를 배에 태워 목숨을 구해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 남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거북이는 "짐승은 은혜를 알지만,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獣ハ恩ヲ思ヒ知ル者也, 人ハ恩ヲ不知ザル也)"(p.444)[19]며 배에 태우기를 거절하지만, 결국 천축의 도심자는 목숨을 구해준다.

그 이후 천축의 도심자는 목숨을 구해준 뱀의 보은으로 묘지에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혜 입은 남자는 목숨을 구해준 보은은커녕 오히려 그 재물을 탐해, 국왕에게 간계를 꾸며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린다. 이에 거북이, 뱀, 여우는 함께 국왕에게 여러 가지 묘책을 부려 천축의 도심자를 구해 보은하고, 재물만 탐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벌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이 보은담에서는 거북이가 예언자로, 그리고 동물과는 달리 욕심 많은 인간을 은혜도 모르는 존재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곤자쿠모노가타리슈』巻9-13「어느 남자가 아버지 장사 돈으로 거북이를 사서 강에 놓아준 이야기(□人、以父銭買取亀放河語)」는『우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巻十三・第四話)「거북이를 사서 놓아준 일(亀を買って放つ事)」의 내용과도 동일하다.

어느 날 천축의 한 남자가 뱃사람에게 장사한 자금 오천 냥을 주고 다섯 마리의 거북이를 사서 방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귀향한 주인공은 아버지께 죄송스런 마음으로 장사 돈을 다 써버린 사정이야기를 한다. 그때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그 장사 돈은 이미 검은 옷차림의 다섯 명에게 받았다고 한다.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거북이를 팔아넘긴 뱃사람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때 강바닥에 떨어져 물에 젖은 돈을 다섯 마리의 거북이가 사람으로 변해 주인공의 집으로 가져다 준 것이다.

여기서 검은 옷을 입은 다섯 명은 주인공이 목숨을 구해준 다섯 마리의 거북이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천축의 남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진단부(震

19) 이후『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본문인용은 今野達 校注(1999)『新日本文学大系』岩波書店에 의한다.

旦部)에 속하는 내용으로, 돈으로 거북이를 사서 방생하고, 거기에 대해 거북이가 보은하고, 거북이를 돕기 위해 잃어버린 금품을 다시 돌려주는 공통점은 중국 불교의 인과응보 이야기를 다룬 『명보기(冥報記)』의 양주엄공(楊州嚴恭) 설화와 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20]

다음으로 『곤자쿠모노가타리슈』巻17-26화 「거북이를 사서 놓아준 남자, 지장보살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買亀放男、依地蔵菩助得活語)」는 목숨을 구해준 거북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가난한 남자가 아내가 준 옷감을 팔러 가는데, 곧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거북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거북이를 옷감과 바꾸고 바다에 방생한다. 여기서 주인공이 방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명존중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 거북이는 장수하는 동물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목숨이 보배인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옷감을 주고 거북이를 구해야겠다.
>
> 亀ハ此レ命永キ者也。命有ル者ハ命ヲ以テ財トス。我レ家ヘ貧シト云ヘドモ、布ヲ棄テ汝ガ命ヲ助クル也 (『今昔物語集④』, p.47)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에 아내는 화를 내게 되고, 주인공 또한 얼마 안 있다 병에 걸려 죽게 된다. 그리고 사후, 염라청에 가게 되는데 그때 지장보살이 나타나 예전에 목숨을 구해준 거북이가 지장보살의 화신(化身)임을 밝히고, 그 보은으로 다시 명토(冥土)에서 소생시킨다.[21] 이 일화에서는 거북이의 보은이 현세 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로부터의 환생으로 전개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일화는 불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헤이안 중기부터 지장신앙의 융성과 함께 지장보살의 영험담과 거북이의 보은담이 결합되어

---

20) 堅田修(1988)는 이 이야기의 유래를 『명보기(冥報記)』상권에 보이는 양주엄공(楊州嚴恭)의 설화를 근거로 해서 시간・장소・인물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번안해서 구성한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있다(「亀報恩説話の展開」『大谷学報』68-2, p.3)

21) 此レ地蔵菩薩也。此ノ男ハ我ガ為ニ恩ヲ施セル者也。我レ有情ヲ利益セムガ為ニ、彼近江国ノ江ノ辺ニシテ、大ナル亀ノ身トシテ有リシ。海人ノ為ニ被引捕テ、命ヲ被殺ムトセシニ、此ノ男慈ノ心ヲ発シテ、亀ヲ買取テ命ヲ助けテ、江ノ中ニ放テキ。然レバ、速ニ此ノ男可免放シ(『今昔物語集④』, p.48)

구성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22]

이와 같이 불교적 색채를 띤 거북이 보은담의 양상은『곤자쿠모노가타리슈』卷第19-30화 (本朝部)「거북이, 백제 구사이 스님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亀、報百済僧弘済恩語)」의 일화에서도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는『니혼료이키(日本霊異記)』上巻・第7話「거북이의 목숨을 사서 방생하여, 현보를 얻고 거북이에게 도움을 받은 인연(亀の命を贖ひて放生し、現報を得て、亀に助けられし縁)」이야기를 재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구사이(弘済)라는 스님이 빈고국(備後国)로 돌아가던 중, 나니하(難破) 포구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거북이 네 마리를 사서 방생한다. 그리고 스님은 배를 타게 되는데, 욕심이 많던 배 주인이 스님과 함께 탄 동자를 바다에 먼저 던지고, 스님 또한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다. 이때 은혜를 입은 거북이가 물에 빠진 스님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등에 태워 스님의 목적지인 빈고국의 포구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는 거북이 보은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승의 양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거북이가 사람에게 보은을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나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다.
>
> 亀ノ人ノ恩ヲ報ズル事今ニ不始ズ、天竺・震旦ヨリ始メテ比ノ朝マデ此ナム有ケル、トナム語り伝へタルトヤ (『今昔物語集④, p.174)

이 기술은 거북이 보은담이 인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설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거북이 보은담의 구성에 있어『곤자쿠모노가타리슈』권19-29화「거북이가 야마카게 중납언에게 보은한 이야기(亀、報山陰中納言恩語)」는 거북이의 보은의 형태가 생명의 은인에게 직접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한테 부여되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야마카게 중납언(山陰中納言)이 스미요시(住吉)로 참배하러 가던 중 죽음에 처한 큰 거북이를 발견하고 한 남자에게 기모노를 주고 사서 바다에

22) 堅田修(1988)「亀報恩説話の展開」『大谷学報』68-2, p.8.

방생한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야마카게 중납언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를 기회삼아 계모는 그의 아들을 아무도 모르게 사고로 위장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야마카게 중납언은 이러한 계모의 계략도 모른 체 바다에 빠진 아들을 찾으려고 이 곳 저 곳을 찾아 헤매는데, 기이하게도 그때 마침 한 마리의 거북이가 나타나 바다에 빠진 아들을 등에 태우고 배로 데려다준다.[23] 이렇게 아들은 다시 살아오고, 아들 걱정으로 지쳐 있던 중납언은 잠시 잠에 들게 된다. 그때 꿈속에서 아들을 구해준 큰 거북이가 나타나 자신은 예전에 중납언이 구해준 거북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들이 바다에 빠진 것은 계모의 짓이며, 은혜를 갚기 위해 바다에 빠진 아들을 등에 태워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자초지종을 전한다.

여기서 계모의 학대 사실은 꿈을 통한 거북이의 진언에 의해 들어나고, "무엇을 해서라도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何二シテカ此ノ恩ヲ報ジ)"는 거북이의 보은의지는 목숨을 구해준 중납언의 자식을 위난(危難)에서 구해주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리고 보은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이 일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그 거북이는 은혜를 갚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구하고, 꿈에도 나타나는 부처와 보살의 화신(仏菩薩ノ化身)이라 할 수 있다.
>
> 彼ノ亀、恩ヲ報ズル二シモ非ズ。人ノ命ヲ助ケ、夢見セナドシケムハ糸只者二ハ非ズ。仏菩薩ノ化身ナド二テ有ケル二ヤ。 (『今昔物語集④』, p.192)

이처럼, 거북이는 부처와 보살의 화신(化身)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일화는 거북이 보은담에 계모학대담이 혼합된 형태로 일반적인 계모담과 다른 것은 의붓자식을 학대한 계모가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계모를 의붓자식이 봉양한다는 결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곤자쿠모노가타리슈』를 중심으로 살펴본 거북이 보은담의 특징은 방생의 보은으로 돈이나 재물을 받는 실리적(實利的)인 양상을 비롯하여,

---

23) 이 거북이 보은담은 『宝物集』巻下・巻五, 『十訓抄』一第五話, 『源平盛衰記』巻26에도 실려 있다.

다시 죽음에서 소생시키는 불교적 윤회(輪回)의 재생 논리, 그리고 바다에 빠지거나 홍수에서 구해주는 소위 수난방호(水難防護)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우라시마 전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거북이 보은담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헤이안 시대를 시작으로 중세의 불교설화의 영향 하에 새로운 우라시마 전설이 생성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Ⅲ. 신들의 '노리모노(乗り物)' 거북이

무로마치시대에 성립한 단편이야기집인『오토기조시』의 출현은 우라시마이야기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그 이후 옛이야기 '무카시바나시(昔話)' 형태로, 그리고 에마키(絵巻)・노오(能)・교겐(狂言) 등의 여러 가지 매개체로 유통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이미지화된「우라시마타로」이야기는 낚싯대를 잡은 우라시마타로가 거북이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가는 것을 연상할 것이다. 하지만 고대 우라시마 전설의 우라시마코나『오토기조시』의 우라시마타로는 배를 통해 봉래산으로 혹은 용궁으로 이동할 뿐, 거북이의 등에는 타지 않는다.

사카구치타모츠(坂口保)씨는 우라시마타로가 거북이의 등에 탄 시기를 "18세기 중반으로 추정하며, 19세기 초에는 그것이 완성되었다"[24]고 지적하고 있듯이, 우라시마타로의 용궁으로의 이동수단이 배에서 거북이로 변용된 것은『오토기조시』이후의 에도(江戸)시대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도시대를 이어 메이지(明治)시대의「우라시마타로」이야기 속에서는 우라시마타로가 아이들에게 잡혀 괴롭힘을 당하는 거북이를 돈 주고 사서 바다에 놓아주자, 은혜를 입은 거북이가 그 보답으로 우라시마타로를 등에 태워 용궁을 구경시켜 준다는 구성으로 정형화된다.[25]

---

24) 坂口保氏(1955)『浦島説話の研究』「江戸時代における浦島説話」 新元社, p.98 (林晃平(1995)「浦島乗亀譚の周辺-浦島伝説と亀・その一」『駒沢大学苫小牧短期大学紀要』27-3, p.60)에서 재인용.

25) 우라시마타로는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하세가와 타케지로(長谷川武次郎)가『니혼무카시

하지만 거북이의 등에 타서 이세계(異世界)로 이동하는 이야기, 거북이가 '노리모노', 즉 탈 것의 기능을 하는 이야기는 고대신화 속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오토기조시』이후의 「우라시마타로」전승에서 재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원류가 『니혼쇼키』의 우미사치 야마사치(海幸山幸)의 이향방문담, 즉 해신궁유행설화(海神宮遊行説話)이다. 『니혼쇼키』(巻第2)에서 야마사치히코(山幸彦)는 형인 우미사치히코(海幸彦)의 낚싯바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자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 형의 낚싯바늘을 찾을 수 있도록 바구니를 만들어 바다로 내보낸다. 해신 궁에 도착한 야마사치히코는 그곳에서 해신의 도움으로 입에 상처가 나서 고생하던 물고기 입에서 낚싯바늘을 찾게 되고, 아름다운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豊玉姫)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이렇게 해신의 궁전에서 3년 동안 지내던 야마사치히코는 고향이 그리워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고자 하자, 임신 중이던 도요타마히메는 야마사치히코에게 바닷가 근처에서 산실(産屋)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이윽고 출산이 다가오자, 도요타마히메는 다음과 같이 거북이를 타고 여동생과 함께 지상으로 올라온다.

> 도요타마히메는 커다란 거북이를 타고, 여동생 다마요리히메(玉依姫)를 데리고 바다에서 빛을 내 비추며 지상으로 올라왔다.
> 豊玉姫、自ら大亀に駅り、女弟玉依姫を将ゐ、海を光し来到る
> (『日本書記』, p.179)

여기서 거북이가 신의 이동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듯이, 거북이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존재이자, 지상세계와 바다의 이상향을 연결해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야마시치히코가 해신의 딸과 결혼해 3년 동안 해신 궁에서 지내다

바나시(日本昔噺)』의 한편으로서 정리하였으며, 1896년 이와야 사자나미(巌谷小波)가 전시대의 이야기를 보은담에 주안을 두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으로 개작하여, 1910년부터 35년간 국정교과서의 교재가 되어 정착하였다. 그 이후 다자이오사무(太宰治)의 『오토기조시(お伽草紙)』에 수록된 「우라시마상(浦島さん)」은 기존의 거북이 보은담의 틀에서 벗어난 「어른들의 풍」의 우라시마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목숨을 구한 거북이는 보은은커녕 오히려 어른들의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구해준 우라시마상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가 귀향하는 것, 그리고, "산실을 엿보지 말라"는 소위 금기침범으로 인해 도요타마히메와 헤어지게 된다는 내용은 고대 우라시마 전설의 구성에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고지키』중권, 간무(神武)천황의 동벌(東征)신화에서 간무천황이 낚싯대를 들고 거북이의 등에 탄 지신(地神) 구니츠카미(国つ神)에게 "바다의 길을 잘 아느냐(海道を知れりや)"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간무천황에게 바닷길을 인도하는 구니츠카미는 해신의 존재임을 추측할 수 있고, 구니츠카미를 태운 거북이는 신의 사자(使者)로서,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수령적(水霊的) 존재'[26]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무천황의 바닷길을 인도하게 되어 사오네쓰히코(槁根津日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구니츠카미가 "거북이 등에 타고 낚싯대를 들고 소매를 흔들며 오는 (亀の甲に乗りて釣りを為つつ打ち羽挙り来る)" (『니혼쇼키』p.143)모습에서는 우라시마타로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렇듯 고대신화에서 거북이는 신을 태워 이동하는 존재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리모노', 즉, 탈 것으로서의 양상은 앞서 살펴본『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거북이 보은설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거북이 보은설화 가운데, 권19-29화「거북이 야마카게 중납언에게 보은하는 이야기(亀、報山陰中納言恩語)」에서는 계모가 바다에 빠트린 중납언의 아들을, 권19-30화「거북이, 백제 구사이 승녀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亀、報百済僧弘済恩語)」에서는 바다에 빠진 스님 구사이를 거북이가 등에 태워 목숨을 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거북이 보은담에서 거북이가 자신의 등에 태우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오토기조시』이후의「우라시마타로」를 비롯하여, 거북이 보은담에서 나타난 거북이는 '노리모노' 즉, 탈 것이라는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보이고 있는데, 거북이 등을 타고 봉래산 혹은 용궁이라는 이세계로 들어가는 양상은 고대 신화 속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

26) 堅田修의 앞의 책, p.11.

Ⅴ. 봉래산을 짊어진 거북이

우라시마 전설의 결론부분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오토기조시』의 「우라시마타로」의 경우, 금기의 상자를 열어 백발의 노인이 된 우라시마타로는 이후 학으로 환생하여 거북이와 함께 노니는 모습으로 여운을 남긴 채 결말을 맺는다.

> 우라시마타로는 학으로 환생하여 밤낮으로 거북이와 함께 사이좋게 노닐었다.
> 浦島は鶴に生まれ、亀に戯れをなし、朝夕遊び戯れ給ひける。 (p.266)

이처럼 학으로 환생한 우라시마타로가 "거북이와 함께 노닐었다"는 여운은 우라시마타로를 연상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과 거북이가 "서로 노닐다(遊び戯れ)"라는 표현은 와카(和歌)에서도 연동되는 어구로, 학구(鶴龜)가 주는 영원성, 즉 장수를 상징하는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속우라시마코전기(続浦島子伝記)』의 결말부분에서 옥갑을 열게 된 우라시마코의 마지막 모습을 거북이와 학으로 비유하면서 선인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기술하고 있는 것과도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 학과 같이 서서 길게 목을 빼고 멀리 거북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바다의 봉래산을 바라다보며… 선계의 산하에서 놀고 있는 듯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결국에는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지선으로 불렀다.
> 頸を延して鶴立ち、遥かに亀の海の蓬逢を望み…巌河に飛び遊びて、海浦に隠れ淪みき。遂に終ふる所を知らず、後の代地仙と号くるなり。
> (『群書類従』所収「続浦島子伝記」, p.61)

우라시마코가 천선과 사랑을 나누고, 봉래산에 가서 불로장생을 얻어 지선이 되고, 더 나아가 『신선전(神仙伝)』에서처럼 선인으로 승화되어 장수를 상징하는 인물로,[27] 그리고 불로장생을 얻기 위한 우라시마 명신(浦嶋明神)과 같은

27) 大江匡房이 편찬한 『본조신선전』에는 37인의 신선전(神仙伝)을 전하고 있는데, 우라시마코를 선인의 한 사람으로 열거하고 있다 (三舟隆之(2009) 『浦島太郎の日本史』吉川弘文館, p.81). 또한 『속일본후기(続日本後記)』嘉祥2년(849년)3월 庚辰条에 仁明帝의 40세 탄

기원의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우라시마 전설이 불로장수에 대한 동경을 만족시키는 도구"[28]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라시마코의 죽음은 배제되었으며, 거북이와 학으로 상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북이는 학과 함께 와카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축언(祝言)적 기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와카로는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아리와라노 시게하루(在原滋春)의 노래를 들 수 있다.

> 장수한다는 학과 거북이도 천년 후는 아무도 모른다고는 하나, 당신이 오래 산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어찌할 수 없네요.
> 鶴亀も千年のちは知らなくに飽かぬ心にまかせはててむ。 (賀歌, 355번)

또한 장수를 상징하는 '학구(鶴龜)'의 소재는 고대 모노가타리(物語)장르에 있어서도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우쓰호모노가타리(宇津物語)』의 「구니유즈리(国譲)」권에서는 후지쓰보(藤壺)의 세 번째 황자 탄생 축하연인 '우부야시나이(産養)'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나가타다(仲忠)가 축하선물로 준비한 바다 모양의 선물은 봉래산을 등에 짊어진 거북이와 학을 표상화하면서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 아홉 번째 밤. 태정대신이 궁중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대단히 진귀한 축하연 선물들이 헌상되었다. 우대신(나카타다)선물은 커다란 바다모양을 하고 있는데 봉래산을 등에 짊어진 거북이의 배 아래에는 향기로운 향이 담겨져 있다…그리고 바다 수면 위에는 검은 학 네 마리가 물에 젖어 더욱더 검은색을 띠고, 하얀 학 네 마리 또한 그러하다. 커다랗게 줄지은 학은 은백색을 배에 띠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불로불사의) 약을 담고 있다.
> かくて九日の夜は、大殿、内裏の大饗の御前のものしたまふ。ここかしこより、いと清らにて奉りたまふ。右大将殿、大いなる海形をして、蓬莱の山の下の亀の腹には、香ぐがしき裳衣を入れたり。…海の面に、色黒き鶴四つ、みなしとどに濡れて連なり、色はいと黒、白きも四つ。大きさ例の鶴のほどにて、白銀を

신을 축하하기 위해 우라시마코 형상을 제조한 것은 불로장생의 기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勝俣隆(1985)「浦島伝説の一要素-丹後国風土記逸文を中心に」『国語国文』54-2, p.19).

28) 水野祐(1975)「浦嶋子伝説の史的変遷」『古代社会と浦島伝説上』雄山閣出版, p.126.

腹ふくらに鋳させてり。それには、よろづのありがたき薬、一腹づつ入れたり。
(国譲・中, p.156)[29]

여기서 해상의 경치를 모방한 '해형(海形)'의 묘사 가운데 '봉래산 아래의 거북이 배(蓬莱の山の下の亀の腹)'의 표현은 봉래산을 등에 짊어진 거북이를 지칭한 것이며, 하얀 학의 배에 채워진 약은 봉래산에 있다는 불로장생의 약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북이와 학이 장수를 상징하는 한 쌍의 동물로서 규정지어진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곤자쿠모노가타리슈』권5-24화 「거북이, 학의 말을 믿지 않고, 땅에 떨어져 등이 부서진 이야기(亀不信鶴教落地甲語)」에서는 거북이와 학과의 밀접한 인연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날 천축에 가뭄이 나자 연못의 거북이는 곧 죽음에 처할 위기를 맞이한다. 그때 마침 연못으로 학이 날아오자 거북이는 다음과 같이 '전생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청한다.

너와 나는 전생에 인연이 있어, 학과 거북이는 한 쌍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부처님 말씀에 전해진다. 경전에서도 만물의 비유에는 거북이와 학을 가지고 비유했다.
汝ト我レト前世ノ契有テ、鶴亀ト一双名ヲ得タリト、仏説給ヘリ。説教ニモ万ノ物ノ譬ニハ亀 鶴ヲ以テ譬ヘタリ。 (『(新大系)今昔物語集①』, p.458)

결국 학은 거북이와의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거북이를 입에 물고 물이 많은 신천지로 향한다. 하지만 비행 중에는 절대 "말을 걸지 말라"는 학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극락정토의 경치에 감탄한 거북이는 학에게 말을 걸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등이 부서져 죽게 된다. 이 일화는 거북이의 어리석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거북이와 학과의 밀접한 전생의 인연이 부각되어 나타나 있다. 이처럼 학과 거북이는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학구'라는 동반된 표현으로 축하의 장면에서 신선세계를 그대로 체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선경의 봉래산과 거북이, 그리고 학이 함께 하는 풍경은 『료진히쇼(梁塵秘抄)』巻第2 (雑・八十六首)의 이마요(今様) 가운데, 316번-321번의 노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29) 이하, 『우쓰호모노가타리』 본문 인용은 中野幸一校注(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うつほ物語①②③』, 小学館)에 의함.

316 만겁의 세월을 보낸 가메야마(거북이 산)의 아래에는 샘물이 깊기에 이끼가 자라고 바위 동굴에 소나무가 자라는데, 그 가지 끝에서 학이 놀고 있구나.
万劫年経る亀山の下は泉の深ければ
苔ふす岩屋に松生ひて　梢に鶴こそ遊ぶなれ[30]

317 만겁의 세월을 보낸 거북이 등은 끝없이 파도가 밀려와 씻겨나가 티끌조차도 쌓일 틈이 없었을 텐데, 어째서 높은 봉래산이 되었을꼬.
万劫亀の背中をば　沖の波こそ洗ふらめ
いかなる塵の積もりゐて蓬莱山と高からん

318 바다에는 만겁의 거북이가 놀며, 봉래・방장・영주의 세 산(神仙山)을 짊어지고 있네. 큰 바위가 만들어진 거북이의 나이를 당신께 올립니다.
海には　万劫亀遊ぶ　蓬莱方丈瀛州　この三つの山をぞ戴ける
巌に練ずる亀の齢をば　譲る譲る君にみな譲る

319 바다에는 만겁이 지난 거북이가 놀고 있고 봉래산을 등에 업고 있다. 선인동을 학 등에 태워 보내, 태자를 모셔와 같이 놀고 싶구나.
海には万劫亀遊ぶ　蓬莱山をや戴ける
仙人童を鶴に乗せて 太子を迎へて遊ばばや

320 황금의 산에서 학과 거북이가 서로 이야기 하네.
선인동이 살며시 들으니 우리 주인님이 수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黄金の中山に　鶴と亀とはもの語り
仙人童の密かに立ち聞けば 殿は受領になりたまふ

321 수미산을 살며시 비취고 있는 달은 연꽃 연못에 머무르고,
그 보석 같은 빛에 끌려 수변으로 다가온 만겁의 거북이는 이렇게 놀고 있네
須弥を遥かに照らす月　蓮の池にぞ　宿るめる
宝光渚に寄る亀は 劫を経てこそ遊ぶなれ

---

30) 이하, 『료진히쇼』의 본문인용은 臼田甚五郎・新間進一・外村南都子校注・訳(2000) 『(新編古典文学全集)梁塵秘抄』에 의한다 (pp.269-270).

만겁의 거북이가 등에 짊어진 산이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이라는 것은 317, 318, 319의 노래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봉래산의 다른 명칭이 거북이 산 즉 '가메야마'를 지칭한다는 것 또한 316의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대 우라시마 전설에서의 거북이 여인이 봉래산으로 우라시마코를 데리고 가듯, 당시의 유행가요인 '이마요'에서 거북이와 봉래산과의 밀접한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319의 노래에서 거북이의 등에 짊어진 봉래산의 선경에 태자를 모셔와 '놀고 싶다'고 읊은 이 노래는 신선사상의 세계를 그대로 회화적으로 표현하며 '학구'의 축언가요를 통해 태자를 찬미하고 있으며, '학구가 논다'는 풍경의 저변에는 왕권에 대한 축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31]

뿐만 아니라 320번 노래에서 학과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는 선인동(仙人童)의 등장과 321번 노래에서 극락정토의 상징인 수미산과 연꽃 연못을 배경으로 노니는 거북이 모습 또한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풍경이다.

이처럼 학과 거북이가 함께 등장하는 풍경에는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장수, 영원성의 축원뿐만 아니라, '학구가 노닐다(鶴亀が遊ぶ)'라는 표현 기층의 일면에는 예악사상을 근간으로 천황이나 왕권에 대한 축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 인식은 노오(能)의 「학구(鶴亀)」에서 학과 거북이가 춤을 추는 것 또한 천황의 덕과 치세, 그리고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32]

이렇듯 '학구'의 장수 노래가 천황의 덕과 치세를 축원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듯이,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뿐만 아니라 왕권의 영원성을 표상하는 요소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1) 縄手聖子(2011)「遊ぶ鶴亀と「太子」の王権と礼楽-『梁塵秘抄』三一九番の歌「太子を迎へて遊ばばや」について」『日本文学』60-9, p.11.

32) 노가쿠(能楽)『학구(鶴亀)』에서는 「亀は万年の齢を経、鶴は千代をや重ぬらん」라는 학구노래가 정착하여 학과 거북이를 엔기모노(縁起物)로서 인식하게 된다.

Ⅵ. 결론

이상, 우라시마 전설의 거북이 변용 유형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일본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고대 우라시마 전설에서는 주인공 우라시마코가 여자로 변신한 거북이와 인연을 맺는다는 이류혼인담이 그 주된 구성 요소로, 이러한 구성은 일본의 다른 설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우라시마 전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로마치시대『오토기조시』의「우라시마타로」를 전환점으로 그 구성은 거북이의 방생과 보은으로 변용되어 갔다.

중세이후 우라시마 전설이 거북이 보은담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불교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그 영향관계는『니혼료이키』를 비롯하여『곤자쿠모노가타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오토기조시』의「우라시마타로」, 즉 새로운 우라시마 전설의 탄생에는 고대 우라시마 전설과 거북이 보은담과의 융합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오토기조시』의「우라시마타로」이후, 우라시마 전설에 나타난 거북이는 우라시마타로를 용궁으로 데리고 가는, 즉 '이세계'로의 이동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고대 우라시마 전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우미사치・야마사치 신화와 간무천황의 동벌신화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오토기조시』의「우라시마타로」의 결말은 우라시마타로가 학으로 환생하여 거북이와 함께 '노니는(遊び戯れ)', 신선사상의 회화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과 거북이가 서로 '노닐다(遊び戯れ)'라는 표현은 와카에서도 연동되는 어구로, 그것은 거북이과 학이 주는 영원성, 즉 장수를 상징하는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거북이는 학과 함께 축언(祝言)적 기능을 하는, 더 나아가 천황의 치세와 덕을 칭송하고, 왕권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상서로운 동물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라시마 전설의 시대적 변용과정에 나타난 거북이의 양상은 일본고전문학 속에 투영된 거북이의 이미지를 총합적으로 대변한 형태라 할 수 있다.

＜参考文献＞

小島憲之(1999)　蔵中進(外)校注『(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日本書記②』小学館, p.207
小島憲之 校注(1995)『(新編古典文学全集)万葉集(2)』小学館, pp.414-417
植垣節也 校注・訳(1997)『(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風土記』小学館, pp.473-483
川端善明・荒木浩 校注(2005)『(新日本古典文学大系41)古事談・続古事談』岩波書店, pp.6-11
中野幸一校注(1999)『(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うつほ物語①②③』小学館, p.156
重松明久(1981)『浦島子伝』現代思潮社 pp.8-288
三浦佑之(1989)『浦嶋太郎-恋愛小説の発生』五柳書院, pp.8-195
三舟陸之(2009)『浦島太郎の日本史』吉川弘文館, pp.3-221
水野祐(1975)『古代社会と浦島伝説上』雄山閣出版, pp.3-175
下出積與(1986)『古代神仙思想研究』吉川弘文館, pp.35-.230
項青(1999)「亀が女になる話-浦島伝説の源流」『アジア遊学』2-3, p.110
篠 原進(1994)「古典文学動物誌」『国文学』39-12 學燈社, p.127
勝俣隆(1985)「浦島伝説の一要素-丹後国風土記逸文を中心に」『国語国文』54-2, pp.19-32
瀧音能之(2008)「浦島子伝承の変容」『駒沢史学』50-8, pp.1-37
林晃平(1995)「浦島乗亀譚の周辺-浦島伝説と亀・その一」『駒沢大学苫小牧短期大学紀要』27-3, pp.55-75
石井公成(1995)「誓願の威力か亀の恩返しかー『日本霊異記』上巻第七縁の再検討ー」『駒沢大学仏教学部研究紀要』53-3, pp269-285
縄手聖子(2011)「遊ぶ鶴亀と「太子」の王権と礼楽-『梁塵秘抄』三一九番の歌「太子を迎へて遊ばばや」について」『日本文学』60-9, p.11
堅田修(1988)「亀報恩説話の展開」『大谷学報』68-2, p.8
星田公一(1974)「今昔物語集の山蔭中納言説話の形成と影響」『同支社国文学』(9-2), pp.68-69
류정선(2014)「『우라시마 전설(浦島伝説)』의 생성과 대중화-나라(奈良)헤이안시대의 전승과정을 중심으로-」『日本研究』61-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162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日本古代文学における亀の様相
－ 浦島伝説を中心に －

柳靜先

日本古典文学における亀の様相といえば、まず、浦島伝説の亀が連想される。古代浦島伝説では、女に変身した亀と浦嶋子とが夫婦の契りを結ぶ異類婚姻譚が設定されており、亀が女に変身するモチーフは室町時代に成立した『御伽草子』の「浦嶋太郎」に至ってから亀の放生と報恩という主題へと変容していった。

そして中世以後、浦島伝説の構成が亀の報恩譚として定着していったのは『日本霊異記』をはじめ、『今昔物語集』の亀の報恩譚の影響によるものであると思われる。すなわち『御伽草子』の「浦嶋太郎」という新しい浦島伝説の誕生には、『万葉集』『日本書記』『丹後風土記』の古代浦島伝説と亀の報恩譚との融合が作用しているのである。

また、『御伽草子』の「浦島太郎」以後、亀が浦島太郎を背中に乗せて竜宮へ連れていくようになったことは、亀が異界への'乗り物'として機能をし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は、古代浦島伝説の原型といえる海幸山幸神話と桓武天皇の東伐神話において神が亀に乗って登場する部分に、その源流をたどることができる。

一方、『御伽草子』の「浦島太郎」の結末には、浦島太郎が鶴に幻生し、亀とともに'遊び戯れ'という神仙思想の繪畵的な風景が装置されている。ここで鶴亀の'遊び戯れ'という表現は、和歌や『梁塵秘抄』の今様にも連動され、鶴亀の永遠性・長壽を象徴し、その表象が天皇の治世に対する祝言と天皇の徳を讃揚する瑞祥として機能をしているのである。

<Abstract>

Turtles Featured in Ancient Japanese Literature
– Focused on the *Legend of Urashima* –

Ryu, Jung-Sun

Among Japanese people, turtles began to be prominently featured in the *Legend of Urashima*. The main theme of the ancient legend is the tale of intermarriage between a human and a nonhuman creature in which the protagonist Urashimako marries a turtle-turned-woman.

However, starting with Urashimatarou in *Otogizousi* of the Muromachi Era, the focus of the turtle story was placed on the saving and release of a turtle and its compensation for the mercy.

After the medieval era, the *Legend of Urashima* took the form of a turtle's compensation for mercy due to the influence of Buddhism, which can be found in *Nihonryoiki* and *Konzyaku-monogatarisyuu*.

Therefore, the integration of the story of a turtle's compensation for mercy and the *Legend of Urashima*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legend of Urashima*, that is, Urashimatarou in *Otogizousi*.

In addition, after the latter half of the early modern period (the Edo Era), the turtle featured in the *Legend of Urashima* served also as a channel to the marine utopia by taking Urashimatarou to the underwater palace of the marine king.

This pattern can be traced to the myth of Umisachi・Yamasachi, the prototype of the *Legend of Urashima*, and the myth of Emperor Kanmu's occupation of the eastern region.

In the conclusion of Urashimatarou in *Otogizousi*, Urashimatarou, reincarnated as a crane, and the turtle "had fun together (*asobi –tawamure*)." This expression derives from the idea of Taoist hermits and symbolizes permanency and longevity, and in *Waka* it serves as a celebration.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245－263쪽 10.15733/jast.2017..72.245

미야자와 겐지 시와 이와테의 자연
－‘빛’ 표현을 중심으로－

심 종 숙*

< 目 次 >

Ⅰ. 들어가며
Ⅱ. 이이하토오브와 地人되기
1. 이이하토오브-용어와 작가적 의식
2. 「농민예술개론강요」에 나타난 地人되기
Ⅲ. ‘빛’ 표현의 제상(諸相)과 그 상징성
1. 『봄과 수라』제 1시집과 빛 표현의 관계
2. 물활성物活性: 생명력 상징
3. 금속화와 광물성: 결정성과 투명성 상징
4. 빛의 고체, 액체, 기체의 변용: 순환과 이미지 변용
Ⅳ. 나오며

Key Words : 宮沢賢治(Miyazawa Kenji), 岩手(Iwate), 自然(nature), 光(sun light), 交感(communication)

Ⅰ. 들어가며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1]는 1896년 일본의 혼슈本州 북쪽 지방 시골 마을인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강사, 한일근현대시 비교.

1)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1896-1933), 시인이자 동화작가이며 그는 생전에 1924년에 자비출판 시집인 『봄과 수라春と修羅』와 동화집 『주문이 많은 요리점注文の多い料理店』을 출판하였고 이 무명의 시인은 하나마키에서 33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전후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나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등에 의해 중앙문단에 소개되어 그의 문학이 세인들에게 알려져 오늘날 많은 일본인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작가가 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시집에 『봄과 수라』1, 2, 3, 4집이 있고 동화로는 대표동화집 『주문이 많은 요리점』과 작가 자신이 소년소설이라 부른 장편동화 『은하철도의 밤銀河鉄道の夜』(1931),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1931-1933), 『구스코부도리의 전기グスコーブド

이와테현岩手県 하나마키花巻에서 태어났다. 하나마키는 기타가미가와北上川 유역에서 생긴 기타가미 분지의 한 곳이다. 이곳은 일본문학사상 근세기인 에도시대 겐로쿠元祿기에 하이카이俳諧의 시성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가 남긴 기행시집인『오쿠의 오솔길奥の細道』에서 "기타가미가와 남부에서 흐르는 큰 강이다"라고 말한 곳이다. 하나마키는 이 강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고 겐지가 살았던 대정大正시기(1911-1924)에는 그 인구가 약 6000명(2014년 3월말 기준 인구 100,250인, 세대수 36288세대)정도의 소도시였다. 멀리 남부 후지라고 읊어진 완만한 고원의 들판을 가진 이와테산이 수려하게 솟아있고 동쪽으로 기타가미 산맥, 서쪽으로 오쿠바산맥奥羽山脈 사이에 위치한 이 강의 양안에는 전답이 자리하고 있었다. 겐지는 1921년 그의 나이 25세 때 1월 23일 저녁 무렵 동경으로 가출을 결심하여 8월 중순에 여동생 도시코의 병으로 귀향하기까지 6개월 반 정도 동경에서 보낸 것 이외에는 줄곧 하나마키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의 향토인 하나마키를 '이이하토오브イーハトーブ'(이상향)[2]라고 명명하면서 옛부터 구전되어온 옛날이야기나 민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서양의 근대 동화 작가인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나 독일의 그림형제의 영향을 받아 100편의 동화를 썼다. 그의 작품의 배경으로 이이하토오브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그리고 겐지는 그 자신이 시라고 하기보다 '심상스케치'라고 부르기를 고집했던 시집『봄과 수라』제1집부터 4집에 이르기까지 이와테의 자연에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그는 늘 하나마키 부근의 강과 산야를 걸으면서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그때 그때 풍경들에서 떠오르는 심상들을 메모하면서 시를 쓰곤 했다. 그만큼 이와테의 자연은 그에게 친근하였고 시의 소재나 제재였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겐지는 '돌 아이 겐 石っ子賢'으로 불리우면서 기타가미산지로 다니면서 돌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러한 전기적 사실은 자연물과의 친화 소통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겐지는 또한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생태학과 현상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 분야의 책을 탐독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겐지 동화들의 주된

リの伝記』(1931),「포란 광장ポラーノの広場」(1927) 등이 있고 단편으로는「나메토코야마의 곰なめとこやまの熊」,「산사나이의 사월山男の四月」,「도토리와 산고양이どんぐりと山猫」,「노란 토마토黄色いトマト」,「쌍둥이별双子の星」,「쏙독새별よだかの星」등이 있다.

2) 겐지의 조어.『주문이 많은 요리점』의 광고 문구에 나오는 용어.(『新修 宮澤賢治全集』, 제 13권, 402쪽)

기법이 의인화라는 점과 시에서 소재들이 물, 공기, 빛, 바람, 불, 광물 등과 같이 현상학적 관점의 자연물들이 시어로 선택되어 이미지를 조형한 것은 겐지 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겐지 문학과 자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미야기 가즈오宮城一男의 연구[3]가 있는데 그는 주로 자연과학의 지식,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군, 자연을 무대로 하는 작품군,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취급한 작품군, 자연에 관련한 시가군으로 나누어 작품 감상을 중심으로 하였다. 미야가와 겐로오宮川健郎는『바람의 마타사부로』연구에서 비유見立て를 통한 이중의 풍경[4]을 규명하여 '비유의 상상력'이라고 결론지었고, 이토오 가즈오伊東一夫는 겐지 문예에서 바람이 가지는 의미를 '우주만유의 원질[5]'이라고 하여 그의 철학과 사상을 해명하는 데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야타 메구미八田恵는 겐지 동화의 빛 묘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빛묘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한 묘사의 경우와 같이 환상성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성을 가지고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요인"[6]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사토오 요시카츠佐藤義勝는 시집『봄과 수라』에 나타난 빛과 바람의 용어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 바람이 부는 대상물을 변용시키는 표현[7]이 많이 보이고 비유법 중에 의인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겐지의 시에서 빛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보고자한다.

---

3) 宮城一男(1983),『宮沢賢治と自然一作品勧賞』,玉川大学出版部, p.42.
4) 宮川健郎(1981),「宮沢賢治「風の又三郎」紀行」-"二重の風景"への旅」,「児童文学」第二十七巻, 児童文学者協会, p.100.
5) 伊東一夫(1950),「宮沢賢治の文芸における「風」の探究」,「四次元」, 11호, 9. p.13.
6) 八田　恵(1982),「賢治童話の特質-光描写を中心に」,「古典研究」, 第九号, 3. p.71.
7) 佐藤義勝(1968),「春と修羅の表現-光と風の用語から見た」,「四次元」, 200호 기념특집, 1. p.93.

Ⅱ. 이이하토오브와 地人되기

1. 이이하토오브-용어와 작가적 의식

이와테현은 겐지가 살았던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계는 하나마키의 가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헌옷이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상업에 종사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 지방의 부유한 유지였다. 이와테현은 토지가 현무암질의 척박하고 냉해와 가을 태풍으로 농업이 적합하지 않아서 농민들은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였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생업에는 척박한 풍토인 이와테현에 대해 겐지는 늘 농민들의 심정이었고 그와 같은 양면을 가진 자신의 고향을 '이이하토오브'라고 부르면서 이상적인 향토로 바꾸고자 했다. 이는 그가 「농민예술개론강요」에서 주장한 지인地人[8]으로서 사는 것과 모리오카고등농림학교盛岡高等農林学校(현재 이와테대학)를 졸업하여 4년간의 하나마키농업학교의 교사생활을 청산하고 라스지인협회 羅修地人協會를 조직하여 농촌향상 운동에 투신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이하토오브'는 겐지의 동화에 사용되는 그가 만든 조어로서 특수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이이하토오브 동화집『주문이 많은 요리점』의 광고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그 광고문에 겐지가 직접 쓴 이이하토오브 선언이다.

> 이이하토부는 하나의 지명이다. 굳이 그 지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크고 작은 쿠라우스들이 경영하고 있던 들판과 소녀 엘리스가 더듬어 찾아간 거울나라와 같은 세계 속의 테판타르 사막의 멀리 북동쪽에 위치한 이반 왕국의 머언 동쪽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것은 저자의 심상 속에 이와 같은 광경을 갖고 실재한 드림랜드로서 일본 이와테현이다. (『전집』 제13권 p.402)

이 광고문에서 겐지는 이이하토오브를 하나의 지명이라고 밝힘으로써 지상

8) '지인'은 법화경 「종지용출품」에서 보살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나왔다는 법어에서 비롯되었다.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나온 자'는 농민이며 이 농민은 우주감정을 가진 겐지 당시의 농민을 극복한 은하우주를 내포한 자로서 도회와 세계를 융합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 실재하고 있다는 실재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드림랜드로서의 일본 이와테현의 현실에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작가적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제로 이것은 저자의 심상 속에 이와 같은 광경으로 실재한 드림랜드로서의 일본 이와테현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은 한 순간에 빙설 위를 날아올라 대순환하는 바람을 따라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빨간 꽃잎 아래를 기어가는 개미라고 말할 수도 있다. 죄와 슬픔 조차 거기에서는 성스럽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다. (『전집』제13권 p.402)

겐지의 시와 동화 작품의 대부분은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와테를 흐르는 기타가미가와, 기타가미 산지의 구라카케야마, 하늘, 대기, 태양(빛), 푸른 들판, 바람, 숲, 안개, 바위, 동물, 꽃, 들풀 등의 식물이다.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기법상 의인화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 인간을 대상으로 쓴 작품보다 그 수가 많다. 인간 사회에 대한 묘사를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물을 등장시켜서 표현한 것은 현실공간과 이공간-'다른 공간ちがった空間', '딴 공간異なった空間', '이공간異の空間'-의 단절을 극복하여 작품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가능성은 척박한 기아풍토에 대한 대립적인 의미의 풍요로움이며 이로써 작가 자신이 말하듯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이하토오브라는 용어는 겐지의 동화에서 주로 지명으로 쓰이는데 지방 이름, 현의 이름, 강 이름, 시市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포란 광장』에서 '이이하토오브의 투명한 바람', '이이하토오브의 들판', '이이하토오브의 해안'으로, 『구스코부도리의 전기』에서는 '이이하토오브의 커다란 숲', '이이하토오브시' '이이하토오브행 열차' 등의 표현이 보인다. 이와 같이 동화작품에서는 현실의 척박한 이와테현을 이공간으로 구축하여 동화의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다.

2. 「농민예술개론 강요」에 나타난 地人되기

겐지는 시집 『봄과 수라春と修羅』제 1집과 같은 해 12월에 동화집 『주문이 많은 요리점注文の多い料理店』을 출판하여 문학자로서의 자기 확립을 한 후에

‘농민예술’론을 내어 놓았다. 이는 겐지 문학의 이념과 실천을 종합하여 집대성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1926년 1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나마키농학교花巻農學校에 개설된 이와테현국민고등학교岩手縣國民高等學校서 11회에 걸친 ‘농민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하였다. 이 강의 노트가 「농민예술개론강요」인 것이다.

다케우치 나오토竹内直人[9]는 「강요」의 「서론」을 통하여 전체 내용에 관해 겐지의 서간 및 다른 작품분석을 통해 그 본질을 규명했다. 그는 「강요」의 인칭 및 인칭의 객체에 중점을 두어 ‘농민’은 겐지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거기에 대해 이상적인 ‘지인地人’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민예술의 본질은 우주 감정의 지인地人, 개성과 통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이 때 미학은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주감정은 ‘직관과 정서의 내적 경험을 소재로 하는 무의식과 유의有意의 창조’라고 밝힘으로써 직관과 정서에 바탕을 둔 내적 경험을 중시하고 있고 ‘우주감정의 지인’은 ‘우주감정의 농민’으로서 은하우주를 내재화하고 융합하고 소통하는 농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인이란 현실적 농민이 극복된 새로운 농민이라 할 수 있다.

겐지는 농민예술의 분야를 성악, 기악, 산문, 시가, 연극, 무용, 정동의 예술사진, 회화, 조각, 극과 가극, 유성활동사진(영화), 요리, 연설, 논문, 교설, 건축 및 의복, 공예예술, 원예, 산림경영, 토지설계, 노동경기체조의 다양한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농민의 생활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예술이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닌 농민들도 창조하고 향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겐지는 「강요」서론의 첫 구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들은 모두 농민이다/꽤 바쁘고 일도 힘들다/더 밝고 생생하게 생활 할 길을 찾고 싶다’라고 하여 그 당시의 농촌경제가 피폐되고 낙후된 촌락에서 사는 농민들이 그와 같은 환경을 극복하여 밝고 생기 있게 생활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농민예술을 주창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농민이다’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예술의 창작자이면서 ‘우주감

9) 竹内直人(2003), 「宮沢賢治「農民芸術概論」論」-「農民」から「地人」へ, 「日本文学論究」第59巻, p.3.

정의 지인'으로서 개성을 지닌 농민으로 거듭나기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인'은 법화경 「종지용출품」에서 보살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나왔다는 법어에서처럼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나온 자'는 농민이며 이 농민은 우주감정을 가진 겐지 당시의 농민을 극복한 은하우주를 내포한 자로서 도회와 세계를 융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오오 친구들이여 함께 옳은 힘을 합쳐 우리들의 모든 전원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의 커다란 제 4차원의 예술로 만들어 내지 않겠는가? (『전집』제15권 p.15)

위의 인용문은 「농민예술개론강요」속의 '농민예술의 종합'이라는 항에 농민예술 전반의 방향을 규정한 말로써 '친구들'은 농민을 극복한 지인들을 말하고 그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예술개론강요」는 겐지의 유일한 예술론으로써 그의 예술론의 핵심을 이루며 예술적 실천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 전원과 생활을 하나의 제 4차원 예술로 창조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진다.

겐지는 1923년 12월에 자비 출판한 첫 동화집 『주문이 많은 요리점』의 서문에서 자신의 동화가 창작되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또 나는 밭이나 숲 속에서 심하게 너덜너덜한 옷이 가장 멋진 빌로드나 나사나 보석이 달린 옷으로 변해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음식이나 옷을 좋아합니다. 이들 나의 이야기는 모두 숲이나 들판이나 철도선로 등에서 무지개나 달빛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
> 정말로 떡갈나무 숲 속의 푸른 저녁을 혼자 지나거나, 십일월의 산바람 속에 떨면서 서 있거나 하면 벌써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로 벌써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대로 썼기까지 합니다. (중략) 하지만 나는 이들 작은 이야기의 몇 편인가가 종국에는 당신의 투명하고 진정한 양식이 될 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10]

겐지의 창작 동기는 이와테의 산야를 걸으면서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심하게 너덜너덜한 옷'마저도 '멋진 빌로드나 나사 보석 달린 옷'으로 변해 있는 마치 마법과 같은 초월의 환상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쓸 수 밖에 없었음

10) 分銅淳作栗原敦(1992), 『宮沢賢治入門』, 筑摩書房, p.32.

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들이 '당신의 투명하고 진정한 양식'이 되기를 기원하는 심정이었다. 또 그는 자신의 서간문에서 '이제부터 종교는 예술입니다, 이제부터 예술은 종교입니다' '법화문학의 구현'이라는 결의에서 사려되는 바, 초월적 종교관과 사차원 예술의 지향성과도 관련이 있고 그가 소설을 쓰지 않고 굳이 동화를 고집한 것은 소설을 이미 '잡작雜作'이라 칭하고 있는 데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글자를 늘어 놓아도 마음에 없는 것은 아예 소리 상태에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 겐지는 자신과 우주만물들과의 교감을 소설이라는 근대의 산물 보다 시나 동화에서 초월적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는 소설이 지니지 못하는 우주의 생명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연에 대한 교감은 시 「구라카케산의 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의지가 되는 건/ 말안장 겹겹이 내린 눈뿐/ 들도 숲도/ 파삭파삭 마르거나 거뭇하여/ 조금도 기댈 수 없어/ 진정 그런 효모 모양의/ 희뿌연 눈보라지만/ 어슴푸레한 소망을 보내는 건/ 구라카케산 눈뿐/(하나의 고풍스런 신앙입니다)
>
> (「구라카케의 눈」p.12)

구라카케산은 이와테현 다키자와滝沢시에 있는 산으로 해발 897미터에 이르는 산이다. 구라카케라는 말은 일본어로 말의 안장을 말하며 사람이 말을 타고 앉기 위한 마구의 일종이다. 산의 이름에서 오는 '구라카케츠즈키くらかけつづきのゆきばかり'라는 시어의 조어를 통해 산이 높고 굽이굽이 펼쳐진 봉우리의 모습을 말안장에다 비유한 것이다. 그것이 계속 되어져 있는 곳에 눈보라가 효모처럼 하얗게 내려쌓인 모습과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 신비감에서 소망을 빌어보는 시적 화자의 마음은 바로 자연의 신비경으로 인해 의지하는 마음 즉 신앙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의 시이다. 그 구라카케산의 눈과 대립을 이루는 것은 들판과 숲으로써 백색의 눈과 대비되는 거무칙칙한 색으로 표현하여 전혀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의 제목에는 '구라카케의 눈'くらかけの雪'이라 하여 '구라카케산'이라고 표현한 7행의 시어와는 차별성을 두었다고 하겠다. 즉 시 제목의 조사 'の'를 존재나 소속의 의미로 파악하여 '말안장에 내려앉은 눈'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산 이름인 구라카케산과 말의 안장을

동시에 연상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시는 자연과 시인이 교감할 때 얻어지는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Ⅲ. '빛' 표현의 제상(諸相)과 그 상징성

1. 『봄과 수라』제 1시집과 빛 표현의 관계

겐지의 시와 동화 작품에는 '빛'에 관한 표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그가 1924년 4월에 간행한 『봄과 수라』 제 1시집의 서문에서 자신을 현상의 한 개체로 보면서 '가정된 유기교류 전등의 하나의 푸른 조명'이라 하여 현상의 자아로서 자신을 파악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공적인 전등의 빛을 말하나 '빛은 지켜지고 그 전등은 잃어간다'고 하여 빛이 지니는 영원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빛에 관한 시적 이미지는 『봄과 수라』제 1시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토오 요시카츠佐藤義勝는 빛 표현에 관해 제 1시집에 있어 빛은 총 85편의 시 중에 49편의 시에 쓰였고 그 사용 내지는 기술의 횟수가 126회에 달한다고 밝혔다.[11] 그리고 제 2시집에서는 110편의 시 중에서 58편에, 제 3시집에는 126편의 시 중에 51편이 쓰였음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변화의 원인을 생활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연구의 논점은 빛이 쓰인 빈도수에 따라 그 변화 원인을 겐지의 생활변화에 귀착시키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시 텍스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자연광인 태양의 빛이 자연물과의 연관성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겐지만의 독특한 빛의 표현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물활성物活性: 생명력 상징

겐지 시에 나타나는 빛의 표현 중 그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물활성을 들 수 있겠다. 물활성은 사물을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정적인 풍경들

11) 佐藤義勝(1968) 『四次元』, 200호, p.4214.

을 동적으로 치환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 코발트 산지 빙무 속에서/ 이상한 아침 불이 타고 있습니다/ 게나시모리의 벌목 근처입니다/ 분명 정신적인 흰 불이/ 물보다 세차게 타닥 타닥 타닥 불타고 있습니다 (「코발트산지」p.17)

이 시는 감청색의 코발트 산지가 있는 게나시모리숲 근처 빙무 속에서 막 떠오른 아침해가 붉게 타는 모습을 소재로 한 시이다. 아직 녹지 않은 빙무의 뿌옇고 언 고체 감각의 딱딱한 풍경 속에 막 떠오른 태양빛으로 인해 불이 번져 나가는 모습을 연상하여 정신적인 흰 불이 타고 있다고 하였다. 동북지방 이와테의 빙무는 차갑고 습한 기후에서 형성되는 안개 결정체이다. 이 하얗게 언 빙무가 신선한 아침해가 떠오르자 결정체의 색깔이 흰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화된 모습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보이고 그 불은 붉은 색에서 흰색으로 번져서 마치 빙무가 녹아 흐르는 듯한 액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서 '물보다'라는 비교 표현을 한 것이다. 여기서는 고체가 액화되는 과정인데 태양이 불의 성질이므로 빙무의 물로 치환되고 있다. 그리고 태양을 '정신적인 흰 불'로 은유하여 정신세계가 정적이기 보다 동적으로 치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시편들은 「굴절률」, 「언덕의 현혹」, 「골짜기」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태양/눈, 태양/물, 태양/흰 불, 빛/색채이미지 등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 나나츠모리 이쪽 하나가/ 물 속 보다 더 밝고/ 더욱이 거대한데/나는 울퉁불퉁 언 길을 밟고/ 이 울퉁불퉁한 눈을 밟고/ 건너편 쭈글쭈글한 아연 구름에로/ 음산한 우편배달부처럼/ (또 알라딘 램프의 하인)/ 서둘러야 하는가 (「굴절률」p.11)

나나츠모리는 하나마키 교외에 있는 숲의 이름으로 일곱 개의 숲 중에 하나가 태양의 굴절률에 의해 물 속 보다 밝게 보이는 것에서 시심이 일어나 그것과는 상반되는 언 길 위의 눈을 밟으면서 우편배달부나 램프의 하인처럼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건너편의 쭈굴쭈굴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먹구름 낀 현실과 물 속 보다 밝은 나나츠모리의 하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풍경에서 시인은 시집의 첫 번째에 이 시를 배치하였다. 빛의 굴절이라는 자연현상에서 보여주

는 이 신비한 현상은 곧 인간의 삶에도 상징되는 부분으로 빛과 그림자라는 이중성이 결국 그림자와 같은, 여기서는 울퉁불퉁한 길과 그 위의 울퉁불퉁한 눈길과 아연처럼 단단한 금속성의 시커먼 구름을 통과할 때 이 이중성은 깨어지는 것이다. 겐지는 이 양면성의 극복이 우편배달부나 램프의 하인과 같이 우편을 받을 사람과 램프의 주인에게 램프나 편지 등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하는 이 시를 시집에 첫 번째로 위치시킴으로써 시인 자신이 바로 독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자문하는 시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태양의 빛이 눈을 반사하는 모습에서 불이 타는 것으로 치환하는 표현이다.

> 한 송이씩/ 빛나면서/ 하늘에서 눈은 가라앉네/ 전신주 그림자 인디고나/ 번쩍번쩍 한 언덕의 광채/(중략)
> 들판 끝은 시베리아의 하늘가/ 터어키제 옥 영롱한 분광도 빛나고(해님은/ 하늘 멀리서 흰 불을/ 타닥타닥 때고 계십니다)/ 세설이/ 불타며 떨어지네 불타며 떨어지네
> (「언덕의 현혹」p.14-15)

이 시에서는 해를 의인화하여 해가 불을 때서 눈송이들이 불타며 떨어지는 불꽃들로 살아 움직이듯이 표현하고 있다. 겐지는 시와 동화에서 주로 의인법을 쓰는데 이것은 생태주의 글쓰기의 주요 기법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겐지가 추구했던 글쓰기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겐지는 어른스트 헥켈의 에콜로지에 영향을 받았고 헥켈의 관심사는 자연의 동물, 물, 구름, 바람, 태양 등이 하나의 유기체로써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였다. 즉 헥켈류의 심층생태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물 중심이며 삼라만상주의를 표방하면서 여기에는 인간도 하나의 유기체인 생물로 간주한다. 겐지는 그의 농민예술개론강요에서 '세계 전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겐지의 이 사상에는 헥켈의 심층생태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근거는 『봄과 수라』서에서 '나라는 현상은/ 가정된 유기교류전등인 한 푸른 조명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겠다. 즉 헥컬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과 인간 간의 사회 생태학적 관계성이 전체로서 행복을 지향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인간이 우주의 삼라만상과도 함께 관계 지워지면서 서로 공존 공생해야하는 관계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겐지의 문학에도 반영되었다고 본다. 물론 헥켈의 심층생태학과 겐지 사상의 다른 점은 헥켈의 사회생태학적 측면을 겐지는 법화경이라는 대승 정신의 토대에 갈무리하여 사상의 통합 및 통섭을 이루어 나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빛은 이러한 세계관의 실현에 대한 표상이 될 것이다.

3. 금속화와 광물성: 결정성과 투명성 상징

겐지는 자연물을 의인법으로 표현하면서도 태양을 금속이나 광물 이미지로 변형하고 있다. 다음의 시에는 해를 '하늘의 작은 은반'이라고 하여 해를 은과 같은 광물이미지로 변형시키고 있으면서도 구름이 그것을 깨뜨린다고 하여 구름을 의인화하였고 지명인 다이시가 모직의 빨간 바지를 입었다고 하여 시이면서도 동화적 신비의 세계를 조형한다고 하겠다.

> 해는 오늘은 작은 하늘 은반으로/ 구름이 그 면을/ 점점 덮어서 깨고 있네/ 눈보라도 빛나기 시작하였기에/ 다이시는 모직의 빨간 바지를 입었네 (「해와 다이시」p.13)

이 시는 동화 「빨간 모자와 늑대」를 연상하게도 하는 시로써 시인은 다이시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서 있다. 시인이 구름이 하늘 은반인 태양을 깬, 즉 가린 곳에 서 있다면 다이시쪽은 아직은 태양 빛이 비치는 곳임을 연상하게 하는 시이다. 그 다이시의 모습을 따뜻한 느낌의 모직 천으로 된 빨간 바지를 입었다고 함으로써 차가운 느낌의 광물인 은으로 은유한 해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환유로 전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시 「봄과 수라」에는 광물이미지의 표현들을 써서 비유의 효과를 높혀 주고, 현실의 공간과 이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고 있으며 수라의 부정성이 투명성으로 옮아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 심상의 잿빛 강철로부터/ 으름 넝쿨은 구름에 얽혀/ 찔레꽃 덤불이나 부식된 습지/ 온통 전곡 모양/ (정오의 관악 보다도 풍성히/ 호박 조각들이 쏟아질 때)/ 분노의 쓰디씀과 푸르름/ 사월 기층의 빛 속을/ 침 뱉고 이 갈며 오가는/ 나는 한 수라다/(중

략) 태양이 푸르게 가물거리면/ 수라는 나무숲에 울려퍼져/ 헤어나지 못하여 아찔한 하늘 그릇에서/ 검은 나무 군락이 나란히 서고/ 그 가지는 슬프게 무성하여/ 모든 이중의 풍경을/ 실신한 숲의 나뭇가지들 끝에서/ 번쩍이며 날아오르는 까마귀/(기층이 드디어 맑게 개어/ 노송나무도 고요히 하늘에 설쯤)/ 초지의 황금을 지나오는 자/ 틀림없이 사람 모습을 한 자/ 게라를 걸치고 나를 보는 그 농부/ 진정 내가 보이는가 (「봄과 수라」p.20-22)

시적 화자 나는 수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초지의 황금을 지나오는 농부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 이 시는 사월의 눈부신 태양과는 대조적으로 시인의 내면은 어두운 수라를 방황하고 있다. 그 내면 풍경은 잿빛 강철, 으름 넝쿨, 찔레꽃 덤불, 부식된 습지 등으로 비유하는데 이 비유는 금속과 식물이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충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심상의 내면 풍경이 정오의 관악 연주 보다도 풍성하게 광물인 호박 조각처럼 쏟아져 내릴 때 수라의 내적 고뇌의 강렬도가 높아진다. 관악 연주, 호박과 같은 이미지 조성이 강렬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초지의 황금은 사월의 태양이 비친 풀밭을 황금에다 비유하여 수라인 나와 농부를 대극에 서게 한다. 그래서 주제시 「봄과 수라」의 시 공간에는 '진리의 말'이 상실 된 공간이며 '수라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곳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눈부신 사월의 기층에는 성파리聖玻璃의 바람이 부는 이중 풍경의 시적 공간이다. 이외에도 시 「장구벌레 무용수」에서 '해는 황금 장미/ 붉고 작은 장구벌레가/ 물과 햇살을 몸에 감고/ 홀로 춤을 추고 있네'라고 하여 해를 황금 장미로 은유하여 황금이 지니는 고체성, 결정성과 장미의 식물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은유에서 알 수 있듯이 '초지의 황금'과 같은 계열의 광물과 식물이미지가 결합되어 보석류가 가지는 신비함과 영원성을 태양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4. 빛의 고체, 액체, 기체의 변용: 순환과 이미지 변용

겐지 시에 있어 빛이 가지는 성격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물활성, 금속성, 광물성으로 치환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어 다음은 태양의 빛이 액체로 변용되는 부분이다.

기복의 눈은/ 밝은 복숭아즙을 쏟고/ 푸른 하늘에 녹다 남은 달은/ 부드럽게 하늘에 인후를 울리게 하고/ 한번 더 산란하는 빛을 삼킨다/ (바라승갈체 보리 사바하)
(「여명」p.24)

이 시는 동틀 무렵의 동쪽 하늘의 해가 기복에 쌓인 눈에 비추어 그 모습을 밝은 복숭아즙이 쏟아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눈이라는 결정체가 액체로 변화되게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태양의 빛이다. 눈과 같은 결정체가 태양 빛의 따뜻함으로 인해 복숭아즙처럼 녹아서 쏟아진다는 시적 발상은 고체의 액체화와 함께 복숭아즙이라는 색채감과 미각, 후각적 효과를 생각하여 달고 복숭아향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푸른 하늘에도 하현달이 태양광으로 인해 녹다 남았다고 표현함으로써 동트는 시각의 푸른 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해과 밤새 하늘에 떠있던 하현달을 대조시키면서도 태양광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달의 모습을 녹다만 달이라고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로 치환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인후를 울려 소리 나게 하면서 동쪽에 햇빛의 찬란한 빛을 삼킨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동틀 무렵의 태양 빛을 받은 달의 반응과 변화에 더 중점이 있다고 하겠다. 달은 태양의 빛을 삼킬수록 하늘에서 더 녹아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된다. 시인은 이 시에서 그 순간을 포착하여 달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이 순간이야말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해와 달의 시기에 따른 순환, 변화이지만 순간의 신비경으로 '바라승갈체 보리 사바하'라고 하여 불교적 법 구절을 떠올린다.

빛이 머문 곳/ 세모진 밭 뒤/ 시든 풀 위에서/ 제가 본 것은/ 얼굴 가득 붉은 점이 찍힌/ 유리 같은 청동의 말을 쓰며 / 끊임없이 서로 비뚤어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세 사람의 요녀들입니다 (「골짜기」p.25)

이 시에서도 '빛이 머문 곳ひかりの澱'은 사실상 빛이 모여서 물 웅덩이를 이룬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 물 웅덩이에서 시적 화자인 '저わたくし'가 본 것은 세 명의 요녀 즉 물의 요정들이었다는 의미의 시다. 이들이 얼굴에 붉은 점이 있다는 것은 태양빛 때문에 얼굴이 붉음을 의미하고 이 요정들은 유리 같은 청동의 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여 신비스런 공간과 인물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시에서도 역시 빛이 물로 변용되어 그 이미지 연상에서 물의 요정들이 출현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청동의 말이라 하여 맑고 투명하며 신비스런 고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다.

> 어디에선가 치이젤이 찔려/ 광파라핀의 푸른 연기/ 또아리를 튼다 동그라미를 그린다 까마귀/
> 까마귀 소리...까마귀 器械.../(중략).....찌르고/ 광파라핀의 푸른 연기/ 또아리를 튼다 동그라미를 그린다 까마귀/ 까마귀 소리....까마귀 機關/ (「햇살과 건초」p.26)

이 시는 일본어의 음성적 요소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나열한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시인데 중심은 태양광과 건초의 관계이다.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려쬐는 모양을 찔린다는 동사나 광파라핀의 연기로 자동기술처럼 시어를 나열하고 그 연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트는 것과 "동그라미를 그린다 까마귀"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가라스'는 까마귀이기도 하지만 유리라는 의미도 되어 유리가 소리 내는 모양을 태양이 건초에 내리쬐는 햇빛의 굴절과 강도를 이미지로 조형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시각이 청각으로 이동되고 또 광파라핀 연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체로 이동되도록 이미지가 조형되어 있다. 여기에서 태양광은 광파라핀의 연기라고 하여 기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나오며

미야자와 겐지의 시집에 나타난 빛의 표현은 제 1시집에 있어 총 85편의 시 중에 49편의 시에 쓰였고 그 사용 내지는 기술의 횟수가 126회에 이른다. 그리고 제 2시집에서는 110편의 시 중에서 58편에, 제 3시집에는 126편의 시 중에 51편에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의 시적 에스프리가 강한 제 1시집에 빛과 관련된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의 시들은 빛에 의해 난반사된 자연물 예를 들어 산과 언덕, 나무와 풀들과 꽃들을 빛의 그물에 포획하여 그 하나하나의 특징과 그 자신의 그 때 그 때의 정감을 이입하였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겐지 시에 나타나는 빛의 표현 중 그 특성이 두드러지

는 부분은 물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물활성은 사물을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정적인 풍경들을 동적으로 치환하여 생동감과 역동성을 지니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겐지는 자연물을 의인법으로 표현하면서도 태양을 금속이나 광물 이미지로 변형하고 있다. 해를 '하늘의 작은 은반'이라고 하여 은과 같은 광물이미지로 변형시키고 있으면서도 구름이 그것을 깨뜨린다고 하여 구름을 의인화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생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헥켈의 심층생태학의 관점을 수용하였고 이는 인간과 삼라만상이 동귀(同歸)한다는 불교적 진리에도 통섭시키고 있었다. 겐지는 그의 농민예술개론강요에서 '세계 전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겐지의 이 사상에는 헥켈의 심층생태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근거는『봄과 수라』서에서 '나라는 현상은/ 가정된 유기교류전등인 한 푸른 조명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빛은 정신적이며 이상적인 빛이며 영원성을 지닌 우주 태양의 빛과 현상의 한 개체로서 개개인의 작은 불빛이 상호 교감할 때 느끼는 한 순간의 포착이라 할 수 있겠다.

<参考文献>

校本『宮沢賢治全集』 제2권, 筑摩書房, 1973. pp.1-410

宮城一男(1983)『宮沢賢治と自然一作品勧賞』, 玉川大学出版部 pp.1-1050

宮川健郎(1981)「宮沢賢治「風の又三郎」紀行」-"二重の風景"への旅」,「児童文学」第二十七巻, 児童文学者協会, p.100.

伊東一夫(1950)「宮沢賢治の文芸における「風」の探究」,「四次元」, 11호, 9. p.13.

八田　恵(1982)「賢治童話の特質-光描写を中心に」,「古典研究」, 第九号, 3. p.71.

佐藤義勝(1968)「春と修羅の表現-光と風の用語から見た」,「四次元」, 200호 기념특집, 1. p.93.

竹内直人(2003)「宮沢賢治「農民芸術概論」論」-「農民」から「地人」へ-,「日本文学論究」第59巻, 3.

分銅亭作·栗原敦(1992)『宮沢賢治入門』, 筑摩書房, p.32.

佐藤義勝(1968)『四次元』, 200호, p.4214.

板谷榮城,『宮澤賢治 寶石 圖誌』, 平凡社, 1994. pp.1-231

大塚常木,『宮澤賢治 心象宇宙論』, 朝文社, 1993. pp.3-331
金森天章譯,『法華經』,東方出版, 1985. pp.1-352
가스통 바슐라르,『불의 정신 분석·초의 불꽃 대지와 의지의 몽상』, 삼성출판사, 1982. pp.1-486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宮沢賢治の詩と岩手の自然
－ 光の表現を中心に －

沈終淑

宮沢賢治の『春と修羅』第一詩集には、光に関する表現が85編の中、49編の詩に表われている。ここで、重要なのは、彼の詩は光によって照らされた自然と交感しながら詩を書いたところである。たとえば、山と丘、木や草花などは光によってそれぞれの特徴が表われ、賢治は実際に目の前にその風景を見守りながら賢治自らの内なる感覚と霊感から自然の様相と変化に反応して彼のユニークな詩法を産み出したのである。彼の詩のユニークさは静的な風景を動的に置換して生き生きとした自然の力同感を産み出す。又、賢治は自然物を擬人法で描きながらも太陽の光を金属のような鉱物イメージに変形している。例えば、日については、空の小さな銀盤と表現して鉱物イメージに変えながらも雲がそれを潰しているといって雲を擬人化している。擬人法はエコロジカルな書き方であって、これは彼が、深層生態学者のErnstHeinrich Haeckel(1834-1919)

に影響をうけたことと連動している。その根拠は『春と修羅』序のおいての'わたくしという現象は仮定された有機交流電灯の一つの蒼い照明です'と確かに自らの存在意識を悟った後の認識から出発し、その理由で『春と修羅』第一集は、詩的エスプリあふれたことができた。その中心に日の光によって構築された彼の詩の'世界はあらゆる生物のほんとうのしあわせ'への道を開拓し、これは仏教的真理にも連動している。ちなみに、彼の詩においての光は、精神的で理想的なものであり、その光は永遠性を持ち続けている宇宙太陽の光と、現象の一つの個体として、各個人の小さな光がお互いに交感するときに感じられる一瞬間でありながらも、彼において一編の詩の誕生を向かえる時であった。

<Abstract>

A study of Miyazawa kenji's poems and the nature of iwate
- On the focus of expressions of 'light' -

Sim, Jong-Sook

The expression of light in the poetry of Kenji Miyazawa was used in 49 poems in 85 poems in the first poetry book, and the number of uses or techniques is 126 times. And 58 in 110 poems in the second poetry book, and 51 in 126 poems in the third poetry book.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his poetic Esprit is prominently expressed in light - His poems are natural objects that are diffused by light, such as mountains, hills, trees, grasses and flowers. It is thought to have captured the characteristic of each one and the feeling of that time of the self by capturing it in the net of light.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 part of the light expression in Kenji is that it has water activity. Water activity dynamically replaces static scenes by changing things into living things, which gives them liveliness and dynamism. In addition, Kenji is transforming the sun into metal or mineral images while expressing natural objects in the form of simple Which is based on the viewpoint of Haeckel's deep ecology that pursues the "Blessing". In his essay on farmer art, Kenji said, "If the whole world is not happy, there is no happiness for the individual. And that he should go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the true happiness of all creatures', and that the deep ecology of Haeckel functions in this thought of Kenji. And this evidence can be seen in the book "Spring and Sura," which states that "the country is a blue light that is supposed to be an organic exchange exhibition." Therefore important in his poem. One position is light, the spiritual and ideal light, the eternity of the universe, the light and phenomenon of the sun as an individual, the individual light of a moment when you feel the interaction of the small light can be said.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265－282쪽 10.15733/jast.2017..72.265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에 대한 표현양상
－ 9월부터 11월까지 기록을 중심으로 －

이 미 경**

< 目 次 >

Ⅰ. 들어가며
Ⅱ. 지진 피해와 혼란
Ⅲ. 지진 사실을 기록한 견문록
Ⅳ. 살육을 기뻐하는 이상심리
Ⅴ. 학살의 도덕적 반성 촉구
Ⅵ. 나오며

Key Words : 関東大震災(Kanto Great Earthquake), 自警団(Vigilante), 朝鮮人(Koreans), 虐殺(Genocide), 恐怖(Fear)

Ⅰ. 들어가며

본고는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인 9월 1일부터 11월까지 기사, 작품 중에 나타난 조선인에 대한 표현과 지진 당시 일본인의 심리, 나아가서 지진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고찰해서 참된 지식인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해서 안전에 대한 훈련을 하지만, 안전 등 지진에 대한 대피 등 경계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지진을 말할 뿐, 씻을 수 없는 참극인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대지진 체험자들은 흔들리는 땅, 타오르는 화염보다도 "조선인의 방화, 독약 살포,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다"는 증언에서도 유언비어로 인한 일본인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대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조선인에게 가혹한 무차별 학살이 기다리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 과학 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4S1A5B5A07040788)
** 韓国外国語大学校 講師、日本近現代文学、日本社会文化論専攻.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묻히며 사라져 가는 것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우리 인류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죄해야 할) '빚은 없다'는 풍조도 일부에서 생겨나고, "할 수 만 있다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유산은 피해가고 싶다"[1]는 심리가 보이는 것은 일제 강점기 일본사회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존속해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금병동은 하니 고로(羽仁五郎)[2]의 "문호라고 불리는 대 작가(谷崎淳一郎: 논자 주)도, 조선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진짜의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지 않은 작가는 진짜가 아니라는 단정을 나 자신은 내릴 자신과 용기도 없지만 그 후 나는 적어도 일본 지식인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을 알게 되면서 당사자의 사회적인 입장, 또는 당시 사상과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선인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3]고 말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4], 6천명이라는 참혹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사건의 무게만큼 다뤄지지 않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문학적으로는 일부 작가의 작품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진 직후의 기록 중에서도 지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견문록적인 내용, 조선인 학살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의식을 담은 내용, 한 발작 더 나아가서 일본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반성을 촉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그 대상으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1923년 9월 1일의 대지진에 즈음해서(大正 12年 9月 1日の大震に際して)」(1923.9), 「대지진잡기(大震雜記)」(『中央公論』1923,10), 「대지진에 대한 감상

1) 강덕상 저, 김동수, 박수철 옮김(2005)『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역사와 비평사 p.19.
2) 羽仁 五郎(1901-1983) 일본의 역사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역사철학, 현대사.
3) 琴秉洞 編(1996)『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Ⅰ』p.1.
4) 선행논문으로는 이 지형(2004)「살인은 저질렀지만의 풍경;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일본문화연구』제10집, p.145, 조경숙(2008)「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일본학보』77집 pp.99-109, 이 미경(2014)『일본근대학연구』44집「관동대지진 관련 문학으로 본 조선인관」한국일본 근대학회 pp.173-189, 이미경(2015)『일본어문학』70집「관동대지진 관련 문학에 나타난 사건의 표현양상」일본어문학회 pp. 283-300, 4) 다나카 마사타카(2015)『동북아 역사총론』48호「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동북아역사재단, pp.89-118,강 소영(2012)『日語日文學研究 제 83집 2권』「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을 향한 시선」, 한국일어일문학회, pp.275-291.

(大震に際せる感想)」(『改造』1923.10)을 비롯해, 오카모토 기도(岡本綺堂)의 「불에 쫓기어(火に追われて)」(1923.10),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나의 비망록(私の覚え書)」(1923.11),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의 「진재 일기에서(震災日記より)」를 고찰한다.

Ⅱ. 지진 피해와 혼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중부에서 사가미만(相模灣) 동부, 보소(房總)반도에 걸친 일대를 진원지로 한 대지진이 관동지방을 엄습하였다. 지진의 강도는 최대 진도 매그니튜드 7.9 였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요리하던 기름에 불이 번지면서 각지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의 심장부였던 게이힌(京濱) 지역은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피해는 남 관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시즈오카(靜岡), 야마나시(山梨) 두 현의 동부에까지 미쳤다.

지진 이후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몸으로 감지된 여진(餘震)은 936 차례나 있었고, 해안지대에서는 해일의 피해도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순간부터 전화는 불통이 되었고, 교통기관은 파괴되었으며, 수도와 전기도 끊겼다. 동경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나서 관청가의 일부와 가옥 밀집지대를 태우면서 9월 3일 새벽까지 계속 불타올랐다. 이 대화재로 인해 기온이 상승해서 동경의 밤 기온은 46도까지 이르는 불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호경기로 도시가 급팽창했는데도 아무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목조가옥이 밀집해 있었다. 도로나 공원도 협소한데다가 이재민들이 들고 나온 가재도구들은 더욱 연소에 부채질해서 소사자(燒死者)가 더욱 늘어났고, 요코하마(橫濱)는 전 도시가 괴멸되었지만, 며칠 동안이나 구호의 길이 막혔다.

1926년 도쿄 시청에서 발간한『도쿄지진록 전집』에는 이재자(罹災者) 약 340만 명, 사망자 9만 1344명, 행방불명 1만 3275명, 중상 1만 6514명, 경상 3만 5560명, 전소(全燒) 38만 1090세대, 전괴(全壞) 8만 3819세대, 반괴(半壞) 9만

1232세대로 기록되어 있다. 손해액은 약 55억 엔으로 추정되었는데, 1922년도 일반회계예산이 약 14억 7000만 엔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손해액이 얼마나 막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으로 야기된 대혼란 속에서 유언비어와 계엄령으로 인해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건은 초토화된 동경에 가해진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일대 참극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지진 사실을 기록한 견문록

잡지 『부인공론(婦人公論)』에서는 자경단, 조선인 학살문제, 혹은 유언비어[5]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당시는 언론 통제로 이 시기 눈에 많이 띄는 문장에 '불령선인(不逞鮮人)',[6] 조선인이라고 알 수 있는 곳에는 복자(伏字) 표시인 00, XX로 표기되어 인쇄되었다. 『婦人公論』처럼 직, 간접적으로 조선인을 다룬 잡지도 있었지만, 단지 당시의 관동 지방 일대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친 잡지도 적지 않았다.

오카모토 기도의 「불에 쫓기어(火に追われて)」는 관동대지진 직후인 1923년 10월호 『부인공론』에 발표되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카모토는 지진에 대해 평소부터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아무 예고도 없이 다가온 관동대지진을 묘사

5) 9월 2일에는 계엄령이 발포(공식적으로는 2일로 되어있지만, 강덕상은 9월 1일 저녁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되었고, 9월 2일 오전 10시 이치가야 사관학교 담벼락에는 "오후 1시에 강한 지진이 있을 것이며 불령선인이 습격해 올 것이다"라는 벽보가 게시되었다. 9월 3일에는 '불령선인 점점 확대, 불령선인 300여명이 손에 폭탄을 들고 던지고, 혹은 방화하고…, 전폭도의 무리가 폭탄을 던지고 방화하는 것을 목격, 선인(선인) 도당 상수도에 독을 살포, 죄인 3백명 탈옥해 선인과 함께 대폭동 등의 지방신문에 기사가 실린다. 9월 4일 아침이 되자 "선인의 폭동은 유언비어였다. 자경단은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통지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당사자인 경찰이 말을 바꾸었지만 살기 등등했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되어 버렸다.

6) '불령선인'이란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 운동 이후 조선인이 흉악한 테러리스트로 언론과 관헌의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라는 표현으로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불령선인은 배일(排日) 운동에 참여한 조선인에게 사용된 용어로 불만이나 불평을 품고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항상 불평, 불만을 품어 소동 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조선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하고 있다. 불은 계속 번져서, 오카모토가 사는 곳까지 퍼질 것에 대비해서 피난길에 올랐고, 점점 번져 가는 불길, 백화점 등이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에 점점 초조 긴장감은 더해 간다. 그 와중에서도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 게재할 원고를 소중히 품에 넣고, 『우지슈이 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설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예술감에 취해서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승려를 생각한다.

프로레탈리아 문학 작가인 미야모토 유리코는 「나의 비망록)」(『女性』, 1923, 11)에서 복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조선인이라고 추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적고 있다.

> 도쿄시 3분의 2는 전멸, 그에 더해 [4글자 복자(伏字)][5글자복자]가 대거로 폭동을 일으키고 폭탄을 던져 전 도시가 불바다처럼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4글자복자]의 소문마저 전해지고 있다.
>
> 그 호외 전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생겼다. 전 도시의 교통, 통신 기관이 두절되어 버린 이상, 내부의 정확한 보고를 용이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4글자복자]행방불명 [4글자복자][6글자복자]라는 모든 사항이 특히 의혹이 생기게 했다. 마침 정계가 동요하는 한가운데였으므로 상당히 과장되지 않았을까 라고 누구나 생각한 것이다.
>
> 나는"조금 과장되지 않았어? 어쩐지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조금 호외가 지나치게 센세이셔널하다고 느낀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전 도시의 전등, 가스, 수도가 멈추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이다. 캄캄한 동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평소의 동경을 알고 있던 사람은 마음속에 무서움이 일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조차 잊고서 듣고 있던 나는 그래서 '전 도시에 계엄령을 공표'라는 문구를 듣자, 소름끼치는 공포를 느꼈다.[7]

미야모토는 대지진 당시에 남편 고향인 후쿠이 현에 있었고, 그곳은 도쿄에서 490 키로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지진이 일어났다. 프로레탈리아 문학자인 미야모토는 다음 날 호외 기사를 보고 의문을 품고 '과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도쿄가 전멸한 틈을 타서 폭동이 일어났고, 폭탄을 던져서 전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미야모토는 자신의 심경

7) 宮本百合子(2002)『宮本百合子全集　第十七巻』新日本出版社 pp.245-261.

을 '과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조선인에 대한 기사에도 의혹을 품고 있다. 교통, 통신이 마비되어 정확한 보도는 불가능한데, 도쿄에 살고 있던 자신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장되었다고 판단되어 의혹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다.

암흑과 같은 캄캄한 도시에 화재로 불에 타서 죽은 시체가 가득찬 도시에서 모두가 불안해하는 와중에 유언비어가 퍼졌고, 계엄령이 공표되면서 더욱 더 살벌한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이 일으킨 대재앙에 대해 분노하던 민중의 불길은 일본 점령기에 약소국가 민중인 조선인에게 가해졌고, 조선인은 죄없이 영문도 모른 채 무참한 학살을 당해야만 했다.

미야모토는 또 동경으로 돌아오는 기차 아래에 숨어있던 조선인을 발견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도 조선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정황상 복자부분이 조선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쿄 오이와케 역에 정차했을 때, 소방관은 열차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조선인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외치면서 뒤쫓는 장면은 상황의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을 조선인 한명이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안도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나타난 조선인의 존재에 공포감을 느낀 것은 미야모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끼고, 붙잡아서 살해를 저지른 사실은 당시 조선인의 피해상황과 잔학한 살해 장면의 기록에서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붙잡혀서 조선인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쫓겨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기사가 과장되었다며 의문을 품었던 미야모토도 막상 조선인을 발견하고, 쫓기는 조선인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조선인을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듯이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의 파급 효과와 당시 일본인들의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Ⅳ. 살육을 기뻐하는 이상심리

데라다 도라히코는 「진재 일기에서」(1923,10)에서 메이지(明治) 대학 앞에는 길바닥에 까맣게 탄 시체가 뒹굴고, 기상대에 가서 지진 기록을 보려고 해도,

히도쓰바시(一橋) 다리가 타버려서 건너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데라다는 다음과 같이 일본인이 저지른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을 쓰고 있다.

> 너무 지쳐서 돌아오자, 000과 사회주의자로 인한 방화와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동으로 2일 밤은 준비만 했다. 00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일본인이 무참하게 많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00을 편들어준 순사들도 살해당한 듯합니다. 그것이 아마 재미있다는 듯이 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8)]

데라다는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재해에 관한 학술조사를 했으며 제자 육성에도 힘쓰는 등 과학계에 많은 공헌을 했던 과학자이자 수필가였다. 데라다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로 인한 소동 이야기를 듣고, 피난 떠날 준비를 했으나, 일본인이 유언비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순사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재미로 한 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평상심을 잃은 무법이 횡행하는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1923년 9월 1일의 대지진에 즈음해서」에서 지진에 대한여러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 「대지진 잡기」(『中央公論』1923,10)에서는 자신은 선량한 시민인데 자신의 소견에 의하면, 기구치 칸(菊池寬)은 자격이 부족하다며 계엄령이 공표되었을 때 나눈 대화를 소개한다.

> 나는 담배를 쥔채, 기쿠치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잡담이라고는 해도 지진 이외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나는 큰 화제 원인이 0000000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구치는 눈살을 찌푸리며 '거짓이다 자네' 라고 일갈했다. 나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한번, 어느 것도 000은 볼쉐비키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구치는 이번에도 눈썹을 찌푸리며 '거짓이다. 자네, 그것은'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또 '그것도 거짓인가'라며 바로 혼자말(?)을 철회했다.
>
> 다시 내 소견으로는 선량한 시민은 볼쉐비키와 0000이라는 음모의 존재를 믿는 자이다. 만에 하나라도 믿지 않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믿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자이다. 그렇지만 야만스런 기구치 칸은 믿지도 않지만 믿는 흉내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8) 寺田寅彦(2011)「震災日記より」『天災と国防』講談社 pp.90-103.

> 완전히 선량한 시민의 자격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량한 시민인 동시에 용감한 자경단의 일원인 나는 기구치를 위해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은 – 어쨌든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9]

대지진 당시의 '선량한 시민'이란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볼쉐비키와 조선인의 음모를 믿는 시민을 의미했다. 자경단은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잡이로 잡았고, 발음이 이상한 사람들을 조선인으로 오해해서 일본인, 중국인, 농아자 등을 살해하기도 했다. 문학자 중에서도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기며 유언비어에 '분동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등 다양한 반응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선량한 시민이라고 자부한다. 선량한 시민답게 자경단에 참여했고, 조선인에 대한 소문을 유언비어라고 말했던 기구치 칸조차도 자경단에 참여한다.

「대지진에 대한 감상(大震に際せる感想)」(『改造』 1923.10)에서는 일본인이 "천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내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10]고 했다. 당시에는 향락으로 치닫던 일본에 내려진 천벌이라는 '천벌론'이 있었는데, 아쿠타가와는 천벌이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또, 폐허가 된 동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상적인 마음이 되어, 밤에 자경단 임무에 제등을 들고 나선다. "대지진은 우리들 작가의 마음에도 큰 동요를 일으켰다. 우리는 격한 사랑과 증오와 가련함과 불안을 경험했다"[11]면서. 고미술품과 고서(古書)가 다 타버린데 대한 아쉬움을 「지진이 문예에 미친 영향(震災の文芸に与ふる影響)」에서는 쓰고 있다.

또, 아쿠타가와는 『여성』(1923, 10)에서 지진에 대한 감상과 자경단 참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9월 1일 저녁, 동경에서 일어난 화재는 더욱 맹렬해져서 언뜻 보면 커다란 용광로를 보는 듯했다[12]

9) 芥川龍之介(1978)『芥川龍之介全集 6』岩波書店, pp.173-178.
10) 芥川龍之介(1968)『芥川龍之介全集 7』角川書房, p.180.
11) 芥川龍之介(1968) 앞의 책 p.184.
12) 芥川龍之介(1968) 앞의 책 p.179.

"밤이 되자 발열 39도. 때로 ooooooo[13]있다. 나는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엔게츠도(円月堂)가 나 대신 철야 경계 임무를 서다. 호신용 칼을 차고, 목도를 늘어뜨린 모습, 그 자신 완전한 OOOO[14]이다.[15]

이렇듯 아쿠타가와는 자경단에 참가했는데, 「어느 자경단의 말(ある自警団の言葉)」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비장감도 없이, 밤공기를 즐기며 의자에 편히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며 밤을 보낸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불쌍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살육을 기뻐한다는 것은 – 아무튼 상대를 목 졸라 죽이는 것은 의론으로 이기는 것보다 간편하다"[16] 라는 문장만이 당시 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전체 문장 속에 담겨져 있어서 묻혀 버릴 수 도 있지만 여기서 아쿠타가와의 기록은 세키구치(関口)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사실 기록을 떠나서 살육을 기뻐하는 '조선인 박해에 대한 고발, 자경단에 대한 비판'[17]을 담아서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대지진으로 6천명이 넘는 조선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는데도 아쿠타가와의 문장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발견할 수 없지만, 대지진과 계속되는 대화재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해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살육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진 자경단의 행동을 비판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람을 태우는 냄새는 '그것은 왠지 무르익은 살구냄새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도 회상하며 표현한다.

불탄 거리를 걸으면서 희미하게 이 냄새를 느끼고, 염천에 부패된 시체 냄새도 의외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시체가 포개고 포개어진 연못 앞에 서서 보니, '처참'이라는 말도 감각적이며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그를 움직인 것은 12, 13세 어린 시체였다. 그는 이 시체를 바라보면서 왠지 부러움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신들이 사랑하는 자는 요절한다'-- 이러한 말 등도

13) 불령한 선인의 폭동인가, 로 각주가 표기되어 있다.
14) 불령선인인가로 원문에는 각주가 표기되어 있다.
15) 芥川龍之介(1968) 앞의 책 p.180.
16) 芥川龍之介(1978)『芥川龍之介全集』6、岩波書店 pp.189-190.
17) 関口安義(1999)『芥川とその時代』筑摩書房 p.500.

생각났다.[18]

불탄 뒤의 시체냄새를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지 않는 비정상적인 감각일 것이다. 또, 포개어진 시체를 보고 처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죽은 시체를 부러워하고, 요절한 사람이 부럽다고 한 아쿠타가와는 4년후인 1927년에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폐허의 흔적과 참상, 타버린 시체 등을 자세히 둘러보고, 시각적 감각적으로 느낀 감상을 10 여편의 작품으로 나타낸 아쿠타가와는 열정에 가득찬 작가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가 자경단으로 있었던 곳에서는 학살이 없었던 듯하다. 아쿠타가와가 사실을 가능한 그대로 기록했다면 10 여편의 기록 중에는 학살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만 할 것인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시노가 뒤 인용에서 주장하듯 모든 자경단이 광분해서 조선인 학살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Ⅴ. 학살의 도덕적 반성을 촉구

당시 한발 더 나아가 조선인의 학살과 당시 유언비어에 분동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한 지식인도 있었다.

나가오카 한타로(長岡 半太郎)는 토성형 원자모델 제창 등, 학문적 업적을 남긴 일본 물리학자인데 『사상(思想)』(1923. 11)에서 조선인에 대한 모습의 특징으로 자르지 않고 기른 머리를 들고 있다. 머리가 긴 사람은 조선인으로 간주하고 잡아서 검문했는데 일본인 중에서도 예술가풍으로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이 조선인으로 오해받아서 위험한 상황이 처한 것을 지인이 알아보고 확인해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실을 소개한다. 이와 같이 관동대지진 당시에는 조선인을 색출하는 검문을 해서 일본인도 조선인으로 오해받고 죽을 뻔한 사실은 다야마 가타이의 『도쿄진재기(東京震災記)』[19]를 비롯해 많은 기록에서 찾아

18) 芥川龍之介(1978) 앞의 책 pp.189-190.

볼 수 있다.

민본주의자이고 정치사상가인 요시노 사쿠조는 「소제소언(小題小言)」(『中央公論』1923. 10)[20]에서 전문가가 '도쿄의 건물은 조금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괴멸할 것이다'라고 들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면 된다는 경박한 풍조는 인격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를 깎듯 노력하는 사람을 바보취급 한다며, 지방에서는 도쿄에 쌀 한 톨 없다든가, 도쿄에 불령(不逞) 무리가 날뛰어서, 지극히 위험하니까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가지 않는 편이 좋다는 등, 그럴 듯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中央公論』 1923. 11)에서는 조선인 폭동 유언의 출처에 대해서, 친분이 있는 한 조선 신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요코하마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무리가 지진으로 인해 쫓겨서 도망치다가, 도중에 배가 고파서 민가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약탈했고, 작은 폭행도 가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조선인이 약탈했다는 소문으로 되었고, 요코하마에서는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로 퍼지게 되었다며 유언비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요시노는 조선인의 희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원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책임이 있는 ××가 이와 같은 유언을 전파해서 더욱 더 그것을 믿게 하는데 힘이 실렸던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따라서 사실이 명백해지면 논평을 시도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민중은 자경단 등이라는 자가 선인 학살을 감행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 말하는 것이므로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조금도 일시적으로 선인의 조직적 폭행을 믿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 게다가 지방에서는 동경에서 불은 대부분 선인이 저지른 것이라는 유언을 믿고, 복수심으로 학살을 저지른 곳도 있는 듯하다. 도쿄 시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교양 없는 계층이 자경단 등으로 뛰쳐나온 방면에서는 상당히 난폭한 모습이었던 것 같다. 선인이 재해를 입은 수는 상당히 많다. 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이번 지진으로 많은 재산과 많은 친한 사람을 잃은 불쌍한

19) 이미경(2012)「田山花袋と関東大震災」『일본연구』제 5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127-143.

20) 吉野作造(1923.10)『中央公論』「小題小言」pp.163-165.

>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불쌍한 정도는 민중 격정으로 인해서 희생된 무고한 조선인에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재액에 있어서 이재민의 필두에 선 자는 이들 선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살해된 선인 대부분이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것은 당국에서도 단언하고 있지만, 유언과 같은 사실이 전혀 조선인 사이에서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잠시 의문시 되어 있다.[21]

요시노가 조선인 학살을 주로 다루며 책임감있게 행동해야할 사람이 유언비어를 전파해서 더 믿었다고 했듯이, 당시 경찰관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녔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으므로 자경단이라는 자들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일본 민중들이 부정하지 않았고, 조선인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복수심으로 학살을 저지른 곳도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요시노는 일부 자경단, 경찰 등이 살해를 저질렀다고 밝히는 것이다.

또, 관동지방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리고 신문 등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학살이라는 행동을 저지른 곳도 있으며 전부는 아니지만, 교양없는 계층이 나온 곳의 자경단은 난폭한 행동을 해서 많은 조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사실을 적고 있는 요시노도 조선인의 유언비어와 같은 행동이 전혀 없었는지는 의문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역시 조선인이라고 요시노는 말한다.

> 일본인과 조선인의 ××를 주제로 한 보도는 지금은 공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되어진 조직적인 음모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은 의심할 바 없으며, 만약 그 진재에 따른 조선인의 돌발적인 폭동에 대해서는 지난 달 하순(9월 말: 논자 주)에 공표로 인해서 수 십명, 헤아려 보면 대부분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에 냉정히 판단하면 어느 정도 폭동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2, 3명 조선인이 폭행을 했다고 해서 모든 조선인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은가. 이에 있어서 내지인의 격분은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나 있다. 도둑이 동쪽으로 뛰어 갔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모두 도둑이라고 하는 태도였다. 특히 조선인의 폭행에 대한 국민적인 복수로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 구별

21) 吉野作造(1923. 12)『中央公論』「朝鮮人虐殺について」pp.172-176.

없이 조선인을 말살하기에 이른 것은 세계를 무대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큰 치욕이 아닌가. 학살을 저질러서 난폭하다고 생각했던 하급 ××관뿐만 아니라, 평소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순박한 일반 내지인이 동포를 찌르고 찔렀다고 한다.[22]

요시노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에 대한 보도는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폭동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조선인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폭동이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며 사실 여부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유언비어는 '과장되어진 조직적인 음모'라고 단언하고, 조선인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말살'과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없이 조선인을 말살하려고 저지른 일본인의 행동은 세계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치욕이라고까지 밝히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학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하급 소방관 뿐만 아니라, 평소 순수하다고 생각한 사람조차 사람을 찌르며 살해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밝힌다. 또, 예까지 들면서 조선인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 몇 명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 전체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조선인에 대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하고 있다.

"요즘에 한 가지 유감이면서 가장 슬퍼해야 할 하나의 약점을 폭로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다. 이것은 보통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개 ××××의 ×××도량으로써도 가장 슬퍼해야할 일에 속한다. 일시적으로 흥분했다는 여세를 금할 수 없었다는 사정에 크게 인정하는 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국민으로써 훈련 상이라고 해도 이 일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가장 엄숙한 태도로 바라보고, ×××의 ×××에 대해서 추호도 놓치는 일이 없길 희망한다. 일본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이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3]

요시노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행동은 슬퍼해야 할 점이고, 도덕상으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흥분의 여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도 반성과 자각이 촉구된다고 논한다. 또, 당국 차원에서도 엄하게 밝혀야 하며 강력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은 민본주의자답게 당시 일본

22) 吉野作造(1923.12)앞의 책 pp.172-176.
23) 吉野作造(1923.10)「小題小言」『中央公論』pp.163-165.

지식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또 일본이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로 볼 때, 요시노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실상을 정확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자답게 국민 교육을 위해서도 소홀히 넘길 수 없다며 대지진 당시의 행동에 대해 비판한다. 이와 같이 지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요시노는 당시 일본인이 유언비어로 농락당해서 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고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Ⅵ. 나오며

도쿄를 포함한 간토지방의 지식인들은 대지진 당시 폭동, 유언비어, 조선인에 대한 살상사건을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대지진 때 조선인 폭동을 믿는 어리석고 냉혹한 일본인이 대다수였지만 한편으로 그런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문학작품의 기록조사를 통해 고증해 보았다.

미야모토와 오카모토의 지진기록에서는 지진 당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묘사와 유언비어에 대한 불안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유언비어가 과장되었다고 하면서도 조선인이 발각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조선인을 두려운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에서는 당시 일본인의 상상을 초월한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쿠타가와의 10 여편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록 중에는 학살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아쿠타가와가 소속해 있던 자경단에서는 잔학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요시노가 주장하듯 모든 자경단이 광분해서 조선인 학살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쿠타가와의 기록에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발견할 수 없지만, 그의 문장은 사실 기록에 그치지 않았고, '살육을 기뻐하다'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조선인 박해에 대한 고발과 자경단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라다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언비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일본인이 죽였다고 하며 재미로 한 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평상심을 잃은 무법의 상황에서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요시노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일본인의 행동은 슬퍼해야 할 약점이고, 도덕적인 문제로도 용서할 수 없고, 흥분의 여세로 행한 행동은 잘못되었다며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당국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서도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육차원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9월부터 11월까지 발표된 기사 중에 나타난 유언비어와 조선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조선인에 대한 피해사실과 진실여부를 의심하며 다룬 지식인, 살육을 저질렀던 이상심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지식인, 더 나아가서 개인의 반성과 국가적인 반성을 촉구한 지식인 등, 학살이 자행된 인간 살육의 현장을 직, 간접적으로 접하고 표현한 방법은 그 사람이 가진 사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반응에서 보여지듯 참된 지식인이란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사색하고 인류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강덕상 저, 김동수, 박수철 옮김(2005)『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역사와 비평사, p.19
강소영(2012)「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을 향한 시선」『日語日文學研究』제 83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275-291
다나카 마사타카(2015)「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동북아 역사총론』48호 동북아역사재단, pp.89-118
야마다 쇼지(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책임』논형 pp.5-224
이미경(2012)「田山花袋と関東大震災」『일본연구』제 5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127-143
_____(2015)「관동대지진 관련 문학에 나타난 사건의 표현양상」『일본어문학』70집 일본어문학회 pp.283-300
이지형(2004)「살인은 저질렀지만의 풍경; 살인의 추억 그리고 대지진」『일본문화연구」제10집, p.145

조경숙(2008)「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일본학보』77집 pp.99-109
芥川龍之介(1978)『芥川龍之介全集 6』岩波書店 pp.173-178, p.180
_____(1968)『芥川龍之介全集 7』角川書房 p.175, p.179, p.180
琴秉洞 編(1996)『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Ⅰ』p.1
関口安義(1999)『芥川とその時代』筑摩書房 p.499, p.500
田山録弥(1995)『定本 花袋全集』第25巻、臨川書店 p.367
寺田寅彦(2011)「震災日記より」『天災と国防』講談社 pp.90-103
宮本百合子(2002)「宮本百合子全集　第十七巻」新日本出版社 pp.245-261
吉野作造(1923.10)「小題小言」『中央公論』pp.163-165
_____(1923.12)「朝鮮人虐殺について」『中央公論』pp.172-176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関東大震災直後の朝鮮人の表現様相
－ 9月から11月までの記録を中心に －

李美京

東京を含む関東地方の大地震時、知識人たちは、朝鮮人についてのデマと朝鮮人の殺傷事件を目撃し、どのように反応していたかについて考察した。

大震災時、朝鮮人の暴動を信じる愚かで冷酷な日本人がほとんどであったが、一方ではそのような態度を理解できない日本人も少なくなかったことを記録調査を通じて考証してみた。

寺田寅彦、芥川龍之介、岡本綺堂、宮本百合子、吉野作造などの当時のデマと朝鮮人虐殺を眺める視点を中心に調べてみた。このような知識人は見聞録、殺戮を犯した正常ではない心理、国家的な反省を促すなどの観点で記録している。

<Abstract>

Expressive aspects of Koreans after the Kanto Earthquake
– Research focuses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

Lee, Mi-Kyoung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how the researchers in the Kanto Region, especially Tokyo, reacted to the so called “riot”, rumors, and the massacre of Korean people during the Earthquake in 1923. Although there were many foolish and cold-hearted Japanese who believ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taking advantage of earthquake by committing arson and robbery, there were unbelievably many Japanese who did not believe such rumor through the research.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erada Torahiko, Akutagawa Ryunosuke, Okamoto Gidou, Miyamoto Yuriko, Yoshino Sakujou, and few others of how they reacted to the Korean Massacre.

The personal work of these intellectuals prove that the act of massacre was not normal but psychologically and nationalistically a forgiveness that the Japanese should pursuit.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283－309쪽 10.15733/jast.2017..72.283

입센의 한・일 수용과 그 의미*
－ ‘개인’의 발견, 자주성과 관련하여 －

최 재 철**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Ⅲ. 일본의 입센 수용
- 모리 오가이(森鷗外)를 중심으로 -
Ⅳ. 한국의 입센 수용
Ⅴ. 자아 각성과 자주성
Ⅵ. 맺음말

Key Words : イプセン(Ibsen),『人形の家(Et dukkehjem)』, ノラ(Nora), 個人(individual), 自主性(autonomy)

Ⅰ.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근대극의 창시자인 노르웨이의 헨릭 입센(Henrik Ibsen; 1828-1906)의 문제극・사회극의 대표작인『인형의 집』(1879)을 비롯한 그의 문학과 사상이 일본과 한국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 그 파급효과로서 ‘개인(individual;個人)’의 발견과 ‘개인주의’의 영향, ‘자율성・자주성(Autonomy)’의 도입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입센 소개 및 번역 이입 약사>

(*이제까지 일부분씩 소개된 것을 종합, 보다 명확하게 재정리함.)

일본(또는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입센의 이름을 소개한 이는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1922)로, 그는 자신이 창간한 일본 근대 초기의 평론잡지『시가라미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하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한일비교문학 전공.

소시(柵草紙)』제2호, 1889.11)에 게재한 「현대 제가의 소설론을 읽다(現代の諸家の小説論を読む)」에서, 톨스토이 등과 더불어, '지금 졸라를 제외하고 이 경계선을 넘었을 거라고 의심이 가는 자를 헤아려보면 서구의 대가 중에 여전히 스칸디나비아의 헨릭 입센,'[1] 이라고 그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입센 약전(略傳)과 작품연표를 일본에 최초로 소개한 것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1859-1935)의 「헨릭 입센(ヘンリック-イブセン)」(『早稲田文学』, 1892.11)이다.[2] 이어서, 다카야스 겟코(高安月郊)가 입센의 『사회의 적』 번역 연재(『同志社文学』, 1893.3-5, 미완) 및 『인형의 집』 번역 게재(1893.4, 1회로 중단), 이후 『입센작 사회극』(『사회의 적』 『인형의 집』, 1901.10)을 완역 출판하였으나 모두 반향은 미미했다.

오가이(鷗外)는 입센의 『브란트(Brand)』를 『목사(牧師)』(1903)[3]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고, 입센 사후(1906.5) 본격적으로 입센 소개와 수용이 이루어졌다. 『와세다문학(早稲田文学)』(1906.7)에는 입센기념호가 특집으로 편집될 정도로 열기가 고조되어갔다.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는 입센연구를 표방하며 『신사조(新思潮)』(1907.9)를 창간하고, '자유극장(自由劇場)'을 일으켜 제1회 시연 작품으로 입센의 『존 가브리엘 보르크만』[4](이하, 보르크만)을 선정하고 그 번역을 오가이에게 의뢰하였다.

---

1) 「今ゾラを除きて此の境界線を踰えたらんかとの疑あるものを算ふれば、西欧の大家の中に猶ほスカンヂナキヤのヘンリック、イプセン」 森林太郎(1889), 「今の諸家の小説論を読みて」, 『鷗外全集』第22巻, 岩波書店, 1973, p.71. 초출지는 森林太郎, 「現代の諸家の小説論を読む」(『柵草紙』第2號, 1889.11)로 게재. 후에 『月草』에 수록함. 일본어원문의 한글 번역은 필자, 이하 같음. 또한, 오가이는, '문학 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괴팍한 자 입센과 불란서의 촌뜨기 졸라의 전성시대는 어느새 지나갔다. (중략) 입센, 스트린드베르그, 즈델만, 하우프트만 등의 희곡에 마음을 우러르고, 정을 가다듬을 만한 표준을 갖다 댈 이유도 없고,'(「文学の方では、スカンヂナキヤの偏屈者イプセンと仏蘭西の野暮人ゾラとの全盛時代はいつか過ぎ去つた。(中略) イブセン、ストリングベルク、ズウデルマン、ハウプトマン等の戯曲に心を崇うし、情を清めるといふばかりの標準を持つて行く訳にも行かず、」) 라고, 도입 초기에는 속단을 한다. 鷗外漁師(1896), 「敘」, 『月草』, 春陽堂, p.1-3. 森林太郎, 「月草敘」, 『鷗外全集』第23巻, 岩波書店, 1973, pp.294-296.

2) 河竹登志夫(1972), 「坪内逍遙とイプセン一役の行者・ブラン比較考一」, 『比較文学年誌』第八号, 早稲田大学比較文学研究室, p.33.

3) 森林太郎(1903), 「牧師」(イブセン 作), 『鷗外全集』第3巻, 岩波書店, 1972, pp.219-266.

4) 森林太郎(1908), 「ジョン・ガブリエル・ボルクマン」(イブセン 作), 『鷗外全集』第5巻, 岩波書店, 1972, pp.181-315.

오가이는 『보르크만』을 번역 연재(『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08.7-9)하고 「슈렌테르의 보르크만 평」[5](1908.7.1.-4)을 번역 게재하는 등 오가이의 번역의 열의와 오사나이의 신극에 대한 정열에 힘입어 1909년 11월 27-28일, 『보르크만』을 자유극장 첫 작품으로 공연함으로써 입센극이 일본에서 최초로 공연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문단과 연극계, 지식계층 일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등 '입센회' 회원들은 물론 거의 모든 문학 동인지 관계자들이 유라쿠극장(有楽座)에서 초연을 관람하고 관극평을 게재하는 등 신연극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환희와 정신을 공유하는 새 시대의 도래를 구가하였다. 오가이가 번역한 입센의 『보르크만』은 인습 타파를 부르짖는 메이지 시대의 기운과 합치되어 성공한 연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1871-1918)는 『인형의 집』(『와세다문학』 1910.1)을 번역하여, 쇼요(逍遙)의 '문예협회(文藝協會)' 제1회 공연 작품으로 선정, '노라(Nora)' 역에 마쓰이 스마코(松井須磨子) 배역, 1911년 9월 22-24일 첫 공연(제1,3막)이 성황리에 이뤄졌고,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1주일간 제2회 앵콜 공연(3막 전부)이 제국극장(帝國劇場)에서 개막되는 등 신극사(新劇史)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보르크만』은 남성 청년에게, 『인형의 집』은 여성 중년에게 특히 호소력이 컸다.

'노라'는 이제 '신여성(新しい女)'의 대명사가 되어,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ふ)가 주도한 여성해방운동의 기수격인 잡지 『청탑(青鞜)』에서 '『인형의 집』 특집호'(1912.1)를 편집하고, 현모양처주의 비판과 노라 가출에 대한 찬반양론 등 의견이 비등하게 되어, 여학생의 『인형의 집』 관람 금지 등 역풍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성문제를 『청탑』(1913.1)에서 특집으로 다루자 각 잡지에서도 '신여성' 특집호를 잇달아 출간하였다.

오가이는 '근대극협회(近代劇協會)'를 결성한 우에야마(上山草人)의 의뢰로 그 제4회 공연작인 입센의 『인형의 집』을 『노라(ノラ)』라는 제목으로 번역(1913.10.5.-10.17)하였고, 슈렌테르의 「해제」를 번역하여 「노라 해제-오가이초(ノラ解題-鷗外鈔-)」(『스바루(昴)』1913.11)로 게재한다. 오가이 번역 『노라』는 동년 11월 근대극협회에서 공연하여 호평을 받아, 이듬해 4월 재공연하였다.

---

5) 森林太郎(1908), 「シュレンテルのボルクマン評」, 『鷗外全集』第5巻, 岩波書店, 1972, pp.316-326.

한국의 입센 수용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참고로 중국의 경우는, 일본 유학파인 루쉰(魯迅)이 1908년 입센의 『민중의 적』을 언급하였고, 뤄징뤄(陸鏡若)는 쓰보우치 쇼요의 글을 번역하여 「입센의 극」(1914)이라는 제목으로 『인형의 집』 등 입센의 희곡 11편을 소개하였다. 본격적인 입센 수용은 후스(胡適)가 잡지 『신청년(新青年)』제4권 6호(1918.6)에 '입센특집호'를 기획하면서부터다. 그 서론으로 후스는 「입센주의」[6] 라는 글을 발표하고, 작품 번역으로는 후스와 뤄쟈룬(羅家倫)의 『노라』가 게재된다. 이어서 천구(陳嘏)는 『인형의 집』을 『괴뢰가정(傀儡家庭)』(1918.10)으로 번역하였다.

한편, 후스는 '노라'에서 힌트를 얻어 딸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세대와의 갈등을 그린 번안 창작극 『종신대사(終身大事)』(1919)를 발표한다. 중국에서 『인형의 집』은 1923년과 1925년에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각각 공연된 이래, 1935년은 중국 각지에서 입센의 작품이 활발하게 공연되어 '노라의 해' 라고 불릴 정도였다.[7]

Ⅱ.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인형의 집』을 비롯한 입센 작품의 번역 소개 과정 연구, 작가별 입센 수용 연구, 입센의 전반적인 수용 및 영향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형의 집』을 비롯한 입센 작품의 번역 및 소개 과정에 대해서는, 오가이와 입센에 관한 일본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오시마(大島田人)의 「오가이와 입센」(1957.7)[8]과, 시게마쓰(重松泰雄)의 「모

---

6) 후스는 이 글에서, '가정과 사회를 진정으로 유신하고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一이것이 바로 입센주의다.' 라고 역설한다. 후스(胡適), 「입센주의(易卜生主義)」(「특집:번역의 동아시아적 계보와 문화적 상상-입센으로 되돌아본 동아시아근대기획-」자료2), 『민족문학사연구』제58권, 민족문학사학회, 2015, p.132.

7) 김영숙(2014), 「'노라 열'의 심층 문화 심리 연구-문화 번역의 각도에서 본 중국의 초기 입센 수용의 한 측면-」, 『Trans-Humanities』Vol.7 No.2,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pp. 126-130. 김연수(2012.12), 「번역과 근대적 문화전이-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59집, 독일어문학회, pp.10-11.

8) 오가이(鷗外)의 입센극에 대한 이해에 관해, 아키바(秋庭太郎)가 '〈연극으로서 보다도 문학으로서 사상으로서〉의 그것이었다.' 라는 논지(「イプセンの移入と其影響」, 『日本新劇

리 오가이론-입센에의 관심과 관련하여」(1968.4), 기요타(清田文武)의 「모리 오가이에 있어서의 입센」(1976.12), 고보리(小堀桂一郎)의 「해설」(1978)[9], 가네코(金子幸代)의 「노라의 행방-모리 오가이와 입센의 희곡」(1989.12) 등이 있다.

시게마쓰(重松泰雄)는 세키(関良一)의 '오가이 낭만인설(鷗外浪漫人説)'을 취하여, '입센은, 니체와 더불어, 오가이에 있어서 <자기를 취하게 하는 술>(「妄想」, 『三田文学』, 1911.3)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가이의 입센관은 메이지(明治) 20년대(1887~)의 입센 비판에 비해 30년대(1897~) 이후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가이에 있어서의 입센도 또한, 브란트와 같이 그의 낭만적 심정을 불러일으켜 격렬하게 생의 <극북지대(極北地帯)>를 동경하게 하는 한사람의 정신적 <목사>였던 것 같다.'[10] 라고 맺는다.

한편, 기요타(清田文武)는 오가이의 「노라 해제」(『昴』, 1913.11) 등을 예로, 『인형의 집』이 '소위 여성해방의 문제를 들어 작자의 진의를 의식적, 의도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자에 관한 것을 인류의 문제로서 취급했던 것> 이라고 소개' 하고, 「노라 해제」의 '이것(『인형의 집』)을 읽고 이것을 보고, 과연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수긍하든 안하든 개개인의 판단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 '오가이는 개인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입센의 <개인주의> 지향의 정신이 사회, 타자와의 연계를 부정하고, 파괴와 허무의 길에 다다르기 어렵지 않다는 우려를 품게 하는 것으로 보고 비판적이 됐음에 틀림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설에 대한 격렬한 초기의 정신・자세는, 점차로 조화와 완성이라는 괴테적 정신에 향해 있었던 것 같다. 입센에 대한 관심의 동향은 그러한 과정 속에 편입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라며, 입센에 대한 관심도 오가이 정신사의 한 시기의 해명을 위해 검토될만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11]

史』上巻)로 말한데 대해, 〈'사상으로서' 라고 정정하고 싶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신인'으로서 그의 일에 '삶'을 찾기 위해서는 (중략) 오가이는 그가 함몰되어 있는 '미혹'의 뿌리를 입센에 묻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맺고 있다. 大島田人(1957.7), 「鷗外とイプセン」(特集 「鷗外の新研究」), 季刊 『明治大正文学研究』第二十二号, 東京堂, pp.32-39. 참조.

9) 小堀桂一郎(1978), 「解説」, 『鷗外選集』第7巻, 岩波書店, pp.310-311.

10) 重松泰雄(1968.4), 「森鷗外論ーイプセンへの関心をめぐつて」(特集 「明治作家論), 『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p.46-57.

11) 清田文武(1976.12), 「森鷗外におけるイプセン」, 『比較文学』第十九巻, 日本比較文学会,

가네코(金子幸代)는 상기의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면서, '오가이가 근대연극 분야에서 수행한 역할을 고찰하는 전제로서' 일본의 입센 희곡 번역과 소개 등 수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12] 또한 입센 작품『인형의 집』의 호게쓰 역과 오가이 역의 차이에 대한 번역 문장 비교도 참고할 만하다.

입센의 전반적인 수용 및 영향 연구는, 옷치(越智治雄)의「입센과 일본문학-『보르크만』의 경우」(1961.12)[13]와 나카무라(中村都史子)의『일본의 입센 현상-1906-1916년』[14] 등이 있다.

Ⅲ. 일본의 입센 수용
- 모리 오가이(森鷗外)를 중심으로 -

일본의 입센 수용에 대해,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입센의 이름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하였고 작품 번역과 평론 소개 등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하여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미진한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1922)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나쓰메 소세키의 경우를 참고하기로 한다. 우선 오가이(鷗外)의 작품 중에서 입센의 영향이 두드러진 소설『청년(青年)』(1909-1910)을 보자.

『청년』의 주인공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의 사상 면의 성장은 무엇보다 <입센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준이치(純一)의 입센과의 첫 만남은 히라타 후세키(平田拊石)의 <입센에 관한 강연>이며, 그 다음이 유라쿠극장(有楽座)에서 상연한 입센극『존 가브리엘 보르크만』의 관람이다.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 사조 <입센이즘>이 준이치와 그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던진 파문은 대단했다. 당시『인형의 집』등 근대극의 선구자 입센 연극이

---

pp.28-30.

12) 金子幸代(1989.12),「ノラのゆくえ―森鷗外とイプセンの戯曲」,『森鷗外研究』3, 森鷗外研究会, p.12-36. 선행연구 조사와 수용사 이해 부분에 참조함.

13) 越智治雄(1961.12),「イプセンと日本文学―『ボルクマン』の場合」,『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6(14), 学燈社, pp.28-33.

14) 中村都史子(1997),『日本のイプセン現象―1906-1916년』, 九州大学出版会, pp.419-430. 이 책 중에서 오가이 관련은 第一章第一節「西洋個人主義とは何か-森鷗外のイプセン観」(pp.3-28) 참조.

일본 청년에게 준 자극과 충격에 대해서 준이치를 통해 알 수 있다.[15]

먼저 후세키(拊石)가 입센에 관하여 강연하는 장면부터 살펴보자. 후세키는 서구 사조의 수용과 적용의 토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을 지적한다.[16] 그리고, 사회극에 손을 댄 이후의 입센에 관해 언급 내용이다.

> 준이치가 지금까지 비축해 지니고 있던 사상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 것은 후세키가 풍자적 어조로 갑자기 정색을 하며 입센의 개인주의(個人主義)에 양면이 있다고 하는 말을 끄집어냈을 때였다. 후세키는 먼저, 점차 모든 습관의 속박을 벗고 개인(個人)을 개인(個人)으로서 생활하게 한다는 사상이 입센의 일생의 작품상에, 소위 주제(빨강실)이 되어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
> 브란트라는 주인공의 이상(理想)이, 자기(自己)로부터 나온 것, 자기(自己)의 의지(意志)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데에 입센이 구하고자 하는 것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 여하튼 길은 자기(自己)가 가기 위하여 자기(自己)가 여는 길이다. 윤리(倫理)는 자기(自己)가 존중하기 위하여 자기가(自己) 구성하는 윤리다. 종교(宗教)는 자기(自己)가 신앙하기 위하여 자기(自己)가 건립하는 종교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오토노미(Autonomie;자주성)이다. (pp.314-315)

입센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써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습관의 속박을 점차로 벗고, 개인(個人)을 개인(個人)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사상이 입센의 생애의 전 작품 속에 일관하는 주제(主題)' 라고 말한 점과 통한다. 또 히라타 후세키의 모델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라고 볼 수 있는데, 본론 제Ⅴ장에서 인용하는 소세키(漱石)의 강연 「나의 개인주의(私の個人主義)」(1914)의 '자기본위(自己本位)'를 주장한 중심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물론 후세키의 입센론은

---

15) 최재철(1995), 「근대 일본문학 속의 청년상」,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pp.90-106. 참조. 이하의 내용 및 요지, 부분 인용함. 이 글은 졸론 「近代日本の青年像-森鷗外の『青年』とその周辺-」(東京大学大學院 석사 학위논문, 1981.3)의 일부를 번역, 수정하여 게재한 「근대 일본의 청년상-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청년』과 그 주변-」(『일어일문학연구』제6집, 한국일어일문학회, 1985)을 보완하여 전재한 것임. 위 졸론에서,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소설 『青年』(1909-1910)을 중심으로 입센의 수용과 영향,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한국의 입센 수용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였다.

16) 森林太郎(1910), 「青年」, 『鷗外全集』第6巻, 岩波書店, 1972, p.313. 이하, 『青年』 인용문 끝에 쪽수만 기입함.

이미 『브란트』를 번역했고, 『보르크만』의 번역을 끝낸 바 있는 오가이 자신의 것이란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더 높고 더 멀리 날고자 하는 입센을 가리켜 후세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강연을 끝맺는다.

> 여하튼 입센은 추구하는 사람(求める人)입니다. 현대인(現代人)입니다. 새 사람(新しい人)입니다. (p.316)

입센은 자율적인 참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현대인이고, 새로운 사람(신인, 새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오가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볼 경우, 입센 소개 초기에 '괴팍한 입센의 전성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한 말을 수정한 셈이다.

일본 청년들은 근대 서구 사조인 입센의 개인주의를 재빨리 받아들여, 스스로의 사상적인 성장을 위한 영양소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입센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은 평등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 자주적 존재라는 본질의 일면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입센으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 사조를 잘 섭취하여 크게 되고 싶고, 새 시대에 맞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것인데, 고등 교육이 진리 탐구라는 본래 목적 외에, 오히려 메이지(明治)시대 특유의 입신출세와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다고 하는 점이다.

실제 1909년 당시 일본의 자유극장 창립 제1회 실험 공연이었던 오가이 번역 입센극 『보르크만』이 문학청년 지식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시대사조상으로 보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준이치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극장의 발표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회원 가입을 해 두었다.'(p.322) 라는 말이 대변한다.

1909년 11월 27-28일, 자유극장 창립 『보르크만』의 시연 과정과 그 반응 및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다.[17] 『보르크만』 공연의 성공은 <입센회>의 연구 활동과 자유극장 고문 중 한 사람인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의견, 연출자 오사나이 가오루의 노력이 주효했다. 관람평은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자전적 회고담 『청춘 이야기(青春物語)』[18] 등에 자세

17) 小堀桂一郎(1978), 「解説」, 『鷗外選集』第2巻, 岩波書店, pp.377-380.

18) 谷崎潤一郎(1932-1933), 「오사나이씨와의 관계」(「小山内氏との経緯」), 『青春物語』(初出,

하다.

「보르크만」극의 무대, 배경, 연출이 모두 새로웠고, 입센극의 첫 번째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오사나이의 「자유극장의 시연을 마치고」와 도손의 「자유극장의 새로운 시도」 등 공연과 관련한 글이 있고, 모리타(森田草平)는 「배우무용론(俳優無用論)」이라는 「보르크만」평 속에서, '이번 자유극장 제1회 시연은 예상외로 대성공이었다.' 라며 입센 각본의 힘을 중시하였다.[19]

그리고 「보르크만」의 영향을 받은 작품에는 마야마 세이카(真山青果)의 「제1인자(第一人者)」(『中央公論』,1907.10) 등이 있다. 『청년』에서 후세키의 입센론이 소세키의 입센 이해에 오가이 자신의 해석을 가미했다는 것은, 「보르크만」을 비여유파의 예로 인용한 소세키의 「『계두(鷄頭)』 서문」(1908)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히라타 후세키의 <입센에 관한 강연>과 자유극장의 <입센극 『보르크만』>이 『청년』의 사상 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근대 청년 개인의 자아 발견과 자기주장, 사상의 성장에 끼친 입센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도 청춘 연애소설 『산시로(三四郎)』(1908) 속에서, '히로타(広田)선생'의 입을 통해 여주인공 '미네코(美禰子)'를 '거칠다(乱暴だ)', '입센류의 여자(イブセン流の女)'[20] 등으로 지칭하며 자기주장이 강해진 신여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았다.

「산시로」 속의 입센 수용에 대해서는 모리(毛利三弥)의 선행 연구[21] 등이 있다.

『中央公論』, 1932.9.-1933.3.), 『谷崎潤一郎全集』第13巻, 中央公論社, 1967, pp.385-388.

19) 小山内薫・左団次 共編(1912), 「自由劇場」, 秋庭太郎, 「文芸協会自由劇場併立時代」『日本新劇史』下巻, 理想社, 1956, p.160. 재인용. 또한, 「イブセンの移入と其の影響」, 같은 책, 上巻. 참조.

20) 夏目漱石(1908), 「三四郎」, 『漱石全集』第7巻, 岩波書店, 1979, pp.116-117.

21) 毛利三弥(1994), 「『三四郎』とイプセン」(特集 『三四郎』), 『漱石研究』第2号, 岩波書店, pp.101-115.

Ⅳ. 한국의 입센 수용

한국에 입센의 이름을 처음 소개한 것은 최남선이 번역하여 게재한 「지리학 연구의 목적-지리학과 미술, 문학」(内村鑑三;우치무라 칸조)(『少年』, 1909)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괴테와 바이런, 실러 등과 함께 입센을 소개하면서 '노르웨이 작가라고 소개하지 않고 스칸디나비아의 작가, 자연주의 작가로 소개'[22]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찍이 오가이가 입센을 '스칸디나비아의 입센'으로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소설의 효시인 『무정』(1917)의 작가 이광수는 일기(1910.2.5.,土)에,

> 퍽도 오늘은 읽었다. <人形의 家>, <蒲団> 以下 數十篇을 讀破하였다. 나는 점점 깊이 文藝로 들어가는가 보다.[23]

라고 『인형의 집』과 다야마 카타이(田山花袋)작 자연주의 소설 『이불(蒲団)』(1907)을 읽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광수는 도쿄유학 시절을 회상한 이 「일기」에서, '本鄕座(혼고극장)에서 오델로劇을 보다. 쉬는 틈에 <三四郎>을 읽었다.'[24] 라고 적고 있고, 소세키의 『산시로(三四郎)』의 주인공 '산시로'도 <문예협회>가 주최하는 연극 셱스피어 작 「햄릿」 공연을 혼고극장에서 관람하는 것을 보면, 이광수는 산시로와 똑같이 20세기 초 도쿄의 공기를 함께 호흡한 셈이다.[25]

근대 여류 화가 나혜석은 도쿄유학생동인지 『학지광(學之光)』에 발표한 「이상적 부인」(1914.12)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22) 김연수, 위의 글, 12쪽. 실제로, 우치무라(内村鑑三)의 원문 第一章 「地理学研究の目的」의 '地理学と美術、文学' 항목에서는, 〈 -전략- 지리학상의 이유에 있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높고 험준한 곳, 여기가 입센, 비요른슨을 배출한 땅이다. (-前略- 地理學上の理由に存するなり。スカンダナビヤ半島の峻嶺嶮巍たる所是イプセン、ビーョルンソンを輩出せしめし地なり)〉 라고 쓰여 있다. (内村鑑三, 『地理学考』, 警醒社, 1894, p.14)

23) 이광수(1925.4), 「나의 少年時代-十八歲 소년이 東京에서 한 日記-」, 『이광수전집』 제19권, 삼중당, 1964, p.19. 이 글 마지막에, '(一九二五年四月 ≪朝鮮文壇≫第七号所載)' 라고 표기되어 있다. 최재철(1995), 「근대 일본문학 속의 청년상」,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p.90 참조.

24) 위의 일기, 「一月二日 (日曜)」(1910년) 첫머리. (이광수, 위의 책, p.17)

25) 최재철(1995), 「작품해설-방황하는 청춘 〈산시로〉의 의미-」, 나쓰메 소세키 지음・최재철 옮김, 『산시로』, 한국외대출판부, p.283.

過去及現在를通하야,理想的婦人이라헐婦人은읍다고生覺허는바요. 나는아즉婦人의個性에對헌充分헌硏究가읍는故이며, ᄯᅩ自身의理想은非常헌高位에在험이요. 革新으로理想을삼은카츄샤, 利己로理想을삼은막다, 眞의戀愛로理想을삼은노라夫人, 宗敎的平等主義로理想을삼은스토우夫人, 天才的으로理想을삼은라이죠女史, 圓滿헌家庭의理想을가진요사노女史諸氏와如히,多方面의理想으로活動허는婦人이現在에도不少허도다.[26] (밑줄은 원문에 따름; 인용자 주)

이 글에서 나혜석은 노라를 '진정한 연애를 이상으로 삼은 이상적 여성'의 예로 들고 있다. '남편의 인형'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집을 나간 노라에 대한 지지이며 그 장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겠다. 또한, 근대일본 신여성의 대표격인 '라이죠'(平塚雷鳥;히라쓰카 라이초, 여성중심의 잡지『청탑(靑鞜)』창간 주역, 「원래 여성은 태양이었다」 게재)와 메이지시대 여류 단가 시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단가집『흐트러진 머리카락(みだれ髪)』)'를 각각 '천재적 이상'과 '원만한 가정의 이상'을 가진 여성으로 표현하는 나혜석의 문장은 입센의 영향과 당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노라로 대변되는『인형의 집』의 노라 초연 배우 마쓰이 스마코(松井須磨子)도 '신여성'의 표상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단편적으로 입센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초기의 입센론은 반광생(半狂生;본명,김한규)의 「세계문호평전8-『입센』」(『매일신보』, 1920)으로, 입센의 생애와『인형의 집』,『브란트』등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의 '혁신적인 사상'과 '철저한 주의'를 강조하였다.

무릇 사람의 思想은 반드시 環境에 支配되ㄴ、ㄴ 것이라. (중략) 彼로 ㅎ、야금 革進的이며 ᄯᅩㅎ、ㄴ 그것이 「입센」의 思想이 되얏다. (중략) 「입센」의 徹底ㅎ、ㄴ 主義야말로 우리의 참으로 本ㅎ、야 쓸바이 안인가? (중략) 其中에도 「ᄭᅥㄹ쓰ㅎ、우스」卽 「人形의 家」라ㄴ、ㄴ 것은 文學界에 가장 그 反響이 大ㅎ、야 그 主人公인 「노라」의 態度ㄴ、ㄴ 一時 問題가 되얏섯다. 이中에셔도 彼의 大傑作이요 ᄯᅩ 世界文學者로 ㅎ、야금 모다 賞贊케 ㅎ、ㄴ、ㄴ 것은 「ᄲᅢ 투란트」이니라.[27]

---

26) 羅蕙錫孃(1914.12), 「理想的婦人」,『学之光』第三号, 在日本東京留学生学友会, p.13. (『学之光』全二冊, 태학사, 1978, 영인본 참조.)

입센의 불우한 유년시절과 유랑 등의 환경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며,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의 '태도의 문제'(가출) 등에서 입센의 혁신적 사회개혁사상을 보고 '철저한 주의'에서는 개인주의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양백화는 「'인형의 가'에 대ᄒᆞ、야」(1921)[28] 라는 작품 해설을 썼고, 시마무라 호게쓰의 '예술좌(藝術座;예술극장)' 출신[29]인 현철(玄哲)[30]은 「근대문예와 입센」(1921)에서 '세계문학의 가장 중요한 맥을 잇고 있는 인물로 입센을 평가하면서 근대문예를 알기 위해 입센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도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学之光』제22호, 1924)에서 입센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31] 이후 때에 따라 입센을 기념하는 입센론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갔다.

입센 작품의 첫 번역은, 양백화와 박계강의 『인형의 가(家)』(『매일신보』,

---

27) 半狂生(1920), 「世界文豪評傳(十七-十九) 8-『입센』」, 『每日申報』, 1920.11.25-27, p.1. 3회 연재. 이후, 필자 본명 김한규, 「'입센'-괄대문호약전」으로 『新天地』第4號(1922.1)에 재수록. 유민영(1987), 『개화기연극사회사』, 새문사, p.156-157. 유민영은 이 인용문 뒤에, '반광생이 입센을 소개하는 이유가 연극의 사회참여를 은연중에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겠다. 연극운동을 사회개선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이 글은 새로운 전기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3·1운동 직후의 연극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라고 평하고 있다.

28) 백화생(1921), 「'人形의 家에 대ᄒᆞ、야」, 『每日申報』, 1921.4.6.-9.
우수진(2008,4), 「입센극의 수용과 근대적 연극 언어의 형성」, 『한국근대문학연구』17, 한국근대문학회, p.368. 참조.

29) 시마무라 호게쓰의 다음과 같은 신문 인터뷰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전략) 신극 배우 현철은 예술좌 단원으로 교토지방에 「크레오파트라」 순회공연시 동행하여 단역을 맡기도 했는데, 아직 학생이고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여 대사를 하지 않는 배역으로 돌렸다.' 고 한다. (「(前略)新劇役者　玄哲は芸術座員であつた(中略)右につき目下京都に興行中の芸術座監督島村抱月氏は語る(中略)玄哲君は私共の学校に居りましたが、(中略)京都地方にも連れて来たことがありますが一昨年末クレオパトラで巡業した時にも同行しましたが、まだ学生で日本語も碌に出来ませんから白をいはない役に廻して居りました。」)(『大阪毎日新聞』, 1916.10.25.) 松本克平(1966), 『日本新劇史一新劇貧乏物語一』, 筑摩書房, p.195-196. 中村都史子(1997), 『日本のイプセン現象一 1906-1916년』, 九州大学出版会, p.419-420. 再引用.

30) 현철(玄哲;1891-1965)은 「개벽」사 학예부장으로 있으면서 연극 관련 평론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는 '민족의 의지'를 찾고자 연극에 뜻을 두었다고 하는데, '1910년 10월 명치대학(明治大学) 법과 재적 중 연구생으로 따라 나선 것이 연극 공부의 첫 시작이었다. 島村抱月(시마무라호오게쯔, 1871-1918) 주재의 藝術座 관서지방 공연에 연구생으로 따라 나선 것이 연극 공부의 첫 시작이었다.' 이두현(1999), 『한국연극사』(新修版, 초판 1973, 개정판 1985년), 학연사, p.300.

31) 김연수, 앞의 글, pp.12-13.

1921.1.25.-4.3.)[32]이며, 이어서 양백화의 『노라』(1922)[33]와 이상수의 『인형의 가』(1922)[34], 『해부인』(1923)이 잇달아 출판되었다. 이들 번역에 대해, 한국어역과 일본어역의 대조 등 국내의 선행 연구는, 『인형의 집』을 비롯한 입센의 대표 작품의 번역 소개 과정 등 수용사 연구에 집중된 감이 있다.[35]

나혜석은 양백화・박계강의 번역 연재 『인형의 가』(『매일신보』)에 삽화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 연재 마지막 회(1921.4.3.)에 「인형의 가」 가사를 작사하여 악보(김영환 작곡)와 함께 실려 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제1절/ 총4절)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논/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36]

또한, 시 「노라」에서는,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중략) 소녀들이여/ 깨어서 뒤를 따라 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여라./ (중략) 새날의 광명이 비쳤네.' 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나혜석은 입센의 『인형의 집』 노라에 자극받아 여성의 자각과 해방을 일깨웠다.

횡보(橫步) 염상섭은 평론 「지상선을 위하야」(『新生活』,1922.7)에서, 먼저 『인형의 집』 대단원의 장면, 즉 남편 헬머가 "남편에게 대한 자식에게 대한

32) 梁白華・朴桂岡 合訳, 『脚本 人形の家』, 『毎日申報』, 1921.1.25.-4.3. (총 61회, 1면 연재)
33) 양백화(1922), 『노라』, 영창서관. '오가이 역본과 호게쓰 역본을 참고로 했다는 점이 엿보인다.' 中村都史子(1997), 앞의 책, p.425.
34) 이상수(1922), 『인형의 가』, 한성도서주식회사.
35) 이들 번역에 대해서는 김병철의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1975)이래로 김재석의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2012) 등이 있다. 김재석은 이 글에서, 양백화와 박계강이 겟코와 호게쓰의 일역본과 영역본을 참고하여 일본 편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점과 정확한 번역에 대한 의지, 이상수 번역의 진전된 구어체 대사 구사력 등은, 조선의 번역극이 1910년대에 비해 한 단계 도약한 증거라고 평가한다. 김재석(2012.6),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36, 한국극예술학회, pp.11-12.
36) 나혜석 지음, 이상경 편(2000), 「인형의 가(家)」, 『나혜석전집』, 태학사, p.113.

의무지"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라가 다음과 같이 주고받는 대화를 인용한다,

> 노라「나에게는 ᄯᅩᄂᆞ갓치 神聖한 義務가 다른 데 잇슴니다.」
> 헬머-「그런게 잇슬 理가 잇나. 무슨 義務란 말이야?」
> 노라「나 自身에게 對한 義務죠」
> 헬머-「무엇보다도 第一에 자네는, 안해요 에미다」
> 노라「그런 것은 나는 인제 밋지 안어요. 무엇보다도 第一에 나는 사람이애요. 마치 당신이 사람인 것갓치. 적어도 일로부터는 그러케 되랴고 함니다. (중략) 自己가 무엇이던지 生覺하고 窮理해서 透得해내지 안으면 안되겟슴니다」[37]

염상섭은 이 몇 구절이 노르웨이의 문호이자 현대 문제극의 권위인 헨릭 입센의 걸작『인형의 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부인해방문제의 예언인 동시에, 그 해결의 제1선언이, 실로 우리 노라의 조고만 가슴이 울니우고, 붉은 입술이 ᄯᅳᆯ니우며', 영감(靈感)이 선택한 이 몇 마디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후, 자아 자각과 확립, 여성을 위한 인류에의 교훈, 개체의 존재 주장, 신인의 생명, 신도덕의 기조, 자기 경우의 자각 등 요점을 파악한 작품 해석을 이어간다.

입센 작품의 첫 공연은 현철의 '조선배우학교' 학생들에 의한『인형의 가』(1925.9, 천도교당) 시연인데, 노라로 주연한 복혜숙(卜惠淑;1904-1982)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다.[38]

『인형의 집』의 노라의 영향으로 일본의 소위 '新しい女(신여성)'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이 등장하고,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자유연애 풍조와 조혼의 폐해, 도회에 대한 동경으로 특히 농촌 여성의 가출이 증가 일로에 있고 여성해방운동이 전국 경향 각지에서 일어난 것은『동아일보』『조선일보』등 당시의 신문 잡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9]

『인형의 집』은 일제강점기하에서 공연금지가 원칙이었으며, 공연이 허가된

---

37) 염상섭(1922),「至上善을 爲하야」,『염상섭전집』12(평론・수필집), 민음사, 1987, pp.41-42.
38) 이두현(1999), 앞의 책, p.302-303. 우수진(2008,4),「입센극의 수용과 근대적 연극 언어의 형성」, 앞의 글, p.368.
39)『동아일보』1927년 3월 8일자의「春風에 바람나는 젊은女子 出奔-남편버리고작구다러난다-」라는, 경기도 개성군의 여성 가출 기사 등이 그 예이다.

경우라도 '회원' 상대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남편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노라의 자각과 가출이 식민지 조선의 정서와 결합될 것을 우려하였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인형의 집』공연은 여성해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40]

『인형의 집』공연은 1932년 4월 '극예술연구회' 제6회 공연(박용철 역, 홍해성 연출) 이후 막을 내리게 된다.[41]

'노라'의 가출과 그 후일담은, 동아시아 한 중 일에서 각각 전개되는데, 한국의 당시 현실을 볼 때, 전근대적인 인습적 사고의 틀은 여전히 잔존하고, 특히 여성의 자아 각성과 자립, 근대적 개인주의의 실행은 요원한 상태였다.

번역을 통한 근대 문화의 전이를 포괄적 시야로, 한・중・일을 포함하여 각국의『인형의 집』수용 양상을 비교 고찰한 김연수는「번역과 근대적 문화전이-입센의『인형의 집』수용양상 비교를 중심으로-」(2012)에서, 독일에서『인형의 집』번역극이 공연(1880)될 때, 주연 배우가 번역자에게 작품 결말 노라의 가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자 역자는 입센에게 수용을 청하여 입센이 고민 끝에 노라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것으로 고친 결과, 이를 두고 '야만적 폭행'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서구에서 조차 노라의 가출은 쉽게 납득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42]

김동인의 단편소설「무능자의 아내」(1930)는 여성('영숙')의 가출과 그 후일담을 다루고 있다. '거대하던 재산은 남편의 방탕과 관개사업 실패로 한 푼도 없이 파산하고, 남편은 경성으로 달아난다. 이 때, 막연히 생각하던 가출을 영숙이 실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인형의 집」이다.

---

40) '1926년의 근화여학교 후원회의『인형의 집』공연은 공연금지 조치로 취소되었고, 주최측은 작품을『스산나』로 대체하여 12월 1-2일에 공연하였다.(『동아일보』, 1926.12.1.) 1920년대에 작품 전체가 공연된 예는 잡지『衆聲』사의 창간기념공연으로 1929년 5월에 열린 것이 유일해 보인다.' 김재석(2012.6), 앞의 글, p.11-12. 참조.

41) '일본 당국이『인형의 집』공연을 이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이었다는 것은, 3회째 공연을 앞에 두고 이 작품에 담긴, 자각을 촉구하고 자유와 독립을 희구하는 정신이 식민지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판단했었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근대극 운동은 예술운동임과 동시에 사회운동이며,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기확인, 자기표현 운동이기도 했던 것 같다.'
中村都史子(1997), 付論・第二節「韓国におけるイプセンの上演一玄哲と洪海星」, 앞의 책, pp.428-430. 참조.

42) 김연수(2012.12),「번역과 근대적 문화전이-입센의『인형의 집』수용양상 비교를 중심으로-」,『독일어문학』제59집, 독일어문학회, p.5.

'출분…….'

그때부터 막연히 영숙이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더구나 그때 마침 남편의 책장에서 얻어내어 읽은 「인형의 집」은 그의 생각에 어떤 실행성까지 띠어주었다.

그는 노라가 왜 달아났는지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였다.[43]

문제는 영숙이 『인형의 집』을 읽고 '노라의 가출의 의미를 똑똑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가출을 생각할 때 『인형의 집』이 '어떤 실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자주, 자립이라는 입센 사상의 본질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노라의 가출에 중점을 두고 단지 '조선의 노라' 영숙을 '여성해방운동의 기치'로 이해하고 '인습타파의 용사', '가정과 남편을 차버린 투사'[44]로서 받아들인 주변의 시각 또한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일 신문 지상에 일시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출하는 여성의 소식이 보도되는 것은, '완전한 자각'이나 '자기의 장래'[45] 라는 것을 고찰해볼 여유를 갖지 않은 사회현상으로서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작가의 진단은 타당했다.

이후,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도 기세 좋게 가출한 여성 '노라'가 결국 거지꼴을 해가지고 남편인 '동양은행' 지배인 사무실을 찾아오는 이야기다. 승리자인 남편의 조소를 받을 때, 노라는 눈물을 꾹 참고,

"옳소, 그 말이 옳소……내가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 한 사람의 노예질을 싫다고 벗어져 나왔다가 ……인제 다시 또 당신한테 매인 몸이 되었소."[46]

라며 패배를 인정한다. 당시 '조선'의 여성은 인습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자주적 사고와 자립을 실천에 옮길 수 없었고 식민지 '조선'의

43) 김동인(1930), 「무능자의 아내」, 『김동인 단편 전집』1, 가람기획, 2006, p.428.
44) 위의 글, p.443-444.
45) 위의 글, p.448.
46) 채만식(1933), 「人形의 집을 나와서」(『조선일보』,1933.5.27.-11.14.), 『채만식전집』 1, 창작사, 1987, p.296-297.

현실은 부인의 가출을 용인할 만큼 성숙되지도 자유롭지도 못했다.

중국의 경우도 루쉰은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는가」(1923) 라는 연설에서, 무작정 집을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경제력을 가져야한다고 현실적 처방을 제시한 바 있다.[47]

채만식은 작품의 마지막에서, 노라가 남편에게, '싸움은 인제부터요.' 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기계실의 쿵쿵거리는 요란한 기계 소리에 따라, '노라의 혈관에서도 더운 피가 힘차게 뛰을 노라는 느끼었다.' 라고 이야기를 맺음으로써, 향후 근대화 과정에 따라 '조선의 노라'가 보다 스스로 각성하고 자율적으로 실행력을 갖게 되리라는 예감을 안겨준다.

비록 당장은 실패했을 지라도 입센극의 중요성은 여성들이 전근대적 인습의 질곡에서 벗어나 가출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가출을 실행해보았다는 것과 인간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근대적 자주적 인간형을 창출해간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Ⅴ. 자아 각성과 자주성

'자아 각성'과 '개인의 발견' '개성' '개인주의' 등을 거론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입센의 대표작『인형의 집』이다. 주인공 노라는 아버지의 인형에서, 그리고 남편의 인형으로 살아온 집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아 독립을 선언한 결과, 근대 신여성으로서 여성해방의 표상이 되었다.

『청년』에서 입센을 '현대인' '신인' '새 시대의 사람'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근대인의 '오토노미(Autonomy;자주성)'를 강조한 오가이(鷗外)는, <전근대적 관습의 속박을 벗고 개인(個人)이 개인(個人)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는 사상(思想)이 입센 작품의 일관(一貫)된 주제(主題)> 라고, 근대 청년들이 각자 개인(個人) 스스로 깨닫고 자주적으로 자기(自己)가 열어갈 길을 추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길은 자기(自己)가 가기 위하여 자기(自己)가 여는 길이

47) 김연수(2012.12) 「번역과 근대적 문화전이-입센의『인형의 집』수용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앞의 글, p.11.

고, 윤리(倫理)도 자기(自己)가 존중하기 위하여 자기가(自己) 구성하는 윤리이며, 종교(宗敎)도 자기(自己)가 신앙하기 위하여 자기(自己)가 건립하는 종교>라고 역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쿄유학시절인 1910년초에 입센의 『인형의 집』을 독파하고 '산시로'처럼 섹스피어의 연극 <오델로>를 관람한 바 있는, 근대의 선각자 이광수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혁신이 민족적발흥의 근본이다」(1926)[48] 등의 평론에서, 청년들의 자각을 일깨우려고 개인의 일상의 혁신이 민족의 발전에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역설하였다. 나혜석은 앞에서 기술한 「이상적 부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自己個性을 發揮코자허는自覺을가진婦人으로서, 現代를理解헌思想, 知識上及品性에對하야, 其時代의先覺者가되어實力과權力으로, 社交又는神祕上內的光明의理想的婦人이되지안이허면不可헌줄生覺허는바라. (중략) 自己의努力으로責任을盡하야本分을完守허며,[49]

이와 같이 나혜석은 입센의 노라에게 촉발되어, 각자의 개성의 발현과 자각, 자기의 노력과 책임, 본분의 완수를 주장하는 근대의 자주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상(理想)의 일생(一生)'을 향하여 '무한한 고통과 싸우며' '예술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선언하며 이 글을 맺고 있다.

나혜석은 앞의 「인형의 가」 가사 제2절에서,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저'[50] 라고, 여성으로서 아내와 어머니 이전의 '사람'을 강조한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사람'다운 사명을 자각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나혜석은 이렇게 입센 사상의 본질을 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염상섭도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인형의 집』 대단원을 인용한 바와 같이, 노라는 여성에 대한 남편의 인습적 사고(아내, 어미가 우선)에 대해, 먼저 자신에

---

48) 이광수(1926.5), 「個人의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勃興의 根本이다」, 『이광수전집』제17권, 삼중당, 1964, pp.445-448. (초출은, 一九二六年五月 ≪東光≫創刊號 所載)
49) 나혜석, 앞의 글, pp.13-14.
50) 나혜석 지음, 이상경 편(2000), 「인형의 가(家)」, 앞의 책, p.114.

대한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고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스스로 궁리하며 터득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가출하는 것이다. 염상섭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오늘날 새롭은 生活을 營爲하랴는 새사람에게 對하야, 個體의 存在를 굿게 主張하고, 自我의 確立과 尊嚴을 高調함은, 新人의 生命인 同時에 新道德의 基調요 最上의 意義가 잇는 것이다. (중략) 自己의 境遇를 自覺한다 함은 至難한 事인대,[51]

자아의 확립과 존엄, 개인의 자각, 신인(新人)의 생명, 신도덕의 기조에 대해 언급하는 위의 문장은, 오가이가 『청년』에서 한 말을 연상하게 한다. 어휘나 내용의 전개가 유사하다고 하겠다. 물론 염상섭이 『청년』을 읽지 않아도 입센의 핵심을 이해하고 당시의 시대사조(時代思潮)를 파악할 능력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므로 충분히 이런 문맥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염상섭은 이어서, 신생활을 개척하려는 신인들의 자아의 존엄과 개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대사조 및 그 정신이 전제로부터 민주, 계급적 차별에서 평등으로, 인습으로부터 해방, 개(個)의 부정으로부터 개(個)의 고조로 일체의 가치가 전도되었다.' 라고 강조한다.

또한, 진리가 있는 자기(自己)의 도(道)를 추구하며 개성(個性)의 자유로운 표현과 혁명된 자기가 완실(完實)된 진정한 자아주의자(自我主義者)를 천려비열(淺慮卑劣)한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나 위선적(僞善的) 이타주의자(利他主義者)와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오가이는 「그런 듯이(かのやうに)」(1912) 등에서 무정부주의 등을 거론하며, 개인주의가 앞선 서구의 사조(예; 신이나 의무를 '괴물, 유령 취급하는 입센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건설의 근대화를 이룩한 메이지(明治)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다이쇼(大正)시대를 맞아, 자유분방하며 이기적 개인주의로 치닫는 젊은 세대들과 사회 현상에서 그 이후의 시대를 낙관할 수만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입센의 근대인, 신인(新人)으로서, 근대적인 자주적 인간형으로서의 노라를 평가하고 청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립을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의 발현과 개인의 독립의 필요를 역설하는 한편, 또 그 부작용과 오도되는 측면, 즉 인간으로서 전통적인 긍정적 여성

51) 염상섭, 「至上善을 爲하야」, 앞의 책, p.42.

성의 상실을 아쉬워하고 지나친 개인주의의 횡행을 목도하고 그 우려에 대한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오가이는 작가 후반기에 주로 「야스이 부인(安井夫人)」(1914), 「할아버지할머니」(1915) 등 역사소설과 역사인물전기(史伝)를 집필하며 전통적 일본으로 회기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도 대표작 『마음』(1914)에서,

> 자유와 독립과 이기심에 가득 찬 현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 희생으로서 모두 이 외로움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52]

이라고 말하고, '개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예견하였다. 또한 「나의 개인주의(私の個人主義)」(1914) 라는 평론에서 '자기본위'의 진면목에 대해 말하면서, 이타적 자기본위라는 말로 개인주의의 활로를 개진했다.

> 나는 이 자기본위(自己本位)라는 말을 내 손아귀에 넣고 나서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제깐 녀석들이 다 뭐야 하고 기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망연자실하고 있던 나에게, 여기 서서, 이 길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것은 실로 이 자아본위라는 네 글자였던 것입니다.(중략)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찾으며 걸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자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길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평과 관찰로, 나에게는 추호의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한 셈입니다. (중략)
>
>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53]

무엇보다 자아 본위로 자기의 갈 길을 찾으라는 순수한 의미의 근대적 개인주의 사상을 역설하고 있는 강연인 것이다. 이러한 서구에서 수입한 개인주의 사고로 서양에 대하여 일본의 자기 본위를 주장하는 측면도 보인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형상화한 대표적 작품은 역시 『코코로(こころ;心)』(1914)이다. 이후, 소세키는 근대인의 자아 과잉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나를 버리고 하늘의

52) 夏目漱石(1914), 「心」, 『漱石全集』第9巻(『評論・雑纂』), 岩波書店, 1994, p.41.
53) 夏目漱石(1914), 「私の個人主義」, 『漱石全集』第21巻(『評論・雑纂』), 岩波書店, 1979, pp.141-143.

뜻을 따르자는 '칙천거사(則天去私).의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노방초(道草)』(1915)를 쓰고, 유작인 『명암(明暗)』(1916)을 발표하던 중 만년을 맞이한다. 또, 『노방초』에서는 전시대와 달라진 여성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54] 소세키의 『코코로(마음)』은 이기적 개인주의의 말로를 예견하고 경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는 「자력신앙」(1932)이라는 짧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나를 믿자' 며, '우리의 사명과 힘'을 믿는 것이 스스로의 힘, '자력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개인주의적이 아닌 점'에서 '합심, 단결의 우리'의 종교라고 강조한다.[55] 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각자 개인주의적인 것보다 합심하고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기적인 것에 대한 지양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자력(自力)에 대한 믿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염상섭은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글을 맺는다.

> 異民族이 너의 國土를 ᄲᅢ ᄇᆡ앗고 너를 다시리겟다고 할 際, 너는 엇지하얏느냐? ᄯᅩ한 엇지하랴느냐? 千篇一律로 百行과 萬事에 合지 안은 道德은, 아즉 完城한 道德은 아니다. (중략) 眞正한 自我主義者야말로 自己를 살님으로 말미암아, 自己의 民族을 살니우고, 人類를 살니운다. (중략) 노라와 갓치 妥協하지 마라, 이것이 至上善을 爲한=自我實現을 위한=第一箴言이다.[56]

이렇게 개인의 자각과 자율, 자립이라는 입센의 사상을 간파하고 당시 한국의 식민지 현실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입센 사상의 본질을 자주성으로

---

54) 최재철(1995), 「일본 근대 소설의 근대적 성격」,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pp.129-130.

55) 이광수(1932.8) 「自力信仰」, 『이광수전집』제19권, 삼중당, 1964, p.67. (초출은, 一九三二年八月 ≪東光≫ 所載)

56) 염상섭(1922.7), 「至上善을 爲하야」, 앞의 책, p.55-57. 또한, 염상섭은 「個性과 藝術」(『開闢』 제22호, 1922.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조선혼이 잇고 민족적 생명의 리슴이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긔에, 민족적 개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야 이 존엄하고 숭고한 민족적 개성이, (중략) 영원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며, 창조적 생명의 영원한 생장과 발전과, 활약이 잇는 것이다. (중략) 예술의 세계의 무변무애는, 개성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야 우리의 정신생활의 내용은, 더욱더욱 풍부하며 충실할 것이요, 영혼은 나날히 빗나질 것이다.'
(염상섭, 앞의 책, p.40. 한자는 한글로 바꿈)

파악하고 '노라와 같이 타협하지 마라' 라며, 민족의 자주 독립이 자아실현을 위한 지상과제라고 확신하고 능동적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후스(胡適)는 「입센주의」(1918)에서 유신과 혁명의 긴요함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노라를 '혁명의 천사'로 인식하고 시대에 부합하여 변용됐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의 외래 사조가 그 나라,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수용된다는 것은 기억할만하다.[57]

Ⅵ.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과 한국의 입센 수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입센 도입 과정에서 모리 오가이(森鷗外)가 수행한 소개 및 번역, 평론 등 그 역할이 중요한데 비해 연구가 미미하다는데 착안하여 오가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소세키의 경우를 참고하여, 동시대에 도쿄(東京) 유학중이었던 한국 근대문학 초기에 활약한 이광수 등과도 관련지어 보았다.

입센 수용의 한・중・일의 공통점은 개인의 발견과 자주성, 여성해방에 큰 영향을 끼치고 개인주의에로 발전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라의 가출'은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공연한 독일 등 서양의 경우와 유사하게 동아시아 한중일 각국에서도 인습타파에 대한 작용과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공통적 현상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개인의 발견과 자주적 인간형의 추구가 입신출세와 국가 건설에 수렴되면서 근대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메이지시대와는 달리, 개인주의를 구가하는 듯이 보이는 소위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시대 분위기를 기대감만 갖고 있을 수 없었던 오가이의 경우는 일본의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역사소설에 힘을 쏟게 된다. 또한, 나쓰메 소세키는 지나친 이기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인주의의 외로움의 폐해를 예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이는 적극적 개성의 소유자로 국가・집단에 대칭되

57) 최재철(2017.5), 「'개인'의 발견과 광장」, 『월간 한국인』, 미디어한국인, p.50-52.

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근대적 개인주의 정신의 고양은 그의 작품과 생애 전반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입센이 한국에 수용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혜석과 염상섭 등을 통해 한국 나름의 근대적 자아의 각성과 개인의 발견, 개인주의, 개성의 발현, 자주성 등에 대한 자각과 고민, '노라의 가출' 이후 등도 고찰하여 개인주의의 전개와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특히 염상섭은 「지상선을 위하야」 등에서 입센이즘의 본질인 개인의 자각과 동시에 '자주성'과 결부시켜 민족 국가의 자주 독립을 주장했다는 점은 특별한 전개라고 할만하다.

중국의 경우는, '혁명의 천사'로 노라를 찬양하며 여성, 개인의 역할을 부추겨 사회 개혁을 위한 사상으로 입센주의를 활용하였다. 중국의 경우를 시야에 넣어 한・일의 입센 수용의 차이점의 확인을 통해 하나의 외래 사조의 수용과 영향은 그 나라 그 시대의 특수성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参考文献>

森林太郎(1889)「今の諸家の小説論を読みて」,『鷗外全集』第22巻, 岩波書店, 1973, pp.65-82.
内村鑑三(1894)『地理学考』, 警醒社, p.14.
鷗外漁師(1896)「叙」,『月草』, 春陽堂, pp.1-3.
森林太郎(1896)「月草叙」,『鷗外全集』第23巻, 岩波書店, 1973, pp.294-296.
_____(1903)「牧師」(イブセン 作),『鷗外全集』第3巻, 岩波書店, 1972, pp.219-266.
_____(1908)「ジョン・ガブリエル・ボルクマン」(イブセン 作),『鷗外全集』第5巻, 岩波書店, 1972, pp.181-315.
_____(1908)「シュレンテルのボルクマン評」,『鷗外全集』第5巻, 岩波書店, 1972, pp.316-326.
_____(1910)「青年」,『鷗外全集』第6巻, 岩波書店, 1972, pp.273-472.
夏目漱石(1908)「三四郎」,『漱石全集』第7巻, 岩波書店, 1979, pp.116-117.
_____(1914)「心」,『漱石全集』第9巻(『評論・雑纂』), 岩波書店, 1994, p.41.
_____(1914)「私の個人主義」,『漱石全集』第21巻(『評論・雑纂』), 岩波書店, 1979, pp.141-143.
谷崎潤一郎(1932-1933)「小山内氏との経緯」,『青春物語』(『中央公論』, 1932.9.-1933.3.),『谷崎潤一郎全集』第13巻, 中央公論社, 1967, pp.385-388.
秋庭太郎(1956)「文芸協会自由劇場併立時代」『日本新劇史』下巻, 理想社, p.160.「イブセンの移入と其の影響」, 同書, 上巻.
大島田人(1957.7)「鷗外とイプセン」(特集「鷗外の新研究」), 季刊『明治大正文学研究』第二十二号, 東京堂, pp.32-39.
越智治雄(1961.11)「イプセンと日本文学一『ボルクマン』の場合一」,『国文学一解釈と

教材の研究一』6(14), 学燈社, pp.28-33.
重松泰雄(1968.4)「森鷗外論一イプセンへの関心をめぐつて一」(特集「明治作家論),『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p.46-57.
河竹登志夫(1972),「坪内逍遙とイプセン一役の行者・ブラン比較考一」,『比較文学年誌』第八号, 早稲田大学比較文学研究室, p.33.
清田文武(1976.12)「森鷗外におけるイプセン」,『比較文学』第十九巻, 日本比較文学会, pp.28-30.
小堀桂一郎(1978)「解説」,『鷗外選集』第2巻, 岩波書店, pp.310-313. pp.377-380.
崔在喆(1981.3)「近代日本の青年像-森鷗外の『青年』とその周辺-」, 東京大学大學院 修士學位論文, p.1-123.
金子幸代(1989.12)「ノラのゆくえ一森鷗外とイプセンの戯曲一」,『森鷗外研究』3, 森鷗外研究会, pp.12-36.
毛利三弥(1994)「『三四郎』とイプセン」(特集『三四郎』),『漱石研究』第2号, 岩波書店, pp.101-115.
中村都史子(1997)『日本のイプセン現象一1906-1916년』, 九州大学出版会, pp.3-28, pp.419-430.
木村 功(2017.4.14.)「夏目漱石におけるイプセン戯曲の受容」, http://www2a.biglobe.ne.jp/~kimura/papers/ibsen.htm
후스(胡適)(1918)「입센주의(易卜生主義)」(1918.6 초출.「특집:번역의 동아시아적 계보와 문화적 상상-입센으로 되돌아본 동아시아근대기획-」자료2),『민족문학사연구』제58권, 민족문학사학회, 2015, p.132.
이광수(1925.4)「나의 少年時代-十八歲 소년이 東京에서 한 日記-」(『朝鮮文壇』第7號),『이광수전집』제19권, 삼중당, 1964, p.17, 19.
_____(1926.5)「個人의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勃興의 根本이다」(『東光』,創刊號),『이광수전집』제17권, 삼중당, 1964, pp.445-448.
_____(1932.8)「自力信仰」(『東光』),『이광수전집』제19권, 삼중당, 1964, p.67.
羅蕙錫孃(1914.12)「理想的婦人」,『学之光』第三号, 在日本東京留学生学友会, p.13.(『学之光』全二冊, 태학사, 1978, 영인본 참조.)
나혜석 지음, 이상경 편(2000)『나혜석전집』, 태학사, p.113.
半狂生(1920)「世界文豪評傳(十七-十九) 8-『입센』」,『每日申報』, 1920.11.25.-27, p.1. 이후, 본명 김한규,『新天地』第4號(1922.1)에 재수록.
염상섭(1922)「至上善을 爲하야」,『염상섭전집』12(평론・수필집), 민음사, 1987, pp.41-57.
『동아일보』(1927. 3. 8)「春風에 바람나는 젊은女子 出奔-남편버리고작구다러난다-」.
김동인(1930)「무능자의 아내」,『김동인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6, pp.428-444.
채만식(1933)「人形의 집을 나와서」(『조선일보』,1933.5.27.-11.14.),『채만식전집』1, 창작사, 1987, pp.296-297.
이두현(1999)『한국연극사』(新修版, 초판 1973, 개정판 1985년), 학연사, p.300.

유민영(1987)『개화기연극사회사』, 새문사, pp.156-157.
최재철(1985)「근대 일본의 청년상-모리 오가이(森鷗外)의『青年』과 그 주변-」,『일어일문학연구』제6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153-180.
_____(1995)「근대 일본문학 속의 청년상」,『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pp.90-106.
_____(1995)「작품해설-방황하는 청춘 <산시로>의 의미-」, 나쓰메 소세키 지음/최재철 옮김,『산시로』, 한국외대출판부, p.283.
우수진(2008,4)「입센극의 수용과 근대적 연극 언어의 형성」,『한국근대문학연구』17, 한국근대문학회, p.368.
김재석(2012.6)「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한국극예술연구』36, 한국극예술학회, p.11-36.
김연수(2012.12)「번역과 근대적 문화전이-입센의『인형의 집』수용양상 비교를 중심으로-」,『독일어문학』제59집, 독일어문학회, pp.1-30.
김영숙(2014)「'노라 열'의 심층 문화 심리 연구-문화 번역의 각도에서 본 중국의 초기 입센 수용의 한 측면-」,『Trans-Humanities』Vol.7 No.2,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pp.126-130.
최재철(2017.5)「'개인'의 발견과 광장」,『월간 한국인』, 미디어한국인, pp.50-52.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イプセンの韓・日の受容とその意味
－ <個人>の発見、自主性と関連して －

崔在喆

本稿では近代劇の創始者であるイプセン(Henrik　Ibsen)の代表作『人形の家』(1879)をはじめ、彼の文学と思想が日本と韓国に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を考察し、その影響として<個人(individual)>の発見と<個人主義>, <自主性(Autonomy)>の展開等について考えてみた。

これまでに部分的に調べられていたイプセンの紹介、及び翻訳・移入の略史の誤植などを訂正、綜合してより明確に再整理した。1889年イプセンの名を初めて日本(或は、東アジア)へ紹介した森鷗外は、『ジョン・ガブリエル・ボルクマン』(1909年、『読売新聞』掲載・自由劇場、イプセン劇初公演)と『ノラ』、『幽霊』等を翻訳し、「シュレンテルの評－ノラ解題－」を翻訳掲載する等、東アジアにおけるイプセン受容に主要な役割を果たしたにも拘らず、今まで韓国ではほとんど研究が行われていなかった。

まず、イプセンの作品が近代草創期に坪内逍遥や島村抱月等に依って、日本に紹介された経緯を略述し、森鷗外を中心にして、日本の近代作家がどのように受容したか、『青年』(1909-1910)と『三四郎』(1908),『私の個人主義』(1914)等の小説と評論を調べた。

その理由は鷗外等のイプセン受容がイプセン死後(1906년)のイプセン熱に影響を与え、同時に韓国の東京留学生たちと重なる時期でもあったからである。韓国の先行研究は主に初期のイプセン作品の翻訳と受容について、『人形の家』を中心にしたり、<女性解放>や<ゼンダー>等と関聯づけて扱われていた。イプセン導入の過程において鷗外が果たした役割に比べ、研究が微微たるものであるのに着眼して、鷗外を中心として考察し、同時代に実際東京に留学中であった、韓国の近代文学初期に活躍した李光洙等とも関聯づけてみた。

イプセンの韓国への受容・伝播する過程で、羅恵錫の評論「理想的な婦人」(1914)や、廉想燮の「至上善の為に」(1922)等を通して、韓国に適用した<自主性>や国の<自主独立>の主張の意義を捉え、近代的な自我の覚醒と個人の発見、個人主義、個性の発現に対する自覚と当時の現実との苦闘をも考えてみた。

<Abstract>

Receiving Henrik Ibsen in Korea and Japan and Its Significance
– In Relation to Discovery of Individual and Independence –

Choi, Jae-Chul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rocess of receiving Henrik Ibsen's literature and his thought in Japan and Korea and consider the discovery of 'individual',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the development of 'autonomy' as its ripple effects. Ibsen is the founder of the modern theater and *A Doll's House* (1879) is his representative of the social drama.

This paper integrates and rearranges more clearly Ibsen's biography and the translation history of his works that have been introduced only partly. In 1889, Mori Ogai (森鷗外) first introduced Ibsen to Japan and East Asia and also translated *John Gabriel Borkman*, which was the first Ibsen's work performed in Free Theater in 1909 and further translated and published critical works such as *Nora*, *Ghosts*, and *Interpreting Nora* authored by Schurenter. Although Mori Ogai played a major role in accepting Ibsen in Asia, he has been rarely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ies.

I shortly summarize how Ibsen's works were introduced to Japan by Tsubouchi Shoyo and Shimamura Hogetsu in the early days of the modern era, and review the works such as *Youth* (1909-1910), *San Siro* (1908), and *My Individualism* (1914) in order to consider how the modern representative writers such as Mori Ogai and Natsume Soseki accept and embrace Ibsen. I focus on Ogai as the center of study, referring to Soseki and relating Lee, Kwangsoo.

In the process of receiving and disseminating Ibsen to Korea, I not only grasp 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accepted by Korea through Na, Hye-seok's *Ideal Wife* (1914), and Yeom, Sang-Seop's *For the Highest Good*(1922), but also examine the themes such as the awakening of the modern self, the awareness and the anxiety of discovery of individual, individualism, and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日本語學】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313－333쪽 10.15733/jast.2017..72.313

한일사전의 색채형용사 의미 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

고 은 숙**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Ⅳ. 한일사전의 색채형용사 정보 분석
1. 표제어 정보
2. 의미 정보
Ⅴ. 맺음말

Key Words : 色彩形容詞(A color adjective), 韓日辞書(Korean-Japanese dictionary), 意味情報(semantic information), 見出し語(headword), ミクロ構造(micro-structure)

Ⅰ. 머리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색채현상을 언어로 나타낸 것이 색채어이며, 색채어는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개념을 공유하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색채어 중 기본색채 어휘를 포함하는 한국어 색채형용사를 중심으로 한일사전에 나타난 의미 정보 항목을 중심으로 의미 정보를 체계적으로 살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특징은 하나의 색채계열 안에 여러 유사한 형태의 색채형용사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다양한 한국어 색채형용사가 한일사전에서는 어떠한 의미 정보로 제시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각 한일사전 간의 정보 비교를 통해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370)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강사, 일본어학.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 기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단어의 의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히 사전을 이용하게 된다. 사전은 많은 기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학습효과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의미 기술이 사전마다 특징이 존재하고 다양한 의미 기술로 제공되는 사항을 이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비단 사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의미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휘 의미는 유동적이며 문맥에 따라 비유, 상징적인 의미로까지 분화되므로 그러한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사전은 크게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구성된다[1]. 거시구조에서는 표제어 선정에 관한 정보를, 미시구조에서는 표제어 항목의 내부구조, 즉 각 표제어 항목에 기술된 하위항목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색채형용사가 한일사전[2]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미시구조 안의 주요 정보 항목인 의미 기술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표제어 선정 정보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사전에 제시된 색채형용사의 일본어 의미 대응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한일사전별 기술 내용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소위 '사전은 한 나라의 언어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한다.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정확한 일본어 의미 대응 정보를 파악하고 구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본어와 한국어 간의 상호 언어 이해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흔히 사전의 구조를 말할 때 거시구조(macro-structure)와 미시구조(micro-structure)를 언급한다. 사전의 거시구조는 사전 표제어의 종적 배열을 말하며, 미시구조는 각 표제어에 속하는 하위항목인 표기, 품사, 의미기술, 문법정보, 용례, 기타 어휘 정보 등을 선적으로 나열하는 횡적 배열을 의미한다.

2) 한일사전은 일한사전과는 달리 미시구조 안의 여러 정보 기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용법, 파생어 정보 등이 미흡하며 주로 의미 기술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일사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지금까지 색채어에 관한 연구는 한・일 대조 색채어 또는 기본색채 어휘를 중심으로 형태적인 분화 특징 및 의미상의 용법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몇 가지를 제시한다.

青山秀夫(1966)는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기본어와 그 기본어에서 복잡하게 분화하고 있는 많은 동의어(同義語)에 대해 형태적으로 개관하고, 또 의미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국어의 색채형용사는 모음의 음양교체, 접미사, 접두사, 자음의 평음(平音)과 농음(濃音) 교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의 정도를 구별하고 있으나, 현대어에서는 접두어가 접속한 語와 농음(濃音)어가 비교적 현저하게 색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손경호(2001)는 한・일 기본 색채형용사 '검다-黒い' '희다-白い' '붉다-赤い' '푸르다-青い' '누르다-黄色い'의 형태적인 특징과 의미상의 용법을 다룬 것이다. 양언어 색채형용사의 특징을 파생법, 음운교체, 색채어끼리의 결합에 의한 합성어에 관한 규칙적인 특징,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는 기본의미, 파생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함을 기술하고 있다.

권영성(2006)은 한국어 색채어의 기본형에서 분화한 복합색채어의 의미를 관찰하고 기본형과는 어떠한 어휘적 기능 및 의미 용법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어휘 분화에 따른 한・일 고유색채어의 의미적 특징에 관해 한국어는 '접사, 음운교체, 상황별, 대상에 따른 의미 변화, 사용대상의 제한, 비유적 의미로의 전이를 의미적 특징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일본어는 접사에 의한 의미변화, 음운변화에 의한 비어화, 사용대상의 제한, 비유적 의미로의 전이를 의미적 특징으로서 결론짓고 있다.

한편, 김선희(2013)에서는 한・일 색채어휘 중 기본 색채어를 밝히고 어휘간 형태적 분화 규칙과 의미적 변이에 관해 대조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색채어휘를 한국어는 '붉다, 푸르다, 노르다, 검다, 희다'를, 일본어는 'あか, あお, くろ, しろ'로 간주하고 있다. きいろ는 어구성, 음운적 특징 등의 언어 규칙에 따라 기본어휘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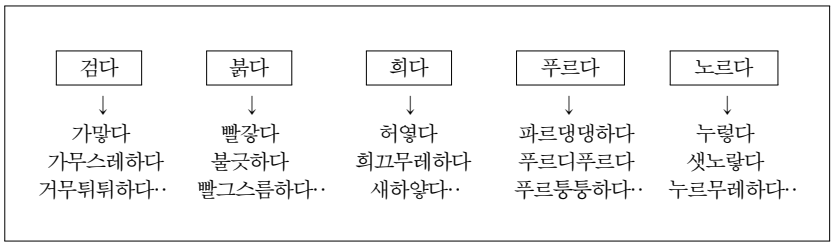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각 색채어들이 가지는 형태적인 특징 및 의미적인 특징 분석은

한・일 양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논의라 할 수 있으나, 기존 색채어에 관한 이들 연구는 대부분 유사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색채어가 어떠한 의미 대응 관계로 설명되어지는지, 특히 기본 색채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 한국어 색채형용사가 한일사전에서는 일본어로 어떻게 의미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등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일 양국의 언어 관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으로 삼는 한국어 색채형용사 어휘는『우리말 색이름 사전』[3]의 3부에 기술된 오방색 서술체계인 '색채형용사'를 기준으로 한다.『우리말 색이름 사전』은 '색과 색이름' '색이름 정의' '오방색 서술체계' '외국어 색이름에 대응하는 우리말 색이름' 그리고 '관용색이름에 대응하는 계통색이름' 으로 구성된 사전이다. 본고에서는 오방색 서술체계에 속하는 우리말 색채형용사를 분석대상 어휘로 하는데, 오방색이란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흰색, 적색, 흑색, 청색, 황색'을 말한다.『우리말 색이름 사전』에 실린 오방색 계열의 한국어 색채형용사는 5가지 기본색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색채형용사 계열 안에 여러 유사한 형태의 색채형용사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들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3) 한국색채연구소 편(1991/2006증보판)『우리말 색이름 사전』칼라뱅크커뮤니케이션 〈약호:『색이름』〉 pp.6-156



<그림 1>

위에 제시한 오방색 서술체계는 흑(黑)・백(白)・적(赤)・청(靑)・황(黃)의 순수 우리말 색이름의 변형체계로서 우리말 표기법의 배열순서인 초성・중성・종성의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들 색채형용사 해당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가마노르께하다/가맣다/가무끄름하다/가무대대하다/가무댕댕하다/가무레하다/가무숙숙하다/가무스레하다/가무스름하다/가무잡잡하다/가무족족하다/가무칙칙하다/가무퇴퇴하다/감노랗다/감노르다/감다/감파랗다/감파르다/감파르잡잡하다/감파르족족하다/거머누르께하다/거머번드르하다/거머번지르하다/거멓다/거무끄름하다/거무데데하다/거무뎅뎅하다/거무레하다/거무숙숙하다/거무스레하다/거무스름하다/거무죽죽하다/거무충충하다/거무칙칙하다/거무튀튀하다/거뭇하다/검누렇다/검누르다/검다/검디검다/검붉다/검퍼렇다/검푸르다/검푸르접접하다/검푸르죽죽하다/까맣다/까무끄름하다/까무대대하다/까무댕댕하다/까무레하다/까무스레하다/까무스름하다/까무총총하다/까무칙칙하다/까무퇴퇴하다/까뭇하다/깜다/꺼멓다/꺼무끄름하다/꺼무데데하다/꺼무뎅뎅하다/꺼무레하다/꺼무스레하다/꺼무스름하다/꺼무죽죽하다/꺼무충충하다/꺼무칙칙하다/꺼무튀튀하다/껌다/노랗다/노르께하다/노르다/노르무레하다/노르스레하다/노르스름하다/뇌랗다/누렇다/누르께하다/누르다/누르디누렇다/누르무레하다/누르스레하다/누르스름하다/누르퉁퉁하다/뉘렇다/발갛다/발그그대대하다/발그댕댕하다/발그레하다/발그무레하다/발그속속하다/발그스레하다/발그스름하다/발그족족하다/벌겋다/벌그데데하다/벌그뎅뎅하다/벌그레하다/벌그무레하다/벌그숙숙하다/벌그스레하다/벌그스름하다/벌그죽죽하다/볼그대대하다/볼그댕댕하다/볼그레하다/볼그무레하다/볼그속속하다/볼그스름하다/볼그족족하다/볼긋하다/불그데데하다/불그뎅뎅하다/불그레하다/불그무레하다/불그속속하다/불그스레하다/불그스름하다/불그죽죽하다/불긋하다/붉다/붉디붉

다/빨갛다/빨그대대하다/빨그댕댕하다/빨그스레하다/빨그스름하다/빨그족족하다/뻘겋다/뻘그데데하다/뻘그뎅뎅하다/뻘그스레하다/뻘그스름하다/뻘그죽죽하다/뽈그스레하다/뽈그스름하다/뽈그족족하다/불그스레하다/뿔그스름하다/뿔그죽죽하다/새까맣다/새빨갛다/새파랗다/새하얗다/샛노랗다/시꺼멓다/시뻘겋다/시퍼렇다/시푸르뎅뎅하다/시푸르죽죽하다/시허옇다/연붉다/파랗다/파르대대하다/파르댕댕하다/파르무레하다/파르스레하다/파르스름하다/파르족족하다/파릇하다/파르께하다/푸르다/푸르데데하다/푸르뎅뎅하다/푸르디푸르다/푸르무레하다/푸르스레하다/푸르스름하다/푸르죽죽하다/푸르퉁퉁하다/푸르께하다/해끄무레하다/해끔하다/해맑다/허옇다/희끄무레하다/희끔하다/희다/희디희다/희맑다/희읍스름하다/희읍스레하다】

이들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를 분석, 고찰하기 위해 한일사전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전 자료를 이용한다. 최근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사전도 종래의 종이사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웹사전 등이 활용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쇄사전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웹사전은 역시 같은 형태라 말할 수 있다. 현재 한일사전은 다양한 종류가 출판되어 있으나, 다음 3종의 한일사전[4]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여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를 살펴본다.

한일사전	편자	출판사	약호
『朝鮮語大辞典(上・下)』(1986)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	角川書店	『朝鮮語』
『동아프라임 한일사전』(2009)	두산동아 편집부	두산동아	『프라임』
『엣센스 한일사전』(2013)	安田吉實・孫洛範・李淑子・箕輪吉次 編	민중서림	『엣센스』

이상의 사전 자료를 이용하여 본고에서는 오방색 서술체계에 속하는 우리말 색채형용사를 중심으로 한일사전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4) 한일사전 자료는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자주 활용되는 학습용 사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이미 수년전부터 오랫동안 개정판이 많이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는 『엣센스』와 『프라임』을, 그리고 일본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한일사전에 해당하는 『朝鮮語』를 선정하였다.

Ⅳ. 한일사전의 색채형용사 정보 분석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색채형용사 어휘를 중심으로 한일사전의 표제어 정보 및 미시구조 안의 의미 정보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의미 정보 구축 방향을 도모하고자 한다.

1. 표제어 정보

사전의 의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시구조인 표제어 정보의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표제어 정보에서는 대상 어휘인 색채형용사를 중심으로 분석자료로 삼은 한일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그 양상의 특징을 기술하기로 한다. 이는 사전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사전 등재 여부와 사전의 표제어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3종의 한일사전에 상이하게 나타난 표제어 정보[5)]

『색이름』	『朝鮮語』	『프라임』	『엣센스』
가무숙숙하다	○	×	○
가무스레하다	○	○	×
거머누르께하다	×	○	○
거머번지르하다	×	○	○
까무레하다	○	○	×
까무스레하다	○	×	×
꺼무레하다	○	○	×
꺼무스레하다	○	○	×
꺼무충충하다	○	×	×
꺼무칙칙하다	○	×	×
누르무레하다	○	○	○
누르스레하다	×	○	○
발그레하다	○	○	×
발그스레하다	○	×	○
벌그레하다	○	○	×
벌그스레하다	○	×	○
불그스레하다	○	×	×
빨그대대하다	×	○	○
빨그댕댕하다	×	○	○

빨그스레하다	×	○	○
빨그족족하다	×	×	○
뻘그데데하다	×	×	○
뻘그뎅뎅하다	×	×	○
뻘그스레하다	×	×	○
뻘그죽죽하다	×	×	○
뽈그스름하다	○	×	○
뽈그족족하다	○	×	○
뿔그죽죽하다	○	×	○
푸르께하다	×	×	○
희읍스레하다	×	×	○

<표 1>에 제시한 것은 3종의 한일사전에서 표제어 정보가 상이하게 나타난 색채형용사의 경우만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드러나지 않은 색채형용사는 한일사전 3종 모두에 표제어로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말 색이름 사전』의 색채형용사가 각각의 한일사전에서는 표제어로 선정되어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제어 정보에서는 3종의 한일사전 모두에 동일하게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많으나 색채형용사가 2종, 또는 1종의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대다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3종의 한일사전 모두에 표제어로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색채형용사는 '까무총총하다/노르스레하다/누르디누렇다/발그그대대하다/불그속속하다/뽈그스레하다/시푸르뎅뎅하다/시푸르죽죽하다/파르스레하다/푸르스레하다'로 비교적 소수의 형용사가 이에 속한다. 또한 『우리말 색이름 사전』에는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는 색채형용사가 각각의 한일사전에는 제시되지 않은 형용사의 경우도 있는데, 그 어휘를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5) 〈표 1〉에서 『색이름』에 제시된 색채형용사는 본고의 분석대상 어휘이며, ○는 해당 한일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음을, ×는 등재되지 않음을 뜻한다.

<표 2> 대상어휘가 각 한일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색채형용사

『朝鮮語』 ×	거머누르께하다/거머번지르하다/까무총총하다/노르스레하다/누르디누렇다/누르스레하다/발그그대대하다/불그속속하다/빨그대대하다/빨그댕댕하다/빨그스레하다/빨그족족하다/뻘그데데하다/뻘그뎅뎅하다/뻘그스레하다/뻘그죽죽하다/뽈그스레하다/시푸르뎅뎅하다/시푸르죽죽하다/파르스레하다/푸르스레하다/푸르께하다/희읍스레하다
『프라임』 ×	가무숙숙하다/까무스레하다/까무총총하다/꺼무충충하다/꺼무칙칙하다/노르스레하다/누르디누렇다/발그그대대하다/발그스레하다/벌그스레하다/불그속속하다/불그스레하다/빨그족족하다/뻘그데데하다/뻘그뎅뎅하다/뻘그스레하다/뻘그죽죽하다/뽈그스레하다/뽈그스름하다/뽈그족족하다/불그스레하다/뿔그죽죽하다/시푸르뎅뎅하다/시푸르죽죽하다/파르스레하다/푸르스레하다/푸르께하다/희읍스레하다
『엣센스』 ×	가무스레하다/까무레하다/까무스레하다/까무총총하다/꺼무레하다/꺼무스레하다/꺼무충충하다/꺼무칙칙하다/노르스레하다/누르디누렇다/발그그대대하다/발그레하다/벌그레하다/불그속속하다/불그스레하다/뽈그스레하다/불그스레하다/시푸르뎅뎅하다/시푸르죽죽하다/파르스레하다/푸르스레하다

한편 본고에서 대상어휘 선정 기준으로 삼은『우리말 색이름 사전』에는 제시되지 않은 색채형용사가 3종의 한일사전에는 표제어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들 어휘를 사전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각 한일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대상어휘 이외의 색채형용사

『朝鮮語』 ○	가뭇없다/가뭇하다/거무슥하다/거무접접하다/까맣다/까무잡잡하다/까무족족하다/꺼머번드르하다/꺼머번지르하다/꺼무슥하다/꺼무접접하다/꺼뭇하다/노르끄레하다/누르디누르다/발그대대하다/발그름하다/벌그름하다/볼그름하다/불그스레하다/불그덩덩하다/불그름하다/빨그름하다/빨긋하다/뽈긋하다/새노랗다/새뽀얗다/새카맣다/샛말갛다/파르께하다/파르당당하다/파르데데하다/파르속속하다/푸렇다/푸르덩덩하다/푸르숙숙하다/푸르스럼하다/하얗다/허여멀겋다/희끄스름하다/희누르스름하다/희뭍다/희부옇다/희불그레하다/희붉다
『프라임』 ○	가마반드르하다/가마반지르하다/가무속속하다/거무접접하다/검뿌옇다/까마반드르하다/까마반지르하다/까무잡잡하다/꺼무숙숙하다/꺼무접접하다/노르끄레하다/노리끼하다/노릇하다/누르디누르다/벌그름하다/볼그름하다/불그름하다/불그숙숙하다/새노랗다/새뽀얗다/새카맣다/샛까맣다/샛빨갛다/샛파랗다/샛하얗다/시누렇다/파르께하다
『엣센스』 ○	거무접접하다/가마반지르하다/까무잡잡하다/꺼뭇하다/누르디누르다/새노랗다/새뽀얗다/새카맣다/파르당당하다/희불그레하다

이 중에서 ‘거무접접하다/까무잡잡하다/누르디누르다/새노랗다/새뽀얗다/새카맣다’ 등은 3종의 한일사전 모두에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꺼무접접하다/노르끄레하다/벌그름하다/볼그름하다/불그름하다/파르께하다’ 등은『朝鮮語』『프라임』에 공통으로 보이는 색채형용사이다. 또한 ‘가마반지르하다’는『프라임』『엣센스』에, 그리고 ‘꺼뭇하다/파르당당하다/희불그레하다’는『朝鮮語』『엣센스』에 각각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색채형용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제어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방법은 사전의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작업에 중요한 사항이다. 기존의 한일사전은 종이사전이라는 점에서 편집에 한계성이 따르는 문제 때문에 사전 표제어 선정에 제한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IT사전, 웹사전 등이 큰 호응을 이루고 있는 현재, 이들 사전 편찬에는 경제성의 한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제 사전 정보 이용에 접근하는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사전 이용자를 위한 표제어 선정에 가깝게 처리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한국어 색채형용사의 한일사전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미 정보

한국어 색채형용사는 기본 색채형용사가 여러 형태로 분화되어 다양한 어휘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색채형용사를 한일사전의 미시구조 안 의미 항목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제시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각 사전별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우선, 5가지 기본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를 살펴본다.[6)]

6) 한일사전의 의미 정보는 해당 색채형용사의 첫 대역 의미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색채를 나타내는 의미 정보만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유적인 의미 정보까지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4> 기본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

『색이름』	『朝鮮語』	『프라임』	『엣센스』
검다	(色が)黒い	(色が)黒い	(빛이)(色が)黒い; か黒い
붉다	赤い	赤い	赤い
희다	(雪・牛乳などのように)白い(하얗다)	白い	白い
푸르다	青い(草木や空が；草木や空のように)青い、緑だ	青い	青い
노르다	黄金色だ、黄銅色だ、(橙色と緑色の中間色で)黄金や黄銅のように黄色い、(黄金や真鍮のように)黄色い、鮮やかに色濃く黄色い	黄金色だ;　鮮やかで色濃く黄色い	(黄身のように)黄色っぽい; 黄色い

5가지 기본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는 3종의 한일사전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朝鮮語』는 다른 한일사전에 비해 색채형용사 '희다, 푸르다, 노르다'에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르다'의 경우는『朝鮮語』와『프라임』이『엣센스』에 비해 유사한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색채형용사 '희다'의 경우『朝鮮語』에서는 그 의미를 '(雪・牛乳などのように)白い'라고 하고 정보 뒤에 우리말로 '하얗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제어 '희다'의 의미 항목에서 부연 설명으로 '하얗다'[7]와의 의미 정보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희다と하얗다の相違点：희다は「白さ」を概念的にとらえたときの語に用いるのに対し、하얗다は具体的な「白さ」を表し、また「白さ」に対する話者の感情・とらえ方を反映した語であると、一般的に分析できる。さらに하얗다(허옇다など)はその母音交替により色の明度や彩度などの違いを表すが、それらは相対的なものである。】

또한 색채형용사 '푸르다'의 의미 항목에서는 유의어로 '파랗다, 퍼렇다'를 들고 있으며, 이 색채형용사들의 의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7) 참고로, 본고에서의 색채형용사 대상어휘에는 '하얗다'가 포함되지 않으며, '새하얗다'와 '허옇다'가 대상어휘에 포함되어 있다.

【파랗다, 퍼렇다は記述の対象物と話者の情緒的な面をとらえ表現するのに対し、푸르다はその基本となる色(=青・緑)を総括的に指す。
파란 하늘 青々と澄み渡った空, 푸른 하늘 青空(空の属性としての青さ)】

위 설명에서 '파랗다'와 '푸르다'를 각각 '파란 하늘' '푸른 하늘'을 예시로 들어 그 의미 정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설명이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3종의 한일사전에 나타난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를 기본 색채형용사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난 어휘들을 중심으로 각 부류의 색채형용사가 한일사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의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 특히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어휘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기술해 가기로 한다.

2.1 3종의 한일사전에 유사한 의미 정보로 제시된 색채형용사

여기서는 3종의 한일사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색채형용사의 예를 살펴본다.『색이름』의 표제어 색채형용사를 한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8)]

<표 5> 3종의 한일사전에 유사한 의미 정보로 제시된 경우

『색이름』	『朝鮮語』	『프라임』	『엣센스』
감노랗다	黒みがかった黄色である	黒みがかって黄色い	黒みがかって黄色い
감다	黒い、やや黒い	やや黒い; 黒い	(やや)黒い
거무끄름하다	薄黒い、黒っぽい	うす黒い; 少し黒っぽい	うす黒い; 少し黒っぽい
검누렇다	やや黒色を帯びて黄色い	やや黒みがかって黄色い	やや黒みがかって黄色い
검다	(色が)黒い	(色が)黒い	(色が)黒い; か黒い
검붉다	赤黒い、暗赤色だ	赤黒い	赤黒い
검퍼렇다	黒みがかった青色だ、青黒い	やや黒味がかって青い; 青黒い	やや黒味がかって青い; 青黒い
노랗다[9)]	黄色い、真っ黄色だ、黄金色だ	黄色い; 真っ黄色い	黄色い;黄色っぽい
누르께하다	黄ばんでいる、黄みがかっている	やや黄色い; 黄色みがかっている	黄ばんでいる; 黄色みがかっている

8) 각 유형의 색채형용사 예시는 지면제약상 일부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9)『朝鮮語』(p.489)의 경우 표제어 '노랗다' 항목에서는 의미 정보 이외에 색채형용사 '누렇

누르다	(銀杏の葉の色のように)黄色い	黄色い	黄色い; 黄色みを帯びている; 黄ばんでいる
누르무레하다	本来の美しさがなく(태가 나지 않게)黄色っぽい、薄汚く黄色、黄色く濁っている	薄汚く黄色い; 黄色く>濁っている	黄色く濁っている
뉘렇다	(生気がなく)黄色い、病的に黄色い	生気がなく黄色い	生気がなく黄色い
발그스름하다	ほんのりと赤い、うっすらと赤い、少し赤みを帯びている、赤みがかっている	赤みがかっている; ほんのりと赤い	赤みがかっている
볼그무레하다	ほんのりと薄赤い、うっすらと赤みがかっている	ほんのりと薄赤い	ほんのりと薄赤い
볼그스름하다	(すがすがしく美しい感じで)ほんのり赤い(紅い)	ほんのりと赤い	ほんのりと赤い
불그데데하다	(少々下品に)赤みがかっている	やや卑しく赤みがかっている	やや卑しく赤みがかっている
빨갛다	(발갛다の濃音形)真っ赤だ、赤い	'발갛다'の強調語: 赤い	赤い
새까맣다	真っ黒だ、非常に暗い、真っ暗だ	真っ黒だ	真っ黒だ
새빨갛다	真っ赤である	真っ赤だ	真っ赤だ;真紅だ
새파랗다	真っ青である、濃い青色である	濃い青色である; 真っ青だ	(빛깔)真っ青だ
새하얗다	真っ白である	真っ白だ;真っ白い	真っ白だ;純白だ
샛노랗다	샛[接頭] 真っ黄色だ	真っ黄色だ	真っ黄色だ
연붉다	薄赤い	薄赤い	薄赤い
파랗다	(くっきりと、鮮やかに)青い	明るく青い	(非常に)青い
파르께하다	青みがかっている、青白い	やや青味がかっている	やや青味がかっている
푸르디푸르다	鮮やかで濃い青だ、真っ青だ	真っ青だ; 非常に青い	真っ青だ; ひじょうに青い
희끔하다	(色が)白っぽくきれいである	とても白くてきれいだ	白っぽくてきれいだ
희디희다	真っ白い、このうえもなく白い	真っ白い; 純白だ	非常に白い; このうえもなく白い; 真っ白い; 純白だ
희맑다	白くて澄んでいる、透き通るように白い	(肌色などが)白く澄んでいる; 透き通るように白い	白く澄んでいる

다, 노르다, 누르다'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부연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희읍스름하다	ぼおっと白い、白みがかっている	白みがかっている; ほの白い	白みがかっている; ほの白い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색채형용사에 대한 의미 정보에서 3종의 한일사전 정보는 대부분 유사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감다'는 'やや黒い' 또는 '黒い'로 '검다'는 '(色が)黒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일사전의 의미 정보로 보면 '감다'와 '검다'의 의미 차이를 확연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뉘렇다'의 경우『朝鮮語』에서는 '病的に黄色い'와 같은 의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연붉다'는 3종 모두에서 동일하게 '薄赤い'로만 그 의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색채형용사 '파랗다'의 경우는 3종에서 공통적으로 '青い'로 의미를 제시하고는 있으나,『朝鮮語』에서는 'くっきりと, 鮮やかに'『프라임』은 '明るく'『엣센스』에서는 '非常に'로 각각 '青い'의 의미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첩어 형태의 색채형용사인 '푸르디푸르다' '희디희다'는 각각 공통적으로 '真っ青だ', '真っ白い'로 그 의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희디희다'는 특히『엣센스』에서 '非常に白い, このうえもなく白い, 純白だ' 등의 다양한 의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위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검디검다'는『朝鮮語』에서는 '大変黒い, 真っ黒だ'로,『프라임』『엣센스』는 '非常に黒い'로 의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붉디붉다'는『朝鮮語』가 '非常に赤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종의 한일사전은 '真っ赤だ'로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반면 '누르디누렇다'는 3종의 한일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색채형용사 중 '새/샛' 등이 접속해 이루어진 색채형용사 '새까맣다, 새빨

日本語の「きいろい」に当る語はほかに누렇다, 노르다, 누르다がある。노랗다, 누렇다は노르다, 누르다からの派生語であるが、노르다, 누르다は現在ほとんど使われていない。노랗다は「美しい、明るい、鮮やか、小さい、かわいい、弱々しい」などの語感を持ち、누렇다は「汚い、暗い、濁った、大きい、広い、力強い」などの語感を持つ。したがって花の色などは노랗다と結びつき、一面に黄色く熟した麦畑などはそのスケールの大きさのため누렇다と結びつきやすい。また노랗다は色の要素を強調する傾向が強く、より広く一般的に用いられ、누렇다は色以外の要素、つまり、広さや、よごれていることや、不快感のほうに重点がおかれる傾向があるので用例もある程度限定されてくる。病的な顔色という場合は「あおい」よりもむしろ「きいろい」で表現する。노랗다は黄色を強調し、누렇다は病的ないやな感じを強調する。さらに顔色にしか使わない뇌랗다があり、노랗다, 누렇다より病的な感じを強調する。

갛다, 새파랗다, 새하얗다, 샛노랗다' 등의 경우는 3종의 한일사전 모두에서 그 색의 정도를 강조하여 각각 '真っ黒/真っ赤/真っ青/真っ白/真っ黄色だ'로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위 표에 제시한 형용사 이외에 '시꺼멓다/시뻘겋다/시퍼렇다' 등의 색채형용사도 대상 어휘인데, 특히『朝鮮語』에서 의미 정보에 '시(接頭)'로만 제공하고 있어 해당 색채형용사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2.2 1종 또는 2종의 한일사전에만 의미 정보가 제시된 색채형용사

한일사전 중 1종 또는 2종에서만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색채형용사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해당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표 6> 1종 및 2종 사전에만 의미 정보가 제시된 경우

『색이름』	『朝鮮語』	『프라임』	『엣센스』
가무숙숙하다	顔がほどよく黒くて感じがよい、小麦色に焼けている	×	ほどよく黒い
발그레하다	ほんのり(と)赤い、ぼうっと赤い	うす赤い	×
벌그레하다	(愛らしさを含んで)ほんのり赤い、うっすらと赤い、少し赤みを帯びている、ほんのりと桜色である	(愛らしく)ほんのり赤い; うっすらと赤い	×
빨그족족하다	×	×	(濁って陰気な感じの)薄赤色だ
뻘겋다[10]	(規模の大きなもの、力強いものが)真っ赤だ	×	非常に赤い; 濃い赤色だ
뻘그데데하다	×	×	(色が少し下品な感じで)薄赤い
뻘그뎅뎅하다	×	×	(不自然に)薄赤い
뽈그스름하다	볼그스름하다の濃音形	×	鮮やかな赤色をしている; 鮮紅色だ
뽈그족족하다	볼그족족하다の濃音形	×	くすんだ赤色をしている

푸르께하다	×	×	青みを帯びている； 青みがかっている；青白い

2종의 한일사전에 의미 정보를 제공하는 있는 색채형용사는 '가무숙숙하다/발그레하다/벌그레하다/뻘겋다/뽈그스름하다/뽈그족족하다' 등이 있으며, 1종의 한일사전에만 의미 정보가 제시된 색채형용사로는 '빨그족족하다/뻘그데데하다/뻘그뎅뎅하다/푸르께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뽈그스름하다/뽈그족족하다'의 경우 『朝鮮語』에서는 의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색채형용사의 표제어로는 의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표제어 형용사에서 직접 의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유형의 색채형용사에는 <표 7>과 같은 예시들도 있다.

<표 7> 타 색채형용사로 의미 정보를 제시한 경우

『색이름』	『朝鮮語』	『프라임』	『엣센스』
까무레하다	가무레하다の濃音形	가무레하다の強調語	×
꺼무레하다	거무레하다の濃音形	거무레하다の強調語	×
꺼무스레하다	→꺼무스름하다	거무스레하다の強調語	×
꺼무충충하다	거무충충하다の濃音形	×	×
꺼무칙칙하다	거무칙칙하다の濃音形	×	×
발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	×	→발그스름하다
벌그스레하다	→벌그스름하다	×	→벌그스름하다
불그스레하다	(方言)→불그스름하다	×	×
빨그스레하다	×	발그스레하다の強調語	→빨그스름하다
뻘그스레하다	×	×	→뻘그스름하다
불그스레하다	(方言)→불그스름하다	×	×
희읍스레하다	×	×	→희읍스름하다

10) '뻘겋다'는 『朝鮮語』(p.1060)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뻘겋다、빨갛다はともに 「真っ赤」な色をいうのではあるが、빨갛다は指先にちょっと出た血などに用い、뻘겋다はあたり一面の血の海といった場合に用い、また뻘겋다は観察者の受ける感情としては良いものではなく、顔をしかめたくなるような感じを表現する。色自体としては뻘겋다が빨갛다より相対的に濁った感じを与えると言える。

위와 같은 유형의 색채형용사 사전 정보는 사전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의미 파악을 함에 있어 혼동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의미 정보 제공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3 기타 유형의 색채형용사

이 유형은 3종의 한일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2종의 사전이 대부분 의미 정보 항목에서 표제어 색채형용사의 濃音形/強調語라는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엣센스』에서는 2종의 다른 사전보다는 비교적 의미 정보 제공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朝鮮語』『프라임』의 경우도『엣센스』의 의미 정보 제공 형식과 같이 사전 이용 학습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8> 기타 유형

『색이름』	『朝鮮語』	『프라임』	『엣센스』
까무댕댕하다	가무댕댕하다の濃音形	가무댕댕하다の強調語	(不似合いなほどに)黒ずんでいる
까무스름하다	가무스름하다の濃音形	가무스름하다の強調語	黒ずんでいる; 浅黒い
까무칙칙하다	가무칙칙하다の濃音形	가무칙칙하다の強調語	どす黒い
까무퇴퇴하다	가무퇴퇴하다の濃音形	가무퇴퇴하다の強調語	どんよりと薄黒い
깜다	감다の濃音形	감다の強調語	真っ黒い
꺼멓다	거멓다の濃音形	거멓다の強調語	黒い; 真っ黒い
꺼무데데하다	거무데데하다の濃音形	거무데데하다の強調語	いやらしく黒ずんでいる
꺼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の濃音形	거무스름하다の強調語	浅黒い; 薄黒い
꺼무튀튀하다	거무튀튀하다の濃音形	거무튀튀하다の強調語	(冴えず)どんよりと黒ずんでいる
껌다	검다の濃音形	검다の強調語	真っ黒だ

Ⅴ.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국어 색채형용사를 중심으로 한일사전에 나타난 표제어 및 의미 정보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어 색채형용사는 하나의 색채계열 안에 여러 유사한 형태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일사전의 색채형용사 의미 정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뜻풀이에서 의미 확대에 관한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 색채형용사에서 분화되어 파생되는 어형에 따른 의미 변화 기술을 들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전의 미시구조 항목에는 '형태・어원 정보, 발음표기, 품사 정보, 의미, 용례, 관련어, 관용구・속담' 등의 정보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 의미 정보는 사전의 미시구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 한일사전의 의미 정보는 대역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한국어 색채형용사 어휘의 의미 특성을 반영한 의미 기술 정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한일사전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대응시켜 기술한 소위 대역어 사전이라는 점에서 원언어와 대역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함과 동시에 문법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색채형용사의 의미 정보에 관한 사전 기술에서는 기본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어휘간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음운론적・의미론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관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색채형용사의 체계적인 의미 정보 분석과 구축 방안을 통해 한일사전의 색채형용사 표제어 선정 문제와 의미 정보, 또한 미시구조 항목에서 제시되어야 할 정보 내용 등의 처리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参考文献>

▶ 사전 자료

한국색채연구소 편(1991/2006증보판)『우리말 색이름 사전』칼라뱅크커뮤니케이션 pp.6-156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 編(1986)『朝鮮語大辞典(上・下)』角川書店 pp.1-2667

동아출판사 편집국(2009)『동아프라임 한일사전』(제3판) 동아출판사 pp.1-2200

安田吉実・孫洛範 外共編(2013)『엣센스 한일사전』(제3판) 민중서림 pp.13-2101

▶ 논문

구본관(2009)「복합색채어의 의미-사전의 뜻풀이를 중심으로」『국어학』vol.55 국어학회 pp.173-211

권영성(2006)「한일 양언어의 고유색채어의 어휘분화에 따른 의미적 특징」『일본학연구』vol.18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39-156

김선희(2013)「한국어와 일본어의 기본색채어 분석」『일본어교육연구』vol.27 한국일어교육학회 pp.31-44

박동근(2012)「한국어 기본 색깔말의 원형과 뜻풀이」『문법교육』vol.16 한국문법교육학회 pp.111-139

손경호(2001)「한일 양국어의 색채어 고찰-기본 색채형용사를 중심으로」『日本語学研究』第4輯 한국일본어학회 pp.117-142

이화연・이미숙(2004)「한일 여성언어의 색채어와 형용사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여성가족생활연구』vol.8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pp.171-185

青山秀夫(1966)「朝鮮語の色彩形容詞に就いて」『朝鮮学報』39・40号 朝鮮学会 pp.339-367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韓日辞書における色彩形容詞の意味情報の構築に関する研究

高恩淑

色彩の現状を言語で表したものが色彩語であり、色彩語は色彩を表現するために基本的な意味を持つ。本稿は色彩語の中、基本色彩語彙を含む韓国語の色彩形容詞を中心にして韓日辞書における意味情報を体系的に把握し、分析したものである。意味情報の分析をする際、一緒に察してみる必要のある作業は見出し語の情報である。日本語と違って韓国語の色彩形容詞の特徴は一つの色彩系列の中に様々な類似した形態の色彩形容詞が多様に分化されているという点が挙げられる。これらの多様な韓国語の色彩形容詞が韓日辞書ではどのような意味情報で提示されているのか把握して、それぞれの韓日辞書の間の情報の比較を通じて韓国語の色彩形容詞の意味情報の技術の方向を模索した。

韓日辞書は韓国語を日本語で対応させて記述したいわゆる対訳語の辞書であるという点で元言語と対訳語の関係を説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ため、可能ならば適切な単語を選択するとともに文法的に同一か類似した意味で対応語に提示してくれることが望ましいといえる。特に色彩形容詞の意味情報に関する辞書の記述では、基本語をもとに生成される語彙間の関係が説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れからこのような色彩形容詞の体系的な意味情報の分析と構築案を通じて韓日辞書における色彩形容詞の見出し語の選定問題や意味情報、また、ミクロ構造の項目で提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情報内容などの処理案をより具体的に模索していこうと思う。これは、今回の研究を基に、今後の研究課題にする。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semantic information of color adjective in Korean-Japanese dictionary

Ko, Eun-Sook

The color phenomenon is symbolized in language, and the color word has a basic meaning for expressing color.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s and analyzes semantic information items presented in Korean-Japanese dictionary focusing on Korean color adjectives including basic color vocabulary among coloring words. We also examined the headword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for semantic information analysis. In contrast to Japanese,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olor adjectives is that various similar types of color adjectives are differentiated in one color se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emantic information of various Korean color adjectives presented in the Korean-Japanese dictionary an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semantic information technology of Korean color adjectives by comparing information between Korean-Japanese dictionaries. The Korean-Japanese dictionary aims at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ve language and the speaker in that it is a so-called transliteration dictionary in which Korean is translated into Japanese. Therefore, it is preferable to select appropriate words and present them in the same or similar meaning. Especially, in the dictionary of the semantic information of the color adjective, the relation between the vocabulary based on the basic word should be explain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more specific ways to deal with the selection problem of color adjectives, semantic information, and type information to be presented in microstructure item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construction of systematic semantic information of color adjectives I think. This will be the subject of further research based on this research.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335－353쪽 10.15733/jast.2017..72.335

일본인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

차 소 영*・이 은 미**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Ⅳ. 결과 및 고찰
1.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
2.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
Ⅴ. 맺음말

Key Words : さ(Sa), 談話上の機能(Discourse function), 性差(Sex difference), 友人間の会話(Conversation between friends), 大学生の会話(Convers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Ⅰ. 머리말

영어 중국어 등과 달리 일본어에 종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어의 종조사에는 「か」와 같이 문장에 사용하여 의문문을 만들어 문 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있으며, 「ね」나 「さ」등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문장에 사용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와 같은 종조사들은 실제 담화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종조사가 실제 대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보다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전달하여 상대방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어학(화용론), 교신저자.

다(伊豆 2003, 윤상실 2006, 이은미 2009등).

한편, 일본어 종조사의 특징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성차에 따른 사용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조사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용하지만, 「ね」나 「わ」등의 종조사는 주로 여성이 사용하며, 「さ」나 「ぜ」 등의 종조사는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층의 언어사용에서 성차가 줄어듦에 따라 종조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성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종조사로 알려진 「さ」에 주목하여, 실제 담화에 나타나는 「さ」의 사용양상을 성차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와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さ」의 사용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さ」의 선행 연구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의미 및 기능을 고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鈴木(1969), 朴廷根(1994), 蓮沼(2015) 등을 들 수 있다.

鈴木(1969)에서는 「さ」의 의미 및 기능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さ」의 의미 및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하여 체념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당위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세 번째는 「と」나 「って」등과 함께 사용되어 타인에게 들은 이야기 등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대화 상대의 주장 등을 반박하거나, 비난하고, 추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朴廷根(1994)는 일본어의 다양한 종조사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さ」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하여 위의 鈴木(1969)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연구 중 하나이다. 朴廷根(1994)에서는 「さ」의 의미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

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가벼운 어투로 단정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며,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취할 때 사용하며 두 번째는 「と」나 「って」 등과 함께 사용되어 타인에게 들은 이야기 등을 청자에게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문, 반문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문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蓮沼(2015) 는 「さ」와 인식적 모달리티와의 공기관계, 「わ」와 「さ」의 용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さ」의 본질적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さ」의 본질적 기능에 대하여 내부 지식의 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의 내부 지식은 일반 통념, 화자의 개인적 경험, 지식 등을 의미한다. 이 내부지식의 점검을 통해 만들어진 결론의 타당성을 전달하는 것이 「さ」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石山(2013)는 담화연구의 방법론을 취하여 「さ」의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드라마 1회분의 용례를 분석 자료로 하여 「さ」를 종조사의 용법과 간투조사의 용법으로 나누어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종조사 「さ」의 경우, 주로 남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극 안에서 엘리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간투조사 「さ」의 경우 남녀가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じゃん」 「えー」 「ちゃう」 「でしょ」 「っす」 등의 표현과 주로 함께 사용되는 표현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인포멀한 표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さ」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드라마 용례분석을 통하여 성차와 관련하여 「さ」의 사용을 고찰한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문법적 관점에서의 의미 및 기능을 고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さ」의 담화상의 기능을 '성차'라는 요인과 관련지어 정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さ」의 사용양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화에서의 「さ」의 사용 양상을 성차와 관련지어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인 남녀 대학생 대화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さ」라는 종조사의 특성 상 첫 만남 대화에서 보다 친밀한 사이에서의 사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하여, 공개 코퍼스[1]의 담화 중 일본어 모어 화자인 20대 남자 대학생 동성 친구 간 대화와 20대 여자 대학생 동성 친구 간의 담화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남녀 각각 9대화 씩 총 18대화를 분석하였으며, 각 대화의 길이는 각 20분~25분으로 전체 약 400분의 분량이다.

2. 분석방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さ」의 연구는 문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さ」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문법서를 기반으로 하여[2] 「さ」의 담화상의 기능을 ①동의요구, ②발화강화, ③감정표출, ④주의환기의 4가지

1) 동경외국어대학의 「21世紀COEプログラム言語運用を基盤とする言語情報学拠点」연구의 성과물인 공개코퍼스 『BTS による多言語話し言葉コーパス－日本語会話 1(日本語母語話者同士の会話)』에 수록된 대화자료이다.

2) 『概説・現代日本語文法改訂新版(日本語文法の常識)(1999)』은 「さ」에 대하여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종조사로, 규정된 사실로써의 주장을 나타내거나,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추궁하는 뉘앙스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すぐに使える実践日本語シリーズ 9 ことばをつなぐ助詞(初・中級)(1999)』에서는 가벼운 재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 어떠한 판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단정하는 경우에 「さ」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新日本語文法選書4モダリティ(2004)』에서는 「さ」가 화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청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문장에서 내용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김영진 일본어 조사조동사 활용사전(2005)』에서도 「さ」에 대하여 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별다른 뜻 없이 '가벼운 단정'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공칠 저작집7 일본어현대문법(2013)』의 경우에도 「さ」는 강조 또는 주의 환기의 역할을 하거나, 체념, 반대 등의 기분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 분류하였다.「さ」의 담화상의 기능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동의요구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청자의 반응, 특히 동의 및 공감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대화 예 1>

발화문 번호	화자	발화 내용
223-1	F07[3]	みんなさ、だ,,
224	F08	誘ってくる<じゃん>{<}<笑いながら>[4]。
223-2	F07	<みんな>{>さ、どこ聞いても、バイト先の人だよね、大体<笑いながら>。
225	F08	そうそうそう<笑いながら>。
226-1	F07	バイト先か、友達の紹介<かー>{<},,
227	F08	<かー>{>}、サークル関係とかさー<笑いながら>。
228	F07	そうだね<笑いながら>。

위의 <대화 예 1>은 F07과 F08이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학교에서의 이성과의 만남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은 학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나 친구의 소개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다. 이 때 발화문 번호 227에서 화자 F08은 발화문 번호 226-1에서 F07의「バイト先か、友達の紹介かー」의 발화를 받아서 이성을 만나는 또 다른 예시로서「サークル関係とかさー」라고 서클을 들고 있는데 이 때「さ」를 사용하여 F07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발화강화

화자가 화제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청자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화자가 화제에 대하여 판단한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강조

3) 〈대화 예〉에서 사용된 알파벳 문자 F(Female)는 여성화자를 나타내며, M(Male)는 남성화자를 나타낸다. 한편, F나 M 뒤의 숫자는 화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4) 대화 내의 기호에 대한 설명은 논문 말미에 제시하였다.

하거나 단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대화 예 2>

발화문 번호	화자	발화 내용
203	M09	せ、あの、紙面上、全然「人名2」の方が優等生やろ、まず。
204	M10	でも一【【。
205	M09	】】成績とか、出席回数とか。
206	M10	確かに30点だったさ。
207	M09	<笑い>。
208	M10	<30点だったさ>{<}。

위의 <대화 예 2>는 화자 M09와 M10이 제3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M09는 화제의 인물에 대해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M09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M10은 M09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M09가 발화문 번호 205번에서 화제의 인물을 우등생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고 있고, 발화문 번호 206과 208에서 F10은 이전의 M09의 발화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때 F10은 발화문 번호 206과 208 모두에서「さ」를 사용하며, 단정적인 어투로 발화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감정표출

화자가 대화 중의 화제에 대하여 불만, 체념, 반감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대화 예 3>

발화문 번호	화자	발화 내용
191-1	F14	<ちょっと>{>}あわない人は一、まー、だか、すごい表面的に„
192	F13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191-2	F14	<でないと>{>}。
193	F13	ね。

194	F13	これから、そう、社会を生きていくにね<2人で笑い>。
195	F14	言えてる<軽く笑いながら>。
196	F13	そうそう、嫌な人はさ(そうそう)、人でも付き合わなきゃなんない(ね)ときもあるしさ。

위의 <대화 예 3>은 화자 F13과 F14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F14가 발화문 번호191-1에서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면적인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내용의 발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F13은 발화문 번호 195와 196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때 발화문 번호 196에서 화자 F13은「さ」를 사용하여 체념적인 어조를 더하며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주의환기

화자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거나,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발화 도중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이다.

<대화 예 4>

발화문 번호	화자	발화 내용
239	F05	】】<でも>{>}ね、口座から口座へお金が移せるみたいなことも書いてあってね。
240	F05	は?<笑い>。
241	F06	お母さんが一(うん)、ネット上でぴこぴこやって、「F05姓名」様のところへういーんってやれるってこと?。
242	F05	それもあるのかな?。
243	F06	うーん。
244	F05	わかんない、どこ、どこまでを、こう、まとめてー、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って(うーん)、言うのかも分かんないからー。
245	F06	そっか、そっか。
246	F05	そ、これを口実にさー、経済学部に聞こうと思ってさ(うん、うん)、「地名3」の方'かた'に電話したんだけどでなくてさー<笑い>。

위 <대화 예 4>는 화자 F05와 F06이 인터넷 뱅킹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화자 F05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이야기하며, 그 한 가지 예로 인터넷 뱅킹을 들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화자 F05는 발화문 번호 246에서 「さ」를 사용하여 F06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과 및 고찰

1.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

1.1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

이하에서는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을 「さ」의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さ」의 출현 발화문 수와 「さ」의 전체 출현빈도 그리고 1발화문당 「さ」의 평균 출현 빈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각 대화는 두 명의 화자가 모두 「さ」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화자에 따라 「さ」의 사용빈도에 차이가 있어 9개의 대화를 1~9의 번호로 구별하고, 각 화자 별 발화문 수와 「さ」의 사용 양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さ」의 전체 사용양상의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 *( )안은 %

		총 발화문 수		「さ」의 출현 발화문 수		「さ」의 출현 빈도		「さ」의 1발화문 당 평균 출현 빈도	
1	M01	333	654	8(2.40)	29 (4.43)	9(2.70)	47 (7.19)	0.03	0.07
	M02	321		21(6.54)		38(11.84)		0.12	
2	M03	364	672	16(4.40)	29 (4.32)	19(5.22)	32 (4.76)	0.05	0.05
	M04	308		13(4.22)		13(4.22)		0.04	
3	M05	483	955	24(4.97)	47 (4.92)	33(6.83)	80 (8.38)	0.07	0.08
	M06	472		23(4.87)		47(9.96)		0.10	
4	M07	351	604	27(7.69)	38 (6.29)	33(9.40)	47 (7.78)	0.09	0.08
	M08	253		11(4.35)		14(5.53)		0.06	
5	M09	479	831	0(0.00)	9 (1.08)	0(0.00)	12 (1.44)	0.00	0.01
	M10	352		9(2.56)		12(3.41)		0.03	
6	M11	348	735	17(4.89)	34 (4.63)	20(5.75)	42 (5.71)	0.06	0.06
	M12	387		17(4.39)		22(5.68)		0.06	

7	M13	352	653	32(9.09)	54	39(11.08)	70	0.11	0.11
	M14	301		22(7.31)	(8.27)	31(10.30)	(10.72)	0.10	
8	M15	437	803	17(3.89)	34	25(5.72)	46	0.06	0.06
	M16	366		17(4.64)	(4.23)	21(5.74)	(5.73)	0.06	
9	M17	315	620	11(3.49)	14	11(3.49)	14	0.03	0.02
	M18	305		3(0.98)	(2.26)	3(0.98)	(2.26)	0.01	
합계		6527		288(4.41)		390(5.98)		0.06	

<표 1>의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을 보면 먼저 「さ」의 출현 발화문 수의 경우, 각각의 대화에서 「さ」가 사용된 발화문은 최고 8.27%에서 최저 1.0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화의 합계로 보았을 때,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 「さ」」가 사용된 발화문은 평균적으로 4.41%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별이 아닌 화자별로 보았을 때는 화자 M13의 발화에서 「さ」가 사용된 발화문 수는 전체의 9.09%로 가장 높으며, 화자 M09의 경우에는 0%로 「さ」가 1회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さ」의 전체 출현빈도를 보면 대화별로 최고 70회(10.72%)에서 최저 12회(1.44%), 전체 390회(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화별이 아닌 화자별로 보았을 때는 M02이 38회l(11.84%)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에 기술한 「さ」의 출현 발화문 수에 비해 사용비율이 높아 「さ」가 하나의 발화문에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 발화문 당 「さ」의 평균 출현 빈도는 약 0. 06회로 나타났다.

다음 <표 2>는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 발화문 당 「さ」의 출현 발화문 수를 발화문 당 「さ」의 출현빈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의 「さ」의 출현 빈도별 발화문 수

발화문 당 「さ」의 출현 빈도	발화문 수	
1	217(75.35)	
2	48(67.61)	71(24.65)
3	17(23.94)	
4	4(5.63)	
5	2(2.82)	
합계	288(100.00)	

<표 2>에서 한 발화문 당「さ」가 1회 사용된 경우는 전체 288 발화문 중 217개로 75.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회에서 5회까지 복수 사용된 경우는 총 71개로 24.65%를 차지하고 있다. 복수 사용된 경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 발화문 당「さ」의 2회 사용으로 복수 사용된 발화문의 67.61%를 차지하고 있다. 한 발화문 안에서「さ」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는 5회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대화 예 5>는 하나의 발화문에「さ」가 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된 예로 M02이 평소에 자신이 M01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발화문 번호 339에서 화자 M02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M01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때, 발화문 번호 339에서 화자 M02가「さ」를 사용한 횟수는 총 5회로, 전체 9대화 중 한 발화문 안에 가장 많은 횟수의「さ」가 사용된 경우이다.

<대화 예 5>

발화문 번호	화자	발화내용
336	M01	=だからねー(うーん)、おれねー(うん)、そう、い、だから、いっつもおれだ、おればっか、なんか、しんどいんだよね=。
337	M01	=疲れる<んだよね>{<}。
338	M02	<そーう>{>}、そうそう。
339	M02	だからさ、何で「M01苗字」ちゃんさ、全部さ(<笑い>)、自分でさ、"自分でやる、やる"言ってさ、<軽く笑いながら>自分疲れて、機嫌悪くなってんの(<大きな笑い>)つって、絶対おれは、こう『何で?』[反発するような言い方]っつって、高校んとき思ってた。[「M01苗字」はずっと笑っている]

1.2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さ」의 담화상의 기능

이하에서는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さ」의 담화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에서 제시한「さ」의 6가지 담화상의 기능별 사용빈도 및 비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

	동의요구	발화강화	감정표출	주의환기
M01-M02	5(10.64)	4(8.51)	0(0.00)	38(80.85)
M03-M04	7(21.88)	7(21.88)	2(6.25)	16(50.00)
M05-M06	13(16.25)	4(5.00)	0(0.00)	63(78.75)
M07-M08	9(19.15)	6(12.77)	0(0.00)	32(68.09)
M09-M10	2(16.67)	2(16.67)	1(8.33)	7(58.33)
M11-M12	11(26.19)	5(11.90)	0(0.00)	26(61.90)
M13-M14	8(11.43)	7(10.00)	2(2.86)	53(75.71)
M15-M16	10(21.74)	5(10.87)	0(0.00)	31(67.39)
M17-M18	1(7.14)	3(21.43)	1(7.14)	9(64.29)
합계	66(16.92)	43(11.03)	6(1.54)	275(70.51)

<표 3>의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별 사용비율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주의환기」> 「동의요구」> 「발화강화」> 「감정표출」의 순서로 사용비율이 높다. 「주의환기」는 전체 「さ」의 기능 중 약 7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기능에 비해 9개의 대화 모두에서 「주의환기」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일반적으로 「주의환기」는 「동의요구」나 「발화강화」와 같이 상대방에게 화자의 특별한 의도를 전달하기 보다는 대화상대가 자신의 발화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발화에 상대방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발화 기능에 비해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된다.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본 결과로부터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 「さ」의 주된 기능은 「주의환기」라고 할 수 있다.

2.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

2.1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

이하에서는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을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さ」의 출현 발화문 수와 「さ」의 전체 출현빈도 그리고 1발화문당 「さ」의 평균 출현 빈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さ」의 출현 양상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

		총 발화문 수		「さ」의 출현 발화문 수		「さ」의 출현 빈도		「さ」의 1발화문 당 평균 출현 빈도	
1	F01	371	719	21(5.66)	30 (4.17)	32(8.63)	48 (6.68)	0.09	0.07
	F02	348		9(2.59)		16(4.60)		0.05	
2	F03	367	742	8(2.18)	16 (2.16)	9(2.45)	18 (2.43)	0.02	0.02
	F04	375		8(2.13)		9(2.40)		0.02	
3	F05	257	501	32(12.45)	47 (9.38)	43(16.73)	60 (11.98)	0.07	0.12
	F06	244		15(6.15)		17(6.97)		0.20	
4	F07	251	564	26(10.36)	60 (10.64)	50(19.92)	86 (15.25)	0.12	0.15
	F08	313		34(10.86)		36(11.50)		0.03	
5	F09	439	877	11(2.51)	44 (5.02)	12(2.73)	59 (6.73)	0.11	0.07
	F10	438		33(7.53)		47(10.73)		0.04	
6	F11	310	627	10(3.23)	21 (3.35)	13(4.19)	27 (4.31)	0.04	0.04
	F12	317		11(3.47)		14(4.42)		0.04	
7	F13	343	683	26(7.58)	50 (7.32)	42(12.24)	71 (10.40)	0.12	0.10
	F14	340		24(7.06)		29(8.53)		0.09	
8	F15	254	562	7(2.76)	7 (1.25)	7(2.76)	7 (1.25)	0.03	0.01
	F16	308		0(0.00)		0(0.00)		0.00	
9	F17	272	518	22(8.09)	41 (7.92)	23(8.46)	53 (10.23)	0.08	0.10
	F18	246		19(7.72)		30(12.20)		0.12	
합계		5793		316(5.45)		429(7.41)		0.07	

<표 4>의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출현 양상을 보면 먼저 「さ」의 출현 발화문 수의 경우, 각각의 대화에서 「さ」가 사용된 발화문은 최고 10.64%에서 최저 1.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화의 합계로 보았을 때,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 「さ」가 사용된 발화문은 평균적으로 5.4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별이 아닌 화자별로 보았을 때는 화자 F05의 발화에서 「さ」가 사용된 발화문 수는 전체의 12.45%로 가장 높으며, 화자 F16의 경우에는 0%로 「さ」가 1회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さ」의 전체 출현빈도를 보면 대화별로 최고 86회(15.25%)에서 최

저 7회(1.25%), 전체 429회(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화별이 아닌 화자별로 보았을 때는 F07이 50회(19.92%)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에 기술한 「さ」의 출현 발화문 수에 비해 사용비율이 높아 「さ」가 하나의 발화문에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 발화문 당 「さ」의 평균 출현 빈도는 약 0. 07회로 나타났다.

다음 <표 5>는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 발화문 당 「さ」의 출현 발화문 수를 발화문 당 「さ」의 출현빈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의 「さ」의 출현 빈도별 발화문 수

발화문 당 「さ」의 출현 빈도	발화문 수	
1		236(74.68)
2	56(70.00)	80(25.32)
3	19(23.75)	
4	2(2.50)	
5	2(2.50)	
6	1(1.25)	
합계		316(100.00)

<표 5>에서 한 발화문 당 「さ」가 1회 사용된 경우는 전체 316 발화문 중 236개로 74.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회에서 6회까지 복수 사용된 경우는 총 80회로 25.32%로 나타났다. 복수 사용된 경우 중 한 발화문 당 「さ」가 2회 사용된 것이 복수 사용된 발화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 발화문 안에서 「さ」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는 6회이다.

2.2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

이하에서는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さ」의 6가지 담화상의 기능별 사용빈도 및 비율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

	동의요구	발화강화	감정표출	주의환기
F01-F02	5(10.42)	1(2.08)	0(0.00)	42(87.50)
F03-F04	3(16.67)	3(16.67)	1(5.56)	11(61.11)
F05-F06	7(11.67)	3(5.00)	3(5.00)	47(78.33)
F07-F08	15(17.44)	4(4.65)	0(0.00)	67(77.91)
F09-F10	7(11.86)	4(6.78)	1(1.69)	47(79.66)
F11-F12	2(7.41)	1(3.70)	1(3.70)	23(85.19)
F13-F14	11(15.49)	7(9.86)	3(4.23)	50(70.42)
F15-F16	1(14.29)	2(28.57)	0(0.00)	4(57.14)
F17-F18	9(16.98)	5(9.43)	1(1.89)	38(71.70)
합계	60(13.99)	30(6.99)	10(2.33)	329(76.69)

<표 6>의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담화상의 기능별 사용비율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주의환기」> 「동의요구」> 「발화강화」> 「감정표출」의 순서로 사용비율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발화강화」의 비율은 남자 친구 간 대화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주의환기」는 전체 「さ」의 기능 중 약 7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도 앞서 살펴본 남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의 「さ」의 담화상의 기능의 특징적인 부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화자가 「さ」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에게 특별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본 결과로부터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도 「さ」의 주된 기능은 「주의환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대화 예 6>은 하나의 발화문에 「さ」가 「주의환기」의 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예로 화자 F05와 F06이 화제로 언급되고 있던 다른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화제의 인물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에 대해 화자 F06은 발화문 번호 397에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F05에게 전달하면서 문두의 접속사 뒤에 「さ」를 사용하여 F05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발화문 번호 403에서는 「さ」가 5회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화자 F05

가 자신의 의견을 F06에게 전달하며 어구 뒤에 「さ」를 사용함으로써 F06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 예 6>

발화문 번호	화자	발화 내용
397	F06	だからさー、あたし、病院行かないのかなって思ったんだよね。
398	F06	そんな寝てないで(うーん)病院行きなよって思ったけど。
399	F06	/沈黙2秒/そこまで言えず。
400	F06	今度いな、今度なんか言ったら言おうと思った。
401	F05	うーん。
402	F06	うーん。
403	F05	でもさ、忙しいほど、忙しい人ほどさ、病院に言った方が早く、ね、時間がいくらでもあるならさ、(うん、うん、うん)寝て直せばいいけどさ(うーん)、忙しいならさー、早く病院行って点滴なり薬なりで、ちゃっと治したほうが自分も楽だろうにね。

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20대 남자 대학생 동성 친구 간 대화와 여자 대학생 동성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さ」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さ」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종조사로 인식되어 왔는데, 실제 대화에서는 남자 대학생 대화에 비해 여자 대학생 대화에서 보다 많은 발화문에서 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현대의 일본 사회에서 남성어, 여성어의 구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례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さ」의 담화상의 기능은 남자 대학생 대화와 여자 대학생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환기」의 사용비율이 7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의요구」, 「발화강화」, 「감정표출」의 순으로 사용비율이 높았다. 단 , 남자 대학생 대화에서 여자 대학생 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화강화」의 비율이 높은 점은 특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 대화 분석에 한정되고 있고 대화자료 수도 충분하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의 종류 및 양의 보강을 통해 「さ」의 사용양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参考文献>

김공칠(2013)『김공칠 저작집7 일본어현대문법』백산출판 pp.332-333
김영진(2005)『김영진 일본어 조사조동사 활용사전』진명출판사 pp.91
윤상실(2006)「일본어 종조사「ね」「よ」의 어용론적 고찰-일본어교육에서의 활용을 위하여-」『日本研究』2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245-264
이은미(2009)「自然会話に見られる「ね」の使用様相-人間関係とポライトネスに着目して-」『日本研究』4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37-356
朴廷根(1994)「日本語の終助詞についての研究」조선대학교외국문화연구소『外國文化研究』17-1 pp.307-331
石山哲也(2013)「終助詞および間投助詞「さ」に関する一考察」한국일어일문학회『일어일문학연구』87-1 pp.197-212
伊豆原英子(2003)「終助詞「よ」「ね」「よね」再考」『愛知学院大学教育教養部紀要:愛知学院大学論叢』51-2 愛知学院大学教養教育研究会 pp.1-15
鈴木丹士郎(1969)「二十三 さ-終助詞<現代語> 二十四 わ-終助詞<現代語>」『古典語現代語 助詞助動詞詳説』学燈社 pp.672-678
日本語文法研究会(1999)『概説・現代日本語文法改訂新版(日本語文法の常識)』おうふう pp.167-172
蓮沼昭子(2015)「終助詞「さ」の本質的機能―認識的モダリティとの共起関係に着目して―」『日本語日本文学』25 創価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 pp.1-27
三吉礼子・吉木徹・米澤文彦(1999)『すぐに使える実践日本語シリーズ9 ことばをつなぐ助詞(初・中級)』専門教育出版 p.90
宮崎和人・安達太郎・野田晴美・高梨信乃(2004)『新日本語文法選書4モダリティ』くろしお出版 pp.273-276

<본문 중 사용된 문자와 기호>

< >{<} < >{>}	동시에 발화된 부분을 나타낸다. < >안에 중복된 부분의 양쪽을 다 넣고, 중복된 발화에는 < >의 뒤에 {<}를 붙이고 중복한 발화에는 < > 뒤에 {>}를 붙인다.
< >	웃서웃으면서 발화한 것이나 웃음 등은 < >안에 표기하고, <笑いながら>, <笑い>와 같이 설명을 부가한다

(　)	짧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맞장구'는 (　)안에 넣어 상대방의 발화 중 가장 근접한 부분에 표기한다.
【【 】】	제1화자의 발화문이 끝나기 전에, 제 2화자의 발화가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제1화자의 발화가 종료된 경우에는 【【　】】를 사용한다.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日本人大学生の友人間の会話における「さ」の使用様相

車昭詠・李恩美

本研究では、日本人の20代の男子大学生の同性の友人間の会話と女子大学生の同性の友人間の会話における「さ」の使用様相を調べた。本研究の結果を簡単にまとめると次の通りである。

「さ」は、一般的に男性が主に使っている終助詞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が、実際の会話では、男子大学生の会話に比べて女子学生の会話において、より多くの発話で使用されており、またより高い頻度で使用されていた。この結果は、現代の日本社会では、男性語、女性語の区別がますます弱く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裏付ける一例と見なされ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一方、「さ」の談話上の機能は、男子大学生の対話と女子学生の会話で共通して「注意喚起」の使用割合が70％以上で圧倒的に高い割合を占めており、「同意要求」、「発話強化」、「感情表出」の順に使用割合が高かった。ただし、女性大学生の会話に比べて男子大学生の会話において相対的に「発話強化」の割合が高いことは特徴的といえる。

<Abstract>

The use of 'Sa' in the convers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 friends in Japanese

Cha, So-Young・Lee, Eun-Mi

In this study, the use and function of 'Sa' in the convers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 friends in Japanese were investigated. The functions of 'Sa' in the conversation were classified into 'Consent requirement', 'Strengthening', 'Attention-getting', 'Emotion express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Sa' is used in a larger number of utterances and is used at a higher rate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sation than in 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s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n both 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sation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sation, there is a common feature that 'Sa' functions mainly as 'Attention-getting'. However,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the usage of function of 'Sa'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at the ratio of 'Strengthening' is relatively higher in 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sation than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sation..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n example to support the fac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language is gradually weakening in modern Japanese society.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355－375쪽 10.15733/jast.2017..72.355

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と名詞文*

崔 瑞 暎**

< 目 次 >

Ⅰ. はじめに
Ⅱ. 前提
1. 先行研究
2. 本稿の捉え方
Ⅲ. 考察
1. 構造的な特徴
2. 意味的な特徴
Ⅳ. まとめ

Key Words : 속성서술(property predication), 사태서술(event predication), 명사문(noun sentence), 동사문(verb sentence), 품사(part of speech)

Ⅰ. はじめに

名詞文は典型的には特定の時間に縛られない対象の属性を叙述するが(鈴木さんは日本人だ)、稀に具体的な動作を叙述することもある(今から出発だ)。一方、動詞文は典型的には特定の時間に発生する事態を叙述するが(その時、鈴木さんが教室に入った)、対象の恒常的な属性を叙述することもある(鈴木さんは迫力がある)。事態叙述・属性叙述という「叙述の類型」と「述語の品詞」との関係について言えば、名詞文は属性叙述を、動詞文は事態叙述を典型とするが、名詞文も動詞文も程度の差こそあれ両方の叙述が可能であるといえる。

本稿では事態叙述と属性叙述という叙述の類型のなかで、「花子は天才だ」「花子はしっかりしている」のように、人の属性を叙述する名詞文と動詞文を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1942)
** 韓国外国語大学校 講師、現代日本語文法.

取り上げ、属性叙述という観点から名詞文と動詞文の諸特徴について考察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従来、動詞文は事態叙述文として、名詞文は属性叙述文として独立的に研究される傾向が強かったが、属性叙述という一つの統一的な観点から名詞文と動詞文を眺め、両者の類似性と相違性を明らかするのが本稿の目的である。

Ⅱ. 前提

本章では先行研究を概観し、本稿の捉え方(考察対象の範囲、用語の規定、調査資料)について述べる。

1. 先行研究

日本語文法の研究において、事態叙述文と属性叙述文の存在および両者の基本的な違いについては以前から指摘があった。使用用語や観点・着眼点は多少異なるかもしれないが、佐久間(1941)、三上(1953)、川端(1976)、奥田(1986、1996)、工藤(1995)では、事態叙述文と属性叙述文が述語の典型的な品詞性、時空間の限定、主題化の有無の点で異なっ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

このように事態叙述文と属性叙述文については以前から指摘があったが、益岡(1987、2000、2008)や影山(2006、2012)に至っては属性叙述文の重要性・研究価値が改めて注目され、大きく成長・発展するようになる。まず影山編(2012：iii)では「従来あまり注目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属性叙述の問題を取り上げ、これまで動詞中心の言語学では見えなかった新しい言語研究の視界を拓く」とし、属性叙述文の意味的・文法的な性質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 日本語では事象と属性の対立は形容詞類だけでなく、動詞や名詞にも共通して観察される。(例文の番号は原文のまま)

(4) 動詞文

a. 事象：今日は、英語の先生は教室で｛眠そうな目/ネクタイ｝をしている。

b. 属性：(*今日は)英語の先生は｛青い目/怒りっぽい性格｝をしている。

(5) 名詞文

a. 事象：契約書は今のところ、白紙です。

b. 属性：契約書は(＊今のところ)和紙です。

動詞は典型的には(4a)のように事象を表わすが、(4b)の「青い目をしている」構文のように主語の恒常的な属性を表わす場合もある。逆に、名詞は(5b)のように属性を表わすのが典型であるが、(5a)の「白紙」のように将来は変化する可能性のある一時的な状態を表現するものもある。(影山編(2012：5-6))

次に益岡(1987、2000、2008)では、事象叙述・属性叙述の規定及び属性の下位タイプ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趣旨を変えない範囲で要約する)。

① 事象叙述、属性叙述の規定

事象叙述：現実世界のある時空間に実現・存在する事象(出来事や静的事態)を叙述するもの。

属性叙述：具体的・抽象的実在物を対象として取り上げ、それが有する何らかの属性を述べるもの。(益岡(2000:21))

② 属性叙述の下位タイプ

属性は、時間の限定を受けない本質的な属性である「内在的属性(例：日本は島国だ)」と、一定の時間的限定のもとで成り立つ可変的な属性である「非内在的属性(例：あの人は多忙だ)」に大別される。属性として典型的なものは内在的属性であり、非内在的な属性は時間的限定のもとで成り立つという点で本質的な属性であるとは言えない。(益岡(2008:5-7))

最後に、拙稿(2016)は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の性質を実例に基づ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拙稿(2016)では主題名詞の有情・非情性を基準に人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と非情物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に大別し、意味的な類型を立てて考察している。

非情物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については、①形、外観、強度、②ものの

構成要素、③意味、象徴、④作品性、スタイル、⑤作用、機能のような下位タイプを設定し、人の属性を叙述する文については、①性格、性質、②印象、容貌、③心理、④能力、才能、⑤行動、習慣のような下位タイプを設定して考察を行っている。

ただし用例数からすると、非情物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の方が人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より圧倒的に多く、拙稿(2016)では非情物の属性を叙述する文が中心となり、人の属性を叙述する文についてはいくつかの意味的なタイプを指摘することに止まっている。意味的なタイプ設定の整合性を含め[1)]、人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の構造的・構文的な特徴や属性の現われ方など、不十分なところが残されている。

2. 本稿の捉え方

本稿では、属性叙述名詞文を新しい研究対象として考察の中心におき、属性叙述動詞文については拙稿(2016)の内容を補充・発展させる方向で、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の特徴と関係について考察する。

「属性」「属性叙述」という用語は、広義で用いることも狭義で用いることも可能であり、p.357で先述したように益岡(2008)では時間的限定を受けない恒常的な属性(内在的属性。例：日本は島国だ)だけでなく、時間的限定を受ける可変的な属性(非内在的属性。例：あの人は多忙だ)に対しても「属性」という用語を用いている。ただし益岡(2008)でも時間的限定を受けない恒常的な属性を典型的な属性として認めており、可変的な属性は事態叙述との境界が曖昧になりやすいため、本稿では恒常的な属性を述べる文だけを「属性叙述文」と呼ぶ。益岡(2008)の用語でいえば(「非内在的属性」ではなく)「内在的属性」

1) 拙稿(2016)では人の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の意味タイプとして、「性格、性質的な属性」と「心理的な属性」というのを別タイプとして設定したが、以後考察を深めるなかで「性格」か「心理」 かが明確でない文が少なからず観察され、両者は1つのタイプとしてまとめた方が適切であると結論づけた。たとえば「母はとにかくよく怒る」という文は、「母」の怒りっぽい性格を表すともいえるし、「母」の内面の心理的性向を表すともいえる。性格は心理を反映し、心理は性格を形成するため、両者は不可分の関係にあるといえるのである。

を叙述する文が本稿の対象になる。以下に本稿で用いる「属性」「属性叙述文」という用語の規定を記述しておく。

「属性」：ある対象が恒常的に持っている内的・外的な特徴
「属性叙述文」：時間に縛られない対象の恒常的な特徴を叙述する文

属性叙述文の中には、人の属性を叙述するものも、非情物(人以外の物事)の属性を叙述するものもあるが、本稿では人の属性を叙述する名詞文と動詞文に限定して考察する。また、考察対象の均質性を保つため、名詞や動詞が文末の述語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文に限定し(終止の用法)、中止の用法や連体の用法などは対象から除く。最後に資料について述べると、本稿では手作業及び新潮文庫の100冊(1995年)のCD、毎日新聞(1992)のCD資料から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の用例を収集して考察に用いる。

Ⅲ. 考察

1. 構造的な特徴

1.1 属性叙述名詞文の構造

属性叙述文は基本的に「主題＋解説」の構造を取り、属性の意味は「主題」部分を除いた「解説」部分によって表現される。属性叙述名詞文における解説部分の構造を見ると、連体修飾要素が述語名詞に前接している構造と、連体修飾要素を伴わず述語名詞だけで成り立っている構造がある。割合からすると、連体修飾要素を伴うものが多数派で、連体修飾要素を伴わないものは相対的に少ない。

属性叙述名詞文の基本構造：主題名詞（連体修飾要素）述語名詞

次に、このような構造を通して属性の意味が文のどこに表現されるかにつ

いて述べる。まず連体修飾要素を伴うタイプには、述語名詞が主題名詞の上位概念を表し連体修飾要素が主題名詞の具体的な属性を表すタイプ(Aタイプと表記：太郎は変った男だ)と、連体修飾要素と述語名詞のそれぞれがあるいは両者が一体となって主題名詞の属性を表すタイプ(Bタイプ：太郎は人一倍責任感が強い長男だ)がある。一方、連体修飾要素を伴わない場合は述語名詞自体が具体的な意味を持って属性を表現する(Cタイプ：太郎は天才だ)。すなわち、主題名詞の属性は文の構造と相関し、連体修飾要素を中心に表されることも(Aタイプ)、連体修飾要素＋述語名詞に表されることも(Bタイプ)、述語名詞に表されることも(Cタイプ)あるのである。以下では、A～Cタイプの特徴を順に見ていく。

Aタイプ(太郎は変った男だ)

このタイプは、述語名詞が主題名詞の上位概念を表し連体修飾要素が主題名詞の具体的な属性を表すタイプである。述語名詞には「人」「存在」「男」のように一般性の高い名詞(主題名詞の上位名詞)が来て、連体修飾要素を伴わなければ文の意味が成り立たない。それと関わってAタイプでは、主に連体修飾要素で表される意味によって属性の意味タイプも決まる。

(1) 小山先生は気転がきいて実践的な人である。(黒い雨)
(2) (あの男は)心の温かい人間だ。(青春の蹉跌)
(3) 人間は不合理な存在である。(二十歳の原点)

A～Cタイプの中で、属性叙述動詞文との接点(置き換え可能性)が最も大きいのはAタイプである。Aタイプは述語名詞よりも連体修飾要素が実質的な属性叙述の意味を担っており、連体修飾要素の中には形容詞(句・節)もあれば動詞(句・節)もある。(4)(5)のように、動詞(句・節)から成る連体修飾要素同伴の例は、述語名詞を除いて動詞文(4)′(5)′に変えても意味がそれほど変らない。

(4) 斎院だって、何ごとにつけても、帝に不敬な行動ばかり起こす人です。(新源氏物語)

⑷′ 斎院だって、何ごとにつけても、帝に不敬な行動ばかり起こす。
⑸ 多幡さんはかなり前から、その方の学問的指導者として尊敬されている人だ。（孤高の人）
⑸′ 多幡さんはかなり前から、その方の学問的指導者として尊敬されている。

Bタイプ(太郎は人一倍責任感が強い長男だ)

このタイプは、連体修飾要素と述語名詞のそれぞれがあるいは両者が一体となって主題名詞の属性を表すタイプである。先述したAタイプでは述語名詞に主題名詞の上位概念として一般性の高い名詞が来ていたが、Bタイプではそのような制約はなく、極めて多様な意味の名詞が来る。それと関係してBタイプでは、連体修飾要素の部分では属性1を表現し、述語名詞では属性2を表現して、2つ以上の属性が複合的に表現される場合もある。たとえば次の例では連体修飾要素と述語名詞がそれぞれ異る属性を表現し、主題名詞の属性が複合的に表現されている。

⑹ (彼は)三十くらいの顔色の悪い比島人である。(野火)【外見】＋【出身】
⑺ (もう一人の女は)愛嬌ある美人である。(新源氏物語)
【性格】＋【外見】
⑻ (藤高茂明博士は)謹直だが気の置けない医者である。(黒い雨)
【性格】＋【職業】

連体修飾要素が動詞(句・節)から成る場合、Aタイプでは述語名詞を除いても類似な意味の動詞文を想定することもできたが(前掲した例⑷′～⑸′)、Bタイプでは述語名詞を除くと、文自体が成立しにくくなったり、伝える意味・情報が減って類似な意味は表わせなくなることが多い。次は上の⑺⑻から述語名詞を取り除いた文である。

⑺′ ?(もう一人の女は)愛嬌ある。
⑻′ ?(藤高茂明博士は)謹直だが気の置けない。

Cタイプ(太郎は天才だ)

Cタイプは、連体修飾要素を伴わず、述語名詞が多様かつ実質的な意味を持って属性を表現するタイプである。BタイプとCタイプで見られるが、Cタイプで特に目立つ特徴として、述語名詞が文字通りの意味ではなく隠喩的な意味(比喩的な意味)で用いられる文がある。

(9) 後藤は子供である。木にのぼったり水に飛びこんだりして人をはらはらさせるが、その割に大事をひきおこさない。加藤は老人である。思慮ぶかく注意ぶかいようだが、杖にたよらねば動けず、変化に応じにくい。(人民は弱し官吏は強し)

(10) 自分がこだわること以外には全く無関心で、例えば部屋の中はグジャグジャでも、着ている服には徹底して気を配る。『浩美ってほんとアニマルだな』っていうピースのセリフ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通り、動物的なんです。

(毎日、0205ad10.txt(1905))

たとえば(9)で「後藤は子供である」というのは実際は子供ではないが「子供っぽい、悪戯好きだ」のような意味で用いられており、続く文で「加藤は老人である」というのも辞典的な意味としての「老人」ではなく、「思考や行動がまるで老人のようである」という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10)で「アニマルだ」も文字通りの「動物」という意味ではなく、「自分の関心分野だけを気にする、本能に充実な性格」を表す喩え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9)(10)は前後の文脈も含めてやや長く引用しているが、前後の文脈では、このような隠喩的な表現を詳述する内容になっている。

またCタイプの中には述語名詞が連体修飾ではなく連用修飾要素からの修飾を受けて、形容詞的に用いられる場合もある。以下の(11)(12)では「宿命的に」「有難い程」という副詞的表現が述語名詞を修飾している。

(11) 私は宿命的に放浪者である。私は古里を持たない。(放浪記)

(12) この人は有難い程親切者である。(放浪記)

最後に、属性叙述動詞文の場合はいわゆる複合動詞(例：乗り換える、書き直す)の形態で属性を叙述する例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が、属性叙述名詞文の

場合は複合名詞の形態で属性を表現するものがあるのも特徴である。複合名詞による属性叙述は主にBタイプとCタイプで見られるが、名詞の結合能力及び結合関係も、属性叙述の領域の広がりに関係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以下の例では順に「青年社員」「女武芸者」「女事務員」のような複合名詞によって主題名詞の属性が表現されている。

(13) 山本将之―純子にほのかな恋心を寄せている青年社員だ。(女社長に乾杯!)
(14) 三冬は、女武芸者である。(剣客商売)
(15) 私は女学校卒業の女事務員です。(放浪記)

1.2 属性叙述動詞文の構造

本節では属性叙述動詞文の基本構造を踏まえた後、出現構文及び属性の現れ方について述べる。まず属性叙述動詞文の基本構造は次のようである。

属性叙述動詞文の基本構造： 主題名詞 (補語) 述語動詞

基本構造において属性叙述動詞文が名詞文と異るのは、属性叙述動詞文では解説構造が「(連体修飾要素)述語名詞」ではなく、「(補語)述語動詞」から成るということである。属性叙述動詞文の中には述語動詞だけが属性を表現するものもあれば(花子はしっかりしている)、補語と述語動詞が合わさって属性を表現するもの(花子は人工知能に精通している)、補語名詞が中心となって属性を表現するもの(花子は青い目をしている)もある。先述した属性叙述名詞文の場合は、連体修飾要素の有無や、主題名詞と述語名詞との関係(単なる上位概念か否か)によって下位タイプが設定できたが(先述したA、B、Cタイプ)、動詞文では述語動詞と補語名詞の意味・文法的な関係によって種々の下位構文が設定される。

属性叙述動詞文で見られる出現構文の特徴は、自動詞構文もしくは意味的に自動詞構文に準じる構文が多く、他動詞構文は相対的に出現頻度が低いということである。動詞文が属性を叙述することは事態叙述文としての性質、すなわち動作性や他動性の弱化と関係しており、そのような現象の表れであ

るといえる。

(1) 属性を叙述する自動詞構文

自動詞構文は、補語を伴わないことも、「に」「が」格名詞などの補語を伴うこともある。「が」格名詞を伴う文の中には、全体として「は―が」構文を形成し、部分の特徴を通して全体(主題名詞)の特徴を叙述するものもある(以下の(18))。

(16) 彼女は反抗的だし、すぐ泣く。(毎日、0311ad01.txt(1622))
(17) エルピーダメモリの社長坂本幸雄氏は、半導体業界に精通している。
(毎日、0211ad08.txt(1906))
(18) 私は心のどこかが冷めている。

(2) 属性を叙述する存在・所有構文

存在動詞「ある」は自動詞に、所有動詞「持つ」は他動詞に属しているが、存在の在処が人である時は、存在の意味は所有の意味と重なる。このような構文で述語動詞は属性の存在や所有の概念のみを表し、属性そのものは連体修飾要素付きの「を」格名詞や「が」格名詞によって表される。

(19) 大統領は行政府首班と国家元首という二重の地位を持つ。
(毎日、0212ad10.txt(2197))
(20) この子は凄い才能がありますよ。将来きっと大物になります。(風に吹かれて)

(3) 属性を叙述する再帰構文

「を」格名詞が主題名詞の部分名詞で、述語動詞「する」が実質的な意味を持たず機能的に働く、いわゆる再帰構文を通して属性が表現されることもある。属性を叙述する「は―が」構文で「が」格名詞に主題名詞の部分・側面名詞が来ていたのと同様に(心のどこかが冷めている)、再帰構文の「を」格名詞にも主題名詞の部分名詞が来て、部分の特徴を通した全体(主題名詞)の特徴を表現する。再帰構文で属性の中心的な意味は述語動詞「する」ではなく、連体修飾要素付きの「を」格名詞が表現する。

(21) (山本正二郎は)ダボハゼが眼鏡をかけたような顔をしている。(太郎物語)
(22) (そのおばあちゃんは)とてもきれいな手をしている。(毎日、0312ad04.txt(2342))

(4) 属性を叙述する他動詞構文

属性を叙述する他動詞構文では、対象の変化を表す典型的な他動詞ではなく、思考・感情などを表す他動詞が用いられる傾向がある。他動詞構文は属性叙述動詞文の中では出現頻度が低い。

(23) 銀行関係者というものは、事件とかかりあいになることを、はなはだしくきらう。(人民は弱し官吏は強し)
(24) 官吏というものは、平常は縄ばり意識を持っていて他省の官吏を押しのけたがる。(人民や弱し官吏は強し)

2. 意味的な特徴

本節では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が表現する属性の意味タイプについて考察する。前節では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の構造、構文的な特徴及び属性の現れ方

について述べたが、属性の意味タイプと構造、構文的タイプは基本的に一対多の対応関係にあり、1つの意味タイプ(【性格】【外見】など)はいくつかの構造、構文を通して表現される。たとえば名詞文の場合、人の性格のような属性は、連体修飾要素＋述語名詞によって表されることもあれば(彼はどうしょうもないどら息子だ)、連体修飾要素を伴わず述語名詞によって表されることもある(彼は怠け者だ)。動詞文においても、人の性格は自動詞構文によっても(太郎はしっかりしている)、存在・所有構文によっても(太郎は迫力がある)表現される。本節では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が人のどのような属性を表現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が、ここで前提として確認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ある。それは、名詞文の場合は属性の意味的なタイプの設定(有限な数の意味タイプの設定)ができないほど、極めて多種多様な属性が表現され得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p.362、364で先述したように名詞

文の場合は属性が複合的に表現されることも多いため(連体修飾要素が属性1を表現し述語名詞が属性2を表現する場合や、複合名詞の形で複合的属性を表現する場合)、単一の意味タイプとして分類しにくいものも多い。よって本節では、属性叙述名詞文と属性叙述動詞文の類似性・相違性に注目するという本稿の目的に合わせて、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に共通して見られる属性の意味タイプを取り出して考察し((1)～3))、次にこの意味タイプには収まらない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属性について述べる(4))。

2.1 人の性格、心理、性向

人の性格、心理、性向のような属性は、名詞文によっても動詞文によっても表現される。まず人の性格、心理、性向を叙述する名詞文の例である。(25)では主題名詞「男」について「スケベな」性向を持つ存在であることを述べており、(26)では「あの殿」について「人を許せぬ」性格を持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27)はいくつかの従属節を伴っている名詞文の構造である。「あの子」の属性を順に、動詞節(魅力があって)、形容詞節(人づきあいが上手で、礼儀正しくて)、最後は文末の名詞述語(努力家だ)を用いて叙述している。

(25) 男というのは、ほとんど例外なくスケベな動物です。
(イヤなことをスッキリさせて眠る本、152)
(26) あの殿は人を許せぬ性格だ。(国盗り物語)
(27) (あの子は)魅力があって、人づきあいが上手で、礼儀正しくて、努力家だ。
(青春の蹉跌)

p.363で述語名詞が文字通りの意味ではなく隠喩的な意味で用いられる場合について述べたが(後藤は子供だ)、隠喩的表現だけでなく「～ような」「～みたいな」などを用いて属性を直喩的に叙述する場合もある。以下の(28)では「～ような」表現を用いて「とり」の性格、性向を「風のつよい冬の日にひとり日光室で日なたぼっこをしているような存在」に喩えている。

(28) とりは苦労をしていなかった。みどり学園から東京の花嫁学校にはいり、

在学中に養子をむかえてすぐ子どもをうんだ。苦労のおおい時代に、これは別格である。(とりは)風のつよい冬の日に、ひとり日光室で日なたぼっこをしているような存在である。(二十四の瞳)

「鈴木先生は鬼だね」「鈴木先生は鬼のような先生だ」のように比喩的な表現法(二者の類似性を利用した隠喩、直喩表現など)を使用して主題名詞を特徴付けるということは動詞文によっては表現されにくく、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タイプであり、それだけ名詞文は属性の表現方法、カバーし得る表現領域が広いということでもある。

次は、性格、心理、性向を叙述する属性叙述動詞文の例である。(29)では「ソヴェートの民衆」の統制に従順な性格について、(30)では「フセイン大統領」の自らを偉人に重る性格について述べている。

(29) そもそもソヴェートの民衆は、さまざまな制限や、統制に対してひどく従順なところがある。(風に吹かれて)
(30) フセイン大統領は自らを歴史上の偉人に重ねることを好む。
(毎日、0301ad10.txt(5316))

2.2 人の容貌、外見、様子

(31)～(33)は、人の容貌、外見、様子を叙述する属性叙述名詞文の例である。人の容貌、外見、様子を叙述する際は、人の顔立ち、体格・体型、身長、ヘアスタイル、誰か・何かとの似通いなどが叙述される。(31)では主題名詞のヘアスタイル(坊主頭)と体格(小柄)が、(32)では身長(長身)とヘアスタイル(黒のロングヘア)と顔立ち(美人)が、(33)では何かとの似通い(アザラシにそっくり)が叙述されている。

(31) 石斎は大きな坊主頭をもった、とびきり小柄な老人である。(国盗り物語)
(32) 安田さんは、長身に黒のロングヘアが印象的な美人だ。
(毎日、0410ad12.txt(419)
(33) (太った中年の医師は)色白のアザラシといった容貌だ。(空中ブランコ、71)

次は容貌、外見、様子を叙述する属性叙述動詞文の例である。(34)では「～に似ている」という自動詞構文、(35)(36)では、存在・所有構文や再帰構文が用いられている。以下の例では述語動詞も属性の意味形成に関与しているが、補語名詞である「狸・狐(例34)」「白夜のニンフたちという言葉にふさわしい美しさ(例35)」「細い糸のような眼(36)」が属性の中心的な意味を担っている。

(34) 肥った父ちゃんは狸に似とる、眉毛がうすくていつも墨で描く母ちゃんは狐に似とる。(火垂るの墓)
(35) スウェーデンの美女たちは、正に白夜のニンフたちという言葉にふさわしい美しさを持っている。(風に吹かれて)
(36) (この女は)細い糸のような眼をしている。丸顔のぽっちゃりした愛くるしい顔だ。(越前竹人形)

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が類似な意味を表わすペアを「名詞文/動詞文」の形式で記述すると、「～にそっくりな人だ・といった容貌だ/～に(よく)似ている」「～童顔だ/～(歳より)若く見える」「～美しい女性だ・美人だ・二枚目だ/～美しさを持っている・顔立ちが整っている」「～(どこにでもいそうな)顔だ/～(どこにでもいそうな)顔をしている」「～太っちょだ・肥満型だ/～太っている・ぽっちゃりしている」のようなペアがある。

2.3 人の特技、能力、専門性

次に、人の特技、能力、専門性のような属性を叙述するタイプについて述べる。このタイプの特徴としては、主題名詞がどのような分野で他人より優れているかという、主題名詞の専門分野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がある(「太郎は何でもよくできる子だ」のような文は別として)。以下の例では主題名詞が順に、「薬学」「読心術」「高校野球」という分野で、他人より精しかったり実力が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

(37) 伊藤さんは薬学にも精しい人である。(毎日、0207ad41.txt(35814)
(38) その女性もまた常人ではない。他人の心を読み取れる読心能力者である。(エディプスの恋人)

(39) 下坂さんは高校選手権で優勝した実力の持ち主である。
(毎日、0311ad18.txt(1343))

一方、動詞文が人の特技、能力、専門性などを叙述する場合は、「～を専門としている」「～に精通している・熟達している・優れている」「～(する)力・能力・実力・技術を持っている・を備えている・がある」「～(ある分野)が(よく)できる」「～(ある分野の専門家)として知られている」のような構文が観察される。以下の例では、主題名詞が順に「企業法務」「あのあたり(脱出を謀ろうとしている人の行動パターンの把握)」の分野で専門性を持っていたり優れた能力が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

(40) 本林氏は東大卒、「森綜合法律事務所」に所属し、企業法務を専門としている。
(毎日、0202ad12.txt(3757))
(41) 奴(門番)はあのあたりのことは枝の一本一本に至るまで精通している。(世界の終わ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

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が類似な意味を表わすペアを「名詞文/動詞文」の形式で記述すると、「～に精しい人だ/～に精通している」「～実力の持ち主だ/～実力・能力を持っている」「～達人だ・才人だ・器量人だ・専門家だ・玄人だ・(情報・ロシア)通だ/～がよくできる・抜きん出ている」「～(ある分野の専門家)として有名な人だ/～(ある分野の専門家)として知られている」のようなペアがある。

2.4 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属性

これまで動詞文によっても名詞文によっても表現される属性のタイプ(「人の性格、心理、性向」「容貌、外見、様子」「特技、能力、専門性」)について考察してきたが、属性の中には動詞文によっては表現されにくく、主に名詞文によって表現される類いのものがある。たとえば人の職業人としての属性(先生、医者、パン屋さん)、信仰人としての属性(仏教徒、キリスト信者)、性別のような属性(婦人、男の子)、国籍(日本人、アメリカ人)、出身・生い立ち(大阪の人、東京生まれ、孤児)、個人的・社会的な関係(長者、知り合い、同盟

者)のような属性がそれである。以下の例では順に主題名詞の「職業(例42)」「出身(43)」「信仰(44)」「個人的・社会的関係(45)」を叙述している。

(42) 泣きっつらは、商人である。(国盗り物語)
(43) 斎藤利三は、光秀と同郷の美濃の人である。(国盗り物語)
(44) 岸本は、大阪にいる中村春雨の紹介で知り合ったキリスト信者である。(塩狩峠)
(45) 家康は信長のもっとも古い、しかも唯一の同盟者である。(国盗り物語)

職業の場合、「彼はサラリーマンをやっている」のように動詞文を用いても表現することもできるが、「(職業)をやっている」の構造はそれほど生産的ではなく、「サラリーマンをやっている」「先生・教師をやっている」のような一部の職業群に限定されることから、名詞文による職業表現の叙述とは大きな格差がある。個人的・社会的な関係の場合も、「弟はツインズのマイナーに所属している」のような動詞文を用いて所属関係などを表すこともできるが、名詞文ほど豊かな関係が自由に表現できるわけではない。よって、「職業」「信仰」「性別」「国籍」「出身・生い立ち」「個人的・社会的な関係」のような属性は動詞文によっては表現されにくく、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属性といえる[2)]。

2) 一人の査読者から「年齢」という属性も名詞文固有の属性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指摘をいただいた。調査資料の中で年齢を表す例は次のような2例がある。
例:(彼女は)三十代とおぼしい、どこか気の強さを窺わせる美しい女性である。
例:反町栄一は山本と同じ長岡中学の出身で、山本より五つ年下だが~
年齢というのは、確かに動詞文や形容詞文によっては表現されにくく、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ものではある。ただし「彼女は26歳である」のように、特定の年齢を表す例は実際それほど見られないこと(上の2例は特定の年齢ではなく年齢層や年上・年下などの相対的な年齢差を表している)、特定の年齢は年々変わるものであること(年齢層や相対的な年齢差は一定の持続性・恒常性を持っているといえる)から、ここでは典型的な意味タイプとしては入れなかった。

Ⅳ. まとめ

本稿では事態叙述と属性叙述という2つの叙述法の中で、相対的に従来の研究が遅れている属性叙述に焦点を当て、属性叙述名詞文と属性叙述動詞文の関係(構造的・意味的な類似点と相違点)を実例分析に基づいて考察した。

まず構造的、構文的な特徴及び属性の現れ方について述べると、属性叙述名詞文では「述語名詞」と述語名詞に前接する「連体修飾要素」が、属性叙述動詞文では「述語動詞」と述語動詞が取る「補語」が構造的な違いに関与し、属性が文のどこに表現されるかという「属性の現れ方」もこのような構造と相関していた。

＜属性叙述名詞文＞

基本構造：主題名詞 (連体修飾要素) 述語名詞

① 属性が連体修飾要素に表されるもの：太郎は変った男だ(本文でAタイプと表記)

② 属性が連体修飾要素＋述語名詞に表されるもの：太郎は人一倍責任感の強い長男だ。(Bタイプと表記)

③ 属性が述語名詞に表されるもの：太郎は天才だ。(Cタイプと表記)

＜属性叙述動詞文＞

基本構造：主題名詞 (補語) 述語動詞

① 属性が補語に表されるもの：花子は青い目をしている。

② 属性が補語＋述語動詞に表されるもの：花子は人工知能に精通している。

③ 属性が述語動詞に表されるもの：花子はしっかりしている。

属性叙述名詞文のA～Cタイプの中で、属性叙述動詞文との置き換え可能性が大きいのはAタイプである。Aタイプでは連体修飾要素の部分が属性叙述の意味を担っているため、動詞(句・節)から成る連体修飾要素同伴の例は、述語名詞を除いて動詞文に変えてもそれほど意味が変らない(あいつは度胸が

ある人間だ≒あいつは度胸がある)。次に属性叙述名詞文のBタイプでは述語名詞に意味的な制限がなく、連体修飾要素の部分では属性1を表現し、述語名詞の部分では属性2を表現して、2つ以上の属性が複合的に表現されることもある。Cタイプを中心に見られる特徴としては述語名詞が比喩的な意味で用いられる場合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鈴木先生は鬼だね)。

一方、属性叙述動詞文では述語動詞と補語名詞の意味的・文法的な性質によって種々の下位構文(属性を叙述する自動詞構文、存在・所有構文、再帰構文、他動詞構文)が設定される。属性を叙述する他動詞構文は出現頻度が低く、自動詞構文および自動詞構文に準ずるもの(存在・所有構文、再帰構文)が中心となることから、動詞文による属性叙述は他動性の弱化と関係していることが窺える。

次に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が表現する属性の意味タイプについて述べる。本稿では属性叙述名詞文と動詞文に共通して見られる意味タイプと、主に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意味タイプに分けて考察した。まず属性叙述動詞文によっても属性叙述名詞文によっても見られる属性の意味タイプとしては「性格、心理、性向」「容貌、外見、様子」「特技、能力、専門性」のようなものがある。一方、動詞文によっては表現されにくく、主に名詞文を中心に表現される属性としては、「職業」「信仰」「性別」「国籍」「出身・生い立ち」「個人的・社会的な関係」のようなものがある。

以上、本稿では属性を叙述する動詞文と名詞文の関係(類似性と相違性)について考察した。今後は形容詞文も考察に含めて、属性叙述の観点で三大品詞文の関係を考察していきたい。

＜参考文献＞

奥田靖雄(1986、1996)「条件づけを表現するつきそい・あわせ文―その体系性をめぐって―」『教育国語』87、むぎ書房、pp.2-19

影山太郎(2006)「外項複合語と叙述のタイプ」益岡隆志・野田尚史・森山卓郎編『日本語文法の新地平1』くろしお出版 pp.1-21

影山太郎編(2012)『属性叙述の世界』くろしお出版 pp.3-35

工藤真由美(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ひ

つじ書房　pp.25-36
佐久間鼎(1941、1995)『日本語の特質』育英書院　pp.150-156
佐藤里美(1997)「名詞述語文の意味的なタイプ」『ことばの科学』8　言語学研究会編むぎ書房　pp.151-212
新屋映子(2014)『日本語の名詞指向性の研究』ひつじ書房 pp.7-25
樋口文彦(1989)「評価的な文」『ことばの科学』3　言語学研究会編むぎ書房　pp.181-192
益岡隆志編(1987)『命題の文法』くろしお出版　pp.20-35
_____(2000)「属性叙述と事象叙述」『日本語文法の諸相』くろしお出版　pp.39-53
_____(2008)『叙述類型論』くろしお出版　pp.1-7
光信仁美(2014)「名詞述語文における形容詞と名詞―形容詞による連体修飾のありかたをめぐって―」『研究論叢』100関西外国語大学　pp.237-255
崔瑞暎(2011)「「思わせる」と「考えさせる」」『日本研究』48韓国外国語大学校　日本研究所 pp.323-340
_____(2015)「叙述の類型の観点から照明した現代日本語の使役文と受動文」『日語日文学研究』94－1、韓国日語日文学会、pp.135-138
_____(2016)「現代日本語の動詞文と叙述の類型―属性叙述動詞文を中心に―」『日語日文学研究』98-1、韓国日語日文学会、pp.209-228

＜用例出典＞

①新潮文庫100冊(1995年)CD　②毎日新聞CD
③手作法で収集した作品(本稿で引用した作品のみ)
『イヤナことをスッキリさせて眠る本』2003　小池 能里子　ワニ文庫
『空中ブランコ』2008　奥田 英朗　文春文庫
『火垂るの墓』1968　野坂 昭如　新潮文庫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속성을 서술하는 동사문과 명사문

최서영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동사문은 사태서술문으로서, 명사문은 속성서술문으로서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온 경향이 강하다. 본고는 속성서술이라는 하나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양자를 바라보고, 속성을 서술하는 동사문과 명사문의 구조적·구문적, 의미적 특징을 실례조사를 토대로 분석, 고찰하였다.

먼저 구조적・구문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속성서술 명사문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속성서술 명사문의 기본구조는「주제명사+(연체수식요소)+술어명사」로 구성된다. 속성의 의미는「연체수식요소」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유형,「연체수식요소+술어명사」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유형,「술어명사」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유형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속성서술 동사문의 구조적·구문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속성서술 동사문의 기본구조는「주제명사+(보어)+술어동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속성의 의미는「술어동사」를 중심으로 표현되거나「보어+술어동사」를 중심으로 표현되거나「보어 명사」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구문적으로는 자동사 구문, 존재·소유 구문, 재귀 구문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타동성이 약한 구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속성서술 동사문과 속성서술 명사문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의 의미 타입으로는 성격, 용모, 능력 등의 타입이 있으며 주로 속성서술 명사문을 통해서 표현되는 의미 타입으로는 직업, 신앙, 성별, 국적, 출신, 개인적 사회적 관계와 같은 타입이 관찰된다.

<Abstract>

Verb sentence and noun sentence representing property predication

Choi, Seo-Young

Generally event predication is represented by verb sentence and property predication is represented by noun sentence. There are not many numbers but verb sentence can also represent property predication and noun sentence can also represent event predication.

This paper analyzed noun sentence and verb sentence representing property predication and compared structural and semantic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s regards noun sentence focused on the relation of the noun modifier and predicate noun. And as regards verb sentence focused on the lower sentence construction.

With respect to the semantic feature common features that can be expressed by noun sentence and verb sentence are as like personality, abilities, appearance. Unique features can be expressed by noun sentence are as like job, gender, age, nationality, origin.

일본연구 제72호
2017년 6월 30일 377－402쪽 10.15733/jast.2017..72.377

일본어투 용어순화의 어려움

황 광 길*

< 目 次 >

Ⅰ. 머리말
Ⅱ. 한국어 기본적 어휘에 포함여부
Ⅲ. 대응 어휘(순화어)에 대한 검토1
- 한국식 발음 어휘
1. 한자어 순화어
2. 설명투 순화어
Ⅳ. 대응 어휘(순화어)에 대한 검토2
- 일본식 발음 어휘
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 순화의 어려운 점
1. 표제어
2. 비표제어
Ⅵ. 맺음말

Key Words : 韓国語の純化(refinement of Korean), 日本語式語彙(Japanese style word), 固有語(owen word), 基本語彙(basic word), 和製漢語(wasei kango)

Ⅰ. 머리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에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런 영향은 일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문물이 일본을 경유해서 도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표의문자인 한자의 조어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자어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서양의 문물과 개념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 근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로 메이지(明治) 시대 만들어진 이와 같은 일본제 한자어들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이나 심지어 한자어의

* 단국대학교. 일본어학.

발생지인 중국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기원 어휘 중에는 이와 같은 일본제 한자어 뿐 아니라 일본 고유어 및 일본식 외래어에서 비롯된 어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일본식 한자어나 한자표기 일본고유어처럼 한자를 매개로 하여 한국식으로 발음되는 것도 있지만 일본고유어나 일본식 외래어가 일본식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 단어 안에 한국식 발음과 일본식 발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어 기원 어휘에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일반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 – 즉 이들을 일본 기원 어휘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이들을 한자어로 인식하는가 외래어로 인식하는가 등 – 과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일본어투 용어로 일괄하여 모두 순화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입장이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필자는 일본 고유어 기원 어휘 중에 한자를 매개로 하여 한국어에서 형태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한자어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한자어 취급을 받고 있는 일련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을 밝힌바 있다.[1] 소론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식 발음 어휘와 한국식 발음 어휘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점, 한국식 발음 어휘가 실제로 한국어에서 기본적인 어휘로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한국식 발음 어휘를 대체한 소위 순화어의 타당성 여부, 마지막으로 한국식 발음 어휘를 대체하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한국어 기본적 어휘에 포함 여부

한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에 대해서는 송민 이한섭[2] 등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어떤 종류의 일본어투 용어가 사용되고

1) 황 광길(2017)「일본어투 용어순화에 대하여」일어일문학연구 제100집 1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85-104.

2) 송민(1979)「언어의 접촉과 간섭유형에 대하여」성심여대논문집 10. pp.49-53.
이한섭(1993)「現代韓国語における日本製漢語」『日本語学　特集テーマ別ファイル5 漢字・漢語』明治書院 pp.57-60.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어휘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어떤 일본어 어휘가 도입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한국어의 입장에서 일본어투 용어를 규명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 중 일부가 여전히 한국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일본 기원 어휘가 한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어 화자가 일본어투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화자가 외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일본어투 용어와 내부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일본어투 용어로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투 용어 중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혹은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 한국인 화자들이 이를 외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어휘와,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이를 한국식 발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중국 전래의 전통적인 한자어 어휘처럼 인식되는 어휘를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두 종류의 어휘가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한국어의 기본어휘에 이들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론에서는『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3]에 수록된 1171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우선 한국식 발음과 일본식 발음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한국어 기본적 어휘에 포함여부를 찾아보고, 기본적 어휘에 포함된 용례를 대상으로 하여 순화어와 비교해 어느 쪽의 사용빈도가 높은가를 구체적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 수록된 1171개의 어휘를 일본어 입장에서 분류하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나눌 수 있고, 한국어 입장에서 보면 한국식 발음 어휘, 일본식 발음 어휘, 한국식과 일본식이 포함되어 있는 어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4] 한국식 발음은 420예, 그리고 일본식을 포함한 그 밖의 어휘는 모두 751예가

3) 박용찬『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2005.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의 기본적인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용 한국어 사전[5]의 표제어와 비교를 통하여 한국식 발음 어휘와 일본식 발음 어휘가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6]. 우선 한국식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 중 일본 고유어 기원 어휘는 119개로 이중 57개가 사전에 표제어로 보이고 있으며, 일본 한자어 기원 어휘는 231개 중 126개, 그리고 혼종어 기원 어휘의 경우는 70개 중 17어휘가 표제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비율로 나타내면 각각 47.9%, 54.5%, 24.3%로 전체적으로는 47.6%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가 사전의 표제어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유어 : 견습(수습), 가불(임시 지불), 내역(명세), 선불(선지급), 입장(처지), 명찰(이름표), 가봉(시침질), 가출(집 나감), 건초(마른 풀), 대출(빌림) ……
한자어 : 구좌(계좌), 고참(선임), 사물함(개인 보관함), 계주(이어 달리기), 견학(보고 배우기), 고객(손님), 경시(얕봄), 과잉(지나침), 구독(사 읽음) ……
혼종어 : 적자(결손), 대합실(기다림 방), 수취인(받는 이), 수하물(손 짐), 기합(얼차려) ……[7]

한편 한국어에서 일본식 발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의 경우는 전체 751개의 어휘 중 아래에 표시한 단지 29개만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하고 있어서 약 3.9%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식 발음 어휘 중 다음의 어휘는 초등 한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다.

가소린(휘발유 가솔린), 다스(열두 개, 타), 다이알(번호판 글자판 시간표 다이얼), 돈가스(돼지고기 튀김), 레미콘(양회반죽차), 레자(여가활동, 레저), 로타리(둥근 거

4) 황광길(2017) 앞의 논문 p.96.
5) 『초등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2017.
6) 기본어휘와 비교를 위해서는 기본어휘 설정에 보다 치밀한 기준을 필요로 하겠지만 여기서는 상식적인 의미의 기본적 어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기본적인 어휘라 생각하여, 초등학생용 한국어 사전의 표제어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7) 용례를 표시할 때 앞에는 일본어투 용어, 그리고 괄호 안에는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에서 설정한 순화어를 나타낸다. 이하 용례 표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리, 로터리), 리모콘(원격조정기), 리야카(손수레), 모비루(모빌, 흔들개비), 모타(전동기 발동기 모터), 밧테리(건전지, 전지, 축전지), 보나스(상여금, 보너스), 보이라(증기통, 보일러), 비니루(비닐), 빵꾸(구멍, 펑크), 스탄푸(잉크판, 양벼루, 스탬프), 스파나(나사틀이, 스패너), 스피카(확성기, 스피커), 악세사리(장식물, 노리개, 치렛감, 엑세서리), 오뎅(꼬치 안주), 올드미스(노처녀), 우동(가락국수), 인프레(인플레이션), 짬뽕(초마면, 쉬섞기), 카타로구(목록, 일람표, 모형, 설명서, 본보기 책), 쿠레파스(크레파스), 쿠숑(허리받이, 완충작용, 쿠션), 타이루(타일), 타이야(바퀴, 타이어)

<표 1> 일본어투 용어와 초등학생용 사전의 표제어의 일치 정도

		용례수	일치하는 수	비율	전체 비율
한국식발음	고유어	119	57	47.9%	47.6%
	한어	231	126	54.5%	
	혼종어	70	17	24.3%	
일본식발음		751	29		3.9%

물론 초등학생용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고 해서 기본적인 어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기본적 어휘라고 하여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동학생용 사전에 표제어로 나와 있다는 것으로부터 기본적인 어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본 47.6%와 3.9%라는 일치율의 큰 차이는 한국식 발음 어휘는 많은 한국인 화자가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대해, 일본식 발음 어휘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어에 나타나는 일본어 기원 어휘를 한국식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본식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이들 두 종류의 어휘에 대응하는 순화어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Ⅲ. 대응 어휘(순화어)에 대한 검토 1– 한국식 발음 어휘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의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일본어투 용어에 대응하는 순화어의 종류를 보면 일본어투 한자어가 아닌 다른 한자어로 나타내

는 경우, 일본어투 어휘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투로 나타내는 경우, 한자어와 설명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일본어투 용어에 한자어와 설명투 순화어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한자어 순화어 : 견습(수습), 소매(산매), 적자(결손), 납득(이해), 방화(국산영화), 세대(가구), 검침원(조사원), 사물함(개인 보관함), 원금(본전) ……

설명투 순화어 : 대하(큰 새우), 매점(사재기), 소하물(잔짐), 저인망(쓰레 그물), 조립(짜기),구근(알뿌리), 두개골(머리뼈), 가감(더하고 빼기) ……

한자어+설명투 순화어 : 견출지(찾아보기 표), 하청(아래 도급), 과세(세금 매김), 망년회(송년 모임), 밀담(비밀 이야기) …

한자어, 설명투 순화어 : 견적(추산, 어림 셈), 매상(판매, 팔기), 방사(방목, 놓아 기르기), 수취(수령, 받음), 잔고(잔액, 나머지)……

<표 2> 순화어의 종류와 출현 정도[8)]

	다른 한어	설명투	한어+설명	한어, 설명	기타	합계
고유어	34 (15)	70 (38)	6	9 (4)		119 (57)
한자어	66 (33)	136 (79)	26 (15)	1	2	231 (126)
혼종어	33 (1)	31 (14)	4	2 (2)		70 (17)
합계	133 (49)	237 (130)	36 (15)	12 (6)	2	420 (200)

1. 한자어 순화어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에서 일본어투 용어에 대한 순화어로서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모두 133예인데 각 어종별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일본 고유어 기원 어휘의 순화어

고유어(119개) 중 다른 한자어로 대체는 34개, 그리고 그 중 다음과 같은 15개

8) 괄호에 숫자는 일본어투 용어가 초등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하는 어휘수를 나타냄.

는 초등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한다.

견습(수습) 가건물(임시건물) 가불(임시지급) 금비(화학비료) 내역(명세) 대절(전세) 매장(판매장) 선불(선지급) 소매(산매) 수속(절차, 순서) 언도(선고) 입장(처지) 입회(참여) 취조(문초) 후불(후지급)

㉡ 일본 한자어 기원 어휘(화제한어)의 순화어

한어231개 중 한국어에서 한자어로 대응은 66개, 그중 다음의 33개 어휘는 초등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하는 기본적인 어휘이다.

구좌(계좌) 굴삭기(굴착기) 납입(납부) 백묵(분필) 유황(황) 감사(지도검사) 결재(재가) 경관(경치) 고참(선임) 급사(사환) 납득(이해) 당혹(당황) 대다수(대부분) 도료(칠) 방화(국산영화) 변사(횡사) 사물함(개인보관함) 세공(공예) 세대(가구) 순번(차례) 승차권(차표) 양식(서식) 여비(노자) 운전수(운전기사) 원금(본전) 융통(변통) 제전(축전) 차장(승무원) 축제(축전) 출산(해산) 출산율(출생률) 하명(명령) 호조(순조)

㉢ 일본 혼종어 기원 어휘의 순화어

혼종어 70개 중 한자어 순화어로 대응은 33개, 그중 기본어휘와 중복은 1개이다.

적자(결손)

이상 예로 든 49개의 어휘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순화어 중에서도 초등 사전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어휘로서 한국인 화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어휘에 대해서 순화어로 수정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들 일본어 기원 어휘와 순화어 중 어느 쪽이 더 적당한가를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앙케이트 조사에 사용하는 설문으로는『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 사용된 것을 가급적 그대로 인용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는 대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32명의 앙케이트 결과를 자료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방식은 설문 안에 일본어투 용어와 대응하는 순화어 양쪽을 제시하고 어느 쪽이 적합한가를 묻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가 양쪽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쪽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앙케이트 1) 괄호 안에 더 적합 것에 표시를 하시오. 모두 적합한 경우는 양쪽 모두 표시.

1) 3년간의 (견습/ 수습) 기간을 마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2) 주차장도 최근 철거됐으며 각종 (가건물/ 임시건물)들도 곧 철거될 예정이다.
3) 비상시 (가불/ 임시지불) 제도가 적용되는 비상한 경우를 당한 사람은 .....
4) 농림부에 따르면 농약과 (금비/ 화학비료)를 3년 이상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5) 자녀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명세를) 궁금해하는 부모와 .....
6) 추석이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전세내서) 고향 분들과 함께 귀경길에 올랐다.
7) 우리 동네 식품 (매장/ 판매장)은 직원이 불친절해서 손님이 없는 것 같다.
8) 월급을 (선불로/ 선지급으로) 받았다.
9) 도매상으로부터 싼값에 사서 소비자들에게 (소매/ 산매)로 팔아 이문을 남겼다.
10) 퇴원 (수속을/ 절차를) 밟으려면 병원비를 모두 내야 합니다.
11) 그 죄수는 존속 살해죄로 사형을 (언도/ 선고) 받았다.
12)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입장이/ 처지가) 난처하다.
13) 클럽에 (입회/ 참여)하려면 회비를 내야 합니다.
14) 엄중히 (취조/ 문초)해서 진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15) 저희는 상품을 받아 본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제/후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 대규모 (적자가/ 결손이) 나는 바람에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17) 어머니 (구좌/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하여 응시료를 지불했다.
18) 이 제품은 (굴삭기/ 굴착기)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이다.
19) 연간 (납입/ 납부) 금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수업시간에 (백묵/ 분필)이 떨어져 교무실로 가지러 갔다.
21) (유황/ 황)은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푸르스름한 불꽃을 내며 탄다.
22)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감사/ 지도검사)를 실시하였다.
23) 이번 달 예산 집행을 아직 (결재/ 재가)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 (경관/ 경치) 조명 계획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25) 코트에서 신참 선수와 (고참/ 선임)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
26) 아저씨네는 대대로 우리 집안의 (급사였다/ 사환이었다).
27) 저명한 박사의 창조론에 관한 반박은 (납득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28)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교수임은 (당혹스런/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
29) 요즘 (대다수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30) (도료는/ 칠은) 물건 곁에 칠하여 썩지 않게 하거나 채색에 쓰는 물질이다.
31) 내 친구는 자막 보는 게 싫어서 (방화/ 국산영화)밖에 보지 않는다.
32) 김씨는 길을 가다가 음주 차량에 의해 (변사/ 횡사)하고 말았습니다.
33) 교실에는 (사물함/ 개인 보관함)이 있다.
34) 보석을 (세공/ 공예)하여 팔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35) 그 동네에는 다섯 (세대/ 가구)가 산다.
36) (순번을/ 차례를) 정해서 한 명씩 들어와라.
37) 기차를 탈 때 (승차권을/ 차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38) (양식/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전국일주를 하는데 (여비/ 노자) 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때때로 노숙을 하기도 했다.
40) 택시 (운전수/ 운전기사)는 친절하다.
41) 사업을 하다가 (원금/ 본전)마저 날리고 지금은 거리로 쫓겨날 판이다.
42) 자금을 (융통/ 변통)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한다.
43) 혼사를 치르게 된 친척에게 (제전/ 축전)을 보냈다.
44) (차장/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마을 (축제를/ 축전을) 알리는 풍물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다.
46) 누나가 예쁜 딸아이를 (출산/ 해산) 했다.
47) (출산율/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48) 부하에게 내린 (하명/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하다.
49) 석윳값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호조/ 순조)를 띠기 시작했다.

<표 3> 앙케이트 결과

	1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일본형	7	5	27	1	30	20	27	25	31	18	0	22	8
양형	1	3	2	1	0	2	4	2	0	3	0	3	1
순화형	24	24	3	30	2	10	1	5	1	11	32	7	23
순화비율	75	75	9.4	93.4	6.3	31.2	3.1	15.6	3.1	34.4	100	21.9	71.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일본형	29	31	32	1	11	11	0	30	29	30	15	19	15
양형	2	0	0	0	1	1	1	0	0	0	1	3	1

순화형	1	1	0	31	20	20	31	2	3	2	16	10	16
순화비율	3.1	3.1	0	96.9	62.5	62.5	96.9	6.3	9.4	6.3	50	31.2	5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일본형	15	13	11	15	1	19	25	20	5	9	24	25	30
양형	4	4	4	1	0	1	4	3	5	4	1	3	1
순화형	13	15	17	16	31	12	3	9	22	19	7	4	1
순화비율	40.6	46.9	53.1	50	96.9	37.5	9.4	28.1	68.8	59.4	21.9	12.5	3.1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전체	
일본형	1	16	29	1	4	31	31	21	0	27			
양형	2	2	0	0	3	0	1	5	0	0			
순화형	29	14	3	31	25	1	0	6	32	5			
순화비율	90.6	43.8	9.4	96.9	78.1	3.1	0	18.8	100	15.6		40.9%	

위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순화형만 선택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약 41%이고, 일본어투 어휘가 적합하다는 비율은 양형을 포함하면 약 59%에 달하고 있어서 본 조사만을 보면 아직까지 순화형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용례의 경우에는 4문(93.4%), 11문(100%), 17문(96.9%), 20문(96.9%), 31문(96.9%), 40문(90.6%), 43문(96.9%), 48문(100%)의 8개 설문에서 순화형 적합 의견이 90% 이상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1문과 17~21문은 초등 사전에서 표제어를 찾으면 본 앙케이트의 순화어를 찾게끔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21문의 “유황(황)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순화어가 높은 비율로 선호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어휘는 이미 순화형으로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순화형이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위의 조사에서 보이고 있는데, 5문(9.4%), 9문(3.1%), 14문(3.1%), 15문(3.1%), 16문(0%), 21문(6.3%), 22문(9.4%), 23문(6.3%), 39문(3.1%), 42문(9.4%), 45문(3.1%), 46문(0%) 12개 설문에서는 순화어의 사용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6문의 ”적자“와 45문의 ”출산“의 경우는 순화어인 ”결손, 해산“을 선택한 경우가 한 예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소위 일본어투 용어가 이미 한국어에서 확실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9, 14, 15, 39, 45 설문의 경우도 순화어를 선택한 경우가 32명 중 1명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순화어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앙케이트 조사를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순화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약41%로 일본어투 용어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순화어만 사용하는 것이 8예, 반면에 순화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이 12예로 이 역시 일본어투 용어 쪽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앙케이트 조사는 어떤 예문을 사용하는가 혹은 어떤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론의 목적은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사용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보다는 일본어투 용어가 현재 어느 정도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아는 것에 있으므로 위의 앙케이트 조사로도 현재 일본어투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생각한다.

2. 설명투 순화어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에서 일본어투 용어에 대한 순화어를 설명투(237예) 및 설명투+한어 혹은 한어+설명투(36예)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표 2>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모두 273예가 있는데 이중 145예는 일본어투 용어가 초등 사전에도 표제어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휘이다. 이들을 각 어종별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일본 고유어 기원 어휘의 순화어

일본 고유어 기원 어휘를 설명투 순화어로 대체한 것은 모두 76개이고 이중 아래와 같은 38개는 초등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한다.

가봉(시침질), 가출(집 나감), 건초(마른 풀), 경합(겨룸, 견줌), 괘도(걸 그림), 대부(돈 뀌기), 대출(빌림), 대폭(많이, 크게, 넓게), 매립(메움), 매수(사들이기), 매입(사들이기), 명찰(이름표), 선착장(나루터), 수당(덤삯, 일삯), 승강장(타는 곳), 인계(넘겨줌), 인도(건네줌), 인상(값 올림), 인수(넘겨 받음), 인출(돈 찾음), 인하(값 내림), 입구(들어오는 곳), 적립(모음), 적조(붉은 조류), 조립(짜기), 추월(앞지르기), 출구(나가는 곳), 취급(다룸), 취소(무름, 말소), 취하(무름), 침목(굄목), 투망(던짐 그물), 편물(뜨개 것), 품절(물건 없음), 할당(몫 나누기), 할인(덜이), 행선지(가는 곳), 호출(부름),

㉡ 일본 한자어 기원 어휘(화제한어)의 순화어

일본 한자어 기원 어휘를 설명투 순화어로 대체한 것은 모두 162개이고 이중 94개는 초등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한다. 그중 일부를 다음에 나타낸다.

가감(더하고 빼기), 간식(샛 밥), 감안(생각), 개간(일굼), 게양(닮, 올림), 견학(보고 배우기), 결손(모자람), 경상(가벼운 상처), 경시(얕봄), 경어(높인 말), 경직(굳음), 계주(이어 달리기), 고객(손님), 고지(알림), 과소비(지나친 씀씀이), 과잉(지나침), 구근(알뿌리), 구독(사 읽음), 당분간(얼마 동안), 대결(겨루기), 대기실(기다림 방), 도난(도독맞음), 매점(가게), 면적(넓이), 선취(먼저 얻음), 송달(보냄), 압수(거둬감), 야맹증(밤소경), 월부(달 붓기), 육교(구름다리), 이자(길미), 절수(물 아낌), 경품(덤 상품), 연착(늦 도착)……

㉢ 일본 혼종어 기원 어휘의 순화어

일본 혼종어 기원 어휘를 설명투 순화어로 대체한 것은 모두 35개이고 이중 14개는 초등 사전의 표제어와 일치한다.

건포도(마른 포도), 견본(본보기), 고수부지(둔치 마당, 강 턱), 대합실(기다림 방), 수취인(받는 이), 수하물(손 짐), 중절모자(우묵모자), 지분(몫), 기라성(빛나는 별), 기합(얼차려), 대체(바꿈), 시합(겨루기), 임차(세 냄), 정찰(제값표)

한자어 순화어도 위에서 본 것처럼 사용에 문제가 있는데 설명투 순화어의 경우는 더욱 제약이 있다. 다음에 설명투 순화어의 사용상 제약에 대해 명사적 일본어투 용어에 대한 설명투 순화어, 그리고 동사적 일본어투 용어에 대한 설명투 순화어의 순서로 살펴본다.

2.1 명사적 일본어투 용어

일본어투 용어 중에는 “수속, 내역, 구좌, 건포도, 견본, 대합실……” 처럼 항상 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절, 언도, 입회, 조립, 추월, 취급, 취소……”처럼 명사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하다, 되다’를 첨부해서 동사로도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표 4> 명사적,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일본어투 어휘 조사

일본 어투 어휘	한자어 순화어	설명투 순화어	합계
명사	96(72.2%) 수속(절차), 내역(명세), 구좌(계좌), 입장(처지)	147(62%) 건초(마른풀), 대하(큰 새우), 명찰(이름표), 승강장(타는곳)	243 (65.7%)
동사	25(18.8%) 대절(전세), 언도(선고), 입회(참여), 납입(납부)	77(32.5%) 가출(집나감), 조립(짜기), 추월(앞지르기), 취급(다룸), 취소(무름)	102 (27.6%)
기타	12(9%) 계출(신고), 신입(신청), 양체(환전)…	13(5.5%) 매상(사들이기), 식부(심기), 경직(굳음), 과잉(지나침)	25 (6.8%)
합계	133	237	370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의 용례 중에는 항상 명사로만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동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가출 조립 추월” 등은 “하다”를 첨가하여 “가출하다, 조립하다, 추월하다”처럼 동사로 사용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계출, 양체” 처럼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비록 일본어에서는 동사적인 용법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용법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표 4>의 조사에서 표시한 명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의 용례수의 경우도 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입장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론에서 위의 분류를 시도한 것은 일본어투 어휘가 명사적인가 동사적인가에 따라 대응하는 순화어로의 대체가 비교적 수월하기도 하고 혹은 부자연스럽기도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어투 어휘가 한국어에서 항상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대응하는 순화어가 한자어인 것이 96예, 대응하는 순화어가 설명투인 것이 147예로 두 경우를 합치면 일본어투 어휘가 한국발음으로 나타나는 420 예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순화어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이들 두 종류의 그룹에는 몇 가지 상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자는 순화어에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자는 대부분 고유어로 순화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는 전자는 대부분 하나의

명사로 대응시키고 있는데 대해 후자는 하나의 명사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수식 피수식의 관계나 혹은 격관계인 명사구로 순화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명사적 일본어투 어휘 용례를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한다.

㉠ 한자어 순화어 : 내역(명세), 선불(선지급), 수속(절차), 입장(처지), 경관(경치), 사양(설명), 세대(가구), 승차권(차표), 견적서(추산서), 연인원(총인원), 세대주(가구주), 수순(차례), 구좌(계좌)……

㉡ 설명투 순화어 : 간식(샛 밥), 매물(팔 물건), 입구(들어오는 곳), 적조(붉은 조류), 공석(빈자리), 결로(이슬 맺힘), 계주(이어달리기), 낙과(떨어진 열매), 견학(보고 배우기) ……

㉠ 한자어 순화어에 대해서는 「2-1 대응하는 순화어가 한자어인 경우」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일본어투 어휘와 순화어 중 어느 쪽이 선호되고 있는가에 알아보았는데, 그중에는 예를 들어 「내역(30명):명세(2명)」, 「구좌(1명):계좌(31명)」처럼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속(18명):절차(11명)」처럼 양쪽이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일본어투 어휘와 한자어 순화어는 비록 현재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하여도 어떤 계기나 필요가 있게 되면 다른 한쪽의 사용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 설명투 순화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사이에 다소나마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부분 일본어투 어휘에서 사용한 한자의 뜻을 바탕으로 하여 순화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間食(샛밥), 赤潮(붉은 潮流)」[9]처럼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사이에

9) 현대어에서 '間食'의 의미는 더 이상 식사 사이에 먹는 새참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종류에 있어서도 밥보다는 과일이나 스낵류 등 다양한 것을 의미하므로 '샛밥'으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赤潮'의 경우도 조류의 색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어패류에 피해를 주는 플랑크톤의 이상증식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단순히 '붉은 조류'로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한 단어인 일본어투 용어를 두 단어 이상으로 풀어서 나타내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두 단어 이상으로 풀어서 나타내는 경우는 아무래도 한 단어로 나타내는 것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풀어진 느낌을 받게 된다. 비교를 위해 위의 용례를 이용해서 다음에 예문을 만들어 본다.

① 「간식」을 먹고 「매물」을 들고 「입구」로 들어가 「공석」에 앉아 「계주」경기를 「견학」했다.
② 「샛밥」을 먹고 「팔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가 「빈자리」에 앉아 「이어달리기」경기를 「보고 배우기」했다.

다소 무리하게 예문을 만들었지만 위의 비교를 통해서도 순화어로의 기계적인 대체가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를 순화어에서 고유어로 대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는 모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일 양국에서 이들을 분류하는 것은 단지 그 起源에 차이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많은 선행연구[10]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감이나 의미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어감의 경우는 고유어가 친근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해 한어는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공식적인 느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래어는 세련된 느낌 이질적인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종에 따라 상이한 어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고유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는 상술한 어종별 어감의 차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2.2 동사적 일본어투 용어

일본어투 어휘가 한국어에서 항상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대응하는 순화어가 한자어인 것이 25예, 대응하는 순화어가 설명투인 것이 77예 보이고 있다. 이 경우도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순화어와 설명투 순화어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설명투 순화어

10) 『語彙の研究と教育(上)』 p.141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2 国立国語研究所。

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 즉 의미의 차이 문제, 풀어쓰는 문제, 어종별 어감 차이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동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화어로의 대체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한자어 순화어는 상대적으로 순화어로의 대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한자어 순화어)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추석이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전세내서) 고향분들과 함께 귀경길에 올랐다.
그 죄수는 존속 살해죄로 사형을 (언도/ 선고) 받았다.
클럽에 (입회하려면/참여하려면) 회비를 내야 합니다.
연간 (납입금액/납부금액)의 40%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설명투 순화어)
이혼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소녀는 (가출해/ 집나감을 해) 부모와 사회에 대한 증오심만 키웠다. (집을 나가)
(조립/짜기) 장난감은 아이들 지능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앞 차를 (추월/앞지르기)하려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
화약을 (취급/다룸)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루려면)
정부가 보관하는 개인 기록을 (취소/무름)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르려면)

Ⅳ. 대응 어휘(순화어)에 대한 검토2 - 일본식 발음 어휘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 수록된 1171개의 용례 중 상술한 것처럼 한국식 발음으로 읽히는 것이 420개, 일본식 발음이나 일본식 발음이 포함된 것이 751예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이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한국어의 초등학생용 사전에 수록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한국식 발음의 경우는 47.6%의 일치율을 보이는데 대해 일본식 발음의 경우는 751개 중 단지 29개만 일치하고 있어서 겨우 3.9%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한국식 발음 어휘와는 달리 일본식 발음 어휘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식 발음 어휘 중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리라 생각되는 20개의 어휘를 선정해서 앞의 앙케이트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본어투 용어와 대응 순화어 중 적당하다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　　) 안의 말 중 보다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 전철역에서 내리면 뜨거운 (가마보코를 /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
2) 스턴트맨은 주인공의 (가에다마를 / 대역을) 맡아 위험한 장면을 대신 연기하는 사람이다.
3) 모든 개혁의 출발은 사장이라는 (가타가키를 / 직함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4) 꽁치 (간즈메를 / 통조림을) 이용해서 맛있는 국을 만들었다.
5) 옆집 할아버지는 (구루마 / 수레)를 끌고 다니며 휴지를 줍는다.
6) 저 녀석은 상급자한테 (쿠사리 / 핀찬) 듣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
7) 이번 신상품 (구치베니는 / 립스틱은) 타사 제품보다 못하다.
8) 겨울이 되면 자동차 부동액 (기리카에 / 교체)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9) 오랫동안 쓰다 보니 시계 이곳저곳에 (기스가 / 흠집이) 많이 났다.
10) 주눅이 들어 주인집 아들의 (꼬붕 / 부하) 노릇을 하는 아들이 불쌍해 보였다.
11) 여긴 우리 (나와바리가 / 구역이) 아니어서 길을 잘 모르겠다.
12) 인천에서 신촌으로 가려면 신도림에서 (노리카에를 / 환승을) 해야만 한다.
13) 학생 식당의 고기 (돈부리는 / 덮밥은) 너무 비싸다.
14) 이 집 탕수육은 (다마네기가 / 양파가) 너무 적어서 맛이 안 난다.
15) 이 집에서는 (다쿠앙을 / 단무지를) 너무나 인색하게 준다.
16) 축구를 하다 다친 사람이 (단카에 /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다.
17) 학교 앞 분식집의 (덴뿌라 / 튀김) 맛은 일품이다.
18) 어머니께서 (마호병에 / 보온병에) 유자차를 준비해 주셨다.
19) 내가 본 (만가 / 만화) 중에 최고는 중학교 시절에 본 슬램덩크이다.
20) 성공할 수 있는 (미코미가 / 가망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표 5> 앙케이트 결과

	1문	2문	3문	4문	5문	6문	7문	8문	9문	10문	
일본어투	0	0	0	0	1	6	1	0	15	8	
양형	0	0	0	0	1	0	0	0	2	1	
순화어	32	32	32	32	30	26	31	32	15	23	
순화비율	100%	100	100	100	93.4	81.3	96.9	100	46.9	71.9	
	11문	12문	13문	14문	15문	16문	17문	18문	19문	20문	전체
일본어투	2	1	6	1	0	0	3	1	0	0	
양형	0	0	1	1	0	0	0	0	0	0	
순화어	30	31	25	30	32	32	29	31	32	32	
순화비율	93.4%	96.9	78.1	93.4	100	100	90.6	96.9	100	100	92%

위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일본식으로 발음되는 일본어투 용어의 경우는 순화형이 적합하다는 비율이 약 92%에 달하고 있어서 순화형으로 대체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투 용어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6 쿠사리, 9 기스, 10 꼬붕, 13 돈부리」 정도인데, 이중 「쿠사리, 꼬붕, 돈부리」는 약 20%정도 사용에 불과하고, 「기스」만 약 50%정도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식 발음 일본어투 용어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언어정책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일본식 발음에 대한 저항감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 순화의 어려운 점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로는 일본식 발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한국식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중 전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이른바 순화어로 대체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후자는 순화어로의 대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한국식 발음 어휘에는 일본 고유어가 한자를 매개로 하여 한국식 발음으로 사용되는 것과 일본에서 조어된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고유어 기원 어휘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본어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증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록 최근에는 많은 자료가 데이스베이스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모든 한자어의 기원

을 밝히는 일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어에 일본식 한자어를 모두 망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이처럼 순화대상을 망라하는 것이 곤란한 이상 이에 대한 순화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일본식 한자어를 망라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 세 자료에서 각각 일본식 한자어로 나타내고 있는 어휘들을 추출하고 각 자료의 한자어들이 어느 정도 공통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자료①「明治書院『漢字百科大事典』和製漢語古代・近代」
자료②「이한섭『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자료③「국립국어원『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생어나 복합어의 구성요소가 일본식 한자어인 경우도 조사 하였는데, 파생어나 복합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파생어나 복합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을 모두 사전의 표제어로 수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표제어

한국어에 보이는 일본식 한자어는 일본에서 조어된 소위 和製漢語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략적이나마 일본 和製漢語의 전모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료①을 보면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和製漢語 636개와 근대 즉 明治시대 이후 만들어진 것은 534개가 수록되어 있다. 단 이들 어휘가 모두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선별할 필요는 있다. 소론에서는 필자의 주관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된다 생각되는 어휘들을 판단하였으므로 조사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인 경향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고대 和製漢語　수 636개 :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것 213개 (33.5%)
근대 和製漢語　수 534개 :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것 454개 (85.0%)
전체 和製漢語　수 1170개 :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것 667개 (57.0%)

한편 자료②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어투 어휘는 모두 3634단어이고, 이중 한국어발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3287단어(90.45%), 일본어 발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338단어(9.30%), 그리고 혼종어 및 기타가 9단어(0.2%)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 발음 어휘 중에는 다른 어종과 비교해 한자어가 2967단어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한국식 발음 한자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和製漢語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漢字百科大事典』에 수록된 한국에서 사용되는 和製漢語를 비교해 보았다. 이들 두 자료의 한자어를 비교하기 전에는 『漢字百科大事典』의 和製漢語 중 상식적으로 판단해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들은 당연히 자료②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리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본 결과는 예상과는 상당히 상이한 모습이 보였다. 즉 두 자료에 중복되는 것은 모두 346개에 불과해 일본 和製漢語의 51.9%만이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에 수록되어 있어서 결국 거의 절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漢字百科大事典』의 한국에서 사용되는 和製漢語 667개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의 일본식 한자어 2967개
두 자료에서 중복되는 한자어 346개 (중복율 51.9%)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다시 말하면 일본식 한자어를 선별하고 망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본식 한자어 추출의 어려움에 대해 위의 자료②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많은 수의 일본어 어휘가 사용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말로 순화되었습니다. …… 한자어는 거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추측건대 일본어 유래 한자어는 수천 단어를 넘을 것이며 전문용어까지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단어가 일본어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또한 『漢字百科大事典』에도 역시 和製漢語 인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上代から近世までの和製漢語を一覧できるように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これですべてではないため、今後も完全を期すべく努めたい。一方、ここに挙げた語が今後の研究により漢語と認定される場合もありうること断っておきたい[11]。

한편 자료③『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는 324개의 일본의 한자어가 실려 있고 이중 한국식 발음으로 읽혀지는 일본식 한자어는 <표 2>에서 나타낸 것처럼 231예가 보인다. 일본식 한자어의 수치가 자료②『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의 일본식 한자어가 2967예인 것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보이는 것은 1995년 8월 자료집[12]의 일러두기[13]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말로 굳어졌다고 판단되는 것을 수록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자료③『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을 자료①『漢字百科大事典』과 비교해 보면 양쪽에 중복되는 것은 231예 중 다음에 나타내는 18예에 불과해 단지 약 7.8%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 延着, 加筆, 忌中, 給使, 細工, 食傷, 世帯, 談合, 盗難, 納得, 亂調, 運轉手, 公示, 購讀, 三面記事, 車掌,止揚, 旋盤

이상 ①, ② 자료의 지적과 세 자료의 비교 결과,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선별하고 또한 모두를 망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일본식 한자어의 전모에 대한 규명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현실상 대단히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일본 기원이 분명한 것만을 대상으로 순화를 적용하는 방식, 혹은 일본 고유어 기원 한자어만 순화의 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합리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11)『漢字百科大事典』明治書院。p.965.
12)「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자료」1995년 8월 문화체육부 고시.
13) * 거의 우리말로 굳어졌으나 아직 고유어나 우리식 한자어로 바꿔 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은 포함함.
* 이미 우리말로 굳어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이는 일본식 한자어 등은 제외함.

2. 비표제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에는 위에서 조사한 표제어로 나타나는 단순어 뿐 아니라 일본 기원 한자형태소가 포함된 파생어와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복합어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송민(2004)[14]은 대역자료인『獨習日語正則』(정운복 1907)을 조사하여 여기에 다음과 같은 '파생어 복합어의 형태로 국어에 수용된 일본어식 신생어' 즉 일본식 한자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1) 파생어 – 접두어 7개 (假 金 未 不 小 新 中)
용례 : 假事務所, 金時計, 不動産, 小學校, 新宗教
접미어 82개 (家 官 科 教 國 局 物 部 所 業 者 制 品 學 會 ……)
용례 : 愛煙家 音樂家, 營業 農業 家業, 國際法 擬人法 歸納法 ……
2) 복합어 –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복합어
용례 : 價格表記, 高等學校, 國定教科書, 生存競爭, 言文一致……

파생어의 경우에 위의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식 한자형태소는 조어활동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복합어에서는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도 활발하게 복합어를 구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이들 파생어 복합어는 비교적 쉽게 이해되고 널리 사용되는 어휘지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첫째는 그 구성요소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14)「漢字와 國語政策의 近代化」『漢字教育과 漢字政策에 대한 연구』pp 185-190. 도서출판 역락. 2004.

Ⅵ. 맺음말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우선 해결해야만 하겠다. 첫째는 현재 어떤 일본어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전모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본어투 용어에 대한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어투 용어를 일본어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 뿐 아니라 한국어의 관점에서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소론에서는 이를 위해 일본어투 용어를 한국식발음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본식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류했는데,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일본식 발음 어휘의 경우는 대부분 다른 어휘로 대체되었다. 한편 한국식 발음 어휘의 경우는 일본어에서 고유어에 속한 것이든 한자어에 속한 것이든 한국어에서는 구별이 보이지 않고 모두 한자어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중국 기원의 한자어와 동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 다른 한자어로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에는 더욱 다른 어휘로 대체가 쉽지 않았다. 또한 순화과정에서 다른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의 설명투 대체 방식은 다소 무리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로의 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어투 용어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작업이 대단히 곤란하다. 일본식 발음 어휘나 혹은 일본고유어 기원 한자어의 경우는 비교적 그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위 和製漢語 즉 일본에서 조립된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하는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는 앞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 전래 어휘에 대해서는 일본식 발음 어휘와 한국식 발음 어휘로 나누어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국어 어휘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일본 기원임을 알 수 있는 일본 고유어 기원 한자어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본 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한다. 이들 어휘의 사용여부는 인위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参考文献＞

송민(1979)「언어의 접촉과 간섭유형에 대하여」성심여대논문집 10. pp.49-53.
___(2004)「漢字와 國語政策의 近代化」『漢字教育과 漢字政策에 대한 연구』pp.185-190. 도서출판 역락.
이한섭(1993)「現代韓国語における日本製漢語」『日本語学　特集テーマ別ファイル５　漢字・漢語』明治書院 pp.57-60.
황광길(2017)「일본어투 용어순화에 대하여」일어일문학연구 제100집 1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85-104.
_____(2010)「일본어에서 한자의 기능」『日本學研究』제30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70-80.
『語彙の研究と教育(上)』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2　国立国語研究所. p.141

・자료
박용찬(2005)『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pp.1-221
『漢字百科大事典』明治書院 (1996) pp.1-1730
『초등 새국어사전』동아출판사 (2017) pp.1-1300

▣ 접 수 일 :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 : 2017년 6월 15일
게재확정 : 2017년 6월 23일

<要旨>

日本式語彙の純化について

黄光吉

韓国で使われている日本式の語彙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その前に次の二つの問題につい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一、日本式の語彙といっても、そのなかには相異なるタイプのものが含まれているので、それらを区別して扱う必要がある。韓国語の立場から日本式の語彙を分類すると、韓国の発音で読まれるものもあれば、日本の発音で使われているものもある。後者の場合はすでに95%以上も他の韓国語に代替されていて、いわゆる純化が順調に行われているが、前者の場合は日本式の語彙が活発に使われているだけでなく、いわゆる純化において多かれ少なかれ多少の無理が現れるケースが多い。特に、韓国の発音で使われる漢語の場合は不自然な純化語と対応している例も目立っている。

第二、日本式の語彙の純化という政策を実行するためには、日本式の語彙の全貌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日本式の語彙の純化という方針の妥当性を別にしても、そのためにはすべての日本式の語彙を網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ながら、日本の発音で使われているものや日本固有語に由来する漢語のように、その起源がはっきりしているものもあるが、その起源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難しい言葉も少なくない。今回の調査での日本の和製漢語と韓国の辞典で日本式の漢語と認めているものとの一致律が50%に留まっていることからも、日本式の漢語の認定の困難さが窺える。

韓国で使われている日本式の語彙に対して、韓国発音のものと日本発音のものに分け、前者に対しては、包容的な態度をとるが韓国語の語彙を豊富にする一つの方法であると思われる。また、韓国発音のものの中で、日本固有語に由来する漢語の場合も、それが日本起源であるという理由だけから排斥されるのは妥当ではないと思われる。これら語彙の使用においては、人為的な決定ではなく、言語市場での競争や言語運用の効率性によって決まるのが望ましいと思うのである。

<Abstract>

The Refinement of sino-Korean words

Hwang, Kwang-Gil

We should solve two problems to control Japanese style words used in Korea. First, we have to know what kind of Japanese style words are using in Korea. Second, we also have to know the thought of Korean about Japanese style words. In other words, many Korean accept some kind of Japanese words as a Chinese characters and other ones as a Japanese characters. we usually say the former with Japanese pronunciation, and the later with Korean's pronunciation.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Japanese pronunciation words and Korean pronunciation words. Over 95% of Japanese pronunciation words, we already use Korean words instead of Japanese style words. But in case of Korean pronunciation words, we are still using many Japanese style words

Because we can not figure out all of Japanese style words used in Korea, so it is difficult to replace all of Japanese style words to refined Korean words. and even though we can replace Japanese words to Korean words, it is not suitable to replace mechanically. I think it is better to place language market than artificial change.

日本研究所 規程

第 1 章 總則

第 1 條 (명칭) : 本 研究所는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이하 本 研究所라 한다)라 칭한다.

第 2 條 (목적) : 本 研究所는 日本의 言語, 文學, 文化, 歷史, 政治, 經濟 등 人文·社會科學에 관한 종합적인 研究를 통해 韓國에서의 日本研究의 發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 條 (위치) : 本 研究所는 韓國外國語大學校 內에 둔다.

第 4 條 (사업) : 本 研究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발표
2.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3. 연구논문집 발간
4. 연구자료의 수집 및 발간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관련분야의 학술교류

第 2 章 組織

第 5 條 (구성) : 本 研究所는 研究所長 1명, 運營委員 7명 이내, 責任研究員 1명 및 研究委員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諮問委員과 客員教授, 招聘研究員 및 研究補助員을 둘 수 있다.

第 6 條 (소장) : 1) 研究所長은 本 大學校 專任教員 중에서 總長이 任命한다.

2) 研究所長은 本 研究所를 대표하고 제반사업을 통괄한다.

3) 研究所長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研究所長의 부재시는 運營委員 중에서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

할 수 있다.

第 7 條 (임원) : 1) 運營委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硏究所長이 임명한다.
2) 運營委員은 本 規程 第4條의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硏究委員은 本校 專任敎員 중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責任硏究員은 硏究所長을 보좌하고, 硏究所長의 지시를 받아 각 분담 업무를 처리한다.

第 8 條 (고문) : 本 硏究所에는 약간명의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運營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硏究所長이 委囑하며, 本 硏究所의 諮問에 응한다.

第 3 章 運營委員會

第 9 條(운영위원회) : 本 硏究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運營委員會(이하 本 委員會라고 한다)를 둔다.

第 10 條(위원) : 本 委員會의 위원의 수는 8명 이내로 하고 委員長은 硏究所長이 된다.

第 11 條(임무) : 本 委員會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硏究計劃에 관한 사항
2) 財政에 관한 사항
3) 規程의 改廢에 관한 사항
4) 기타 本 硏究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第 12 條(의결) : 本 委員會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4 章 編輯委員會

第 13 條(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硏究所長이 임명한다.

2) 책임연구원은 편집간사를 겸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의논한 후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第 14 條(자격) : 1) 편집위원장은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과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여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第 15 條(임무)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서 학술지 최종 교정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논, 결정한다.

第 5 章 財政

第 16 條(재정) : 本 硏究所의 재정은 本 大學校로부터 지급받는 補助金과 국내외의 贊助金 및 기타의 收入金으로 충당한다.

第 17 條(회계) : 本 硏究所의 회계는 本 大學校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第 18 條(해산) : 1) 本 硏究所의 해산은 運營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總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本 硏究所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本 大學校에 귀속한다.

附則

1. (세칙) 本 規程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總長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2. (시행) 本 規程은 1990年 9月 1日부터 시행한다.
3. (시행) 本 規程은 1993年 3月 9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 本 規程은 1997年 3月 2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시행) 本 規程은 2003年 3月 2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시행) 本 規程은 2014年 8月 13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日本研究』編輯委員會 規定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의 기관지『日本研究』(Journal of Japanese Studies)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자격

편집위원장은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과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여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임무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서 학술지 최종 교정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논, 결정한다.

6. 투고 논문의 접수

(1) 투고 논문의 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간사가 총괄한다.

(2) 편집간사는 투고 요령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심사위원의 위촉

(1)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서로 상의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 한 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을 선정할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8. 논문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심사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승낙을 얻은 후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에게는 온라인(JAMS2.0)을 통해 심사 논문을 배정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 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 심사 내용을 온라인(JAMS2.0)상에 입력한다.

9.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며, 논문 심사는 온라인(JAMS2.0)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 기간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로 한다.
(3)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에 대한 조회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간사를 통해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10. 논문심사 기준

(1) 일본학, 일본문학,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기타 일본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연구방법에 따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의 형식은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11. 논문 평가의 등급

〈최종 평가 점수의 평균〉

A : 90점 이상 : 원문 게재가
B : 80-89점 : 수정 확인 후 게재

C : 70-79점 : 수정 후 재투고
D : 70점 미만 : 게재 불가

12. 심사 결과의 처리

편집위원회는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의논, 처리한다.

13.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점
논지의 논리적 전개	20점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20점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	20점
선행연구의 이해와 인용도	10점
투고 규정의 준수	10점
합계	100점

14. 게재 여부의 결정과 통지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간사는 심사 결과를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15. 기타

(1)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문의는 편집간사를 통해 처리한다.
(3)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
(4) 투고된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규정에 따라 이를 명기하여야 하고, 일반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6.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日本研究』論文投稿規定

『日本研究』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정기 학술지로서 일본에 관한 어문학 및 문화전반에 걸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1년에 4회(매년 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발행한다. 논문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원고 또는 게재될 계획이 없는 원고를 선정하여 게재한다.

(1) 제출원고
  1) 최초 투고시에는 훈글(97이상)으로 원고파일을 JAMS2.0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2) 게재결정통보를 받으면, JAMS2.0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원고 파일을 제출한다.

(2) 마감일자 : 매년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까지 제출한다.

(3) 발행일자 :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4) 제 출 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JAMS2.0 홈페이지
(https://hufsjapan.jams.or.kr/)

Ⅰ. 논문 투고요령

1. 일반사항

가. 게재 대상은 일본과 관련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논문이나 서평 및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한다.

나. 투고자격 : 전, 현직 대학 교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 편집용지

호글의 메뉴 '모양'의 '편집용지(F7)'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한다.

· 용지 : A4, 용지방향 : 좁게.

· 여백 : 위쪽60, 아래쪽60, 왼쪽50, 오른쪽50, 머리말10, 꼬리말0, 제본0.

라. 원고분량 : 위의 규격으로 작성된 A4용지 17매~30매 이내(요지포함).

마. 외래어 표기 : 문화체육부 고시 제 1995-6호(1995.3.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요지 : 요지는 영문을 기본으로 하여 본문이 한글일 경우 일본어, 본문이 일본어 또는 영어일 경우 한글 초록을 병기한다. 각 요지의 분량은 위의 규격으로 작성된 A4 각 1매 내로 제한한다. 요지문에도 해당 요지 언어로 성명을 기입한다.

사. 게재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아.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하되 메일을 통해서 한다.

자. 게재가 결정된 필자에게는 본 연구지 2부와 별쇄본 20부를 증정한다.

차.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그 일부의 경우에는 참고문헌 아래에 이를 명기한다.

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2. 논문작성 요령

가. 논문제목 및 저자명

① 국문－글꼴: 신명조, 크기:14, 글자 속성: 진하게, 장평:100, 자간:0
줄 간격:140, 정렬 방식: 가운데.

②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같음.

③ 영문- 글꼴: 신명조, 기타 국문과 같음

※ 논문제목이 길 경우에는 글꼴을 장평:95 또는 90, 자간:－8로 한다.

④ 저자명－글꼴: 신명조, 크기:11, 글자 속성: 보통모양, 장평:100, 자간:0
줄 간격: 140, 정렬 방식: 오른쪽

※ 제목과 저자명 사이는 두 줄 띄고, 저자명은 한 칸씩 띄어 쓴다.

⑤ 저자명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학교, 학과, 직위, 전공분야를 각주로 기입한다. 각주번호 '1)'은 블록을 씌워 '글자모양'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하여 감추고, 본문에서 각주가 시작될 때는 '모양'의 '새 번호로 시작'에서 각주번호를 '1'로 한다.

⑥ 2인 이상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주저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하며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간주한다.

나. 목차 및 키워드

〔표 만들기〕 '표'메뉴의 '표만들기(^NT)'에서 '줄 2', '칸 1' 로 하여 표가 만들어지면 표의 두 번째 줄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셀나누기'에서

2칸으로 '나누기'한다. 가운데 선을 감추기 위하여 커서를 표 안에 넣고 오른쪽 마우스로 '선모양'을 선택한 다음 가운데 선을 '선종류'에서 '투명'으로 설정한다.

① 〈 목 차 〉 또는 〈 目 次 〉: 첫째 줄에 입력(한 자씩 띄우기).

· 글꼴: 신명조(한글), 신명조약자(한자),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가운데.

② 목차내용 : 두 셀로 나누어서 내용을 배분한다.

③ 셀모양 : 메뉴 '모양'에서 '문단모양(Alt+T)'을 클릭하여 '가운데로'를 해제한 후 '양쪽혼합'을 선택한다.

· 글꼴: 신명조,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왼쪽(왼쪽 여백 2)

※ 표 넓이는 내용에 따라 8~10㎝로 하며, 표 길이는 'F5'클릭한 후 컨트롤키(Ctrl)+방향키로 조절한다.

④ 키워드: 논문의 키워드를 5개 선정하여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일본어와 영어로, 일본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글꼴: 중고딕, 크기: 9,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40)

※ 일문은 신명조약자로 한다.

다. 본문

· 논문을 소제목으로 구분할 경우, 〈목차〉로 정리하여 논문제목 다음에 넣는다. 본문의 장은 Ⅰ, Ⅱ, Ⅲ, Ⅳ…, 절은 1, 2, 3, 4, …, 항은 1), 2), 3), 4) …의 순으로 배열한다.

· 글의 구성형태는 서론-결론 혹은 머리말-맺음말로 한다.

· 논문의 내용 가운데 활자 조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진이나 도표 등은 그대로 인쇄 가능하도록 전사용지나 백색모조지에 정밀하게 작성하여 첨부한다.

· 모든 연대나 숫자는 서기·算用數字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키워드 또는 본문과 본문의 큰 제목사이는 위 2줄, 아래 1줄을 띄우고, 큰 제목과 작은 제목 사이는 1줄을 띄운다. 본문과 작은 제목 사이는 띄우지 않으며, 본문의 첫째 줄과 작은 제목은 메뉴 '문단모양'에서 2칸 들여 쓰기 한다.

① 국문-글꼴: 신명조,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들여쓰기 2.

②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이외 국문과 같음.

③ 영문-글꼴: 신명조, 이외 국문과 같음

④ 큰 제목-글꼴: 신명조, 크기: 12,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가운데

⑤ 작은 제목-글꼴: 신명조, 크기: 11,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왼쪽

※ 일문의 경우 글꼴만 신명조약자로 바뀌고 나머지는 국문과 동일함.

⑥ 인용-원문의 인용은 행을 새로이 하여 상하를 한 칸 띄운 후, '문단설정'에서 들여쓰기 왼쪽여백5, 크기 9, 이외 본문과 동일함.

라. 각주

·메뉴의 '입력'에서 '주석'을 클릭하여 각주를 선택한다.

① 국문-글꼴: 신명조, 크기: 8.5,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②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이외 국문과 같음.

③ 영문- 글꼴: 신명조, 이외 국문과 같음

※ 자세한 각주작성 요령은 별도항목 참조

마. 요지

① 독립된 페이지로 작성한다.

② 첫째 줄 왼쪽 끝에 〈Abstract〉를 기입한다.

③ 요지내용 :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④ 요지서식

· 글꼴: 신명 신명조, 크기: 9(제목은 10),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⑤ 사용언어 : 요지는 영문 작성은 필수로 하고, 본문이 한글인 경우 일문 요지를, 일문인 경우 한글 요지를 작성한다.

Ⅱ.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국내문헌, 일본문헌, 중국문헌

① 단행본인 경우

〈예〉 近藤泰弘(1997)『日本語文法体系と方法』ひつじ書房 p.123

② 학술논문인 경우(학위논문 포함)

〈예〉 加藤泰彦(1988)「否定の作用域と文法表示」『上智大学外国語学部紀要』第23 p.130

③ 앞에 나온 책과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1〉 앞에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국내문헌 : 김용운 앞의 책 p.34

일본 및 중국문헌 : 青木保 前揭書 pp.21-53

〈예2〉 바로 위에서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

국내문헌 : 같은 책 pp.34-56

일본 및 중국문헌 : 上揭書 pp.34-56

④ 번역된 책을 인용할 경우

〈예〉 中根千枝『タテ社会の人間関係』(李光圭訳 『日本社会의 性格』 一志社 1979) p.34

⑤ 단행본이나 논문 전체를 참고한 경우 전체 페이지를 기입한다.

〈예〉 小山清文·袴田光康(2009)『源氏物語の新研究―宇治十帖を考える』新典社 pp.7-397

2. 영어권 문헌

① 단행본인 경우

〈예〉 Klaiman, M.H.1991. *The Grammatical vo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2-64

② 학술논문인 경우

〈예〉 Jacobsen, W.M.1992. *The transitive structure of event in Japanese.* Studies in Japanese Linguistics 1, Kurushio, pp.52-64

③ 앞에 나온 책과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1〉 앞에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 Michiko Hasekawa, op. cit. p.34.

〈예2〉 바로 위에서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 Ibid. p.34

④ 단행본이나 논문 전체를 참고한 경우 전체 페이지를 기입한다.

〈예〉 Susan, J.N.1996. *The Fantastic in Modern Japanese Literature: The Subversion of Modernity*, Routledge, pp.1-272

3. 인터넷 자료인용

①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김철수 2001년 '일본의 종교적 특색'
http://www.dasom.com/religion/japan/shiontoh.htm/kk0101.html(검색일:2001.12.15)

②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1〉 정수웅 2002년 '일본역사교과서 바로잡기'
http://www.freechal.com/histextbook/kk0101.html(검색일: 2002.12.15)

『일본연구』 연구윤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학술지『일본연구』의 발간에 있어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과 시행의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

(1) 연구자는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하고, 표절, 중복게재, 이중출판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 및 참고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로부터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에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5.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

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7) 인문사회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6. 윤리위원회

(1) 구성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역할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제재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징계 절차 및 사후관리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 기타

연구윤리규정의 개정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연규윤리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연규윤리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우수논문상 규정

제1조(목적)

1961년 출범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는 보다 체계적인 일본연구를 기치로 삼아 1985년 '일본문화연구회'를 발족시키고 논문집 『일본문화연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문화연구회'는 '일본문화연구소'(1990), '일본연구소'(1993, 이하 본 연구소라 함)로 탈바꿈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논문집 『일본문화연구』는 본 연구소 출범과 함께 『일본연구』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연간 4회 발행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일본 연구자들에게 활발한 발표의 장을 제공하며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본연구의 메카를 꿈꾸며 달려온 본 연구소는 '일본문화연구회'의 발족 및 『일본연구』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연구소의 기관지 『일본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탁월한 학문적 식견과 창의성을 지닌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제2조(명칭)

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우수논문상'(이하 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3조(대상자)

대상자는 당해년도 본 연구소의 기관지 『일본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박사학위 과정생 및 수료생,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연구자로 한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우수논문상 선정 위원회는 『일본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일본학, 일본어학, 일본문학의 각 분야별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및 선정)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매년 3,6,9,12월에 발행된 『일본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심사의견서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일본학, 일본어학, 일본문학의 각 분야에서 5편의 수상후보논문을 선별한 후, 분야별로 각 1편을 최종 수상논문으로 선정한다.

제7조(선정 결과의 공표)

우수논문상의 선정결과는 다음 해 3월에 발간되는 본 연구소의 기관지 『일본연구』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1) 선정경과

(2) 수상자명과 수상 논문명

(3) 수상 이유

(4) 기타

제8조(시상)

우수논문상의 시상은 당해년도 2월에 열리는 일본연구소 편집·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에 개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3월호에 게시한다.

2.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논문 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투고 논문이 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주저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수상 논문이 이후 연구소 윤리규정을 위반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4. 본 우수논문상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組織

所　　長 ：朴容九 教授
運營委員 ：崔在喆 教授　崔忠熙 教授　金鍾德 教授
　　文明載 教授　鄭相哲 教授　權景愛 教授
　　李相薰 教授

研究委員

語 文 分 科：	筒井照博 教授 (日本語教育)	照山法元 教授 (日本語教育)
	金鍾德 教授 (日本古典文學)	文明載 教授 (日本古典文學)
	崔忠熙 教授 (日本古典文學)	徐載坤 教授 (日本近代文學)
	崔在喆 教授 (日本近代文學)	權景愛 教授 (日本語學)
	朴敏瑛 教授 (日本語學)	鄭相哲 教授 (日本語學)
	金東奎 教授 (日本語學)	
政 經 分 科：	金春植 教授 (日本言論)	李相薰 教授 (現代日本政治)
	李昌玟 教授 (日本經濟)	
歷史·文化分科：	朴容九 教授 (日本文化論)	小澤康則 教授 (日本社會學)
責任研究員：	梁益模 (日本近世史)	
學術研究教授：	吳聖淑 (日本近現代文学)	
招聘研究員：	姜景完 (日本語學)	高恩淑 (日本語學)
	金勁和 (日本近代文學)	金炳淑 (日本古典文學)
	琴榮辰 (日本近世文學)	金京玉 (日本文化)
	魯炳浩 (人間環境學)	裵慶娥 (日本古典文學)
	孫京鎬 (日本語學)	孫範基 (日本語学)
	沈終淑 (日本近代文學)	吳鉉洙 (日本近代文學)
	尹勝玟 (日本古典文學)	李慶實 (日本語學)
	李珩珠 (日本古典文學)	張希朱 (日本語學)
	全紫蓮 (日本語學)	鄭仁英 (日本現代文學)
	崔瑞暎 (日本語學)	崔聖坤 (日本語學)
	許光茂 (日本經濟學)	洪聖牧 (日本古典文學)
	洪榮珠 (日本語學)	

編輯委員

日本文學 : 盧 仙 淑 (釜 山 大)　文 明 載 (韓國外大)
徐 載 坤 (韓國外大)　申 智 淑 (啓 明 大)
鄭 順 粉 (培 材 大)　菅原克也 (東 京 大)
Wada-Marciano, Mitsuyo(Canada Carleton Univ)

日本語學 : 權 景 愛 (韓國外大)　尹 相 實 (明 知 大)
鄭 相 美 (新 羅 大)　鄭 相 哲 (韓國外大)
鄭 夏 俊 (湖 南 大)　崔 英 淑 (忠 南 大)
宮崎和人 (岡 山 大)　蒲 谷 宏 (早稲田大)

日 本 學 : 金 炫 成 (中 京 大)　朴 盛 彬 (亞 洲 大)
朴 晋 雨 (淑明女大)　李 相 薰 (韓國外大)
李 利 範 (江倭原州大)　李 昌 玟 (韓國外大)
張 寅 性 (서 울 大)　纐 纈 厚 (山 口 大)

日 本 硏 究

第72號

2017年 06月 20日 印刷
2017年 06月 30日 發行

發行處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硏究所
(우) 130-791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里門路 107
電話 : (02)2173-3935
Homepage : http://www.hufsjapan.com
E-mail : hufsiojs@empas.com
發行人 所長 朴 容 九

印 刷 제이앤씨출판사 (02) 992-3253(代)
Homepage : http://www.jncbms.co.kr
E-mail : jncbook@hanmail.net